발간등록번호
79-6500450-000019-10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Ⅳ 안덕면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Ⅳ

| 안덕면 편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발간사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는 민속 문화의 보고인 제주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 민속품, 옛 도구를 조사·연구하고 박물관의 전시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도내 전 지역을 답사하여 민속품을 발굴하고 조사·연구하여 민속·문화 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학술·교육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기 위한 네 번째 작업으로 금번『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안덕면 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서로 다른 형태와 명칭을 가지고 있고 집집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때문에 안덕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다양하고 알찬내용을 담고 있고 민속품 조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소중한 발걸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덕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이 총서는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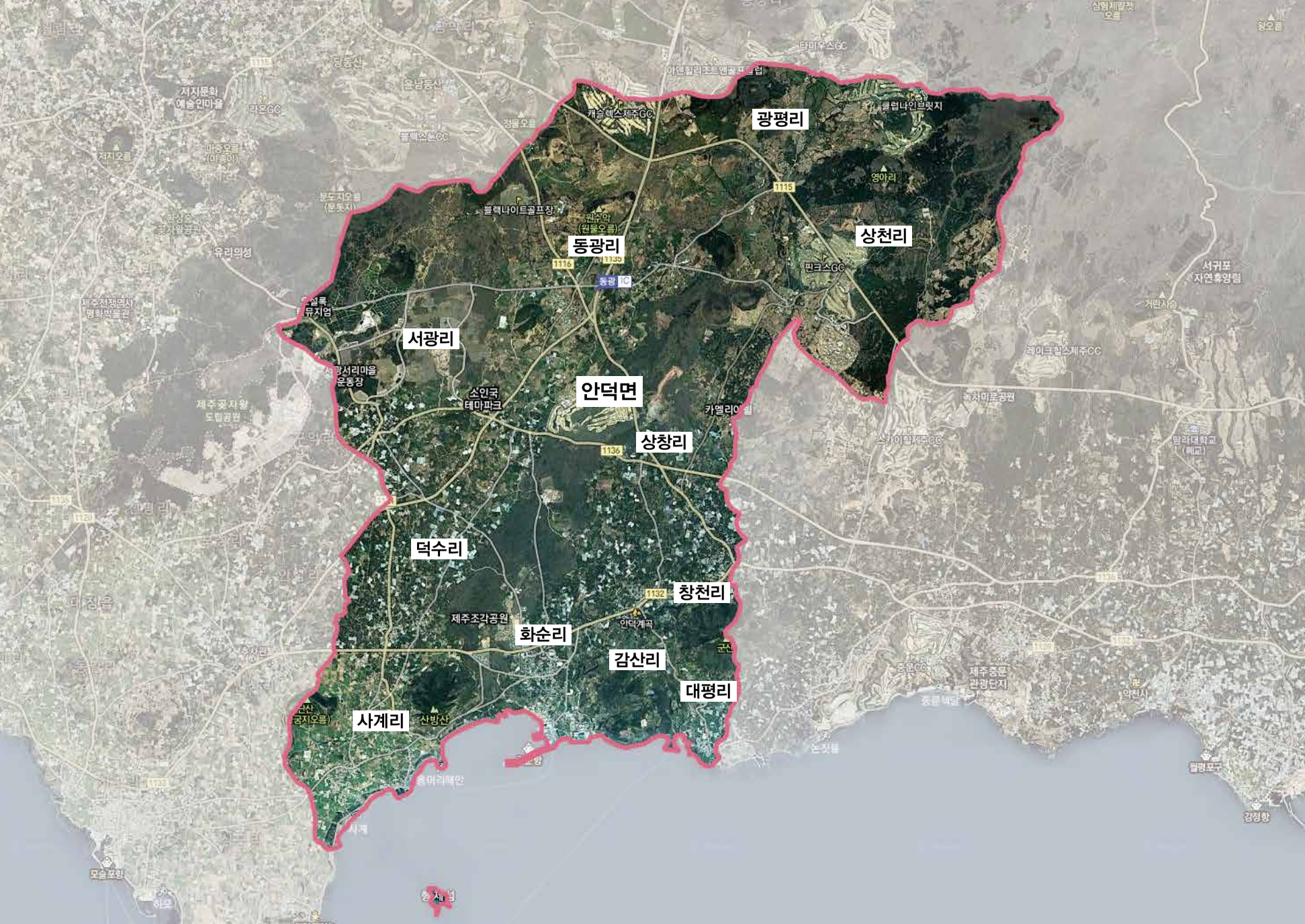
아무쪼록 이 조사 연구 보고서가 제주의 고유한 민속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제주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하나의 주춧돌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안덕 지역 주민들과, 이 조사 연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김순자 선생님, 김보향 선생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 영 환**




광평리
상천리
동광리
서광리
안덕면
상창리
덕수리
창천리
화순리
감산리
대평리
사계리
캐슬렉스제주GC
클럽나인브릿지
영아리
블랙나이트골프장
원수악
(권불오름)
핀크스GC
동광 IC
1115
1116
1135
1136
1132
소인국
테마파크
제주조각공원
안덕계곡
산방산
송악산
서귀포
자연휴양림
레이크힐스제주CC
스카이힐제주CC
제주중문
관광단지
중문색달
화순금모래
해수욕장
사계
용머리해안
모슬포항
강정항
월평포구

차례

Ⅰ 조사 개요 ····· 9

1. 조사 개요 ····· 10
2. 조사단 구성 ····· 11
3. 조사 범위와 정리 방법 ····· 12
4. 조사 마을 개관 ····· 15

Ⅱ 조사 내용 ····· 21

1. 의생활 ····· 22
   1.1. 바느질 도구 ····· 22
   1.2. 손질 도구 ····· 33
   1.3. 세탁 도구 ····· 36
   1.4. 옷감과 의복 ····· 39
   1.5. 수의와 상복 ····· 47

2. 식생활 ····· 58
   2.1. 그릇 ····· 59
   2.2. 조리 도구 ····· 87
   2.3. 저장과 운반 ····· 110
   2.4. 제사 관련 ····· 129

3. 주생활 ····· 138
   3.1. 가재도구 ····· 138
   3.2. 난방 도구 ····· 147
   3.3. 연장류 ····· 151
   3.4. 집줄 관련 ····· 163

3.5. 불미 공예 관련 …… 164
3.6. 기타 …… 180

4. 농업 관련 …… 191
4.1. 파종 관련 …… 191
4.2. 김매기와 수확 관련 …… 201
4.3. 건조와 손질 관련 …… 208
4.4. 운반 도구 …… 225
4.5. 계량 도구 …… 230
4.6. 저장 도구 …… 234

5. 어업 관련 …… 238
5.1. 물옷 …… 238
5.2. 테왁과 망사리 …… 241
5.3. 채취 도구 …… 248

6. 축산 관련 …… 254
6.1. 쉐막과 고삐류 …… 254
6.2. 호미와 신돌 …… 259

7. 신당 …… 262

Ⅲ 마무리 …… 271

✻ 부록 …… 277

덕수리 주민의 삶과 도구 / 대평리 해녀의 물질 도구






I

조사 개요



Ⅰ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관광개발로 급격히 인멸·훼손되어 가는 제주 고유의 민속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조사 네 번째 지역은 안덕면 지역의 민속 현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제주 전통문화와 민속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 방안 모색, 그리고 지역의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박물관의 전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후세대들에게 제주의 전통민속문화를 전승시키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이다.

○ 조사명: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안덕면 편

○ 조사지: 안덕면 6개 법정리(창천리, 화순리, 사계리, 대평리, 덕수리, 동광리)
※ 10개년 사업으로 도내 전 지역 전수 조사 – 2013년(애월), 2014년(조천), 2015년(구좌), 2016년(안덕), 2017년(한경), 2018년(한림), 2019년(대정), 2020년(남원), 2021년(표선), 2022년(성산)

○ 조사 기간: 2016년 3월 14일~2016년 10월 31일
– 예비 조사: 2016년 3월 14일~3월 31일

– 1차 현지 조사: 2016년 5월 1일~7월 15일
– 2차 현지 조사: 2016년 7월 25일~9월 30일
– 보충 조사: 2016년 10월 1일~11월 30일

○ 조사 내용
– 창천리: 농업, 의식주 도구(김순자, 김보향)
– 화순리: 해녀, 농업, 어업, 의식주 도구(김순자, 김보향)
– 사계리: 해녀, 농업, 어업, 의식주 도구(김순자, 김보향)
– 대평리: 농업, 어업, 의식주 도구(김순자, 김보향)
– 덕수리: 농업, 의식주 도구, 불미(김순자, 김보향)
– 동광리: 농업, 의식주 도구, 축산업(김순자, 김보향)
– 조사 마을 개관, 창천리·화순리·사계리·대평리·덕수리·동광리 신당(고범석)

○ 조사 방법: 선행 연구 검토, 문헌 조사, 현지 조사 등

2.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양영환(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 조 사 책 임: 부용식(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연구팀장)

○ 조　사　원: 고범석(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외부조사원: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3. 조사 범위와 정리 방법

이 조사는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 주민들이 사용했던 생활 도구를 조사하여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안덕면 지역 12개 마을 가운데 6개 마을을 선별하여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어업, 축산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관련 도구를 조사하여 사진 자료와 함께 도구를 해설하여 정리하였다.

3.1. 조사 대상지

서귀포시 안덕면은 12개의 행정마을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동광리, 덕수리, 창천리, 대평리, 화순리, 사계리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하였다. 동광리, 덕수리, 창천리는 중산간 마을이고, 대평리, 화순리, 사계리는 해안 마을이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는 의식주 관련 도구는 물론이고 전래적인 농업과 축산업, 어업 관련 도구를 골고루 조사할 수 있었다. 축산 관련 어휘는 소를 키울 때 사용하는 고삐류를 중심으로, 어업 관련 어휘는 잠녀들의 물질 도구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3.2. 조사 범위와 제보자

조사 범위는 안덕면 12개 마을 가운데 6개 마을에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어업, 축산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관련 도구를 조사, 정리하였다. 조사 내용 가운데는 덕수리 양기옥 씨(1938년생)의 생활 도구 관련 구술 자료와 대평리 임중자(1942년), 오연수(1955년) 씨의 잠녀 도구에 대한 구술 자료도 실었다. 안덕면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서 사용했던 도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제주도무형문화재 제7호 덕수리의 '불미공예' 관련 도구도 조사하였다. 6개 마을의 신당도 조사하여 그 특징을 기술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제주 전통사회에서 사용하였던 물품과, 그 속에 깃든 우리 조상들의 삶의 숨결을 느껴보고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 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사는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현지에서 제보자들을 만나 면 대 면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조사에 응해준 제보자는 동광리 1명, 창천리 6명, 대평리 8명, 화순리 3명, 덕수리 4명, 사계리 7명 등 29명의 제보자다. 사계리, 창천리, 대평리 경로당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다.

제보자는 조사 마을 출신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활하였던 경험이 풍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을별 제보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마을별 제보자

마 을	성 명	생 년	성 별	비 고
동광리	박순희	1944	여	
창천리	강영범	1927	남	
	강영오	1944	남	
	고원매	1944	여	
	김덕순	1930	여	
	김치호	1927	여	
	진희선	1931	여	
대평리	강월출	1954	여	
	강인숙	1933	여	
	김성옥	1937	여	
	김영희	1957	여	
	박애자	1934	여	
	양성지	1932	남	
	오연수	1955	여	
	임중자	1942	여	
화순리	강창석	1929	여	
	양춘자	1928	여	
	지중연	1930	여	
덕수리	김영랑	1938	여	
	문성실	1964	남	
	양기옥	1938	여	
	윤문수	1934	남	
사계리	강ㅇㅇ	1954	여	

마 을	성 명	생 년	성 별	비 고
사계리	김희산	87세	여	
	유순옥	1933	여	
	이영수	1933	남	
	정춘자	1947	여	
	지수선	1929	여	
	천성현	1945	남	

3.3. 정리 방법

조사된 도구에 대한 정리는 의생활, 주생활, 농업 관련, 어업 관련, 축산 관련 등 7개 범주로 나눠 하였다. 의생활에서는 바느질 도구와 손질 도구, 옷감과 의복, 수의와 상복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주생활은 가재도구와 난방도구, 연장류, 집줄 관련, 불미 공예 관련 도구를, 농업 관련 도구는 파종 관련 도구, 김매기와 수확 도구, 건조와 손질 관련 도구, 운반도구, 계량도구, 저장 도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어업 관련은 잠수 관련 도구로 물옷, 테왁과 마사리, 채취 도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축산 관련 도구로는 고삐류와 호미와 신돌 등에 대해서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도구에 대한 설명은 정의, 쓰임새, 특징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려고 하였다. 도구에 대한 생생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관련 구술 채록 자료도 전사하여 표준어 대역을 함께 실었다. 현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도구의 경우는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설명 가운데는 2015년 조사 지역의 구좌읍 지역과 대비하여 명칭이 다른 경우는 그 명칭도 함께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구좌 지역에서는 '되'를 '관둬'라고 하는데, 안덕면 지역에서는 '뒷박'이라고 하고, 구좌 지역에서 '장호미' 하는 도구를 안덕면 지역에서는 '미호미'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조사 되지 않은 도구 설명은 제외하였다. 이는 안덕면 지역의 도구 명칭을 포함하여 그 특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미 공예' 관련 설명은 현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국립민속박물관의 『덕수리 민속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조사된 도구 가운데 비슷한 도구가 많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몇 가지만을 선별하여 설명하였다.

4. 조사 마을 개관

안덕면(安德面)은 서귀포시 서부에 위치하는 면으로, 안덕 계곡을 끼고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해안과 넓은 중산간 목장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10개의 법정리(화순리·창천리·감산리·상창리·사계리·덕수리·서광리·동광리·광평리·상천리)와 12개의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화순리 패총, 창천리 고인돌, 안덕 계곡 동굴집자리 유적 등으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416년(태종 16) 대정현이 설치될 때 대정현에 속했던 지역이다. 현재의 안덕면에 속한 마을은 17세기 탐라도에서 감산촌·자단촌·파천촌·금물로촌 등 4개가 확인되며, 19세기 중후반에는 10개 또는 11개 마을로 늘어났다.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대정군 중면에 속하였고, 1935년 4월부터 제주군 중면이 안덕면으로 개칭되어 제주군 안덕면이 되었다. 1938년 11월 안덕면 사무소가 감산리에서 화순리로 이전하였다. 1946년 8월 도제 실시로 남제주군 안덕면으로 개칭 되었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이 되었다.

2016년 11월 현재 총 인구는 4,757가구, 10,377명(남자 5,385명, 여자 4,992명)이다. 해안 지역의 화순리가 2,489명, 사계리가 2,301명으로 규모가 크며, 중산간 지역의 상천리는 164명, 광평리는 73명의 적은 규모를 보인다. 면적은 105.58㎢이며, 임야 52.8%, 경지 25.7%, 목장 용지 7%다. 경지 면적은 2,653ha로 대부분 밭농사로 이용되어, 대부분 감귤을 재배하고 있다. 평화로와 일주도로 등 여러 지방도가 지나 교통이 편리하다.

천연기념물 제377호인 안덕면 화순리의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제376호인 안덕면 사계리의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 천연기념물 제526호인 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 등이 있다. 문화재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4호인 안덕면 사계리의 대정향교,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21호인 산방연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7호인 안덕면 덕수리의 불미공예 등이 있다. 주변의 화순항은 양호한 자연항이며 화력발전소가 있다. 산방산(山房山)(395m)과 그 주위에 있는 화순해수욕장·소인국테마파크·오설록·제주조각공원 등의 관광지도 유명하다.

4.1. 화순리

화순리는 골물(洞水, 속칭 곤물)과 벗내(犯川; 樊川) 두 지역에서 전후하여 마을이 형성되었고, 1840년대는 이 두 지역을 통합하여 화순리로 호칭한 것으로 보인다. 골물에는 광해군 원년(1600, 己酉)에 창녕 성씨(昌寧成氏) 성은진(成恩珍)이 처음 들어왔고, 그 뒤 1690년대에 밀양 박씨(密陽朴氏) 박언일(朴彦逸)이 신촌에서 골물로 들어와 일가(一家)를 이루었다고 한다. 또 벗내는 숙종 22년(1696, 丙子)에 양수담(梁遂淡)이 처가(妻家)이던 감산리에서 현재의 화순리 퍼물 인근에 이주하여 논을 개척하며 살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도 그 살았던 터를 '양가막터'라 하고 있다. 이보다 조금 늦은(1715년, 乙未) 3월에는 본관이 충주(忠州)인 지응해(池應海)가 서동 만주왓(화순리 1854번지)에 입촌하였다. 그 후 강씨, 고씨, 이씨, 김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오늘날 화순리는 본동(本洞)과 곤물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본동은 상동(서상동과 동상동), 중동, 하동(서하동과 동하동), 가원동으로 나뉜다. 골물동은 화순리 중심마을 북쪽에 있는 동네(웃동네)다.

4.2. 사계리

금물로리는 헌종 40년(1840)에 사계리로 개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계리는 금물로리에서 덕수리와 분리되면서 남쪽으로 내려와 지금과 같은 형태의 마을 구조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계(沙溪)라는 마을 이름도 지금 이사무소 동쪽 일대를 당시에는 '사계동산'이라고 불렀다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은 "윗동네의 큰길가(上洞大路邊)" 즉, 지금의 일주도로를 따라 산방산 서쪽에서 단산 북동쪽에 이르는 지역 일대이다. 금물로리라는 마을 명칭은 바로 그 지역 일대의 속칭 '검은 질'의 이두표기(吏讀表記)를 따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사계리(沙溪里)에는 500여 년 전 ᄌᆞᆫ골(자은골) 일대에 김해 김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오늘날은 대전동(大田洞), 송죽동(松竹洞), 용해동(龍海洞) 등 세 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전동은 큰밧(大田)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데서 한자로 바꾸어

표기된 이름이고, 송죽동은 솔대왓 즉, 사장(射場)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 동네 이름이다. 용해동은 용머리(龍頭) 가까이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라는 데서 한자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다.

4.3. 덕수리

덕수리는 금물로리에서 사계리와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 8년(1784) 이후 사계와 신당으로 분리되었는데, 이때 신당은 자단리로 되었다가 순조 31년(1831)에 다시 분리되어 상동은 자단리가 되고 하동은 신당이 되었으며, 헌종 6년(1840)부터는 신당이란 호칭이 불길하다 하여 덕수리로 개명했다는 것이다. 덕수리(德修里)는 인조 3년(1625) 경에 김해 김씨(金氏), 진주 강씨(姜氏), 남평 문씨(文氏) 등이 지금의 '곶바구리'를 중심으로 고분밭 부근에서 목축 및 농경사회를 이루며 살았고, 그 뒤 점차적으로 송씨(宋氏)·양씨(梁氏)·이씨(李氏)·윤씨(尹氏)·박씨(朴氏)·고씨(高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큰가름(東洞), 덕수골(西洞)로 마을이 점점 커졌다고 한다. 또 1770년경에는 도련동(道蓮洞, 지금의 上洞)에 사람이 살면서 세 개의 자연마을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오늘날 덕수리는 동부락(東洞)과 서부락(西洞), 도련동(上洞) 등 세 개의 자연마을로 나누어져 있다.

4.4. 동광리

동광리는 지금으로부터 360여 년 전 만주동(만주골) 일대에 임씨(任氏)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된 뒤, 현종 11년(1670, 庚戌) 경에 삼밧구석(麻田洞) 지역으로 분산 이주하여 마을이 두 곳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동광리는 원래 자단리(自丹里)에 속하였으나 뒤에 광청리(光淸里), 신청리(新淸里) 등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1912년경 지역 개편 때에 동광리(東廣里)로 개칭되었다. 원래 삼밧구석은 동광리 중심 마을로, 옛날 '삼밧'이었던 데서 마전동(麻田洞)이라 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동광리 48번지 석교동 동쪽 일대는 약 170년 전 풍수사가 머물면서 이 일대의 지형 지세가 '춤을 추는 어린아이를 닮았다'라고 말한 데서 연유해 '무

동이왓' 또는 '무동동(舞童洞)'이라 했다 한다. 조숙궤동은 속칭 조숙궤통 주변에 형성되었던 마을이다. 동광리는 4·3사건으로 마을이 완전 소실되어 마을 사람들이 해변 마을로 이주함으로써 한때 마을이 폐허로 변했으나 1953년께부터 정부의 재건 정책에 힘입어 지금의 서광동리(西廣東里)에 재건본부를 두고 마을을 재건하였다. 현재 주민들은 무동동과 마전동 등에 거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4·3사건으로 인해 상동에 위치한 조수궤와 하동인 삼밧구석, 무동이왓은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오늘날 동광리는 본동(本洞)과 양잠단지 두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반별로 분리하면 본동은 1·2반, 동광단지는 3반, 취락구조는 4반, 문화마을은 5반이다. 본동은 거린오름 동쪽인 삼밧구석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다.

4.5. 창천리

창천리는 현종 15년(1674) 경에 강위빙(姜渭聘)이 처음으로 이곳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는 인조 21년(1643, 癸未)에 지금의 대정읍 상모리에 거주하던 강진(姜晋)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31세가 되는 현종 15년(1674, 甲寅) 봄에 대정현의 유향좌수(留鄕座首)로서 당시 순력(巡歷) 중인 제주목사를 맞게 된 것이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된 연유였다고 한다. 즉, 당시 제주목사가 순력 행차로 정의현과 대정현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강(姜) 좌수가 영접했는데, 목사는 마중 나온 강 좌수를 보고 그 인품됨에 비해 의복이 너무 허름한 것은 살림이 극히 어려운 데 연유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목사 일행은 창고천 머리에 이르러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때 목사가 좌수를 불러 직접 지금의 창천리 중앙로인 큰 거리 학교 앞 북측을 가리키며, "저곳에 집을 지어 살면 당대에 대정에서 제일 가는 부호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다. 이에 강위빙은 집에 돌아간 뒤 이 말을 어기지 않고 장남(長男)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슬하를 떠나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이곳에 이주하여 땅을 일구었다 한다. 그 뒤 정의 지경에서 오태연(吳泰連)·김두강(金斗崗)·오중방(吳仲邦) 등이 입주함으로써 마을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여 일대 촌락이 형성되었다. 설촌 후의 마을의 형세는 현 창천리·대평리·상창리·감산리 동부와 중문면 상예리 2구가 포함되어 그 넓이가 1,237㎢의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1900년(경자)에 상창리가 분리

되고 경술국치(康戌國恥) 뒤인 1914년 면리 구획 측정 당시 면·리의 경계가 하천과 지연촌락으로 분할되어 서부는 감산리에, 상예2구는 중문리에 편입되고 마을 이름을 창천리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창천리는 본동(本洞) 한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본동은 뱀바리동(蛇盤洞), 사장밭동(射場田洞), 토산동(免山洞), 물밭동(水田洞), 도산동 등으로 나뉜다.

4.6. 대평리

대평리는 조선 영조 10년(1734, 甲寅)에 양기성(梁起盛)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뒤에 이씨(李氏), 김씨〈金氏), 강씨(姜氏), 장씨(張氏) 등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당초에는 예래리(猊來里, 지금의 서귀포시 예래동)에 속하였으나 뒤에 창천리(倉川里)에 소속되었다. 1917년 10월에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따라 창천리가 1구(上洞), 대평리는 2구(下洞)로 분리되어 내려오다가 독립된 행정마을로 대평리(大坪里)란 마을 이름이 생겨난 것은 광복 다음해인 1946년이라고 한다. 이때 창천리(倉川里)에서 대평리(大坪里)가 분리된 것이다. 그러나 광복 후인 1948년 9월 1일에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그 이듬해인 1949년(기축) 7월에 구제가 폐지되면서 다시 창천리에 포함되었으나 중간에 산과 냇물이 가로놓여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같은 마을로서 행정상 많은 애로 점이 있어 1950년에 지번(地番)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상으로만 창천리와 대평리로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대평리는 본동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에서는 소기왓동네와 석동네(석굴)로 나눈다.[1)]

1) 안덕면(2006), 『안덕면지』, 태화인쇄사, 90~421쪽 참조.



안덕면 편













Ⅱ

조사 내용

1. 의생활
2. 식생활
3. 주생활
4. 농업 관련
5. 어업 관련
6. 축산 관련
7. 신당



Ⅱ 조사 내용

1. 의생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의복이다. 의생활 관련 도구로는 크게 제작 도구와 손질 도구, 옷감과 의복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의복 가운데는 수의와 상복에 대하여도 기술하였다. 바느질 도구로는 재봉틀과 받짓고리, 손질 도구로는 다듬이 도구, 다림질 도구, 세탁 도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조사 도구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했던 도구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옷감과 의복'에서는 안덕면 화순리 양춘자 씨(1929년생)가 만들어 둔 수의와 상복에 대해서도 소개할 것이다.

1.1. 바느질 도구

(1) 재봉틀

'재봉틀'은 바느질을 하는 기계로, 안덕 지역의 제보자들은 '재봉틀'이라는 말 대신에 일본어 '미싱(ミシン)'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였다. 제보자들은 발로 하는 재봉틀을 '발미싱', 손으로 돌려 옷 따위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봉틀은 '손미싱(승)'이라고 하였다. '발미싱'은 표준어 '발재봉틀'을 말하고, '손미싱'은 '손재봉틀'을 말한다.

〈사진 1〉은 동광리 박순희 씨(1944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자개미싱'이다. 붉은 칠 바탕에 자개로 장식한 발재봉틀로, 박 씨가 시집올 때 혼수로 해온 것이다. 시집

오기 2년 전에 산 것이니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친정어머니가 밭 하나 값을 주고 사준 것이다. 지금도 박 씨는 재봉틀을 이용해 소소한 바느질은 다 한다고 한다. 〈사진 2〉는 박 씨가 재봉틀을 사용할 때 쓰는 '미싱지름'이랑 재봉실, 북 등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 1〉 박순희 씨 소장 '자개미싱'



〈사진 2〉 박순희 씨 소장 '미싱'과 '재봉실'

"미싱 시집온 때 헤 온 거. 단스도 헹 오고 헤신디 그런 건 다 망가져불고. 이거 지금도 살아나. 이거 나 지금도 다 만들아. 나가 시집오건 디가 오십 년 뒛젠 헷지. 이 년 전이 산 거니까 오십이 년. 밧 혼 파니 줜 삿는데, 밧 혼 파니 값 줭 미싱 헤 오는 건 막 잘 출린 새각시. 친정어무니가 헤 준 거. 나 시집올 때 단수, 찬장, 미싱, 이불 헤완. 찬장 헤 온 거는 문딱 저 옛날 초집이난 문딱 뭐 뒈불언."[2)]

(재봉틀 시집올 때 해 온 거. 옷장도 해서 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다 망가져버리고. 지금도 살아나. 이거 나 지금도 다 만들어. 내가 시집온 지가 오십년 됐다고 했지. 이 년 전에 산 것이니까 오십이년. 밭 한 판 줘서 샀는데, 밭 한 판 값 줘서 재봉틀 해서 오는 것은 매우 잘 차린 새색시. 친정어머니가 해 준 것. 나 시집올 때 옷장, 찬장, 재봉틀, 이불 해왔어. 찬장 해 온 것은 몽땅 저 옛날 초가니까 몽땅 뭐 되어버렸어.)

〈사진 3〉은 대평리 강인숙 씨(1933년생)가 사용하는 손재봉틀로 요즘도 사용하고 있다. 〈사진 4〉는 사계리 유순옥 씨(1933년생)가 46년 전 큰 딸이 결혼할 때 혼수로 사줬던 것을 딸이 쓰지 않자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붉은 칠을 한 '발미싱'이다.

2)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사진 3〉 강인숙 씨 소장 '미싱'



〈사진 4〉 유순옥 씨 소장 '미싱'

"우리 큰똘 스무 설에 결혼헐 때 헌 거. 우리 똘이 이젠 예순으섯이주게. 게난 이거 오랜 거라. 새 미싱 허난 써 보지 안 헨 이디 앗당 놔둰. 누게신디 풀아붑서 허난 사감도 안 허고 ᄀᆞ만히 놔 뒀주. 오래부난 보미영 못 쓴덴."[3]

(우리 큰딸 스무 살에 결혼할 때 한 거. 우리 딸이 이젠 예순여섯이야. 그러니까 이거 오랜 거지. 새 재봉틀 해서 써 보지 안 하고 여기 가져다 놔뒀어. 누구에게 팔아버리세요 했는데 사가지도 않고 가만히 놔뒀지. 오래서 녹이 슬어 못 쓴다고.)

〈사진 5〉는 화순리 양춘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손미싱'이다. 예전에 구백팔십팔 평 밭에 심은 고구마를 팔아서 산 '미싱'이라고 한다.

"옛날에 발미싱이라낫는디 이제는 손미싱으로 바꾼 거. 미싱은 어멍 안 헤 줜. 저거 구백팔십팔 펭에 감저 싱건 풀안 저거 하나 사난 메기. 큰아덜 낳기 전이니까. 남으 집의 가근에 놈헌 옷 나 ᄆᆞ음에 맞질 안 허여이. 하르방 것도 나냥으로 다 허고."[4]

(옛날에 발재봉틀이었는데 이제는



〈사진 5〉 양춘자 씨 소장 '미싱'

3) 사계리 유순옥 씨 구술.
4) 화순리 양춘자 씨 구술.

손재봉틀로 바꾼 거. 재봉틀은 어머니가 안 해 줬어. 저거 구백팔십팔 평에 고구마 심고 팔아서 저거 하나 사니까 없어. 큰아들 낳기 전이니까. 남의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이 한 옷 마음에 맞지 않아. 할아버지(남편) 것도 나대로 다 하고.)

처음에는 '발미싱'이었던 것을 '손미싱'으로 바꿔 놓았는데, 판(板)만 세 차례나 바꿨다고 한다. 이 '손미싱'으로 양 씨는 자신이 죽을 때 입고 갈 수의와 자식들이 입을 상복 등을 만들어 놓았다. 재봉틀에 실이 감겨 있는 것을 보면 요즘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바농상지

'바농상지'는 '바늘, 실, 가위,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을 말한다. 표준어 '반짇고리'에 해당하는 말이다. 제보자들은 '바농상지'로 가는 대오리를 엮어 만든 작은 바구니나 작은 상자 따위를 이용하고 있었다.

〈사진 6〉은 동광리 박순희 씨가 사용하는 '바농상지'다. 이 '바농상지'는 박 씨의 시어머니가 마을에 소상이 있을 때 부조로 빵을 사서 담고 다녔던 '빵구덕'이다. 이 바구니는 가는 대오리로 결은 작은 바구니여서 '[illegible]는 대빵구덕'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박 씨가 '바농상지'로 쓰고 있는 것은 1980년도부터인데, '바농상지'엔 무명실을 감은 '실패'와 헝겊 등이 들어 있다.


〈사진 6〉 박순희 씨 소장 '바농상지'

"빵구덕. 옛날 부주 헹 갈 때, [illegible]는대빵구덕. 놈의 집이 소상집이 갈 때에 이걸로 떡 하나 산 간에. 멧 개 안 들주. 이추룩 족은 구덕에 헹 갓덴. 이거 친정 어멍 쓰던 거라. 팔십 년도부터 나가 바농상지로 썻지."[5]

5)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빵바구니. 옛날 부조 해서 갈 때, '가는대빵바구니'. 남의 집에 소상집에 갈 때에 이것으로 떡 하나 사서 가서. 몇 개 안 들지. 이처럼 작은 바구니에 해서 갔다고. 이거 친정어머니가 쓰던 거야. 팔십년부터 내가 반짇고리로 썼지.)

'가는대빵구덕'을 화순리 지중연 씨는 '조레기'라고 하였다. 〈사진 7〉은 화순리 지중연 씨가 '바농상지'로 사용하는 '조레기'다. '바농상지'에는 '옷가지'와 헝겊 등이 담겨 있다. 이 '조레기'는 지 씨가 결혼하기 전인 열여덟 살에 고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70년은 넘었다. 이 '조레기'는 '멘돈지' 즉, 제주시 도련2동에서 사온 것이라고 한다.


〈사진 7〉 지중연 씨 소장 '바농상지'

"이 조레기 바농상지로 썻저. 바농상지로 쓰고이, 옛날은 지물 허영 빵떡 가져가는 거. 저 제사칩이영 영장 난디 빵떡 가져가고. 지물 조레기로 하영 썻저. 이건 엿날 제주시에서 멘든 거. 우리 고모가 이거 물려줜. 이제 죽어불엇주게. 그 죽어분 고모가 이제 갖다주난에 썻주게. 멘돈지 가근에 사온 거. 이거 시집가기 전이난, 열아홉에 시집가난 열여덥에 준 거라. 이거 막 오랫저. 게난 우리 고몬 혼 백 넘엉 죽어불고 나 열여덥에 오난 오래고말고. 게난에 아메도 혼 백년은 뒘주."[6]

(이 '조레기' 반짇고리로 썼지. 반짇고리로 쓰고, 옛날은 제물 해서 빵 가져가는 거. 저 제삿집이랑 상 난 데 빵 가져가고. 제물 '조레기'로 많이 썼지. 이것은 옛날 제주시에서 만든 거. 우리 고모가 이거 물려줬어. 이제 죽어버렸지지. 그 죽어버린 고모가 이제 갖다주니까 썼지. '멘돈지(도련2동)' 가서 사온 거. 이거 시집가기 전이니까, 열아홉에 시집가니까 열여덟에 준 거야. 이거 매우 오랬지. 그러니까 우리 고모는 한 백 넘어서 죽어버리고 나 열여덟에 오니까 오래고말고. 그러니까 아마도 한 백년은 되고 있지.)

〈사진 8〉은 사계리 지수선 씨(1928년생)가 사용하는 '바농상지'다. 작은 바구니에

6) 화순리 지중연 씨 구술.

풀가사리 풀로 헝겊을 발라 곱게 만들었다. '바농상지' 안에는 헝겊 조각 등 옷감이 담겨 있고, 밖에는 '바농절레(바늘겨레)'가 매달려 있다.



〈사진 8〉 지수선 씨 소장 '바농상지'



〈사진 9〉 김영랑 씨 소장 '바농상지'

"바농상지 건 나 볼른 거. 아이고 막, 막 오랫저게. 그 바농 놓곡게 험벅 놩, 양말 박고, 보선 박고 헹 옛날 바농질 허는 거. 단추도 떨어지민 다 바농 허는 거주 거. 옛날엔 바당에 강 가시리 매당 가시리풀 쒕 험벅으로 볼랏주게. 엿날은 원체 이런 구덕 하나서."[7]

(받짇고리 건 내가 바른 거. 아이고 아주, 아주 오랬어. 그 바늘 넣고 헝겊 놔서, 양말 박고, 보선 박고 해서 옛날 바느질 하는 거. 단추도 떨어지면 다 바늘 하는 거지 거. 옛날엔 바다에 가서 풀가사리 매다가 풀가사리풀 쒀서 헝겊으로 발랐어. 옛날은 원체 이런 바구니가 많았어.)

〈사진 9〉는 덕수리 김영랑 씨(1938년생)가 사용하는 '바농상지'다. 가는 대오리로 결은 작은 바구니로, 김 씨는 이 바구니를 '조레기바구리'라고 하였다. 지금은 '조레기바구리'가 헐어가니까 천과 헝겊을 붙여서 '바농상지'로 쓰고 있다. 헝겊 따위를 붙이는 것을 안덕면에서는 '풀 볼르다'라고 한다.

〈사진 10〉은 대평리 강인숙 씨가 사용하는 '바농상지'다. 요즘도 재봉틀을 사용하는 강 씨의 '바농상지'에는 재봉실과 가위, 단추 등의 바느질 도구가 그득 담겨 있다. 〈사진 11〉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파란 플라스틱 소쿠리를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 '바

7) 사계리 지수선 씨 구술.



〈사진 10〉 강인숙 씨 소장 '바농상지'



〈사진 11〉 양춘자 씨 소장 '바농상지'

농상지'다. 가위, 헝겊, 재봉실이 담겨 있다. 〈사진 12〉는 덕수리 양기옥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바농상지'로 네모난 플라스틱 안에 바느질 도구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사진 12〉 양기옥 씨 소장 '바농상지'

(3) 바농, 바농절레, 속돌

'바농'은 표준어 '바늘'에 해당하는 말이다. '바농'도 옷감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하여 사용하였다. '바농절레'는 바늘을 꽂아 둘 목적으로 만든 수공예품이다. 표준어 '바늘겨레'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속돌'은 바늘이 무딜 때 가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다. '속돌'은 구멍이 송송하게 난 재질이 무른 돌로 바다에서 나는 돌이다. 제주에서는 이 돌에 이용하여 '바농'을 가는 데 사용하였다. '바늘'이 녹슬면 '바늘 보미다'처럼 말한다.

"이거 바농 찔르는 거 바농절레게."[8]
(이거 바늘 찌르는 거 바늘겨레.)

8) 사계리 지수선 씨 구술.

〈사진 13〉은 사계리 지수선 씨(1929년생)의 '바농절레'다. '바농절레'에 실을 감은 바늘이 꽂혀 있다. 〈사진 14〉는 지 씨가 바늘이 무딜 때 가는 '속돌'이고, 〈사진 15〉는 화순리 지중연(1930년생) 씨가 사용하는 '속돌'이다.


〈사진 13〉 지수선 씨 소장 '바농절레'

"거 바농 ᄀᆞ는 거 속돌. 바농 막 보미민 ᄀᆞ는 거. 벗어, 경허민."[9]
(거 바늘 가는 거 '속돌'. 바늘 매우 녹슬면 가는 거. 벗겨져. 그렇게 하면.)

"속돌 저거 바농 쒜 피민 ᄀᆞ는 거. 저것도 막 에려와. 저것도 매 집인 엇어. 옛날은 바당에서, 바당 시민 올린다만은 이젠 이런 거 안 올련게. 우리 두린 때. 이것도 올려나근디 오랫저."[10]
('속돌' 저거 바늘 쇠 피면 가는 거. 저것도 매우 어려워. 저것도 매 집에는 없어. 옛날에는 바다에서, 바다 있으면 올린다만 이젠 이런 거 안 올리던데. 우리 어릴 때. 이것도 올려난 지 오래됐지.)


〈사진 14〉 지수선 씨 소장 '속돌'


〈사진 15〉 지중연 씨 소장 '속돌'

9) 사계리 지수선 씨 구술.
10) 화순리 지중연 씨 구술.

(4) 바농질자

'자'는 길이를 재는 데 쓰는 도구로, 주로 옷을 만들 때 사용하였다. 바느질을 할 때 사용한다고 해서 '바농질자'라고 한다. 자를 안덕면 지역에서는 '잣대'라고도 하였다. 자는 보통 왕대를 이용해 만드는 데 사람에 따라서는 나무를 납작하게 잘라서 만들기도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한 자'를 '한 치의 열 배로 약 30.3cm'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제주 지역의 바느질자는 보통 50cm 정도의 길이로 만들었다.

〈사진 16〉은 덕수리 양기옥 씨(1938)가 옷을 만들 때 옷감의 치수를 잴 때 사용하는 자다. 이 자는 33년 전인 양 씨 나이 서른다섯에 집 지을 때 목수에게 부탁해서 만들었다. 50cm 자다. 윗 사진은 5cm마다 선을 그어 9개의 선을 그어 놓았다. 선 하나 크기를 '한 치'라고 하였다. 아래 사진은 절반만 선을 그었는데, 긴 선은 한 치, 짧은 선은 '반 치' 크기다. '치'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의 하나다. 한 자의 10분의 1 길이를 말한다.



〈사진 16〉 양기옥 씨 소장 '바농질자'

"이제도 자 써집니다. 무시거 저 옷 만들고. 이 집 짓을 때 만든 거. 목쉬덜 만들엇주. 아이고, 이 집은 나 서른다섯에 짓어져신가? 아이고, 뭐헐 때에 썻어게. 큰일 때에 사람 죽으민 자 헤근에 베 헤근에 광목도 재고 수건 멘들앗주. 사람이 죽을 때 이디서 옷을 입지니까 이 자로 영 대영 옷 입져서. 저 수건 하나도 이거 석 자 세 칠 놔야 뒈여. 문딱 집이서 옷을 허난."[11]

(이제도 자 써집니다. 무슨 것 저 옷 만들고. 이 집 지을 때 만든 거. 목수들 만들었지. 아이고, 이 집은 나 서른다섯에 지어졌는가? 아이고, 뭐할 때에 썼어. 큰일 때에 사람 죽으면 자 해서 베 해서 광목도 재고 수건 만들었지. 사람이 죽을 때 여기서 옷을 입히니까 이 자로 이렇게 대서 옷 입혔어. 저 수건 하나도 이거 석 자 세 치를 놔야 돼. 몽땅 집에서 옷을 하니까.)

11)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위 구술을 보면, 이 자는 동네에 장사가 나면 상복과 수건 등의 크기를 재고, 또 시신에게 옷을 입힐 때도 이 자를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7〉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자다. 집 지을 때 목수에게 부탁해서 만든 것이다. 자에 보면 한 치와 반 치에 금이 그어져 있다. 청색 테이프 부분은 30여 년 전에 아들을 훈계하면서 때리다가 부러진 자를 이어 놓은 것이다.

"옷 만드는 자도 잇어. 지금도 나 허여. 그거 집 짓을 때 목수가 헤 준 건디, 그디 꺼꺼져 불언. 이제 저 대학교 헌 아이 때리멍. 아, 하르방덜이 막 놀래와이. 하르방 친구가 놀레오난에 가이 결혼헴젠 헨 게 결혼 시킴이우과? 열여섯 솔 나실 거라. 경허난 결혼시기젠 헴주. 경허난 아니 그것에 울멍 돌아나불언게. 눈 팡팡 온디 돌아나불언. 씨누이 성제가 촞으레 뎅기단 보난 우리 미깡낭 밧듸 강 곱안게. 올레에 데려단 막 때려불언. 경허연 꺼꺼젼."[12]

(옷 만드는 자도 있어. 지금도 나 해. 그거 집 지을 때 목수가 해 준 건데, 거기 꺾어져 버렸어. 이제 저 대학교 한 아이 때리면서. 아, 할아버지들이 자주 놀러와. 할아버지(남편) 친구가 놀러 와서 그 아이 결혼한다고 하던데 결혼시키나요? 열여섯 살 났을 거야. 그러니까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울면서 달아나 버렸어. 눈 팡팡 오는데 달아나 버렸어. 시누이 형제가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우리 귤나무 밭에 가서 숨었어. '올레'에 데려다가 마구 때려 버렸어. 그래서 꺾어졌어.)



〈사진 17〉 양춘자 씨 소장 '바농질자'



〈사진 18〉 진희선 씨 소장 '바농질자'

12) 화순리 양춘자 씨 구술.

〈사진 18〉은 창천리 진희선 씨(1931년생)가 사용하는 '바농질자'다. 진 씨는 이 자로 "하르방 도복도 만들고 하근 거 다 멘들앗다.(할아버지 도포도 만들고 이런저런 것 다 만들었다)"고 하였다. 길이가 52.5cm다.

(5) 씰, 씰도로기/씰패

'씰'은 '섬유를 가늘고 길게 뽑아서 만든 물건'을 말한다. 천을 짜거나 바느질을 하는 데 쓰인다. '씰'은 표준어 '실'에 대응하는 말이다. '씰'은 옷감과 굵기, 색깔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목화로 만든 실은 '미녕씰(무명실)'이라고 하고, 명주로 만든 실은 '멩지씰(명주실)', 나일론으로 만든 실은 '나이롱실'이라고 한다.

'씰도로기'와 '씰패'는 실을 감기 위해 만든 물건이다.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었으나 요즘은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만들고 있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천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실을 감아서 사용하고 있었다. '씰도로기'는 둥근 바퀴 모양을 하고 있고, '실패'는 납작하고 편편한 모양을 하고 있다.

〈사진 19〉는 사계리 지수선 씨가 '씰도로기' 용도로 양초에 감아 놓은 실이다. 〈사진 20〉은 덕수리 양기옥 씨의 '씰도로기'이고, 〈사진 21〉은 화순리 지중연 씨가 사용하는 '씰도로기'와 '속돌'이다.



〈사진 19〉 지수선 씨 소장 '씰도로기'



〈사진 20〉 양기옥 씨 소장 '씰도로기'



〈사진 21〉 지중연 씨 소장 '속돌'과 '씰도로기'

(6) 골미

'골미'는 표준어 '골무'를 말한다. 제주에서 바느질할 때 골무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끼워서 사용한다.

(7) 단추

단추는 옷 따위의 두 폭이나 두 짝을 한데 붙였다 떼었다 하는, 옷고름이나 끈 대신으로 쓰는 물건이다. 옷의 모양이나 종류, 옷감 등에 따라 단추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사진 22〉는 사계리 지수선 씨가 모아 놓은 단추들이다.



〈사진 22〉 지수선 씨 소장 '단추'



〈사진 23〉 양춘자 씨 소장 '바농대'

(8) 바농대

'바농대'는 뜨개질을 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쇠로 만들면 '쒜바농대', 대나무로 만들면 '대바농대'라고 한다. 〈사진 23〉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손뜨개질을 할 때 사용했던 '바농대'다.

1.2. 손질 도구

(1) 안반

'안반'은 다듬이질을 할 때 밑에 받치기 위해 만든 네모난 나무판을 말한다.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안반'을 '떡을 칠 때에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 판'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으나, 제주에서는 다듬이를 할 때 소용하는 물건이다. '다듬이질'을 하지 않게 되자 이 '안반'은 잔치 등 큰일 때에 고기 따위를 썰기 위해 받쳐 쓰는 도마 구실을 하였다. 그래서 제보자에 따라서는 '돔베'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였다. 나무로 만들면 '낭안반', 돌로 만든 것은 '돌안반'이라고 한다.

(2) 다듬이마께

'다듬이마께'는 옷을 다듬이질을 할 때 사용하는 방망이다. 표준어 '다듬잇방망이'를 말한다.

〈사진 24〉는 대평리 강월출 씨(1954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다듬이마께'다. 옷감을 두들길 때 사용했던 것으로, 지금은 니스를 칠해 놓아 반들반들하다.



〈사진 24〉 강월출 씨 소장 '다듬이마께'

(3) 홍짓대

'홍짓대'는 '다듬잇감을 감아서 다듬이질할 때에 쓰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도구'다. 표준어 '홍두께'에 해당하는 말이다. 다듬이질은 할 때는 '홍짓대'에 다듬이질할 천 따위를 감아 '안반' 위에서 '다듬이마께'로 두들기면서 손질한다.

(4) 다리웨와 다리웨판

'다리웨'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이고, '다리웨판'은 '다리미판'을 말한다. 다리미판 대신 헝겊 안에 종이 등을 담아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다리웨'는 표준어 '다리미'를 말하는데, 요즘은 '다리웨'라는 말보다는 '다리미'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5) 윤디와 윤디판, 화리, 불제붐, 불숟까락

'윤디'는 표준어 '인두'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윤디'는 보통 한복을 지을 때 '짓(깃)'이나 '섭(섶)'을 다릴 때 사용한다. '윤디'는 화롯불에 묻어두었다가 그 열기를 이용하여 옷깃 등을 다린다.

(6) 미녕 메는 솔

'미녕 메는 솔'은 무명실을 뽑을 때 실에 깃을 바를 때 사용하는 솔이다. 순비기나무 뿌리로 만들고 무명실로 묶어서 만들었다. 실이 끊어지자 전선 줄을 이용해 단단하게 조였다.

〈사진 25〉는 창천리 김덕순 씨(1930년생) 시어머니가 '미녕 멜' 때 쓰던 것을 물려받은 솔이다.



〈사진 25〉 김덕순 씨 소장 '미녕 메는 솔'

"미녕 메는 솔. 이렇게 헤가지고 저걸로 삭삭 쓸민. 짓 멕영 삭삭 쓸어. 저걸로 쓸민 씰이 다 나오거든. 삭삭 쓸민 실 다 나와. 옛날 나의 시어머님이 이거 쓰단 거라. 이젠 숨북이 엇어. 영 쓸민 실이 하나 하나 나오민 ᄇᆞ디라고 허영 쑥쑥 내려와. 몰르민 뒤에, 그 도꼬마리도 셔낫저만은 문딱 줏어가불언. 영 감곡 영영 쓸민 ᄎᆞᄎᆞᄎᆞᄎᆞ 씰이 나와. 이건 옛날 사름덜 실로 무끈디 오래가난 끈어지난 이거 전선으로 헹 이거 중간에 무껀. 미녕은 한 오십 년도 육십 년도까지는 짠 거 같아붸. 이제 초가집이 헹 살멍 나 그디 미녕이영 멩지영 차낫수다."[13]

(무명에 풀 먹이는 솔. 이렇게 해서 저걸로 삭삭 쓸면. 깃 먹여서 삭삭 쓸어. 저걸로 쓸면 실이 다 나오거든. 삭삭 쓸면 실 다 나와. 옛날 나의 시어머님이 이거 썼던 거야. 이젠 순비기나무 없어. 이렇게 쓸면 실이 하나 하나 나오면 바디라고 해서 쑥쑥 내려와. 마르면 뒤에, 그 '도꼬마리'도 있었지만은 모두 주워가 버렸어. 이렇게 감고 이렇게 쓸면 차차 실이 나와. 이건 옛날 사람들 실로 묶었는데 오래가니까 끊어져서 이건 전선으로 해서 이거 중간에 묶었어. 무명은 한 오십 년도 육십 년도까지는 짠 거 같아 보여. 이제 초가집 해서 살면서 나 거기 무명이랑 명주랑 짰습니다.)

13) 창천리 김덕순 구술

1.3. 세탁 도구

(1) 서답마께

'서답마께'는 빨래를 할 때 옷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빨랫감을 두드려서 빠는 데 쓰는 방망이를 말한다.

〈사진 26〉은 사계리 지중연 씨 집에서 사용하는 '서답마께'다. 표준어 '빨랫방망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26〉 지중연 씨 소장 '서답마께'

(2) 서답팡, 빨레팡

'서답팡'은 빨래할 때 쓰는 돌이다. 이를 '빨레팡'이라고 하는데, 표준어 '빨랫돌'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요즘은 넓적한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판을 물결같이 울퉁불퉁하게 파서 만들지만 예전에는 넓적한 돌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사진 27〉은 창천리 김덕순 씨가 'ᄀᆞ레착(맷돌)'을 땅속에 박아 빨래판으로 이용하고 있는 '팡돌'이다. 주변에 시멘트를 해 놓았다. 〈사진 28〉은 동광리 박순희 씨(1947년생) 집에 설치한 '서답팡'이다. 타일 바닥에 'ᄀᆞ레착'으로 만든 '서답팡'이 도드라져 보인다. 〈사진 29〉는 창천리 진희선 씨가 사용하는 빨랫돌이다. 넙적한 돌을 박고 주변에 시멘트 칠을 해서 만들었다. 진 씨는 이를 '서답허는 팡'이라고 하였다.



〈사진 27〉 김덕순 씨 집 '팡돌'



〈사진 28〉 박순희 씨 집 '서답팡'

"빨래터엔 헨 빨래만 헤난. 기냥 그자 서답허는 팡 헤여근에 저디서 뿔암주게. 돌로, 베림에 곱닥헌 걸로 봉가당 헌 거주게."[14]

(빨래터라고 해서 빨래만 했어. 그냥 그저 빨래하는 넓적한 큰 돌 해서 저기서 빨고 있어. 돌로, 보기에 고운 걸로 주워다 한 거야.)



〈사진 29〉 진희선 씨 집 '서답허는 팡'

(3) 서답줄과 서답작데기

'서답줄'은 '서답'을 널 때 사용하는 줄이다. '서답'은 빨래의 한자어 '세답(洗踏)'에서 온 말이다. '서답작데기'는 '서답줄'이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위하여 받치는 대다. '서답줄'은 표준어 '빨랫줄', '서답작대기'는 표준어 '바지랑대'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30〉은 창천리 김덕순 씨 집에서 촬영한 '서답줄'과 '서답작데기'다.



〈사진 30〉 김덕순 씨 집 '서답줄'과 '서답작데기'



〈사진 31〉 양기옥 씨 소장 '서답구덕'

(4) 서답구덕

'서답구덕'은 빨랫감을 넣어서 지고 다닐 때 쓰는 바구니를 말한다. '서답'은 '세답(洗踏)'의 방언형이다. 〈사진 31〉은 덕수리 양기옥 씨 집에서 촬영한 '서답구덕'이다.

14) 창천리 진희선 씨 구술.

"이거 이름이 서답구덕. 질구덕이 따로 잇어. 질구덕은 소롬허고 저거는 서답구덕. 이름이 다 틀려. 질구덕은 소롬허고 서답구덕은 저추룩 동글락허고. 이거 하강물에 졍 가근에. 화순 큰 물에 졍 강, 이걸로 졍 가근에 빨래헤다근에 널엉 입고 경 헷수다게. 하강물에 가온지 오래수다게. 오래연. 경 허난에 나중에 뭐 차도 나고 뭣도 헤가난 차에 실렁 가근에 다 뿔아당 ᄉᆞ방에 널어근에 입곡."[15]

(이거 이름이 '세답구덕'. '질구덕'이 따로 있어. '질구덕'은 기름하고 저거는 '세답구덕'. 이름이 다 달라. '질구덕'은 기름하고 '세답구덕'은 저렇게 둥그렇고. 이거 '화강물'에 져 가서. 화순 큰 물에 져 가서, 이걸로 져 가서 빨래해다가 널어서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화강물에 다녀온 지 오랬습니다. 오랬어.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뭐 차도 나고 뭣도 해가니까 차에 실어서 가서 다 빨아다가 사방에 널어서 입고."

위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을 보면, '서답구덕'은 빨랫감을 넣어서 지고 다니는 '구덕'이 맞지만 물건을 넣어서 지고 다니는 '질구덕'과는 구분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씨는 '질구덕'은 모양이 네모나면서고 '소롬하고(기름하고)'한 데 반해서 '서답구덕'은 모양이 둥그스름하다고 하였다. 〈사진 32〉는 창천리 김덕순 씨가 사용했던 '서답구덕'이다.



〈사진 32〉 김덕순 씨 소장 '서답구덕



〈사진 33〉 유순옥 씨 소장 '질구덕'

"이거는 저 내창에 빨래허레 갈 때이 이빠이 담앙, 이제는 집이서 빨래허고 뭐 걱정이 없지만은 옛날은 할망덜 이것에 이빠이 저 빨래헐 거 담앙 저 내창에, 물에 강 뿔앙 졍

15)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오는 거, 서답 구덕."[16]

(이거는 저 내에 빨래하러 갈 때 가득 담고. 이제는 집에서 빨래하고 뭐 걱정이 없지만은 옛날은 할머니들 이것에 가득 저 빨래할 거 담고 저 내에, 물에 가서 빨고 져 오는 거, 빨래 바구니.)

〈사진 33〉은 사계리 유순옥 씨가 빨래를 하러 다닐 때 빨랫감을 넣어서 지고 다녔던 '질구덕'이다. '질구덕'은 물건을 넣어서 지고 다닐 수 있게 크게 만든 바구니라는 뜻이다.

"이 질구덕 나 젊은 땐 산 거난 오래지 안 허연. 이것도 중간에 산 거주. 빨래 허레 뎅기멍 그자 정 뎅기고, 빨래허레 물통더레 아졍갈 때 정 걸머지고 가고. 뭐 먹을 거 밧디 먹을 거 밥이영 가졍 갈 때도 이것에 놩 정 가고."[17]

(이 '질구덕' 내가 젊었을 때 산 거니까 오래지 않았어. 이것도 중간에 산 거지. 빨래하러 다니면서 그저 지고 다니고, 빨래하러 물타에 가지고 갈 때 걸머지고 가고. 뭐 밭에 먹을 거, 밭에 먹을 거 밥이랑 가지고 갈 때도 이것에 놓고 져 가고.)

위 구술을 보면, 이 '질구덕'은 빨래를 하러 다니거나 밭에 일을 하러 다닐 때 점심 등을 넣어서 지고 다닐 때 사용하였다.

1.4. 옷감과 의복

1.4.1. 옷감

(1) 험벅

'험벅'은 천의 조각을 말한다. 표준어 '헝겊'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34〉와 〈사진 35〉는 사계리 지수선 씨가 모아둔 헝겊이다. 옷이 헌 곳에 덧대서 사용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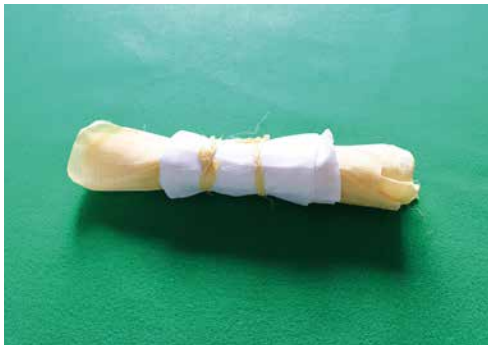
16) 창천리 김덕순 씨 구술.
17) 사계리 유순옥 씨 구술.



〈사진 34〉 지수선 씨 소장 '험벅'



〈사진 35〉 지수선 소장 '베 험벅'



〈사진 36〉 양춘자 씨 소장 '베 험벅'



〈사진 37〉 지중연 씨 소장 '험벅 띠'

해서 모아둔 것이다. 〈사진 36〉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베 험벅(배 헝겊)'이다. 〈사진 37〉은 화순리 지중연 씨가 헝겊을 이용해 만든 띠다.

"나 그 험벅은 옷 헐민 그 세계에 대영 줭 입젠 그거라. 다 이거 경헌 거라. 아이고, 옛날은 거 옷 부려지민 거 줭 입어세게. 이젠 터져가민 데껴불엄주만은 옛날은 문딱 바농으로 줭."[18]

(나 그 헝겊은 옷 헐면 그 세계에 대서 기워 입으려고 그거야. 다 이거 그런 거야. 아이고, 옛날은 옷 찢어지면 거 기워 입었어. 이젠 터져가면 던져 버리지만은 옛날은 모두 바늘로 기워서.)

18) 사계리 지수선 씨 구술.

(2) 멩지

'멩지'는 표준어 '명주'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38〉은 사계리 지수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붉은 명주'로, 시집올 때 혼수로 해왔던 이불거죽을 만들었던 천이다.



〈사진 38〉 지수선 씨 소장 '멩지'

"거 멩지, 그거 나 시집올 때 이불거죽 헤난 거. 나도 화순인디 누에 질롼에 집이서 어멍이 멩지 찬 물들영 이불 헤난 거."[19]

(거 명주, 그거 나 시집올 때 이불거죽 했던 거. 나도 화순인데 누에 키워서 집에서 어머니가 명주 짜서 물들여서 이불 했던 거.)

(3)춤베

'춤베'는 표준어 '삼베'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상복을 만들거나 여름철 옷감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1.4.2. 의복

(1) 봇뎃창옷

'봇뎃창옷'은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 만에 입히는, 간편하게 지은 베옷을 말한다. 소매를 길게 해서 아기가 얼굴을 할퀴지 못하게 하였다. 옷고름은 실을 꼬아서 길게 해서 달았는데, 이는 아이가 오래 살기를 염원하는 의미이다. '봇뎃창옷'은 보통 아이 할머니가 만들어주는데, 만들지 못하면 동네 아기 잘 키운 집에 가서 빌려다가 입혔다. '봇데창옷'을 아이가 등이 가렵지 말라고 입히는 것이다. '봇뎃창옷'은 지역에 따라서 '봇뎃옷, 봇뒷창옷, 베넷저고리' 등으로 불린다.

19) 사계리 지수선 씨 구술.

〈사진 39〉는 화순리 양춘자 씨가 큰아들을 낳았을 때 입혔던 '봇뎃창옷'이다. 양 씨의 큰시누이가 만들어 준 옷으로, 큰아들 외에도 작은아들과 작은딸도 입었던 '봇뎃창옷'이다. 또 이 마을 사람들도 아기가 낳았을 때 빌려다 입혔다고 한다.


〈사진 39〉 양춘자 씨 소장 '봇뎃창옷'

"이거 우리 큰아덜 낳을 때 씨누이가 헤 준 거. 이거 작은 아덜도 입고, 그 밑도 딸도 입고 헤난 거. 낭 삼일 만이 입져. 게난 이 씰은 명을 잇으라고 씰로 이거. 엿날 말이 씰만이만 부뜨민. 크고 작고 씰만이만 부뜨민. 게난 씰로 골름헌 거라. 소미 진 것은 저 손으로 자기 얼굴을 허위니까 이거 질게 허면은 이 베꼇디레 손이 나오지 안 허거든. 게난 허우지 못허게 허여. 소미 풀어지카부덴 이거 씰로 감췄거든. 줘불지 아녀."[20]

(이거 우리 큰아들 낳을 때 시누이가 해 준 거. 이거 작은아들도 입고, 그 밑에 딸도 입고 했던 거. 태어나서 삼일 만에 입혀. 그러니까 실은 명을 잇으라고 실로 이거. 옛날 말에 실만큼만 붙으면. 크고 작은 실만큼만 붙으면. 그러니까 실로 고름 한 거야. 소매 긴 것은 저 손으로 자기 얼굴을 할퀴니까 이거 길게 하면은 이 밖으로 손이 나오지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할퀴지 못 하게 했어. 소매 풀릴까 봐 이거 실로 감추었어. 기워 버리지 않고.)

위의 구술을 보면, 옷고름을 긴 실을 꼬아 다는 것은 아이의 명을 이으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만큼 예전에는 아이가 낳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적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아기의 명을 비유하여 "크고 작고 씰만이만 부뜨라(크고 작고 실만큼만 붙어라.)"고 했던 것이다. 소매는 단으로 접어서 박지 않고, 끝만 감침질했다.

20) 화순리 양춘자 씨 구술.

(2) 양단저고리

'양단저고리'는 양단으로 만든 저고리다. 〈사진 40〉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결혼할 때 입었던 저고리로, 친정어머니가 만들어준 것이다.



〈사진 40〉 양춘자 씨 소장 '양단저고리'

(3) 치메/유둥치메

'유둥치메'는 '유둥'으로 만든 치마다. '유둥'은 비단의 일종으로, 표준어 '뉴똥'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뉴똥'은 예전에 제주에서 혼인할 때 여자들의 치맛감으로 많이 활용하였다. 〈사진 41〉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시집올 때 입었던 친정어머니가 만들어 준 '유둥치메'다. 〈사진 42〉는 사계리 지수선 씨의 한복 치마다.



〈사진 41〉 양춘자 씨 소장 '양단저고리'와 '유둥치메'



〈사진 42〉 지수선 씨 소장 '치메'

(4) 내수저고리와 내수치메

'내수저고리'는 '내수'로 만든 저고리이고, '내수치메'는 '내수'로 만든 치마다. 여기에서 '내수'는 영어 '레이스(lace)'를 일본어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서양식 수예 편물의

하나다. 무명실이나 명주실 따위를 떠서 여러 가지 구멍 뚫린 무늬가 있는 천을 말한다. 〈사진 43〉은 화순리 양춘자 씨의 어머니가 50년 전에 만들어 준 '내수치메'와 '내수저고리'다.



〈사진 43〉 양춘자 씨 소장
'내수저고리'와 '내수치치메'



〈사진 44〉 박순희 씨 소장 '감옷'

(5) 감옷/갈옷, 감몸뻬

'감옷/갈옷'은 감물을 들인 옷을 말한다. 옷에 감물을 들일 때는 제주 토종 감인 '풋감'을 이용한다. '감옷/갈옷'은 땀이 차지 않고 쉬 더럽지 않아 노동복으로 제격이었다. '감옷'은 주로 여름철에 많이 입기 때문에 중의 적삼에 감물을 많이 들여서 입었다. 감물을 들인 바지는 '갈중의', 감물을 들인 적삼은 '갈적삼'이라고 한다. 요즘은 중의 대신에 일할 때 입는 '몸뻬'에 물을 많이 들여 입는다. '몸뻬'는 여성들이 일을 할 때 입는 바지의 하나로, 일본에서 들어온 옷이다. 통이 넓고 발목을 조여서 일할 때 입기에 편하다. 〈사진 44〉는 동광리 박순희 씨가 재봉틀을 이용하여 직접 만든 '몸뻬'에다가 감물을 들인 것이다.

(6) 속곳과 고무옷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었던 물옷이다. 흰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어 입었

는데, 미역 등의 해조류 등의 물이 들자 검은 물을 들여서 입기도 하였다.

'고무옷'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고무로 만든 옷이다. 1970년 이후에 무명으로 만든 '속곳' 대신에 '고무옷'과 고무모자, 오리발이 나오면서 잠녀들은 추위에 떨지 않고 물질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검정 고무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주황색으로 만들기도 한다.(6장 어업 관련 '물옷' 참조)

(7) 적삼

'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홑옷이다. 모양은 저고리와 같다. 〈사진 45〉는 사계리 지수선 씨가 만든 적삼이다. 〈사진 46〉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여름에 입기 위해 하얀 베로 만든 적삼이다. 매듭단추 대신에 하얀 단추를 달아서 만들었다.

"안 엇인 건 적삼, 안 신 거 저고리."[21)]
(안 없는 것은 적삼, 안 있는 것은 저고리.)


〈사진 45〉 지수선 씨 소장 '적삼'


〈사진 46〉 양춘자 씨 소장 '적삼'

(8) 가슴가리개

'가슴가리개'는 가슴을 감싸는 여성용 속옷이다. 〈사진 47〉은 동광리 박순희 씨가 재봉틀을 이용하여 광목으로 만든 것이다.

21) 사계리 지수선 씨 구술.



〈사진 47〉 박순희 씨 소장 '가슴가리개'



〈사진 48〉 지수선 씨 소장 '보선'

(9) 보선

'보선'은 표준어 '버선'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48〉은 사계리 지수선 씨가 한복 입을 때 신었던 '보선'이다.

1.4.3. 기타

(1) 베게

'베게'는 잠을 자거나 누울 때에 머리를 괴는 물건이다. 〈사진 49〉는 대평리 강월출 씨(1954년생)가 여름에 사용하는 베개다. 감물을 들인 천으로 베개를 감싼 것은 시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진 49〉 강월출 씨 소장 '베게'



〈사진 50〉 양춘자 씨 소장 '베 이불'

(2) 베 이불

'베 이불'은 베로 만든 이불이다. 〈사진 50〉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여름에 덮을 용도로 만든 것이다.

(3) 손도매

'손도매'는 팔목에 끼우는 '토시'에 해당한다. 〈사진 51〉은 창천리 김덕순 씨가 일할 때 손목에 끼어서 사용하는 '손도매'다.



〈사진 51〉 김덕순 씨 소장 '손도매'



〈사진 52〉 김덕순 씨 소장 '포따리'

(4) 포따리

'포따리'는 표준어 '보자기'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52〉는 창천리 김덕순 씨가 제사 때 떡을 덮을 때 사용하였던 보자기다.

1.5. 수의와 상복

'수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게 입히는 옷으로, 제주에서는 '저승옷' 또는 '호상옷'이라고 한다. '상복'은 부모가 돌아갔을 때 상제들이 입는 옷이다. 이 글에서는 화순리 양춘자 씨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여성 수의'를 중심으로 '호상옷'에 대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사진 53〉 '수의'와 '상복'을 보관하는 궤



〈사진 54〉 양춘자 씨 소장 '상복'들

양 씨가 틈틈이 만들어 둔 '호상옷'은 안덕면 지역의 전통적인 수의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양 씨는 수의를 하얀 명주로 만들었다. 이 수의들은 보자기에 싸인 채 궤 안에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었다(〈사진 53〉). 궤 안에는 수의와 함께 '상복'과 양 씨가 젊었을 때 입었던 한복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옷을 보관해 놓은 궤 안에는 향을 싼 종이 주머니도 함께 넣어두었다(〈사진 55〉). 향을 넣어둔 것은 향의 냄새로 인하여 좀이 슬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 55〉 양춘자 씨 소장 '궤' 속의 '향'

'호상옷'에 대한 기술은 옷가지와 '갖은 수의'로 나눠 설명할 것이다. '옷가지'는 시신에게 입히는 옷을 말하고, '갖은 수의'는 옷가지 외에 시신에 사용하는 입관할 때까지 소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상복 관련 자료로는 '복옷띠'와 '행전'에 대해서도 소개하려고 한다.

1.5.1. 옷가지

〈상의〉


〈사진 56〉 난닝구


〈사진 57〉 적삼

(1) 난닝구

'난닝구'는 '러닝'을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가장 안에 입는 윗옷 속옷을 화순리 양춘자 씨는 '난닝구'라고 말했다. 10여년 전에 명주로 만들었다.

(2) 적삼

'적삼'은 '난닝구' 다음에 입는 속곳이다. '적삼'은 홑으로 만든다.

(3) 저구리

'저구리'는 표준어 '저고리'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58〉은 양춘자 씨가 시신에 입힐 용도로 만든 저고리다. 시집갈 때 입었던 양단저고리의 고름을 이용하여 저고리 동정을 만들어 달았다. 처음에 하얗던 저고리가 노랗게 변하였다.


〈사진 58〉 저구리

(4) 장옷

'장옷'은 예전에,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에 얼굴을 가리느라고 머리에서부터 길게 내려 쓰던 옷이다. 제주에서는 혼례 때 새색시들의 예복으로 입었던 옷이다. 〈사진 59〉는 양춘자 씨가 시집올 때 입었던 장옷으로, 하얀 명주에 붉은 깃을 달아서 만들었다.


〈사진 59〉 장옷

〈하의〉

(1) 살마다

'살마다'는 일본어 '사르마다(さるまた)'를 말한다. 요즘말로 하면 팬티에 해당하는 속속곳이다. 양춘자 씨는 명주로 해서 고무줄 없이 끈을 달아 만들었다.

(2) 바툼중의

'바툼중의'는 맨 안에 입는 속속곳 다음에 입는 옷을 말한다. 속속곳을 양춘자 씨는 일본어 식으로 '살마다'라고 하였다. '바툼중의'는 '살마다' 다음에 입는 속속곳이다.

(3) 고장중의

'고장중의'는 한복에 입는 여자 속옷의 하나다. 속속곳인 '바툼중의' 위에 입고, 바지 안에 입는다. 위, 단속곳 밑에 입는 아래 속곳이다. 표준어 '고쟁이'에 대응하는 말이다.

"고장중의 입엉 뎅기는 거. 강알에 터져불기 따문에 그거 보이지 말렌 입는 거. 바틈중의 입어난 다음에 입는 거."

(고쟁이 입어서 다니느 거. 밑에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거 보이지 말라고 입는 거. '바툼중의' 입어난 다음에 입는 거.)


〈사진 60〉 고장중의


〈사진 61〉 바지


〈사진 62〉 속치마


〈사진 63〉 겉치마

(4) 바지

'바지'는 '고장중의' 위에 입는 단속곳이다. 두 겹으로 만들었다. 속치마를 입기 전에 입는 속곳이다.

(5) 속치마

'속치마'는 바지 위에 입는 치마로, 겉치마 안에 입는 속옷이다. 여섯 폭으로 만들었다.

(6) 겉치마

'겉치마'는 맨 나중에 입는 하의다. 여덟 폭으로 만들었다.

(7) 보선

'보선'는 표준어 '버선'을 말한다.

〈사진 64〉는 화순리 양춘자 씨가 시신에게 신길 용으로 만들어 놓은


〈사진 64〉 보선

'보선'이다. 보통 '보선'은 하나 만드는데, 양 씨는 저승에 가다가 더러우면 갈아 신을 용도까지 하여 두 켤레를 만들어 두었다.

〈기타〉

(1) 혼적삼

'혼적삼'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을 부를 때 사용하는 적삼이다.

〈사진 65〉는 양춘자 씨가 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혼적삼' 용으로 만들어 놓은 옷이다.



〈사진 65〉 혼적삼

"이거는 죽으면은 바껏듸서 누구 죽엇다 허는 혼적삼. 혼적삼은 광목으로 그자 나냥으로 허여지난 나냥으로 멘들안. 혼적삼은 옛날에 혼 들어가는 거. 관 강 쓸곡 산에 강 그디 옆디레 놩 묻어불어이. 혼 불를 땐 지붕에 올라강 서쪽더레 돌아사근에 불르는 거. 엿날은 혼이 지붕 상ᄆᆞ루로 들어와서 목숨을 끊어갓거든. 허주마는 지금은 저 서쪽으로. 서쪽이 체서 뎅기는 디라고 허여. 서쪽에 돌아사근에 '누구 엄마 보' 경허여."

(이것은 죽으면은 바깥에서 누구 죽었다 하는 '혼적삼'. 혼적삼은 광목으로 그저 나대로 해지니까 나대로 만들었어. '혼적삼'은 옛날에 혼 들어가는 거. 관 가서 쓸고 산에 가서 거기 옆으로 놓아서 묻어버려. 혼 부를 때는 지붕에 올라가서 서쪽으로 돌아서서 부르는 거. 옛날은 혼이, 지붕 용마루로 들어와서 목숨을 끊어갔거든. 하지만 지금은 저 서쪽으로. 서쪽이 차사 다니는 데라고 해. 서쪽에 돌아서서 '누구 엄마 보' 그렇게 해.)

1.5.2. 갖은수의

(1) 메치베, 질베

'메치베'는 시신에게 수의를 다 입힌 다음에 몸 전체를 싸는 보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대림포, 매장포, 메장베'라고 한다. '메치베' 용도로 화순리 양춘자 씨는 '홈베'

를 준비하였다. '춤베'는 표준어 '삼베'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66〉은 양춘자 씨가 자신이 돌아가셨을 때 사용할 '메치베' 용도로 보관하고 있는 '삼베'다.



〈사진 66〉 '메치베'로 사용할 삼베



〈사진 67〉 '관제'로 사용할 '시렁목'

(2) 관제

'관제'는 관을 들고 나갈 때 사용하는 끈이다. 예전에는 삼베로 주로 사용했지만, 화순리 양춘자 씨는 '관제'로 쓸 천으로 '시렁목'을 준비해 놓았다. '시렁목'은 아기 기저귓감으로 많이 쓰는 얇은 하얀 천을 말한다. 〈사진 67〉은 양춘자 씨가 '관제' 용으로 준비한 '시렁목'이다.

(3) 관포



〈사진 68〉 관포

'관포'는 관을 덮을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예전에는 이불을 덮었는데, 요즘은 천을 이용한다.

〈사진 68〉은 양춘자 씨가 4만 원을 주고 장례용품점에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관포'다.

(4) 손수건

'손수건'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쓰는 작은 수건이다. 〈사진 69〉는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갈 때 가지고 갈 용도로 만들어 놓은 손수건이다. 양춘자 씨는 손수건을 열세 개 만들어 놓았다. 손수건은 저승문을 지날 때 하나씩 주고 갈 것으로, 열두 저승문에 줄 열두 개와 자신이 가지고 갈 것까지 열세 개를 준비해 놓았다.

"이건 손수건. 열세 개. 저승문이 열두 문이거든. 열두 문에 바찌는 거. 열세 개 헌 건 나가 하나 가져가는 거. 옛날은 없어서 못 만들아서. 우리 조케가 절간에 다니니까 절간에서 다라니 오십 권 사근에 다라니 하나 놓고 손수건 하나 놓곡 허영 헐 거."

(이거 손수건. 열세 개. 저승문이 열두 문이거든. 열두 문에 바치는 거. 열세 개 한 것은 내가 하나 가져가는 거. 옛날은 없어서 못 만들었어. 우리 조카가 절간에 다니니까 절간에서 다라니 오십 권 사서 다라니 하나 넣고 손수건 하나 넣고 해서 할 거.)



〈사진 69〉 손수건



〈사진 70〉 천금(아래)과 지금(위)

(5) 천금 지금

'천금(天衾)'은 시신의 이불이고, '지금(地衿)'은 시신의 요를 말한다. '지금'은 표준어 '지요(地褥)'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70〉은 양춘자 씨가 솜을 넣어서 만든 이불과 요다. 이불은 초록색, 요는 붉은색으로 만들었다. 이는 시집갈 때 혼수로 해갔던 이불과 요의 색깔을 따라 만든 것이다.

(6) 엄투

'엄투'는 시신의 머리를 싸는 물건이다. 지역에 따라서 '엄두, 엄듸, 엄도' 등으로 말한다.

"엄투는 시신 모셩 갈 때 목이 틀어지지 말라고 허는 거. 엄투 속에 설멩지 놔근에 다 헤. 우리 엄마아빠는 저 멩주솜 놧주마는 지금 멩주솜이 없어."

('엄투'는 시신 모셔서 갈 때 목이 비틀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 '엄투' 속에 풀솜 넣어서 다 해. 우리 엄마아빠는 저 풀솜 넣어지만 지금 명주솜이 없어.)



〈사진 71〉 엄투



〈사진 72〉 검은호상

(7) 검은호상

'검은호상'은 시신의 머리에 씌우는 명주로 만든 모자이다. 안감은 붉은 명주, 겉감은 검은 명주로 만들었다. 검은 명주로 만들어서 '검은호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모자 양쪽에 끈을 달았다.

(8) 악수

'악수'는 시신의 손에 끼우는 장갑이다. 달리 장갑이라고 한다.



〈사진 73〉 악수

(9) 저승신

'저승신'은 시신이 저승에 갈 때 신고 가는 신이다. 명주로 해서 만들었다.



〈사진 74〉 저승신

1.5.3. 상복

(1) 상복

상복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상제들이 입는 옷을 말한다. 상복은 보통 삼베로 해서 만드는데 '미녕(무명)'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한다. 요즘은 삼베 대신에 검은색 양복이나 검은 한복을 입기도 한다. 〈사진 76〉은 양춘자 씨가 만들어둔 상복들로, 〈사진 75〉는 남자 상복의 뒷부분에 길게 늘어뜨린 '업을복'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사진 75〉 양춘자 씨가 '상복'을 설명하는 장면



〈사진 76〉 '상복'들

(2) 복옷띠

'복옷띠'는 상복 대신에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말한다. 〈사진 77〉은 양 씨가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카들이 허리에 두르라고 만들어 놓은 '복옷띠'다.



〈사진 77〉 '복옷띠'



〈사진 78〉 '헹경'

(3) 헹경

'헹경'은 바지나 고의를 입을 때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 매는 물건. 반듯한 헝겊으로 소맷부리처럼 만들고 위쪽에 끈을 두 개 달아서 돌라매게 되어 있다. 〈사진 78〉은 양 씨가 '복옷띠'와 함께 조카들이 맬 용도로 만들어 놓은 '헹경'이다. '헹경'은 표준어 '행전'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Ⅱ 조사 내용

2. 식생활

우리네 인간이 살아가면서 식생활 도구처럼 발달한 것도 없을 것 같다. 식생활 도구는 생활환경의 바뀌면서 재료와 모습도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나무그릇, 질그릇, 대그릇, 사기그릇, 알루미늄그릇, 스테인리스그릇, 유리그릇, 종이그릇 등 다양한 변천 과정 속에 제주 전래 그릇인 나무그릇과 옹기그릇 등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안덕면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 도구로는 '허벅'과 항아리 종류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항아리'를 안덕면 지역에서는 '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통개'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통개'는 주로 항아리 가운데 '큰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였다.

항아리가 다양하게 조사된 것은 안덕면과 이웃한 대정읍 구억리와 신평리에 항아리 굽는 가마가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이 화로다. 구좌 지역에서는 제사 때 고기를 구울 때 주로 '돌화로'를 사용했다면 안덕 지역에서는 '옹기화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전통사회에서 구좌 지역 주민들이 사용했던 식생활 관련 도구를 그릇, 조리 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사 관련 도구 등으로 나눠 기술하려고 한다.

2.1. 그릇

2.1.1. 밥사발과 국사발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밥사발'은 밥을 뜰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말한다. 놋으로 만든 밥사발은 '놋밥사발'이라고 하고, 사기로 만든 것은 '사기밥사발'이라고 한다. '사발' 가운데 통이 깊고 큰 것은 '통사발'이라고 한다. 〈사진 1〉은 창천리 김덕순 씨(1930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통사발'이고, 〈사진 2〉는 김 씨의 '사기밥사발'이다.

'국사발'은 국을 뜰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국사발' 가운데 큰 것은 '대접'이라고 한다. 〈사진 3〉은 덕수리 양기옥 씨(1938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사기국사발'이다. '사



〈사진 1〉 김덕순 씨 소장 '통사발'



〈사진 2〉 김덕순 씨 소장 '사기밥사발'



〈사진 3〉 양기옥 씨 소장 '사기국사발'



〈사진 4〉 박순희 씨 소장 '대접'

기사발'을 제보자에 따라서는 '대접'이라고 하였다. '대접'은 위가 넓적하고 운두가 낮으며 뚜껑이 없는 그릇을 말한다. 주로 국이나 죽 따위를 담는데 쓴다. 〈사진 4〉는 동광리 박순희 씨(1944년생) 시어머니가 쓰던 '대접'이다. 〈사진 5〉는 사계리 지수선 씨(1929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이모노국사발'이다.


〈사진 5〉 지수선 씨 소장 '이모노국사발'

2.1.2. 접시류

접시류에는 쟁반과 접시가 있다. '쟁반'과 '접시'는 반찬 따위를 뜰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2.1.3. 종지류

(1) 보시, 종제기

'보시'는 표준어 '보시기'를 말한다. 김치 따위의 반찬을 뜰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종제기'는 간장이나 술잔 등으로 사용하는 종지를 말한다. '종제기'는 또는 '종지'라고 부른다. 제주에서는 윷놀이할 때도 '종제기'를 이용하는데, 이런 윷놀이를 '종지윳'이라고 한다.

〈사진 6〉과 〈사진 7〉은 화순리 지중연 씨(1930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보시'와 '종제기'다.

"이건 거세기 저 보시. 옛날 보시. 이건 종제기. 이거 상에 놔근에 술도 올리고 허는 종제기고, 이건 보시. 이건 옛날엔 이런 것에 탕쉬ᄀᆞ튼 거 허여근에 젯상에 올렷저. 탕쉬보시 이건. 이건 하난 숭늉 사발로 놓고. 상에 이건 다시 저 채소. 고사리, 콩나물 다시 다


〈사진 6〉 지중연 씨 소장 '보시'


〈사진 7〉 지중연 씨 소장 '종제기'

른 채소헹 세 가지 올리는 거. 이건 술잔으로 상에 올리는 거. 옛날은 요새 그 스덴사발이 엇어나시네게. 이걸로 헤근에 술잔헤세게. 상에 올릴 때. 겐에 술은 저 보시에 안네고. 겐 고뿌가 어디 셔, 요새야 고뿌여 뭐여."[22]

(이건 거시기 저 보시기. 옛날 보시기. 이것은 종지. 이거 상에 놓아서 술도 올리고 하는 종지고, 이것은 보시기. 이것 옛날에 이런 것에 '탕쉬'[23]같은 거 해서 제상에 올렸지. '탕쉬보시기' 이것은. 이건 하나는 숭늉 사발로 놓고. 상에 이것은 다시 저 채소. 고사리, 콩나물 다시 다른 채소해서 세 가지 올리는 거. 이것은 술잔으로 상에 올리는 거. 옛날은 요새 그 스테인리스 사발이 없었었잖이. 이것으로 해서 술잔했어. 상에 올릴 때. 그래서 술은 저 보시기에 드리고. 그래서 컵이 어디 있어. 요새야 컵이다 뭐다.)

〈사진 8〉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사용하던 '장종지'다. 장을 넣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박씨는 '장종지'라고 하였다. 〈사진 9〉와 〈사진 10〉은 덕수리 김영랑 씨(1938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반찬 그릇이다. '젭시'는 '탕쉬' 등 채소를 뜰 때 사용하고, '보시'


〈사진 8〉 박순희 씨 소장 '장종지'

22) 화순리 지중연 씨 구술.
23) '탕쉬'는 제사 때 올리는 나물을 일컫는 말이다.

는 술잔이나 반찬 등을 담을 때 사용하고, '종제기'는 간장 따위를 넣거나 술잔, 또는 물잔으로 쓰는 그릇이다.


〈사진 9〉 김영랑 씨 소장 '젭시'


〈사진 10〉 김영랑 씨 소장 '보시'

"이 그릇 옛날에 식게 멩질 헐 때 사신디 다 데껴 불고. 요건 접시, 요건 보시. 접신 저 탕쉬 ᄀᆞ튼 거 거릴 때 ᄒᆞ꼼 써졋던 모냥이라. 보시도 그렇고게. 요런 종제기도 다 잇어."[24]

(이 그릇 옛날에 제사 명절 할 때 샀는데 다 던져버리고. 요건 접시, 요건 보시기. 접시는 저 나물 같은 거 뜰 때 조금 써졌던 모양이야. 보시기도 그렇고. 요런 종제기도 다 있어.)

2.1.4. 놋숟구락, 놋우금, 남자, 베술기

(1) 놋숟구락·놋숟갈

'놋숟구락·노숟갈'은 표준어 '놋수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11〉은 대평리 오연수 씨(1955년생)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놋수저'다. 〈사진 12〉는 화순리 양춘자 씨(1928년생)가 시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놋숟갈'이다.

"씨할망 우리 큰아덜 세 술에 팔십. 우리 큰아덜 세 설에 돌아가난에. 우리 아덜 쉬은 세 살 용헤치. 이제 살아시민 벡삼십 살. 씨할망 밥 먹을 거 숟갈 세 개 물려준 거. 견디

24) 덕수리 김영랑 씨 구술.


〈사진 11〉 오연수 씨 소장 '놋수저'


〈사진 12〉 양춘자 씨 소장 '놋숟갈'

이거 멧 년? 나난 이제도록 잇지."[25]

(시할머니 우리 큰아들 세 살에 팔십. 우리 큰아들 세 살에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들 쉿세 살 용띠. 이제 살았으면 백삼십 살. 시할머니 밥 먹을 거 숟가락 세 개 물려준 거. 그런데 이젠 몇 년? 나니까 이제도록 있지.)

(2) 우금·밥우금·밥죽

'우금·오곰'은 밥을 뜰 때 사용하는 도구다. 밥을 뜰 때 사용한다고 하여 '밥우굼'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놋쇠로 만들기도 하였다. 놋쇠로 만든 것을 따로 '놋우금·놋오금·놋주걱·놋밥자'라고 하였다. 사계리에서는 '밥죽'이라고도 하였다.

〈사진 13〉은 대평리 강월출 씨(1954년생)가 시고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다. 강 씨는 "시고모님이 [illegible] 주겠다고 허는 거 나가 받아온 거."라며 소장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사진 14〉는 대평리 오연수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놋우금'이다. '놋우금'


〈사진 13〉 강월출 씨 소장 '놋밥자'

25) 화순리 양춘자 씨 구술.



〈사진 14〉 오연수 씨 소장 '놋우금'



〈사진 15〉 임중자 씨 소장 '놋우금'과 '쒜우금'



〈사진 16〉 양기옥 씨 소장 '놋우금'



〈사진 17〉 김영랑 씨 소장 '놋우금'



〈사진 18〉 정춘자 씨 소장 '놋우금'과 '스테인리스 주걱'

이라는 명칭 대신에 '놋주걱·놋밥자'라고도 하였다.

〈사진 15〉는 대평리 임중자 씨가 친정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놋우금'과 임 씨가 살림하면서 장만한 '쒜우금'이다. '쒜우금'은 쇠로 만든 밥주걱을 말한다. 〈사진 16〉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살림하면서 구입한 '놋우금'이다. 〈사진 17〉은 덕수리 김영랑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우금'이고, 〈사진 18〉은 사계리 정춘자 씨(1947년생)가 사용하는 '놋우금'과 스테인리스로 만든 주걱이다. 정 씨는 '우금'이라는 말 대신에 '남죽'이라고 하였다.

"저 밥 거리는 거 밥죽. 이제는 나이론으로 나왐주만은 그때는 나이론 엇어낫수게. 솟디 밥 숢앙 먹을 때는 불 땡 헤 먹을 때는. 게난 저거 나 스물셋에 산 거. 그때 막 그릇덜 이영게 막 하영 사낫주게."[26]

(저 밥 뜨는 거 주걱. 이제는 나일론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때는 나일론 없었습니다. 솥의 밥 삶아서 먹을 때는 불 때서 해서 먹을 때는. 그러니까 저거 나 스물셋에 산 거. 그때 막 그릇들이랑 매우 많이 샀었지.)

〈사진 19〉는 창천리 고원매 씨(1944년생)의 '놋우금'이다. 고 씨가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가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하나는 시집온 당시 시어머니에게 받아 고 씨가 사용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가 사용했던 것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사진 20〉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 보관 중인 시어머니가 사용했던 '놋우금'인데, 시멘트를 뜨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19〉 고원매 씨 소장 '놋우금'



〈사진 20〉 박순희 씨 소장 '놋우금'

(3) 남자와 곰박

'남자'는 표준어 '국자'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곰박'은 삶은 떡을 건질 때 사용하는 국자 비슷한 도구다.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 떡을 건질 때 국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였다.

26) 사계리 정춘자 씨 구술.

(4) 베술기

'베술기'는 죽이나 범벅 따위를 저을 때 사용하는 젓개다. 표준어 '죽젓개'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베술기'는 기다란 나무를 이용하여 만드는데,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또 집을 이사할 때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한다.

〈사진 21〉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사용하는 '베술기'다. 양 씨가 사용하는 이 '베술기'는 33년 전에 집을 지을 때 목수에게 부탁해서 만든 것이다.

"이 베술기 이 집 짓으멍 멘든 거. 죽 쑤고 묵 쑤고 청묵도 쑤고 베술기 드는 게 합니다. 베술기가 들어야 일이 뒈여. 또 고구마 놔근에 무스거 그 메밀ᄀᆞ루 놩 범벅도 허고. 범벅 헐 때 베술기로 젓어사주. 베술기는 안 물리는 거. 이사 갈 때도 안 가졍 가고. 데껴뒁 가는 거. 젓는 거난 던져불어야 뒈. 경 헤부난 매집이 엇어마씨."[27]



〈사진 21〉 양기옥 씨 소장 '베술기'

(이 죽젓개 이 집 지으면서 만든 거. 죽 쑤고 묵 쑤고 청묵도 쑤고 죽젓개 드는 것이 많습니다. 죽젓개가 들어야 일이 되어. 또 고구마 넣어서 무슨 것 그 메밀가루 넣어서 범벅도 하고. 범벅 할 때 죽젓개로 저어줘야. 죽젓개는 안 물리는 거. 이사 갈 때도 안 가져서 가고. 던져두고 가는 거. 젓는 것이니까 던져버려야 돼어. 그렇게 해버리니까 매집에 없어요.)

〈사진 22〉는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서 사용하는 '베술기'로, 남편 강영오 씨(1944년생)가 만든 것이다. 〈사진 23〉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사용했던 '베술기'다. 아래쪽의 막대 모양의 '베술기'가 제주의 전통적인 '베술기'다.

〈사진 24〉는 화순리 양춘자 씨가 사용하는 '베술기'이고, 〈사진 25〉는 대평리 강월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베술기'다. 제주 지역 '베술기'가 기름한 모양인 데 반해 강 씨가 사용하는 '베술기'는 밥주걱 모양으로 끝이 둥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돈을 주고

27)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사진 22〉 고원매 씨 소장 '베술기'


〈사진 23〉 박순희 씨 소장 '베술기'


〈사진 24〉 양춘자 씨 소장 '베술기'


〈사진 25〉 강월출 씨 소장 '베술기'

구입한 것이다.

"베술기 이건 나가 청묵 쑬 때. 청묵은 메누리 못 쒕 나가 문 쒀주주게. 이거 친정어머니가 다 멘들아주는 거."[28]
(죽젓개 이것은 내가 청물 쑬 때. 청묵은 며느리 못 쒀서 내가 몽땅 쒀주지. 이거 친정어머니가 다 만들어주는 거.)

2.1.5. 낭푼류

'낭푼이'는 양푼의 방언형이다. 재료가 놋이면 놋낭푼, 알루미늄이면 '아르미낭푼',

28) 덕수리 김영랑 씨 구술.



〈사진 26〉 박순희 씨 소장 '이노노낭푼'



〈사진 27〉 박순희 씨 소장 '아르미낭푼'

주물로 뜬 것이면 '이모노낭푼'이라고 한다. '이모노(いもの)'는 주물의 일본어로, 일본어가 그릇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다.

〈사진 26〉은 동광리 박순희 씨가 혼수로 가져와 사용하던 '이모노낭푼'이다. 〈사진 27〉의 '아르미낭푼'은 결혼할 때 선물로 받은 것이다.

2.1.6. 차롱

'차롱'은 가는대오리로 네모나게 만든 뚜껑 있는 그릇이다. 표준어 '채롱'에 해당한다. 제주에서 '채롱'은 '족대'라 불리는 이대를 가느다랗게 쪼갠 대오리로 만들었다. '족대'를 구좌 지역에서는 '수리대'라고 하였다.

'차롱'은 주로 밥이나 떡, 고기 등을 넣는 대그릇이다. 밭에 갈 때 점심을 싸고 가는 도시락의 기능을 하였고, 제사 등 큰일 때는 떡이나 적(炙)을 해서 담는 용기로 사용했다. 밥을 넣고 다니면 '밥차롱', 떡을 담으면 '떡차롱', 고기 산적을 넣으면 '궤기차롱'이라고 불렀다. 도시락을 안덕 지역에서는 '도슬기'라고 하였다. '도슬기'는 도시락의 옛말 '도슭'에서 온 말이다. 구좌 지역에서는 '도슬기' 대신에 '차반지'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사진 28〉은 덕수리 양기옥 씨 집에서 제사 때 사용하는 대로 만든 채롱류다. 〈사진 29〉는 창천리 진희선 씨(1931년생)가 제사 때 사용했던 '적차롱'이다. '적차롱'은 산적이나 묵적 등을 넣을 때 사용했던 채롱이다.


〈사진 28〉 양기옥 씨 소장 '차롱'들


〈사진 29〉 진희선 씨 소장 '적차롱'

(1) 밥차롱

'밥차롱'은 밭에 점심을 싸고 갈 때 밥을 넣어서 가지고 가는 대그릇이다. 주로 '족대'라 불리는 이대를 가느다랗게 쪼개 만들었다.

(2) 궤기차롱

'궤기차롱'은 대소사 때 고기를 썰어 넣는 용도로 사용하는 채롱이다. 〈사진 30〉은 덕수리 양기옥 씨 집에서 사용하는 '궤기차롱'이다. 밭에 다닐 때 밥을 싸서 다니는 '차롱'보다 크기가 크고 네모나게 만들었다. '궤기차롱'의 크기는 위쪽 가로 41cm 세로 33.5cm 높이 14cm, 아래쪽 가로 38cm 세로 29.2cm, 높이 16.5cm다.

"궤기차롱 큰일 때게 저 잔치나 대소상 나민 집이서. 이거 고기차롱, 고기차롱. 뒈지고기 썰엉 놓는 거."[29]
(고기채롱 큰일 때 전 잔치나 대소상 나면 집에서. 이거 고기채롱, 고기채롱. 돼지고기 썰어서 넣는 거.)


〈사진 30〉 양기옥 씨 소장 '궤기차롱'

29)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3) 떡차롱, 지물차롱, 지물고량, 제물고량

'떡차롱'을 제사 등 큰일이 있을 때 떡을 해서 넣는 대그릇이다. '떡차롱'은 떡을 넣는 용도로 사용하는 채롱이다. 〈사진 31〉은 덕수리 양기옥 씨(1938년생)가 제사나 명절 등에 송편이나 절변 등의 떡을 넣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채롱이다. 크기는 위쪽 가로43.2cm, 세로 32.5cm, 높이 9cm, 아래쪽 가로 40. 7cm, 세로 31.5cm, 높이 10.5cm다.

'떡차롱'은 '지물(제물)'을 넣고 다닌다고 해서 '지물차롱'이라고 한다. '지물+차롱' 구성으로, '지물'을 해서 넣는 '차롱'이라는 의미다. '지물'은 '제물'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고, '차롱'은 '채롱'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32〉는 동광리 박순희 씨가 사용하는 '지물차롱'이다.



〈사진 31〉 양기옥 씨 소장 '떡차롱'



〈사진 32〉 박순희 씨 소장 '지물차롱'

"떡, 빈떡 허영 담고 다 지물. 저 침떡도 담고, 다 떡 담는 거."[30]
(떡, '빙떡' 해서 담고 다 제물. 저 시루떡도 담고, 다 떡 담는 거.)

〈사진 33〉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사용했던 '지물차롱'이다. '지물차롱' 작은 것은 '지물고량'이라고 한다. 이 '지물고량'은 가는대오리로 만든 '[illegible]대구덕'에 넣어서 다녔다. 양 씨가 부모님 제사 때 '무은침떡'[31] 열 켜를 넣어서 다녔다고 한다. 대정읍 소재

30)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31) '무은침떡'은 흰쌀에 무 등을 섞은 후 팥고물을 묻혀서 찐 시루떡이다.

모슬포 오일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저거 족은 건 지물차롱. 떡을 헤영 놓는 거. 부모님 제사 먹으레 갈 때도 고대구덕에 지물고량 놩. 무은침떡을 치거든. 열 빗 놔. 열빗 들어가민 궁긋헤여. 빙떡을 헤여도 이것에 놩 가고. 지물고량에. 이 고량 사건디가 혼 수십 년 뒈실 거라. 모실포 장에서 산. 큰고대구덕은 서귀포장에서 사고. 고대구덕은 장수꾼 풀레 뎅기난 산 거. 이거 사오니까 잔칫집의 멧 밧듸사 가온지 몰라. 이거 빌려주곡."[32]

(저거 작은 것은 '제물채롱'. 떡을 해서 넣는 거. 부모님 제사 먹으러 갈 때도 가는대바구니에 '제물량' 넣어서. '무은침떡'을 치거든. 열 빗을 넣어. 열 빗 들어가면 봉긋해. '빙떡'을 해도 이것에 넣어서 가고. '제물고량'에. 이 고량 산 지가 한 사십 년 돼을 거야. 모슬포 오일장에서 샀어. '큰가는대바구니'는 서귀포장에서 사고. 가는대바구니는 장사꾼 팔러 다니니까 산 거. 이것 사오니까 잔칫집 몇 군데야 가왔는지 몰라. 이거 빌려주고.)



〈사진 33〉 양춘자 씨 소장 '지물차롱'



〈사진 34〉 김덕순 씨 소장 '지물고량'

'지물고량'을 창천리 김덕순 씨는 '제물고량'이라고 하였다. 〈사진 34〉는 김 씨가 사용했던 '제물고량'이다. 이 '고량'은 김 씨가 채롱을 만드는 사람을 집으로 모셔다가 집에서 결었다고 한다. '고량' 테가 헐어가니까 김 씨가 나일론 끈으로 감아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 대로 헌 건디 다 끈어져불어. 이거 나냥으로 다 돌란. 이건 제물고량이랏주, 제

32) 화순리 양춘자 씨 구술.

물고량. 이건 저 멘드는 어른 돌아당 앚졍 집이서 멘들안. 이거 초가집 때에 헌 거난 이것도 그자 오십년 뒛주. 게난 옛날은 고견가젠 허민 빙떡을 허나 침떡을 허나 허영 이 고량으로 이빠이 놘 포따리 더퍼근에 저 조문갓주. 요샌 돈덜을 밋밋허주만은 옛날은 뒈고 말고 떡이라. 놈의 집이도 떡, 방상에도 이걸로 헤가고. 제물은 빙떡도 헹 가고 침떡도 헐 때는 침떡도 허고. 놈의 집이 가는 거는 빙떡 헹 가고 이녁 일가칩이, 가까운 권당신디 갈 때는 침떡 헹 가고. 곤침떡 헹 가주."[33]

(이거 대로 한 것인데 가 끊어져버렸어. 이거 나대로 다 둘렀어. 이거 '제물고량'이었지, '제물고량'. 이것은 저 만드는 어른 데려다가 앉혀서 집에서 만들었어. 이거 초가집 때에 한 것이니까 이것도 그저 오십년 됐지. 그러니까 옛날은 조문가려고 하면 '빙떡'을 하나 시루떡을 하나 해서 이 '고량'으로 가득 넣어서 보자기 덮어서 저 조문갔지. 요샌 돈들을 모두하지만 옛날은 되든말든 떡이야. 남의 집에도 떡 친척에도 이것으로 해가고. 제물은 '빙떡'도 해서 가고 시루떡도 할 때는 시루떡도 하고. 남의 집에 가는 것은 '빙떡' 해서 가고 이녁 친척집에, 가까운 권당한테 갈 때는 시루떡 해서 가고. 흰 시루떡 해서 가지.)

(4) 도슬기

'도슬기'는 안덕면 지역에서 '도시락'을 일컫는 말이다. 대오리를 결어서 '채롱' 모양으로 네모나게 만들었다. 덕수리 사람들은 밭에 일하러 갈 때나 소를 보러 다닐 때 '도슬기'에 점심을 싸서 다녔다.

〈사진 35〉는 덕수리 양기옥 씨가 사용했던 '도슬기'다. '족대'라 불리는 이대를 베어다가 '구덕장이'가 있는 대정읍 모슬포에서 만들어 온 것이다. 위쪽 가로 24cm 세로 22cm 높이 7cm, 아래쪽 가로 22.2cm, 세로 19.7cm, 높이 8cm 크기다.



〈사진 35〉 양기옥 씨 소장 '도슬기'와 '궤기차롱'

"도슬기 이거 오랫수다. 구덕 헐 때에 다 ᄀᆞ찌. 이거 먹음에 달려수다만은 너이 먹주. 혼착에 저 둘리썩 너이. 밧디 일 헐 때 쓰난. 바위 허난 다 이거 나이롱으로 나냥으로 문 둘

33) 창천리 김덕순 씨 구술.

려진 거 닮은게. 이런 것에 밥을 거려야 물 빠지고 좋아. 옛날 보리밥 허영 다 쌍 뎅견."[34)]

(도시락 이거 오랬습니다. 바구니 할 때에 다 같이. 이거 먹음에 달렸습니다만 넷이 먹지. 한쪽에 저 둘씩 넷이. 밭에 일 할 때 쓰니까. 가장자리 허니까 다 이거 나일론으로 나대로 몽땅 두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밥을 떠야 물 빠지고 좋아. 옛날 보리밥 해서 다 싸서 다녔어.)

위 구술 내용을 보면, 이 '도슬기'에 밥을 싸고 다닐 때는 밥을 양쪽 그릇에 담아 두 개를 겹쳐서 덮었다. 한 쪽에 두 명씩 네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도슬기' 테두리가 헐어서인지 나일론 줄로 감아 있다. 테두리를 감는 것을 양 씨는 '바위 [illegible]르다'라고 한다.

2.1.7. 구덕

'구덕'은 대오리로 결은 바구니를 말한다. 용도와 재료 등에 따라 '질구덕', '물구덕', '서답구덕', '[illegible]는대조레기', '[illegible]는대구덕', '풀[illegible]른구덕', '[illegible]구덕', '애기구덕' 등으로 나뉜다.

(1) 질구덕

'질구덕'은 물건을 집어넣어서 지고 다니게 만든 대오리로 결어서 만든 바구니를 말한다. '구덕' 가운데 가장 크다. '질구덕'은 밭에 다닐 때 점심을 넣어서 다니기도 하고, 바닷가에 물질하러 갈 때 '테왁'을 넣어서 다니기도 하였다. 미역이나 우뭇가사리 등을 채취한 것을 담아서 져올 때도 썼다.



〈사진 36〉 유순옥 씨 소장 '질구덕'

〈사진 36〉은 사계리 유순옥 씨(1933년생)가 사용했던 '질구덕'이다. 빨래를 하러 가거나 밭에 일을 하러 갈 때 점심을 넣어서 지고 다녔던 '질그릇'이다.

34)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2) ᄀᆞ는대구덕·곤데구덕

'ᄀᆞ는대구덕'은 가는 대오리로 촘촘하게 엮은 바구니를 말한다. 달리 'ᄀᆞᆫ데구덕'이라고 말한다. 'ᄀᆞᆫ데구덕'은 오늘날 가방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바구니 가운데 '명품'에 해당한다. 주로 당에 갈 때 제물을 갖고 가거나 잔칫집이나 제삿집에 갈 대 쌀이나 떡등의 부조를 넣어서 갈 때 사용했던 바구니다.

〈사진 37〉은 대평리 강월출 씨가 시어머니 강병화 씨(작고)에게서 30년 전에 물려받은 바구니다. 이 바구니는 원래 강 씨의 시어머니 강병화가 동네에 대소사가 있을 때 부조할 쌀 등을 넣어서 들고 다녔던 'ᄀᆞ는대구덕'이다. 강 씨의 시어머니가 바구니가 헐어가자 담배를 포장했던 종이로 몸통을 바르고, 둘레인 '에움'은 무늬가 있는 헝겊으로 발라 새 단장해 놓았다. 이렇게 헝겊이나 종이를 덧바른 바구니는 '풀ᄇᆞ른구덕'이라고 한다.



〈사진 37〉 강월출 씨 소장 '풀ᄇᆞ른구덕'



〈사진 38〉 김성옥 씨 소장 '곤대구덕'

"이거 ᄀᆞ는대구덕이주게. 그것이 헐어가니까 어머니가 손수 멘든 거. 옆에 일가 집에 쌀 부주 헹 가젠 허민. 이쁘게 어무니가 담배 종이로 헹 나뒷더라고예. 버려 불카 허난 아멩헤도 이건 아깝더라고. 요런 담배 이름도 잊어 부는 마당에 이거 어무니 생각허멍 다 놔둔 거우다. 딴 게 아니고, 시어머니 생각헨. 나가 결혼헌 지 사십일년이난 오십년 뒌 걸 거우다. 나가 간 보난 잇언게."[35]

(이거 가는대바구니지. 그것이 헐어가니까 어머니가 손수 만든 거. 옆에 일가 집에 쌀

35) 대평리 강월출 씨 구술.

부주 해서 가려고 하면. 이쁘게 어머니가 담배 종이로 해서 놔뒀더라고요. 버려 버릴까 하니까 아무리 해도 이것은 아깝더라고. 요런 담배 이름도 잊어버리는 마당에 이거 어머니 생각하면서 다 놔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어머니 생각해서. 내가 결혼한 지 사십일 년이니까 오십 년 된 걸 겁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있던데.)

위의 구술 내용을 보면, 강 씨는 시어머니가 손수 예쁘게 만든 바구니여서,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바구니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바구니는 시어머니가 일가에 일이 나면 쌀 부조를 할 때 들고 갔던 바구니다. 바구니를 바른 담배 포장 종이에 '88 디럭스 마일드'라고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바구니는 적어도 28년 전에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강씨가 41년 전에 결혼해서 시집에 가보니까 그때도 쓰고 있었다고 하니, 이 바구니는 적어도 50년은 족히 된 것 같다.

〈사진 38〉은 대평리 김성옥 씨(1937년생)가 열아홉에 시집가서 부조할 쌀 등을 넣어서 다니기 위해서 산 것으로, 50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김씨는 '□대구덕'이라고 하였다. 오래 되어서 그런지 바구니 '에움(둘레)'의 대오리가 뜯어지기 시작했다.

"동네에 잔치 먹으레 가도 이디 쌀 놔근에 가는 거. 영헨 이것에 들렁 강. 이거 혼 오십 년 써져신가. 이제 나가 팔십이라. 스물, 열아홉에 시집가난 나가 산 거."[36]

(동네에 잔치 먹으러 가도 여기 쌀 넣어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것에 들어서 가서. 이거 한 오십년 써졌는가. 이제 내가 팔십이야. 스물, 열아홉에 시집가니까 내가 산 거.)

〈사진 39〉는 대평리 박애자 씨(1934년생)가 사용했던 '□대구덕'이다.

"고대구덕 저거 동네 잔치덜 헷잖아. 동네 잔치. 그때는 돈 부주가 아니고 쌀로 부주헷잖아. 겐 쌀 담앙 가젼 뎅겨난 거. 부주 쏠 담앙. 부주를 그 당시에는게 돈 부주가 없엇주게. 다 그 먹는 거 쌀덜 허영 허민게 그 쌀덜 허여근에. 첨, 이젠 곤썰, 나룩썰 허는 딘 그런 거 허고 또 그냥 펭상시 이 동네에서 그냥 친허지 안헌 집인 그자 저 보리썰 두 뒈, 석 뒈 경허영 헤낫저, 옛날에."[37]

36) 대평리 김성옥 씨 구술.
37) 대평리 박애자 씨 구술.



〈사진 39〉 박애자 씨 소장 '고대구덕'



〈사진 40〉 양춘자 씨 소장 '고대구덕'

(가는대바구니 저거 동네 잔치들 했잖아. 동네 잔치. 그때는 돈 부조가 아니고 쌀로 부조했잖아. 그래서 쌀 담아서 가져서 다녔던 거. 부조 쌀 담아서. 부조를 그 당시에는 돈 부조가 없었지. 다 그 먹는 거 쌀들 해서 하면 그 쌀들 해서. 참, 이젠 흰쌀. 볍쌀 하는 데는 그런 것 하고 또 그냥 평상시 이 동네에서 그냥 친하지 안한 집에는 그저 저 보리쌀 두 되, 석 되 그렇게 했었지, 옛날에.)

〈사진 40〉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사용했던 '□대구덕'이다. 바구니의 '테'에 무명실을 감아 표시를 해놓았다. '□데구덕'에는 보자기가 들어 있는데, 이는 쌀 등의 부조를 넣어서 갈 때 위에 덮는 용도다.

"고대구덕. 요거는 떡 놔근에 소상 먹으레 갈 때, 대상 먹으레 갈 때 이렇게 잔치 먹으레 갈 때 쏠 놔근에 ?젼 뎅겨난 거. 지물 놓거든. 떡, 빵떡이나 이 침떡이나 놔가지고 이렇게 놔서이. 영 놩 ?정뎅기고. 또 잔치 때 돌아오민 그거 어디 실 거라. 차대. 쏠, ?야지 뻬 하나 놓고 술 혼 뒈 놓곡 아덜 풀 때에 사돈칩의 거져 가는 거. 이것은 고대구덕 큰 거에 놩 허는 거."[38]

(가는대바구니. 요것은 떡 넣어서 소상 먹으러 갈 때, 대상 먹으러 갈 때 이렇게 잔치 먹으러 갈 때 쌀 넣어서 가져서 다녔던 거. 제물 넣거든. 떡, 빵이나 이 시루떡이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넣어서 가져다니고. 또 잔치 때 돌아오면 그거 어디 있

38) 화순리 양춘자 씨 구술,

을 거야. 자루. 쌀, 돼지고기뼈 하나 넣고 술 한 되 넣고 아들 팔 때에 사돈집에 가져가는 거. 이것은 가는대바구니 큰 거에 넣어서 하는 거.)

〈사진 41〉은 창천리 진희선 씨가 사용했던 '가는대구덕'이다. 이 '구덕'은 동네에 잔치 등 먹을 일이 있을 때 부조할 쌀 등을 넣어서 다닐 때 썼다. 부조할 때 쓴다고 해서 '부짓구덕'이라고도 하였다.

"이거 가는대구덕 부짓구덕. 이건 부지헤영 놈이 집이 가져갈 때 갓주. 동네집이도 아져가고. 쏠, 곤썰 잇인 사름은 허고 엇인 사름은 보리썰도 아져가고."[39]
(이거 가는대바구니 '부조바구니'. 이것은 부조해서 남의 집에 가져갈 때 갔지. 동넷집에도 아져가고. 쌀, 흰쌀 있는 사람은 하고 없는 사람은 보리쌀도 가져가고.)


〈사진 41〉 진희선 씨 소장 '부짓구덕'


〈사진 42〉 오연수 씨 소장 '곤대구덕'

'곤대구덕'은 당에 다닐 때도 갖고 다녔다. 〈사진 42〉는 대평리 오연수 씨 친정어머니가 '할망칩'에 다닐 때 사용했던 '곤대구덕'을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덕도 막 오랜 거. 이거 친정어무니 당밧듸 할망칩이 다닐 때 이 구덕에 헤근에 초 놓고 향 놓고 헤근에 져근에 다니는 거. 이거 우리 친정어무니가 물려준 거난 막 오랜 거."[40]

39) 창천리 진희선 씨 구술.
40) 대평리 오연수 씨 구술.

(이 바구니도 매우 오랜 거. 이거 친정어머니 '당밭'에 '할망집'에 다닐 대 이 바구니에 해서 초 넣고 향 넣고 해서 져서 다니는 거. 이거 우리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것이니까 매우 오랜 거.)

'할망칩'은 대평리에서 신당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고, '당밧'은 당이 있는 밭이라는 의미다. 〈사진 43〉은 사계리 윤순옥 씨가 당에 갈 때 가지고 다녔던 '□는대구덕'이고 〈사진 44〉는 '□는대구덕' 안에 넣고 다녔던 '상지착'이다. '상지착'은 상자 모양으로 네모나게 만든 대그릇으로 채롱의 다른 이름이다.


〈사진 43〉 유순옥 씨 소장 '□는대구덕'


〈사진 44〉 유순옥 씨 소장 '상지착'

"이 상지착이영 □는대구덕은 할망디 뎅길 때 이것에 허고. 이것에 또 떡도 상 제□ 때 놧당 먹곡. 제물도 사 오고 밥도 밧디 아졍 강, 보리밥 헹 강 먹고."[41]

(이 '상지착'과 '가는대바구니'는 신당에 다닐 때 이것에 하고. 이것에 또 떡도 상 제사 때 놨다가 먹고. 제물도 사 오고 밥도 밭에 가져가서, 보리밥 해서 가서 먹고.)

〈사진 45〉는 창천리 고원매 씨가 '할망듸' 갈 때만 사용하는 '□는대구덕'과 '걸렝이'다. 고 씨가 다니는 '할망듸'는 '닥밧'이다. 그곳에 갈 때 고 씨는 이 '□는대구덕'에 제물을 넣고 '걸렝이'로 지고 갔다. '걸렝이'는 천으로 만든 '질빵'으로, 이 '걸렝이'는 고 씨가 직접 '발미싱(발재봉틀)'으로로 만든 것이. 고 씨는 이 '□는대구덕'을 당에 갈 때

41) 사계리 유순옥 씨 구술.

만 사용하였는데, '?는대구덕' 안에는 보자기와 '걸렝이'가 함께 들어 있었다.

"?는대구덕 저것도 사건디 혼 이십 년 넘어서. 그 할망듸 갈 때만 딱 쓰난. 당밧듸. 정월 열일레에 가는디, 떡 허영 저 차롱착에 놓고 밥 허영 놓고. 밥도 스덴사발 ᄒᆞ나 그건 큰 디. 보시 세 개 거령 가근에 올레레영 하나씩 놓고 떡 ᄒᆞ나썩 놓고 그추룩. 떡은 메밀떡. 돌레떡. 뒛박으로 ᄒᆞ나 헹 골아근에 그자 허영 그디 아졍가고 더러 내불민 아이덜도 먹곡. 걸렝이 나 멘든 거. 오래수다게. 발미싱으로 헹 누변에. 이건 딱 정성으로 할망듸 갈 때만."[42]

(가는대바구니 저것도 산 지 한 이십 년 넘었어. 그 '할망듸' 갈 때만 딱 쓰니까. '당밭'. 정월 열이레에 가는데, 떡 해서 저 채롱에 놓고 밥 해서 놓고. 밥도 '스덴사발' 하나 그건 큰데. 보시기 세 개 떠 가서 '올레'에 하나씩 놓고 떡 하나씩 놓고 그렇게. 떡은 메밀떡, '돌레떡'. 되로 하나 해서 갈아서 그저 해서 거기 가져가고 더러 놔두면 아이들도 먹고. '걸렝이' 내가 만든 거. 오랬습니다. 발재봉틀로 해서 누벼서. 이건 딱 정성으로 '할망듸' 갈 때만.)



〈사진 45〉 고원매 씨 소장 '?는대구덕'과 '걸렝이'



〈사진 46〉 양기옥 씨 소장 '?는대구덕'

〈사진 46〉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사용했던 '?는대구덕'이다. 크기는 가로 37cm, 세로 33.5cm, 높이 19cm로, 동네에 일이 있을 때 쌀이나 떡 등 부조를 넣어서 다닐 때 사용하는 바구니다.

42)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3) ᄀᆞ는대조레기

'ᄀᆞ는대조레기'는 가는 대오리로 결은 작은 바구니를 말한다. 안덕면 지역에서는 작은 바구니를 '조레기'라고 하고, 가는 대오리로 결은 바구니여서 'ᄀᆞ는대조레기'라고도 하였다. 대를 재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대조레기'라는 용어도 사용하였다. '조레기'를 구좌 지역에서는 '동이구덕', 한경 지역에서는 '돌렝이' 또는 '돌랑지'라고 한다. 'ᄀᆞ는데ᄌᆞ레기'는 제사 때 떡을 넣어서 들고 다니기 때문에 '빵구덕'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사진 47〉은 창천리 김덕순 씨가 사용했던 '대조레기'다. 김 씨는 이 '대조레기'를 잔칫집 등에 부조를 하러 갈 때 사용하였다.

"이건 대조레기. 또 떡 안 헤영 가는 딘 쏠도 두 뒈 허영 이것에 가근에 영 영 들어근에. 잔치 먹으레 갈 때는 가고 경허는 거, 대조레기."[43]

(이것은 '대조레기'. 또 떡 안 해서 가는 데는 쌀도 두 되 해서 이것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잔치 먹으러 갈 때는 가고 그렇게 하는 거, '대조레기'.)



〈사진 47〉 김덕순 씨 소장 '대조레기'



〈사진 48〉 양기옥 씨 소장 'ᄀᆞ는대조레기'

〈사진 48〉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사용했던 'ᄀᆞ는대조레기'다. 양씨는 안덕면 덕수리에서 '삼동(상동)'을 따러 다닐 때 'ᄀᆞ는대조레기'를 들고 다녔다고 한다. 〈사진 49〉는 화순리 지중연 씨가 '바농상지'로 사용하는 '조레기'다. 이 '조레기'는 고 씨의 나이 열여덟에 고 씨의 고모가 제주시 도련동에서 구입해서 선물로 준 것이다.

43) 창천리 김덕순 씨 구술.

"이거 옛날에 삼동 타레 ᄋᆞ정 다니는 거. ᄀᆞ는대조레기, 저 옛날에 삼동 타는 할망덜 이런 것에 삼동 강 타다근에 풀주게."[44]

(이거 옛날에 상동 타러 가져서 다니는 거. 가는대바구니, 저 옛날에 상동 따는 할머니들 이런 것에 상동 가서 타다가 팔지.)



〈사진 49〉 지중연 씨 소장 'ᄀᆞ는대조레기'



〈사진 50〉 양기옥 씨 소장 '송키구덕'

(4) 송키구덕

'송키구덕'은 푸성귀를 하러 다닐 때 사용하는 바구니를 말한다. '송키+구덕' 구성으로, '송키'는 푸성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푸성귀'를 하러 다닐 때 들고 다니는 바구니여서 '송키구덕'이라고 한다.

〈사진 50〉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사용했던 '송키구덕'이다. 양 씨가 서른 살 쯤에 집에 심어 있는 '족대' 즉, 이대를 베고 가서 서귀포시 대정읍 '모실포(모슬포)'에 가서 전문적으로 바구니를 만드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결어 온 것이다.

"송키구덕인디 저거 하난 불 부쪄불고 저건 아멩헤도 곱덴사 놔둬신디. 우리 작은아덜 다 ᄀᆞ져간덴, 자기가 다 ᄀᆞ져간덴. 저건 나가 헌 거. 이거영 나가 다 만든 거. 대 비영 강 모실포 강 헤여완. 대 비영 강 만들앙 완. 이거 저 족대. 혼 서른에, 서른에쯤 헤진 거 닮아마씨."[45]

(푸성귀바구니인데 저거 하난 불 붙여버리고 저건 아무래도 곱다고야 놔뒀는지. 우리

44)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45)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작은아들 다 가져간다고, 자기가 다 가져간다고. 저것은 내가 한 거. 이거랑 내가 다 만든 거. 대 베어 가서 모슬포에 가서 ** 아버지한테 가서 해왔어. 대 베어 가서 만들어서 왔어. 이거 저 이대. 한 서른에, 서른쯤에 해진 것 같아요.)

(5) 풀ᄇᆞ른구덕

'풀ᄇᆞ른구덕'은 헐어 쓸모없게 된 바구니에 종이나 헝겊 따위를 발라 구멍이 나지 않게 만든 바구니를 말한다. 구좌 지역에서는 '풀ᄇᆞ른구덕'을 'ᄇᆞ른구덕'이라고 하였다. '풀ᄇᆞ른'은 '풀을 이용해 헝겊이나 종이를 바른'의 의미다.

"저것에 쏠 놩도 영 헹 잔치집이. 저것에는 싸지 안 헤도 놩 가고. 대바구닌 가젠 허민 험벅으로, 잘리에 놩 쌍 가고. 게난 저것을 좋기는 존 디 이땅은 가면은 빈 구덕 내쳐져. 우리 어디 가면은 이제 저 부주 선물 받듯이 밥을 놩 주주게. 게난 풀ᄇᆞ른바구니는 밥을 놓민 좋지 안 허주게. 경허난 보통으론 대구덕."[46]

(저것도 쌀 놓고도 이렇게 해서 잔치집에. 저것에는 싸지 않아도 놓고 가고. 대바구닌 가려고 하면 헝겊으로, 자루에 놔서 싸서 가고. 그러니까 저것이 좋기는 좋은데 있다가 가면은 빈 바구니를 낼 수 있어. 우리 어디 가면은 이제 저 부조 선물 받듯이 밥을 놓고 주지. 그러니까 '풀ᄇᆞ른' 바구니는 밥을 놓으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대바구니.)

(6) 상지

'상지'는 대오리로 결어서 네모나게 크게 만든 대그릇이다. '상자' 안에 옷 따위의 귀중품을 넣어두었던 대그릇이다. 지금은 헝겊 등을 바구니에 바르고 있지만 예전에는 대나무로만 결어서 사용하였다.

〈사진 51〉은 덕수리 김영랑 씨(1938년생)가 친정어머니한테 물려받



〈사진 51〉 김영랑 씨 소장 '상지'

46) 창천리 김덕순 씨 구술.

은 '상지'다. 김 씨는 이 '상지'를 고구마를 넣어 두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 상자, 친정어멍 물린 거. 이것에 뭐 놓라 허멍 줜게. 나 고구마 낳 먹젠 허난 ᄒᆞ꼼 풀 볼란. 친정어머니가 쓸 때도 풀 볼란 써낫지. 풀 볼란 쓰난 헐어가난 나가 고구마 놓젠 허니 ᄒᆞ꼼 풀 볼란. 게난 이거 나가 단똘이난 이거 물린 거라. 이것에 뭐 놓라 허멍 친정어멍이 준 거. 옷 놧던 모양이라."[47]

(이거 상자, 친정어머니 물려받은 거. 이것에 뭐 넣어라 하면서 주던데. 나 고구마 넣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풀 발랐어. 친정어머니가 쓸 때도 풀 발라서 썼었지. 풀 발라서 쓰니까 헐어가니까 내가 고구마 놓으려고 하니 조금 풀 발랐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외딸이니까 이거 물린 거야. 이것에 뭐 넣어라 하면서 친정어머니가 준 거. 옷 넣었던 모양이야.)

2.1.8. 소쿠리

'소쿠리'는 대나 싸리로 엮어 만든 그릇으로, 떡 등을 만들어 넣거나 채소 등을 씻어 건질 때 사용하였다. 제주에서 사용하는 소쿠리는 삼태기 모양으로 만들었다. 둥근 모양의 소쿠리는 육지에서 들어온 것이다.

〈사진 52〉는 대평리 박애자 씨가 제사 때 떡을 만들 물에 담갔다가 건질 때 사용했던 '소쿠리'다. 대로 만들어서 '대소쿠리'라고 한다. 박 씨가 마을에 팔러 온 것을 사서 40~50년은 썼다고 한다. 〈사진 53〉은 화순리 지중연 씨가 사용했던 '소쿠리'다.



〈사진 52〉 박애자 씨 소장 '소쿠리'



〈사진 53〉 지중연 씨 소장 '소쿠리'

47) 덕수리 김영랑 씨 구술.

"이거 ᄂᆞ물도 시쳐 놓고 콩ᄂᆞ물도 시쳐 놓고 채소 시쳐 놓는 거 소쿠리."[48]
(이거 나물도 씻어서 넣고 콩나물도 씻어 넣고 채소 씻어서 넣는 거 소쿠리.)

〈사진 54〉는 덕수리 문성실 씨(1964년생) 가게에 전시되어 있는 '소쿠리'다. 〈사진 55〉는 대평리 강월출 씨가 제사 때 쓰려고 여행 가서 사온 것이다. 제주에서 사용하는 소쿠리는 삼태기 모양인데 반해서 이 소쿠리는 둥글면서도 납작한 게 특징이다. 현대식 소쿠리로, 제사 등 집안에 일이 있을 때 '빙떡' 지진 것을 꺼내 놓을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54〉 문성실 씨 소장 '소쿠리'


〈사진 55〉 강월출 씨 소장 '소쿠리'

요즘은 '소쿠리'도 대오리 대신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사진 56〉은 창천리 고원매 씨가 감을 깎아 넣은 플라스틱 소쿠리이고, 〈사진 57〉은 대추를 넌 '소쿠리'다. 〈사진 58〉은 창천리 김덕순 씨가 감을 넣어서 말리는 데 사용하는 소쿠리다.


〈사진 56〉 소쿠리에 감을 널어 말리는 모습

48) 화순리 지중연 씨 구술.


〈사진 57〉 소쿠리에 대추를 널어 말리는 모습


〈사진 58〉 소쿠리에 감을 널어 말리는 모습

2.1.9. 남도고리·낭도고리

'남도고리'는 나무를 둥글납작하게 파서 만든 그릇이다. '도고리'는 쓰임에 따라 크기가 달랐다. 크기가 큰 '도고리'는 떡을 반죽할 때 사용하거나 가루를 빻을 때 사용하고, 맷돌을 갈 때도 사용하였다. 용도에 따라서 떡을 만들 때 사용하면 '떡도고리', '맷(맷돌)'를 얹어서 가루를 갈 때 사용하는 도고리는 '맷도고리', 밥을 떠서 먹는 도고리는 '밥도고리'이다.

'밥도고리'를 달리 '남박'이라고도 하였다. '양푼'과 대야가 나오면서 '도고리'와 '남박'은 자취를 감췄다. '남박'은 나무로 만든 바가지라는 의미이다.

"낭도고리 물려받은 거주게. 옛날게 낭푼이로 써난 거주. 난 아무 것도 안 써서.)"[49]

('낭도고리' 물려받은 거지. 옛날 양푼으로 썼던 거. 난 아무 것도 안 썼어.)

〈사진 59〉는 창천리 고원매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낭도고리'다.


〈사진 59〉 고원매 씨 소장 '낭도고리'

49)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크기는 지름 36cm, 높이 12cm, 밑지름 30cm으로, 부분적으로 깨져 있고 곳곳에 좀이 슬었다. 지금은 허드레 물건을 넣는 용도로 쓰고 있다.

〈사진 60〉은 대평리 강월출 씨가 소장하고 있는 '남도고리'다. 강 씨는 이 '도고리'를 이용하여 예전에 청묵을 쑬 때 묵을 응고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강 씨 친정어머니가 쓰던 것으로, 35년 전에서 바다에서 잡아온 새우로 만든 '새우박제' 2개와 맞바꾼 것이다. 나뭇결이 그대로 보여 옛 그릇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사진 60〉 강월출 씨 소장 '낭도고리'

2.1.10. 기타

(1) 뒈왁세기, 밥뒈

'뒈왁세기'는 '식되'를 가리키는 안덕면 지역의 말이다. 쌀 등의 곡식을 뜨기 위해서 '쏠항(쌀독)' 등에 넣어두고 사용하는 나무 그릇이다. 둥글면서도 기름하게 만들었다. '뒈약세기', '밥뒈' 등으로도 불린다. '뒈왁세기'는 곡식을 바람에 드릴 때 사용하는 '솔박' 모양으로 만드는데, '뒈왁세기'로 두 개 반이면 한 되 분량이다.

〈사진 61〉은 대평리 오연수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쓰던 '뒈왁세기'이고, 〈사진 62〉는 화순리 양춘자 씨가 사용하는 '뒈왁세기'다. 양 씨는 며느리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쌀 계량컵'을 사다줬지만 시어머니가 물려준 '뒈왁세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진 63〉은 사계리 정춘자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밥뒈'다.


〈사진 61〉 오연수 씨 소장 '뒈왁세기'



〈사진 62〉 양춘자 씨 소장 '뒈왁세기'



〈사진 63〉 정춘자 씨 소장 '밥뒈'

"뒈왁세기로, 이걸로 하나 놓면은 나 이틀 먹나. 이걸로 놓거든. 어머니 준 거 쓰지. 그래서 이거 쓰는 거라. 씨할망, 씨어머니 써난 거 나가 써."[50]

(식되로, 이것으로 하나 넣으면 나 이틀 먹는다. 이것으로 넣거든. 어머니 준 거 쓰지. 그래서 이거 쓰는 거야. 시할머니, 시어머니 썼던 거 내가 써.)

(2) 콕락박세기

'콜락박세기'는 박을 반으로 쪼개서 만든 바가지를 말한다. '콜락(콜왁)'은 표준어 '박'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구좌 지역에서는 '콜락' 대신에 '콕'이라고 용어를 사용하였다.

2.2. 조리 도구

2.2.1. 솟류

'솟(솥)'은 표준어 '솥'에 대응하는 방언형다. 크기와 재료에 따라 그 명칭이 발달해 있다. '쒜'로 만든 솟은 '쒜솟(쇠솥)'이라고 하고, '이모노'로 만든 솥은 '이모노솟', 알루미늄으로 만든 솥은 '아르미솟·아레미솟'이라고 한다.

50) 화순리 양춘자 씨 구술.

솥은 보통 '정제(부엌)' 안에 4~5개를 걸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크기가 작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동광리 박순희 씨(1944년생)는 말치–다도테기–서두테기–웅조리 순으로 솥을 걸었다고 한다. 가장 위쪽에 '말치', 그 다음은 '다도테기', 그 다음은 '서도테기', 그 다음은 '웅조리'가 배열된다.

여기에서 '말치'는 쌀 한 말어치 드는 솥이고, '다도테기'는 두 되, '섯도테기'는 '밥뒈' 즉, 식되로 세 개, '웅조리'는 식되로 한 되 분량의 솥이다. '밥뒈'는 다른 말로 '뒈약세기'라고도 한다. '웅조리'는 표준어 '웅달솥'에 대응하는 솥이다.

〈사진 64〉는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사용했던 '말치솟'이다.


〈사진 64〉 박순희 씨 소장 '말치솟'

"이거 말치, 혼 말치. 말치 젤 우쪽에. 그 다음은 다도테기, 그 다음 서도테기, 그 다음 웅조리. 다도테기는 닷뒈, 두 뒈 드는 거. 서도테기는 밥뒈로서 뒈. 뒛박으로 두 뒈짜리는 다도테기. 또시 그 다음 건 밥뒈로 서 뒈 허난 서도테기, 웅조리. 웅조리에는 헤끔벳긔 안 드난에 저 뒈약세기로 하나. 서도테기는 족은 걸로 시 개. 나 올히 이거 콩죽이영 숢아부난. 요디 불 솜고 낭하난에 써시민 이거 깨끗헤실 건디. 저디 신 거 우리집이 아덜 궤기 궝 먹켄 헨에. 이거 써난 지 족은아덜 장게갈 때 허난에, 족은아덜네 손지가 이제 열 설이난 십년 전꺼지 썻다고 봐야. 이것에 불 앚젼에 도새기 숢안에, 돗궤기."[51]

(이거 '말치', 한 말치. 말치 젤 위쪽에. 그 다음은 '다도테기', 그 다음 '서도테기', 그 다음 웅달솥. '다도테기'는 닷 되, 두 되 드는 거. '서도테기'는 식되로 서 되. 되로 두 되짜리는 '다도테기', 또 그 다음 것은 식되로 서 되 드니까 '서도테기', 웅달솥. 웅달솥에는 조금밖에 안 드니까 저 식되로 하나. '서도테기'는 족은 걸로 세 개. 나 올해 이거 콩죽이랑 삶아버리니까. 여기 불 때고 나무 많으니까 썼으면 이거 깨끗했을 것인데. 저기 있는 거 우리집 아들 고기 궈서 먹겠다고 해서. 이거 썼던 지 작은아들 장가갈 때 하니까, 작

51)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은아들네 손자가 이제 열 살이니까 십년 전까지 썼다고 봐야. 이것에 불 안쳐서 돼지 삶아서, 돼지고기.)

〈사진 65〉는 덕수리 양기옥 씨가 썼던 양은솥으로, 쌀 한 말어치 들어가는 솥이다.



〈사진 65〉 양기옥 씨 소장 '양은솟'

"솟이 다섯 갠디 언제 산 처레 몰르쿠다. 것도 막 오래서. 시집오라근에 산 거주. 이거 사십 혼가. 사십 호로 알러레만 쓰난에 그 우터레 안 쓰고. 우리 옛날에 아무것도 안 난 때에 가스도 뭣도 안 난 때에 집은 초집이고 집도 막 야팡 족으민 이런 디 담 ᄒᆞ꼼 다아근에 그디서 쏠 ᄒᆞᆫ 말 놩 밥을 저디서 헤마씨. ᄒᆞᆫ 말치 밥을 허민 요만씩 거려근에 사발만 갓다왓다 경헨. 그거나 손으로 밥 허영 안 익으카부덴 잉겅을 그 우의 담아놔. 경 메 허멍 살앗수다."[52]

(솥이 다섯 개인데 언제 산 차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매우 오랬어. 시집와서 산 것이지. 이거 사십 호인가. 사십 호로 아래로만 쓰니까 그 위로 안 쓰고. 우리 옛날에 아무것도 안 나온 때에 가스도 뭣도 안 나온 때에 집은 초가고 집도 매우 얕아서 작으면 이런 데 담 조금 쌓아서 거기서 쌀 말 넣어서 밥을 저기에서 해요. 한 말치 밥을 하면 요만큼씩 떠서 사발만 갔다왔다 그렇게 했어. 그거 내 손으로 밥 해서 안 익을까봐 불잉걸을 그 위에 담아놓아. 그렇게 메 하면서 살았습니다.)

위의 구술 내용을 보면, 〈사진 65〉의 솥은 양 씨가 결혼한 후에 장만한 것이다. 주로 제사 때 메를 할 때 썼음을 알 수 있다. 쌀 한 말어치를 넣어서 밥을 하면 쌀이 잘 익지 않을까봐 솥 위에 '잉겅(불잉걸)'을 덮어서 메를 짓기도 하였다고 한다.

〈사진 66〉은 창천리 김덕순 씨가 사용했던 '솟'이다. 김 씨는 요즘도 이 솟을 이용하여 물을 데우거나 고기를 삶거나 고사리를 삶는다고 한다.

52)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솟 고사리도 거꺼와지민 솜고 이따근에 물도 데우고. 또 아이덜이나 온 때는 고기도 숢아 먹고 그러는 거. 그러는 거 앗앙 버려붑센 헤도 나 이 나무덜 션 불 솜으난 좋다게. 이거 저 혼 말 반. 뒈로 뒈면은 요섯 개. 게난 보통 네 개 놓민 한걸헷주. 이 솟두껭인 아메도 여간해서 덕수 불미쟁이 불미 허는 디서 만든 거라. 저 솟 살 적에는 솟만 사오고 이 두껑은 이시난 저걸로 더꺼사 좋안게. 이 솟디 맞은 거 허난에 좋지 안 허여. 이것이 좋아. 물린 거. 솟은 나냥으로 산 거."[53]

(솥 고사리도 꺾어와지면 삶고 이따금 물도 데우고. 또 아이들이나 올 때는 고기도 삶아 먹고 그러는 거. 그러는 거 가져서 버려버리라고 해도 나 이 나무들 있어서 불 때지니까 좋다. 이거 저 한 말 반. 되로 되면 여섯 개. 그러니까 보통 네 개 넣으면 넉넉하지. 이 솥뚜껑은 아무래도 여간해서 덕수 대장장이 풀무 하는 데서 만든 거야. 저 솥 살 적에는 솥만 사오고 이 뚜껑은 있으니까 저것으로 덮어야 좋았어. 이 솥에 맞은 거 하니까 좋지 않아. 이것이 좋아. 물려받은 거. 솥은 나대로 산 거.)



〈사진 66〉 김덕순 씨 소장 '솟'



〈사진 67〉 진희선 씨 소장 '솟'

〈사진 67〉은 창천리 진희선 씨 사용하는 '솟'이다. 진 씨 나이 서른쯤에 산 이 '솟'도 고사리 삶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솟 저거 엿날은 고사리 꺾어당 숢앗주게. 할망이영 것도 ᄀᆞ찌 늙엇주. 혼 설은남은 날 때 삿주. 고사리 저 뒷밧디 강 꺾어지민 숢암주게."[54]

53) 창천리 김덕순 씨 구술.
54) 창천리 진희선 씨 구술.

(솥 저거 옛날은 고사리 꺾어다 삶았지. 할머니랑 그것도 같이 늙었지. 한 서른 남짓 될 때 샀지. 고사리 저 뒷밭에 가서 꺾어지면 삶고 있지.)

〈사진 68〉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고사리 삶을 때 사용하는 '솟'이다. 이 솥은 고사리 한 근을 삶을 수 있는 크기로, 40호라고 한다.


〈사진 68〉 양춘자 씨 소장 '솟'


〈사진 69〉 임중자 씨 소장 '솟두껑이'

'솟두껑이'는 표준어 '솥뚜껑'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69〉는 대평리 임중자 씨가 사용하던 쇠로 된 솥뚜껑으로, 솥이 헐어 사용하지 않게 되자 항아리 덮개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70〉은 사계리 정춘자 씨에 있는 '솟두껑이'로 '말치솟'의 두껑으로 썼던 것이다. 정 씨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손잡이 부분을 잘라두고 보관하고 있다.

"저 솟두껑이에 솟도 이서신디 문 치와불엇주게. 솟두껑이 저거 고기 구워 먹젠 우이 거 잘라둰 올련 놔둰. 말치솟. 저것이 지금도 다까불민 깨끗허여. 게난 저것에 혼번씩 고기도 궝 먹어저. 고기 굴 때 췌고주게. 밑에 숫불 살롸근에."[55]

(저 솥뚜껑이의 솥도 있었는데 몽땅


〈사진 70〉 정춘자 씨 소장 '솟두껑이'

55) 사계리 정춘자 씨 구술.

치워버렸지. 솥뚜껑 저거 고기 구워 먹으려고 위에 가 잘라두고 올려서 놔뒀어. '말치솥'. 저것이 지금도 닦아버리면 깨끗해. 그러니까 저것에 한번씩 고기도 궈서 먹었지. 고기 구울 때 최고지. 밑에 숯불 살라서.)

〈사진 71〉은 화순리 지중연 씨가 사용했던 '솟두껑'이다. 이 '솟두껑'은 덕수리 '불미쟁이'한테서 구입한 것이다.

"느네도 알 거여. 옛날 덕수 불미대장안티 강 헤 온 거. 불미 대장 잇저. 이건 놔 둡센 헨 놔뒁주게. 솟은 풀아먹어불고. 솟두껑은 우리 아덜 궤기 사단 구워 먹쿠다 풀지 맙서. 요새추룩 후라이팬이 이서시냐게. 옛날 경허난 궤기 궝 먹음도 이거 막 좋넨덜. 옛날 거난. 경헤영 쌍 놔뒁당 헷주. 떡 헐 땐, 제사 땐 빙떡 지지고. 옛날은 경 후라이팬이 어디 시니?"[56]


〈사진 71〉 지중연 씨 소장 '솟두껑이'

(너희도 알 거야. 옛날 덕수 '불미대장'한테 가서 해 온 거. 불미대장 있어. 이것은 놔두십사고 해서 놔뒀지. 솥은 팔아먹어버리고. '솥뚜껑'은 우리 아들 고기 사다가 구워먹겠습니다, 팔지 마세요. 요새처럼 프라이팬이 있었느냐. 옛날 그러니까 고기 궈서 먹음도 이거 막 좋다고들, 옛날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싸서 놔뒀다가 했지. 떡 할 때는, 제사 때는 '빙떡' 지지고. 옛날은 그렇게 프라이팬이 어디 시니?)

2.2.2. 시리

'시리'는 떡을 찔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표준어 '시루'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안덕지역에서는 떡을 찔 때 검은 질흙으로 만든 '지세시리'를 이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루미늄시루, 스테인리스를 사용해 만들기도 한다. '시리'도 '검은굴'[57]에서 구웠느냐

56) 화순리 지중연 씨 구술.
57) '검은굴'은 회색을 띠는 질그릇을 구워내는 제주지역의 전통 가마의 하나다.

'노랑굴'에서 구웠느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검은굴'에서 구워낸 시루는 '지새시리'라고 하고, '노랑굴'[58]에서 구운 시루는 '노랑시리'라고 한다. '지새'는 '기와'의 제주어다. 용적에 따라서는 시루의 크기도 다르다. 시루의 크기와 제작자 등에 따라 '시릿고망'도 달랐다. '시릿고망'은 시루 바닥의 구멍을 말한다.

〈사진 72〉는 대평리 김성옥 씨가 친정어머니인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지세시리'다. 김 씨가 열아홉에 시집와서 스무 살 때부터 썼던 시루로, 제사할 때난 대소상 때 제물 떡을 찔 때 사용했다. 시루 밑에 가운데 큰 구멍이 있고, 주변에 다섯 개의 시루 구멍이 뚫려 있다.

"나 스무 설부떠 쓴 거 닮다. 할망네 거 물려준 거 닮은게. 시어멍인지 친정어멍인지. 시어멍네도 이디고 친정어멍네도 이디고 허난. 저거는 제물 헐 때 혼번씩 씨는디, 제서헐 때 그거주게. 제서헐 때 옛날엔 부모덜 죽으민 저 대소상 출리멍 제물 허멍 다 이거에 출리는디, 식게헹 먹으레 큰집이 갈 때영 이걸로 침떡 쳐근에 아져가는디 지금은 안 허여. 거 쉬 놓고 콩 놓고 그추룩 헌 거주."[59]


〈사진 72〉 김성옥 씨 소장 '시리'

(나 스무 살부터 쓴 것 같아. 할머니네 거 물려준 거 같은데. 시어머닌지 친정어머닌지. 시어머네도 여기고 친정어머니네도 여기고 하니까. 저것은 제물 할 때 한번씩 쓰는데, 제사할 때 그것이지. 제사할 때 옛날에는 부모들 죽으면 저 대소상 차리면서 제물 해서 다 이것에 차리는데, 제사해서 먹으러 큰집에 갈 때 이렇게 이것으로 시루떡 쪄서 가져가는데 지금은 안 해. 거 소 넣고 콩 넣고 그처럼 한 거지.)

〈사진 73〉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제사 등 큰일이 났을 때 떡 찔 때 사용했던 '지세

58) '노랑굴'은 붉은 색을 띠는 황토색 질그릇을 구워내는 제주지역의 전통 가마다.
59) 대평리 김성옥 씨 구술.

시리'다.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즉 시할머니가 쓰던 것을 물려받았다. 양 씨는 시루가 작아 알루미늄 시루를 사다 써 얼마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저 시리 사지 안허고 저건 원체 내려오는 거. 어머니 앞의 할머니 쓰던 거 어머니 쓰던 거 또시 나신디 주니까 작으니까 저 하얀 거 이제 나는 거 사단에 떡 치고. 나는 혼엇이 안 썻수다. 저디 하얀 거 시난에. 나가 제사헹 이 시리 좀 쓰다가 너무 작앙 식구 하고 작으난 사단 썻수다."[60]


〈사진 73〉 양기옥 씨 소장 '시리'

(저 시루 사지 않고 저것은 원래 내래오는 거. 어머니 앞의 할머니 쓰던 것 어머니 쓰던 것 다시 나한테 주니까 작으니까 저 하얀 거 이제 나는 거 사다가 떡 찌고. 나는 얼마 안 썼습니다. 저기 하얀 거 있으니까. 내가 제사해서 이 시루 좀 쓰다가 너무 작아서 식구 많고 작으니까 사다가 썼습니다.)

〈사진 74〉는 창천리 김덕순 씨가 사용했던 '지세시리'다. 50년 전에 대정읍 신평리에서 팔러 온 것을 김 씨가 구입해서 제사 등에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74〉 김덕순 씨 소장 '지세시리'


〈사진 75〉 문성실 씨 소장 '시리'

60)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이 시리에 떡을 쳐근에 만들어지면은 앗아내근에 그 제물고량이엔 헌 것에 놔근에 허는 거. 지세시리. 이거 나 산 거. 이거 사 건 디가 오십년 넘어실 거여."

(이 시루에 떡을 쪄서 만드러지면 가져내서 그 '제물고량'이라고 한 것에 넣어서 하는 거. '지세시루'. 이거 내가 산 거. 이거 산 지가 오십년 넘었을 거야.)

〈사진 75〉는 덕수리 문성실 씨 농장에 전시해 놓고 있는 '지세시리'로, 쌀 석 되 분량의 떡을 찔 수 있는 크기다. 〈사진 76〉은 창천리 김치호 씨(1927년생)의 며느리가 물려받아 온 '지세시리'다. 〈사진 77〉은 창천리 고원매 씨가 사용했던 '양철시리'와 '아레미시리'이다. '양철시리'는 두 되가 들어가고 '아레미시리'는 한 되가 드는 크기라고 한다.



〈사진 76〉 김치호 씨 며느리 소장 '시리'



〈사진 77〉 고원매 씨 소장 '양철시리'와 '아레미시리'

"저거 두 뒈짜리, 요건 혼 뒈짜리. 요건 저 삼십칠년 뒈신가. 이건 옛날 집 짓젠 허난 개길제엔 헤영 집 짓젠 허민 젤 허난, 제 헐 때 쏠 혼 뒈 물 컹 골아단에 요것에 혼 뒈 시리 채 헹 그냥 톡 비완 그추룩 헨 올련 제 지냅디다게. 그 후에 쓸 일이 잇어. 토신제 헐 땐게 두 해 혼번 우린 헷수다게. 정월에 경헨 헤신디 이젠 안 허난에. 게도 데껴불믄 아까완. 양철시린 나 중문리 장에 간 산 거우다만은. 옛날엔 그 정월 멩질은 떡 허여근에 시루떡 경헨 헤수게."[61]

(저거 두 되짜리, 요것은 한 되짜리. 요것은 저 삼십칠년 됐는가. 이것은 옛날 집 지으려고 하니까 '개길제'라고 해서 집 지으려고 하면 제를 하니까, 제 할 때 쌀 한 되 물 담

61)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가서 갈아다가 요것에 한 되 시루 째 해서 그냥 톡 부어서 그처럼 해서 올려서 제 지냅디다. 그 후에 쓸 일이 있어. 토신제 할 때는 두 해 한번 우리 했습니다. 정월에 그렇게 했는데 이젠 안 하니까. 그래도 던저버리면 아까워서. 양철시루는 나 중문리 장에 가서 산 겁니다만. 옛날에는 그 정월 명절은 떡 해서 시루떡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2.2.3. 고소리

'고소리'는 소주를 내리는 데 쓰는 재래식 증류기다. 질흙으로 구워서 위아래 두 짝을 겹쳐 만든다. 표준어 '소줏고리'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고소리'로 뽑아낸 술을 '고소리술'이라고 한다. 고소리 술을 만드는 것을 '소주 다끄다'라고 하였다. '고소리술'은 발효된 '오메기술' 따위를 솥에 넣어서 끓이면 솥 위의 '고소리'를 통해 술이 증류되어 나오는 소주를 말한다.

2.2.4. 돔베와 안반

'돔베'는 칼로 음식의 재료를 썰거나 다질 때에 밑에 받치는 도구다.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돔베'는 크기가 작지만 큰일 때 사용하는 '돔베'는 훨씬 크고 넓다. '돔베'는 표준어 '도마'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78〉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평소에 고기 따위를 썰 때 사용했던 '돔베'다. 칼자국이 선명해 오래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이 '돔베'는 떡을 밀 때도 사용해서인지, 양 씨는 '안반'이라고도 하였다.

"저건 떡 헐 때 쓰는 거고 저거 안반. 이거 집이서 만든 거 막 오래연. 저거 무슨 자리 ᄀᆞ튼 거 헐 때 ᄒᆞ꼼 높은디 놔근에 이 고기ᄀᆞ튼 거 사 온 때에 ᄒᆞ쏠 높으게 놔근에 저 쓰기 좋게 써난 거고 저건 떡 허멍 써난 거고. 저것도 떡 허멍 쓰는 게 있고 고기 써는 게 있


〈사진 78〉 양기옥 씨 소장 '돔베'

고. 고기 써는 돔베. 드러 떡 헷주게. 종손집이난."[62]

(저것은 떡 할 때 쓰는 것이고 저것은 안반. 이거 집에서 만든 거 매우 오랬어. 저거 무슨 자리 같은 거 할 때 조금 높은 데 놓아서 이 고기 같은 거 사 온 때에 조금 높게 놔서 저 쓰기 좋게 썼던 것이고 저것은 떡 하면서 썼던 거고. 저것도 떡 하면서 쓰는 게 있고 고기 써는 게 있고. 고기 써는 도마, 마구 떡 했지. 종손집이니까.)

〈사진 79〉는 화순리 양춘자 씨가 사용하는 '돔베'이고, 〈사진 80〉은 사계리 지수선 씨 집에서 사용했던 '돔베'다.



〈사진 79〉 양춘자 씨 소장 '돔베'



〈사진 80〉 지수선 씨 소장 '돔베'

"돔베 그디게 놈삐영 김치영 다 칼로 썰어난 거 아니가. 엿날 다 영 헤난 거. 시어머니 물려준 거."[63]

(도마 거기 무랑 김치랑 다 칼로 썰었던 거 아니니. 옛날 다 이렇게 했던 거. 시어머니 물려준 거.)

〈사진 81〉은 덕수리 김영랑 씨가 잔치 등 대소사 때 돼지고기 따위를 썰 때 사용하는 '돔베'다. 〈사진 82〉는 사계리 김희산 씨(1928년생)가 사용하는 '돔베'다. 김 씨는 52년 전 집을 지을 때 목수 일을 하는 친척에게 부탁해서 가시나무로 만든 것이다.

62)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63) 사계리 지수선 씨 구술.



〈사진 81〉 김영랑 씨 소장 '돔베'



〈사진 82〉 김희산 씨 소장 '돔베'

"이거 엿날 돔베. 이거 가시낭이난 썩지 안 허는 돔베라. 가시낭 돔베 이거. 게난 엿날은 큰일 때 이렇게 헤가지고 떡 만들아낫지. 이거 아주 엿날 거. 우리 권당이게 우리 집 짓을 때 만들엇지. 이 집 짓건 디가 오십이년."[64]

(이거 옛날 도마. 이거 가시나무니까 썩지 않는 도마야. 가시나무 도마 이거. 그러니까 옛날 큰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떡 만들었었지. 이거 아주 옛날 거. 우리 권당이 우리 집 지을 때 만들었지. 이 집 지은 지가 오십이년.)

〈사진 83〉과 〈사진 84〉는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서 사용했던 '안반'이다. 고씨의 나이 서른여섯에 집을 새로 지을 때 초가집 문짝을 뜯어서 목수한테 부탁해서 만든 것이다. 고 씨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창천리 마을에 큰일이 나면 이 안반들을 빌려가서 떡을 만들 때 사용했다고 한다. 큰 것은 길이가 92cm, 폭 48cm, 높이 14cm 크기이고, 작은 것은 길이 67cm, 폭 48cm, 높이 13cm 크기다.

"저 안반 나 서른ᄋᆞ섯에 만든 거. 저것이 옛날 문짝. 옛날 초가집이 저 집이랏수다게, 저 낭밧디가 우리 옛날 초가집인디 이제 틀언 이디 집 짓젠 허난 그 문짝을 이제 다 허난에. 나가 목순 저 중문리 사름 빌언 허난, 우리 ᄒᆞ꼼 부뜬디 사둔이난 '사둔님 이걸로 영 안반추룩 만들어 줍서.' 허난, '무시거 허쿠과?' 허난 '떡 헐 때 허젠.' 경헨 저거 두 개 허난 대패질 허고 막 곱게 헨 저 만들어 놓난 이제난 그거주. 옛날엔 ᄉᆞ못 ᄒᆞᆫ 십년은 더 창

64) 사계리 김희산 씨 구술.


〈사진 83〉 고원매 씨 소장 '안반'(큰 거)


〈사진 84〉 고원매 씨 소장 '안반'(작은 거)

천리 큰일 난 집이서 솔벤, 절벤 떡 헐 때 저거 다 ᄀᆞ져간. 경헨 이제 허난 고물 사레 다니는 사름 풀렌 헤도 난 그런 건 안 풀앗주게."[65]

(저 안반 나 서른여섯에 만든 거. 저것이 옛날 문짝. 옛날 초가집이 저 집이었습니다. 저 나무밭이 우리 옛날 초가집인데 이제 뜯어서 여기 집 지으려고 하니까 그 문짝을 이제 다 허니까. 내가 모수는 저 중문리 사람 빌려서 하니까, 우리 조금 붙은데 사돈이니까, '사돈님, 이것으로 이렇게 안반처럼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무슨 것 하겠습니까?' 하니까, '떡 할 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저거 두 개 하니까 대패질 하고 매우 곱게 해서 저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니까 그거지. 옛날에 사뭇 한 십년은 더 창천리 큰일 있는 집에서 솔편, 절편 떡 할 때 저거 다 가져갔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고물 사러 다니는 사람 팔라고 해도 나 그런 것은 안 팔았지.)

2.2.5. 다라

'다라'는 대야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안덕면 지역 제보자들은 대야'를 거의 일본어 '다라(たらい)'로 표현하고 있다. '대야'는 물을 담아서 무엇을 씻을 때 쓰거나 떡 따위를 반죽할 때 사용하는 둥글넓적한 그릇이다. 예전에는 '다라' 대신에 '도고리'라고 하여 나무로 만들어 쓰다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 '스테인리스'로 만들면 '스뎅다라',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아레미다라', 플라스틱으로 만

65)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들면 '고무다라'라고 불렀다. 〈사진 85〉와 〈사진 86〉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혼수로 사 준 것이다.


〈사진 85〉 양기옥 씨 소장 '아레미다라'


〈사진 86〉 양기옥 씨 소장 '스덴다라'

"다라 그건 시집올 때에 헤 온 거. 나 스물에 씨집완. 저것도 시집올 때 어머니가 헤 준 거. 경헌 건디 저거만 쓰기 좋아. 이거는 아레미고 이건 스덴이고. 떡 헐 때 그디서 쪔주게. 이렇게 이렇게 찌어. 이제도 식게헐 때 다 쓰는 거."[66]

(대야 그것은 시집올 때에 해 온 거. 나 스물에 시집왔어. 저것도 시집올 때 어머니가 해준 것. 그런 것인데 저것만 쓰기 좋아. 이것은 알루미늄이고 이것은 스테인리스고. 떡 할 때 거기서 찌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반죽해. 이제도 제사할 때 다 쓰는 거.)

위의 구술에서 보듯이 양씨는 알루미늄 대야를 '아레미다라'라고 하고, 스테인리스 대야는 '스덴다라'라고 하였다. 〈사진 87〉은 사계리 김희산 씨가 사용하는 '아레미다라'다. 김 씨는 이 '다라'를 제사 때 떡을 반죽할 때 사용하였다. 김 씨가 열아홉 살에 시집온 후에 장만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라 떡 헐 적에 막 쪄서 허잖아. 아이고, 오래 뒛지. 나 열아홉에 시집오난에, 하나씩 하나씩 살렴살이 사시난."[67]

(대야 떡 할 적에 마구 반죽해서 하잖아. 아이고, 오래 됐지. 나 열아홉에 시집오니까,

66)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67) 사계리 김희산 씨 구술.


〈사진 87〉 김희산 씨 소장 '아레미다라'


〈사진 88〉 김덕순 씨 소장 '다라'

하나씩 하나씩 살림살이 샀으니까.)

〈사진 88〉은 창천리 김덕순 씨 집에서 사용했던 '다라'다.

2.2.6. 떡본

'떡본'은 떡의 모양을 내는 틀이다. 표준어로 대역하면 '떡살'에 대응한다. '떡본'은 '절벤본', '솔벤본', '송펜본' 등이 있다. '절벤본'은 절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떡살이고, '솔벤본'은 솔편을 만들 때 사용하는 틀이다. '송펜본'은 송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떡살이다.

'절벤'은 반죽을 익힌 후에 손으로 둥글게 만들어 두 개의 떡을 붙인 후에 '절벤본'으로 눌러 만든다. '절벤'은 표준어 '절편'에 대응하는 말이다. '솔벤'은 반달 모양의 떡으로, 반죽을 익혀서 만들거나 반달 모양으로 떡을 만든 후에 삶거나 쪄서 만든다. '송펜'은 '송편'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89〉와 〈사진 90〉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절벤본'이다. 〈사진 89〉는 떡살 문양이 '절벤본' 위쪽에 기름한 육각형 모양에 가로로 홈이 파여 있고, 〈사진 90〉은 둥근 선 안에 곱하기(×) 모양으로 선이 그어지고 그 사이에 가로와 세로 줄로 문양을 새겨 넣었다. 양 씨의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물려준 것으로 5대 째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91〉은 '솔벤본'으로 스테인리스로 만들었고, 〈사진 92〉는



〈사진 89〉 양기옥 씨 소장 '젤벤본'



〈사진 90〉 양기옥 씨 소장 '젤벤본'



〈사진 91〉 양기옥 씨 소장 '솔벤본'



〈사진 92〉 양기옥 씨 소장 '송펜본'

플라스틱으로 만든 '송펜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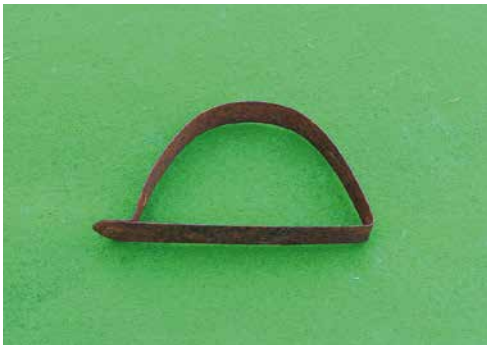
"이거 오래됀수다. 저건 절벤본, 요건 솔벤본. 아주 엿날 거 좋은 걸로 허난 멧 대 ᄂᆞ려와실 거우다. 5대도 넘엇수다. 송펜본 이거 가게에서 ᄑᆞ는 거. 사 온 지 오랫주만 이거 안 써."[68]

(이거 오래됐습니다. 저것은 '절편본', 요건은 '솔편본'. 아주 옛날 거 좋은 것으로 하니까 몇 대 내려왔을 겁니다. 5대도 넘었습니다. '송편본' 이거 가게에서 파는 거. 사 온 지 오랬지만 이거 안 써.)

〈사진 93〉과 〈사진 94〉는 창천리 김덕순 씨 집에서 사용했던 '젤벤본'과 '솔벤본'이

68)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사진 93〉 김덕순 씨 소장 '젤벤본'


〈사진 94〉 김덕순 씨 소장 '솔벤본'

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김 씨는 이것은 50대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이 절벤본 다 초상네 물린 거난. 절벤 허는 거. 한 오십년, 오십대꺼진 헷어. 이거는 솔벤본[솔벤뽄]. 옛날 낭으로 헤영 소곱에 허여난 것도 잇어. 이거는 나 온 후제 만들아실 거라. 낭으로 헌 거 좀 먹어불엉. 다 물려받은 거. 물려받은 거난 나 어드레 버려불지 못허주게."[69]

(이 절편본 다 조상이 물려준 것이니까. 절편 하는 거. 한 오십년, 오십대까지는 했어. 이것은 솔편본. 옛날 나무로 해서 속에 했던 것도 있어. 이것은 나 온 후에 만들었을 거야. 나무로 한 거 좀 먹어버려서. 다 물려받은 거. 물려받은 것이니까 나 어디로 버려버리지 못하지.)

2.2.7. 기타

(1) 방에혹과 방엣귀

'방에혹(방아확)'은 쌀을 찧거나 빻을 때 사용하는 돌로 만든 기구다.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방에혹'은 보통 남방아 한가운데 설치해 사용하던 것이다. 구술자에 따라서 마늘이나 깨 등을 빻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스테인리스 등으로 만든 절구를 사다 사용하고 있다.〈4. 농업 관련 참조〉

69) 창천리 김덕순 씨 구술.

'돌혹'은 방아 가운데 박혀 있던 확이라는 의미에서 '방엣혹'이라고도 한다. '방엣혹'은 표준어 '방아확'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곡식을 찧거나 깨소금 등을 빻을 때 사용했던 돌로 만든 확이다. 예전에 남방아 가운데 끼워 넣어 사용했던 것을, 확만 빼내서 고춧가루 등을 빻을 때 사용하고 있다.


〈사진 95〉 강월출 씨 소장 '돌혹'


〈사진 96〉 양기옥 씨 소장 '방엣혹'

〈사진 95〉는 대평리 강월출 씨가 보관하는 '돌혹'으로,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예전에 '남방아' 가운데 박아서 곡식을 찧을 때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96〉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사용했던 '방엣혹'이다. 이 '방엣혹'은 양 씨 집에서 사용했던 남방아 '세콜방에'의 방아확이다. '세콜방에'는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방아를 찧는 남방아를 말한다. 두 사람이 방아를 찧으면 '두콜방에', 네 사람이 찧으면 '네콜방에'라고 한다. 양씨는 이 '방엣혹'을 아직도 깨소금 등을 빻을 때 사용하고 있다. 현무암으로 만들어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방엣혹' 윗부분을 시멘트를 발라서 매끄럽게 하고 쓰고 있다. 〈사진 97〉은 창천리 고원매 씨가 마늘 등을 빻을 때 사용하는 '방에혹'이다.


〈사진 97〉 고원매 씨 소장 '방에혹'

"방에혹은 옛날에 그 저 김장 허젠 허민 마늘 다듬아근에게 저것에도 뿟

고 꿰도 뽓곡 그추룩 헤나신디 이제사 그거 썸서게. 저거 (절구) 이시난 나냥으로 그자 꿰도 뽓이고 마농도 뽓이고."[70]

(방아확은 옛날에 그 저 김장 하려고 하면 마늘 다듬어서 저것에도 빻고 참깨도 빻고 그처럼 했었는데 이제야 그거 쓰고 있어. 저거 (절구) 있으니까 나대로 그저 참깨도 빻고 마늘도 빻고.)

'방엣귀'는 '방에혹'에서 쌀 등을 찧을 때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기구다. 표준어 '방앗공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98〉은 대평리 강월출 씨가 '돌혹'에서 마늘이나 감 등을 빻을 때 사용했던 '방엣귀'다. 믹서기와 강판 등이 나오니까 쓰임이 없어졌지만 최근까지도 감물을 들이는 감을 빻을 때 사용해 '방엣귀' 나무가 갈색으로 반짝거리고 있다. '방엣귀'는 표준어 '방앗공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돌혹 많이 썻주게. 어, 이제는 믹서기가 나오고 강판이 이시난 경헌디 마늘도 방엣귀에 찧고 저 감 같은 것도. 이거 감 들여나니까 삔직삔직헌 거. 이거 좀도 안 들고. 감도 찧고 그런 거 많이 헷수다."[71]

(돌확 많이 썼지. 어, 이제는 믹서기가 나오고 강판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늘도 방앗공



〈사진 98〉 강월출 씨 소장 '방엣귀'



〈사진 99〉 강월출 씨 소장 '방엣귀'

70)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71) 대평리 강월출 씨 구술.

이에 빻고 저 감 같은 것도. 이거 감 들였었으니까 반짝반짝한 거. 이 거 좀도 안 들고. 감도 찧고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사진 99〉는 대평리 강월출 씨가 시어머니 쓰던 것을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방엣귀'다. 시어머니도 시할머니가 쓰던 것을 물려받은 것 같다고 한다.

'마께'는 표준어 '방망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100〉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방엣귀'를 한쪽만 잘라서 만든 '마께'다. 요즘도 감을 빻을 때 쓰고 있어선지 '마께'가 갈색으로 물들어 반짝반짝하고 있다.

"이거는 저거 뻣는 거. 뭐 꿰 같은 것도 뻣고. 저거 방엣혹. 이만이 큰 것에 남방에에 가운디 놔근에 서이가 시콜방에 지는 거. 이거 혼 오십년 뒛주. 엿날 필요엇이난 우리 세대엔 남방에 짐이 힘드난에, 또 기계 나근에 떡도 허고 허난 짤라근에 이거 썸주. 옛날은 힘들게 헷수다. 떡 허젠 허믄 ᄉᆞ못 남방에 멧 사름썩 지고 나중에라가난 또시 소 메와근에 물방에에 돌리멍도 떡 허고 경 헷수게."[72]


〈사진 100〉 양기옥 씨 소장 '마께'

(이것은 저거 빻는 거. 뭐 깨 같은 것도 빻고. 저거 방아확. 이만큼 큰 것에 남방아에 가운데 놔서 셋이 '세콜방아' 찧는 거. 이거 한 오십년 됐지. 옛날 필요없으니까 우리 세대에는 남방아 찧는 게 힘드니까, 또 기계 나와서 떡도 하고 하니까 잘라서 이거 쓰고 있지. 옛날은 힘들게 했습니다. 떡 하려고 하면 사뭇 남방아 몇 사람씩 찧고 나중에야 또 소 메워서 연자매에 돌리면서도 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진 101〉은 양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방엣혹'과 '마께'다. 〈사진 102〉와 〈사진 103〉은 덕수리 문성실 씨 농장에 전시해 놓은 '방엣혹'과 '방엣귀'이다. 〈사진 104〉

72)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사진 101〉 양기옥 씨 소장 '방에혹'과 '마께'


〈사진 102〉 문성실 씨 소장 '방에혹'


〈사진 103〉 문성실 씨 소장 '방엣귀'


〈사진 104〉 박순희 씨 소장 '방엣귀'

는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방엣귀'다. 요즘도 감 빻을 때 사용하고 있다.

(2) 바드렝이

'바드렝이'는 떡을 찔 때 솥 밑에 받쳐서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겅그레'에 해당하는 말이다. 떡을 찔 때는 솥 안에 '바드렝이'를 넣은 다음 그 위에 헝겊을 깔아서 그 위에 '솔벤'이나 송편 등을 찌면 된다. 나무나 대나무, 철사 등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바드렝이'를 지역에 따라서는 '떡징'이라고도 한다.

〈사진 105〉는 덕수리 양기옥 씨가 제사 때 떡을 찔 때 사용했던 '바드렝이'이고, 〈사진 106〉은 '바드렝이'를 솥 안에 넣은 모습이다. 양씨의 남편이 손수 철사를 구부려서 둥그렇게 만들었는데, 솥 안에 넣었다 꺼내기 좋게 양쪽에 손잡이를 만들었다.

양 씨의 나이 서른다섯에 만들었으니 33년 이상 사용했다. 요즘도 명절 때면 송편을 찔 때 사용하고 있다. 한번 떡을 찔 때 '바드렝이' 두 개씩 겹쳐 넣어서 찐다.



〈사진 105〉 양기옥 씨 소장 '바드렝이'



〈사진 106〉 '솟' 안에 '바드렝이'를 넣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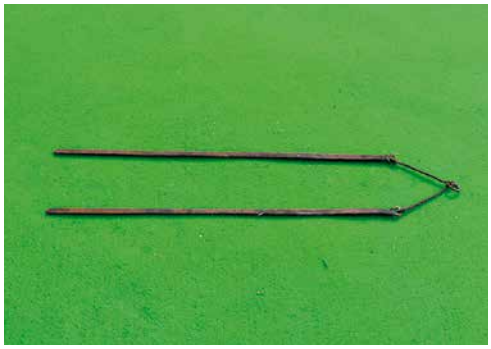
"이거 바드렝이. 떡 치는 거. 쒜로 만들안. 우리 집이 아저씨가 만든 거. 하이고 이제꺼장 썻수다게. 우리 서른다섯 허난 그때 만들앙 이제77장 썻수다게. 씻어근에 비닐에 담앙 걸엉놧당 그거 쓰곡, 쓰곡. 영 두 개 놩 치는 거. 게난 이제도 치난게. 멩질마다 쳠주게. 게난 곱닥헷수게. 멩질엔 떡을 안 헤 주는 따문 저거 주로 송펜 헴주게. 송펜 허고 시리떡은 강 맞추고."[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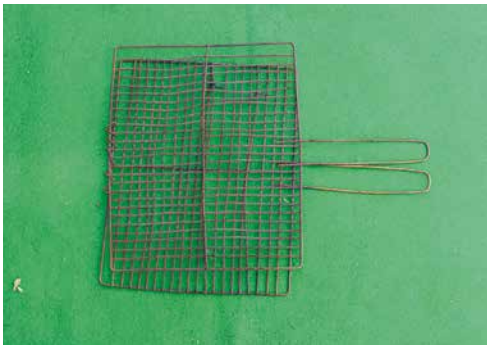
(이거 겅그레. 떡 찌는 거. 쇠로 만들었어. 우리 집 아저씨가 만든 거. 아이고, 이제까지 썼습니다. 우리 서른다섯 나니까 그때 만들어서 이제까지 썼습니다. 씻어서 비닐에 담아서 걸어놨다가 그거 쓰고, 쓰고. 이렇게 두 개 넣어서 찌는 거. 그러니까 이제도 찌니까. 명절마다 찌고 있지. 그러니까 깨끗했습니다. 명절에는 떡을 안 해주는 때문에 저거 주로 송편 하고 있지. 송편 하고 시루떡은 가서 맞추고.)

(3) 적쒜

'적쒜'는 쇠로 젓가락 모양으로 길게 만들어 화로에 걸칠 수 있게 된 도구다. '적쒜'를 화리'에 걸친 후에 고기를 넣어서 굽는다. 〈사진 107〉은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서 사용하는 '적쒜'다. 〈사진 108〉은 화순리 지중연 씨가 사용하는 '적쒜'다.

73)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사진 107〉 고원매 씨 소장 '적쒜'


〈사진 108〉 지중연 씨 소장 '적쒜'

"화리에 그 낭으로 불 솜아난 그 게스미 담아 놔근에 그 적쒜 영 걸쳐근에 궤기 구워 낫주게."[74]

(화로에 그 나무로 불 땠던 그 잉걸을 담아 놓고 그 석쇠를 이렇게 걸쳐서 고기 구웠었어.)

(4) 차판

'차판'은 음식을 넣은 그릇 등을 넣어서 운반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쟁반'을 말한다. 〈사진 109〉는 대평리 임중자 씨가 사용하던 '차판'이다. 〈사진 110〉은 창천리 김덕순 씨가 사용했던 '차판'으로, 김씨가 한경면 고산리 소재 고산오일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사진 109〉 임중자 씨 소장 '차판'


〈사진 110〉 김덕순 씨 소장 '차판'

74) 화순리 지중연 씨 구술.

(5) 밥상

'밥상'은 밥 먹을 때에 밥이나 반찬을 차리는데 쓰는 상을 말한다. 〈사진 111〉은 화순리 김덕순 씨 집에서 사용하는 '밥상'이다.



〈사진 111〉 김덕순 씨 소장 '밥상'

2.3. 저장과 운반

2.3.1. 항류

(1) 통개

'통개'는 안덕면에서 항아리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통개' 대신에 '항'이라는 용어도 쓴다.

〈사진 112〉는 대평리 김성옥가 사용했던 통개로, 장을 담글 때 사용했던 것이다. 이 '통개'에는 두 말어치의 장이 들어간다. 유약을 칠하지 않은 붉은색 항아리다. 〈사진 113〉은 사계리 김희산 씨가 장을 담글 때 사용했던 '장통개'다. 콩 두 말을 삶으면



〈사진 112〉 김성옥 씨 소장 '통개'



〈사진 113〉 김희산 씨 소장 '통개'

물은 세 허벅 들지만 김 씨는 두 '허벅'만 넣는다고 한다. 그러면 된장도 맛있고, 간장도 맛있다는 것이다.

"옛날 말로 통개, 장통개. 장 담으니까 장통개. 장이 맛잇으니까 장만 담지. 저거 보통 두 말 담는 거. 두 말이민 여덜 뒈. 콩 두 말 숢으민 물은 시 허벅 놓주만은 두 허벅만 놔. 게민 뒌장도 맛 좋고 간장도 맛 좋고. 두 허벅 바가쓰로 네 개 들어가주. 바가쓰로 두 개가 혼 허벅이거든, 옛날은."[75]

(옛날 말로 '통개'. '장통개'. 장 담그니까 '장통개'. 장이 맛있으니까 장만 담그지. 저거 두 말 담그는 거. 두 말이면 여덟 뒈. 콩 두 말 삶으면 물은 세 동이 넣지만 두 동이만 넣어. 그러면 된장도 맛 좋고 간장도 맛 좋고. 두 동이 양동이로 네 개 들어가지. 양동이로 두 개가 한 동이거든, 옛날은.)

김 씨의 구술 내용을 보면, 예전에 물의 분량을 잴 때는 '허벅'을 사용했다.

〈사진 114〉는 대평리 박애자가 살림할 때 사용했던 '통개'들이다. 박 씨가 직접 항아리를 생산했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에 가서 사서 등짐으로 지고 온 소중한 물건들이다.


〈사진 114〉 박애자 씨 소장 '통개'

"이건 나 살렴 살 때게 나 혼 어이구, 스무남은부떠 살렴 사난게 이걸 쭉. 이거 구억리 강 산 정 왓젠 허난. 구억리 간에 이거. 통개가 이디 가뜩 놔두난 이디 육지 아이덜 살켄 헨 왕 살멍 이디 뭐 만들켄 허영 세멘 헌 거 아졍오멍 다 벌러불언게. 큰 통갠 곡석으로 놩은 혼 섬 들어. 경 안 헌 건 또 열 말. 이런 존 것덜은 혼 닷 말. 요런 것덜은 혼 두어 말 뒐 거라. 저건 망데기 요건 그 중통개고. 다 까젼 못 쓰큰게. 이 통개덜은 옛날에 곡석 담고 장 담고 물 담앙 먹곡. 물 그땐 다 져

75) 사계리 김희산 씨 구술.

당게 이거에 저장헤 둠서 먹기 때문에이. 이거에 다 경 헌 거주."[76]

(이것 나 살림 살 때 나 한 아이고, 스물 남짓부터 살림 사니까 이걸 쭉. 이거 구억리 가서 사서 져서 왔다고 하니까. 구억리 가서 이거. '통개'가 여기 가득 놔두니까 여기 육지 아이들 살겠다고 해서 와서 살면서 여기 뭐 만들겠다고 해서 시멘트 한 것 가져오면서 다 깨버렸어. 큰 '통개'는 곡식으로 넣어서는 한 섬 들어. 그렇게 안 한 것은 또 열 말. 이런 잔 것들은 한 닷 말. 요런 것들은 한 두어 말 될 거야. 저것은 '망데기' 요것은 그 '중통개'고. 다 깨져서 못 쓰겠어. 이 '통개'들은 옛날에 곡식 담고 장 담고 물 담아서 먹고. 물 그때는 다 져다 이것에 저장해 두고서 먹기 때문에. 이것에 다 그렇게 한 거지.)

〈사진 115〉는 덕수리 양기옥 씨가 물을 길어 넣을 때 사용했던 '통개'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통개'는 우물에 가서 '죽은 물'을 길어다 넣어두면 물이 살아나 물맛이 좋았다고 한다.


〈사진 115〉 양기옥 씨 소장 '통개'

"옛날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저런 항아리로 부엌에 쭉허게 놔근에 그 항아리덜을 다 ᄀᆞ득영 놔둬사 물을 먹으니까. 엿날에 물이 엇으난. 저런 항아리 구짝허게 다섯 개 다 ᄀᆞ득영 놔둬서 일 허멍 그것덜 거리멍 먹곡 쓰곡 경헷수게. 옛날엔 정지에 놘에. 저것이 젤 큰 거. 저건 우로부떠 내려온 거마씸. 멧 대, 멧 대 내려온 거. 막 쌩쌩헤수다, 저거. 통개에 죽은 물 져당 놔 두민 경 살아나근에 맛이 좋주게. 경헌디 물 져 오민 쉬가, 퍼렁헌 쉬가 바글바글허민 그냥은 저레 비울 수가 엇어근에 저 가제나 무시거 헤근에 우에 더꺼근에 그레 비와근에 쉬덜 건져. 쉬를 건져야 먹주. 너미 더러웡 먹을 수가 엇어. 이제 생각허민 에구 그 물을 먹엉 어떵 살아져신고."[77]

(옛날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저런 항아리로 부엌에 쭉하게 놔서 그 항아리들 다 가득

76) 대평리 박애자 씨 구술.
77)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여서 놔둬야 물을 먹으니까. 옛날에 물이 없으니까. 저런 항아리 곧게 다섯 개 다 가득여서 놔둬서 일 하면서 그것들 뜨면서 먹고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부엌에 놓아서. 저것이 가장 큰 거. 저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몇 대, 몇 대 내려온 거. 막 쌩쌩했습니다, 저거. '통개'에 죽은 물 져다가 놔두면 그렇게 살아나서 맛이 좋지. 그런데 물 져 오면 쉬가, 퍼런 쉬가 바글바글하면 그냥은 저리로 부을 수가 없어서 저 거즈나 무시거 해서 위에 덮어서 그리로 부어서 쉬들 건져. 쉬를 건져야 먹지. 너무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어. 이제 생각하면 에그 그 물을 먹어서 어떻게 살아졌는가.)

〈사진 116〉은 화순리 강창석 씨 집에 보관되고 있는 '검은항'이다. 강 씨의 '검은항'은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으로, 예전에 물을 담아서 먹었던 항이다. 강 씨가 말한 '검은항'은 '지세항'을 다르게 일컬은 말이다.

〈사진 117〉은 동광리 박순희 씨가 장을 담가 먹는 '장항·장황'이고, 〈사진 118〉은 박 씨가 소금을 담는 용도로 쓰고 있는 '소금항'이다. 이 '소금항'에는 소금 20킬로그램 한 부대 정도 든다고 한다.

"이 장황에 콩 닷 말 들어가. 옛날 장 담을 때 식구 ᄒᆞ나에 ᄒᆞᆫ 말 담는 거라. ᄋᆞᆫ덥 식구난 ᄋᆞᆫ덥 말. ᄒᆞᆫ 사람이 ᄒᆞᆫ 말씩, 우리 ᄋᆞᆫ덥 말 숢아근에 항 두 개에 담으메. 경허난에 닷 말 들어가 닷 말. 닷 말 하나허고 요만이 헌 항 두 개에 허여근에. 저 ᄒᆞᆫ 말에 물 ᄒᆞᆫ 허벅.



〈사진 116〉 강창석 씨 소장 '검은 항'



〈사진 117〉 박순희 씨 소장 '장항'

혼 허벅은 열 뒈 들어. 건 두 말가웃들이라"[78]

(이 장항리에 콩 다섯 말 들어가. 옛날 장 담글 때 식구 하나에 한 말 담그는 거야. 여덟 식구니까 여덟 말. 한 사람이 한 말씩. 우리 여덟 말 숩아서 항아리 두 개에 담아. 그러니까 닷 말 들어가, 닷 말. 닷 말 하나하고 요만큼 한 항아리 두 개에 해서. 저 혼 말에 물 한 동이. 한 동이는 열 되 들어. 그것은 '두말가웃'들이야.)



〈사진 118〉 박순희 씨 소장 '소금항'



〈사진 119〉 김덕순 씨 소장 '망데기'

〈사진 119〉는 창천리 김덕순 씨 집에서 사용하는 '망데기'다. 김 씨는 요즘도 장을 담을 때 사용하고 있다. 〈사진 120〉은 덕수리 문성실 씨 농장에 전시되어 있는 '지세항'으로, 윤 씨 농장에서는 요즘 쓰레기통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름에 '지세항'에 물을 넣어두면 물이 시원하다고 한다.



〈사진 120〉 문성실 씨 소장 '지제항'

78)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2) 추니

'추니'는 술을 빚어서 넣는 술 항아리다. 표준어 '준(樽)'의 의미다. 안덕면 사람들은 집안에 혼사 등의 큰일이 있을 때 '항아리'나 이 '추니'에 술을 담아서 사용하였다.

〈사진 121〉은 대평리 임중자 씨가 결혼해서 살림을 시작하니까 친정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추니'다. 예전에는 잔치 등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직접 '고소리술'을 고았는데, 술을 고는 것을 제주에서는 '술 다끄다'라고 말한다. 이때 술을 보관하는 그릇이 '추니'였다. '추니' 부리가 깨지고, 손잡이가 사라진 모습이다. 잔치를 할 때는 집안에 따라 4~6추니의 술을 소비했다고 한다. '한 추니'에는 보통 20되(40리터) 정도의 술이 들어간다.



〈사진 121〉 임중자 씨 소장 '추니'

"추니는 친정어무니안티 물려받은 거. 우리 잔치 허젠 허민, 언니덜 허민 이제덜은 뒛벵덜 펭으로 헷주만은 옛날에 추니. 그걸로 헤여근에 그때 잔치 허멍 비우멍 그릇에 비왕 그냥 주젠지에 헤영덜. 결혼허연 살림허난 물려받안게. 혼 오십 년. 저 추닌 헷수로 막 ᄋᆞ라 해 뒛주게. 우리가 물려받건 디가 그 년수가 뒈난."[79]

(준은 친정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우리 잔치 하려고 하면, 언니들 하면 이제들은 됫병들 병으로 했지만 옛날은 준. 그것으로 해서 그때 잔치하면서 부으면서 그릇에 부어서 그냥 주전자에 해서들. 결혼해서 살림하니까 물려받았어. 한 오십 년. 저 준은 햇수로 매우 여러 해 됐지. 우리가 물려받은 지가 그 연수가 되니까.)

〈사진 122〉는 창천리 김덕순 씨 집에서 사용했던 '추니'다. 김 씨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추니'로 술을 열 개씩이나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치르고 나면 빚이 생겼다 하였다.

79) 대평리 임중자 씨 구술.

"추니 저거는 시어머니대에 거주. 나가 완 오래지 않은 때 시아버지 돌아가션. 그때는 혼번 일 치루젠 허민 술을 저런 걸로 열썩을 먹엇어. 아이구, 삼일에 경허난. 아이고, 요새는 일 나도 빚이 안 남주만은 옛날은 우리가 막 빚나. 뭐 들어오는 거 엇주게. 옛날 어른은 지금 닮지 안 허영 술을 경 좋아헤부난. 요즘은 차 몰앙 다니는 따문 아덜덜토 다 술 먹주만은 경 많이 먹지 안 허주"[80]



〈사진 122〉 김덕순 씨 소장 '추니'

(준 거것은 시어머니대에 거지. 내가 와서 오래지 않은 때 시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때는 한번 일 치르려고 하면 술을 저런 것으로 열씩 먹었어. 아이고, 삼일에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요새는 일 나도 빚이 안 나고 있지만 옛날은 우리가 막 빚나. 뭐 들어오는 거 없지. 옛날 어른은 지금 같지 않아서 술을 그렇게 좋아해버린까. 요즘은 차 몰아서 다니는 때문에 아들들도 다 술 먹지만 그렇게 많이 먹지 않지.)

(3) 망데기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를 말한다. '망데기'는 주로 된장을 넣거나 자리젓 등을 담글 때 사용하였다. 〈사진 123〉은 대평리 임중자 씨가 사용했던 '망데기'다. 임 씨는 '망데기'를 보통 장을 담갔다가 된장과 간장을 분리한 후에 된장이나 간장을 담아 보관할 때 사용하였다. 적은 양의 된장을 큰 항아리에 담가두면 간장이 잦아버리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항아리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장이나 된장을 보관할 때는 보통 '망데기'를 이용하였다.

"망데긴 족은 통개. 장 담으민 거리민 뒌장 놓고 장물도 놓고. 큰 통개 놓민 장물 줏아불엉, 줏아부는 따문 저 작은 것에. 망데기 마직헌 것에 뒌장 놓고. 뒌장 거려불민 장물만 잇지 안 허여? 장물만 얼마 엇거든, 그 뒌장 떠불민. 게난 삼분의 일벳긔 엇인디 저런 디 놩 놔두민 막 줏아불어. 게난 마직헌 디 망데기 ᄀᆞ튼 디 뒌장 허고 장물 허고."[81]

80) 창천리 김덕순 씨 구술.
81) 대평리 임중자 씨 구술.


〈사진 123〉 임중자 씨 소장 '망데기'


〈사진 124〉 박순희 씨 소장 '망데기'

('망데기'는 작은 '통개'. 장 담그면 뜨면 된장 넣고 간장도 넣고. 큰 '통개'에 넣으면 간장이 잦아버려서, 잦아버리는 때문에 저 작은 것에. '망데기' 마땅한 것에 된장 넣고. 된장 떠버리면 간장만 있니 않아? 간장만 얼마 없거든, 그 된장 떠버리면. 그러니까 삼분의 일밖에 없는데 저런 데 넣어서 놔두면 매우 잦아버리고. 그러니까 마땅한 데 '망데기' 같은 데 된장 하고 장물 하고.)

〈사진 124〉는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된장 등을 담을 때 사용했던 '망데기'다. 〈사진 125〉는 사계리 유순옥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통개'와 '망데기'다.

"이 통개영 망데기 나 손으로 다 산 거주. 풀레 완 산 거주. '통개에' 김치도 담앙 먹고 장도 담앙 먹고. 망데긴 자리젓 담앙 먹고. 이건 다 터젼."[82]

(이 '통개'랑 '망데기' 내 손으로 다 산 거지. 팔러 와서 산 거지. '통개'에 김치도 담가 먹고 장도 담가 먹고. '망데기'는 자리젓 담가서 먹고. 이것은 다 터졌어.)


〈사진 125〉 유순옥 씨 소장 '통개'와 '망데기'

82) 사계리 유순옥 씨 구술.

〈사진 126〉은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서 장 담글 때 사용했던 '망데기'다.

"이거 크지 안헌 거난 이거 혼 말. 혼 말은, 혼두 말쯤은 담주. 경헌디 이제난 거주, 옛날은 이 종손집인 막 장물을 하영 먹으난, 소금 안 허영 다 장으로만 간을 허난게. 장을 요걸로 두 개씩 담아 낫수다. 경 허단에 이젠 식구도 엇고 이젠 무신 경 장덜 먹엄서? 경헤도 난 똑 장 담아근에 제사 때 멩질 때 장으로 다 헙니다. 망데긴 저 김치도 헹 먹고 기자."[83]


〈사진 126〉 고원매 씨 소장 '통개'와 '망데기'

(이거 크지 안한 것이니까 이거 한 말. 한 말은, 혼두 말쯤은 담그지. 그런데 이제니까 그거지, 옛날은 이 종손집에는 매우 간장을 많이 먹으니까, 소금 안 해서 다 장으로만 간을 하니까. 장을 요것으로 두 개씩 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식구도 없고 이젠 무슨 그렇게 장들 먹고 있어? 그래도 나는 똑 장 담가서 제사 때 명절 때 장으로 다 합니다. '망데기'는 저 김치도 해서 먹고 그저.)

〈사진 127〉은 화순리 강창석 씨가 사용했던 '코돋은망데기'다. '코돋은망데기'는 '중간 크기의 부리가 달린 항아리'를 말한다. 이 항아리에 강 씨는 자리젓을 담갔었다. '코돋은망데기'는 육지에서 들여온 것이다.


〈사진 127〉 강창석 씨 소장 '코돋은망데기'

"코돋은망데기 저것도 옛날 거라. '코돋은망데기' 저거 엿날에 자리젓 허멍 헤난 거. 육지 거주게. 코 돋은 망뎅기 자리 혼 두어말 들어."[84]

('코돋은망데기' 저것도 옛날 거야. '코돋은망

83)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84) 화순리 강창석 씨 구술.

데기’ 저거 옛날에 자리젓 하면서 했던 거. 육지 거지. ‘코돋은망데기’ 자리 한 두어 말 들어.)

〈사진 128〉은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서 장을 담그거나 배추를 절일 때 사용했던 ‘먹돌’이다. ‘먹돌’은 아주 딴딴하고 미끄러운 검은 조약돌을 말한다. 이 ‘먹돌’은 ‘메주’를 담은 주머니를 누르거나 김치를 담글 때 배추가 떠오르지 못하도록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색이 희끄무레한 것이 장 담글 때 사용하는 ‘먹돌’이다.

“먹돌 이거 장 담을 때 받침대. 영 누뜨는 거. 배추 죽일 때도 이거로 영 누뜨렁. 장 담을 때 요거 허고. 장 담을 때 그 메주를 주머니에 담아근에 통개 안에 영 놓민, 경 안 허민 그거 눅들지 안 허민 그게 영 터불어. 경허난 저걸 영 헹 딱허게 닷줘사 물 놔도 떠오르지 안 허여.”[85]

(‘먹돌’ 이거 장 담을 때 받침대. 이렇게 누르는 거. 배추 죽일 때도 이거로 이렇게 눌러서 장 담을 때 요거 하고. 장 담을 때 그 메주를 주머니에 담아서 ‘통개’ 안에 이렇게 놓으면, 그렇게 안 하면 그거 누르지 않으면 그게 이렇게 떠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탁 무거운 것으로 눌러줘야 물 놔도 떠오르지 않아.)



〈사진 128〉 고원매 씨 소장 ‘먹돌’



〈사진 129〉 문성실 씨 농장의 항아리들

〈사진 129〉는 덕수리 문성실 씨 농장에 전시되어 있는 항아리들이다.

85)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4) 조막단지와 엿단지

'단지'는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를 말한다. '단지' 보통 젓갈을 담거나 고추장이나 장아찌를 담글 때 사용하거나 엿 등을 넣어서 보관하는 질그릇이다. 여기에서 '조막단지'는 단지의 주먹만큼 크기가 작은 단지를 말한다. '엿단지'는 주로 엿을 넣을 때 사용하는 단지여서 붙은 이름이다.

〈사진 130〉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조막단지'다. 박 씨의 시어머니가 '엿단지'로 사용했던 것이다. 부리가 깨져서 시멘트로 보수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조막단지도 오십 년 뒌 거 닮다. 이것도 베려 보라. 바우 타지난에 저거 세멘헨에 부쪈에 ᄒᆞ꼼이라도 더 써 보젠. 이거 저 할망 엿 끓여근에 엿 담앙 먹어난 엿단지."[86]

(이 '조막단지'도 오십년 된 것 같다. 이것도 봐 봐라. 가장자리 깨지니까 저거 시멘트헤서 붙여서 조금이라도 더 써보려고. 이거 저 할망 엿 뚫여서 엿 담아서 먹었던 엿단지.)



〈사진 130〉 박순희 씨 소장 '조막단지'



〈사진 131〉 지중연 씨 소장 '엿단지'

〈사진 131〉은 화순리 지중연 씨가 사용했던 사기로 된 '엿단지'다.

"이거는 엿단지라고 잘 사는 집인 싯고 경 안 헌 집은 엇나. 이거 엿단지. 사기단지 엿단지. 보리로 골 놩 막 물려근에 그레 골아근에 조팝 허여근에 그거 젭지고 그 골 놓고

86)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허민 돌코롬허영 그 감주주게, 감주로도 먹고 그것에 무슨 독이나 뒈지고기나 놩 허민 막 돌주게, 돌아. 경허민 저거에 담아뒁. 사는 집인 저거에 담아뒁 하르방 주곡 경 안 허민 조그만이 허여근에 아으덜이영 먹어불민 말고. 게민 아방덜은 저것에 놧당 혼 둘포 놧당 혼 직썩 먹나. 이거 요새 사람 줘시민 곱젼 ᄉᆞ못 헐 거여만은 나 이건 안 줫저. 이걸랑 아덜덜이라도 이거 어무니 기림으로 허영. 이거 시아바님네 물려준 거난 나도 메누리 꺼지는 가져사주게. 이건 사기라도 막 좋은 거라. 게난 돈 하영 주고대고 안 풀앙 놔 뒷주."[87]

(이것은 엿단지라고 잘 사는 집에는 있고 그렇지 않은 집은 없어. 이거 엿단지. 사기단지 엿단지. 보리고 엿기름 넣어서 마구 말려서 가루 갈아다가 조밥 해서 그거 짜고 그 엿기름 넣고 하면 달콤해서 그 감주지. 감주로도 먹고 그것에 무슨 닭이나 돼지고기나 넣어서 하면 매우 달지, 달지. 그렇게 하면 저것에 담아둬서. 사는 집에는 저것에 담아둬서 할아버지 주고 그렇게 안하면 조금 해서 아이들이랑 먹어버리면 말고. 그러면 아버지들은 저것에 놨다가 한 달포 놔뒀다가 한 술씩 먹어. 이거 요새 사람 줬으면 숨겨서 사뭇할 거다만 나 이것은 안 줬어. 이걸랑 아들들이라도 이거 어머니 그림으로 해서. 이거 시아버님네 물려준 것이니까 나도 며느리까지는 가져가야지. 이거 사기라도 매우 좋은 거야. 그러니까 돈 많이 주고대고 안 팔아서 놔뒀지.)

〈사진 132〉는 사계리 김희산 씨가 사용했던 '조막단지'다. 김 씨는 이 '조막단지'에 물김치를 담갔었는데, 플라스틱 용기가 나오면서 쓰지 않고 있다.



〈사진 132〉 김희산 씨 소장 '조막단지'

"저건 물짐치도 허고이 소소헌 거 그냥. 이젠 프라스틱이 많이 낫주만은 저거 김치 주로 허지. 저거 혼 오십년 다 뒈 감서. 이 프라스틱이 나난 안 썻지게."[88]

(저것은 물김치도 하고 소소한 거 그냥. 이제는 플라스틱이 많이 났지만 저거 김치 주

87) 화순리 지중연 씨 구술.
88) 사계리 김희산 씨 구술.

로 하지. 저거 한 오십년 다 되어 가고 있어. 이 플라스틱이 나오니까 안 썼지.)

〈사진 133〉은 덕수리 문성실 씨 농장에 전시되어 있는 '조막단지'다.


〈사진 133〉 문성실 씨 소장 '조막단지'

(5) 장테

'장테'는 대야 모양으로 만든 질그릇이다. 보통 '통개'나 '망데기' 등을 덮는 뚜껑으로도 쓰였다. 또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거나 설거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구좌 지역에서는 '장테'라는 이름 대신에 '장탱이'를 사용하였다.

〈사진 134〉는 대평리 임중자 씨가 친정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장테'다. 사진 뒤쪽 왼쪽의 두 개는 제주에서 생산된 '장테'가 아니다. 사진을 보면, 항아리 크기와 모양에 따라 '장테' 크기와 모양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사진 134〉 임중자 씨 소장 '장테'

〈사진 135〉는 대평리 박애자 씨가 항아리 주산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에 가서 직접 사서 등짐으로 지고 '장테'다. 주로 항아리 뚜껑으로 사용했는데 '장테'를 사고 올 때는 빈 공간에 작은 항아리인 '망데기'도 사서 같이 지고 왔다고 한다.

"저거 장테 뚜껑 더끄는 거주게. 저추룩 딱딱 맞췽이. 다 등짐으로 져당. 아이고, 이걸 하나 지믄이 요 망데기라도 하나 놩 ᄒᆞ꼼이나 더 져 오젠. 아이구, 사람 욕심이 그것이 아니라. 경헨디 이렇게 다 버려불고."[89]

(저거 장태 뚜껑 덮는 거지. 저처럼 딱딱 맞춰서. 다 등짐으로 져다가. 아이고, 이걸 하

89) 대평리 박애자 씨 구술.

나 지면 요 망데기라도 하나 놓아서 조금이나 더 져서 오려고. 아이고, 사람 욕심이 그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다 버려버리고.)

〈사진 136〉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사용했던 '장테'다. '통개' 뚜껑으로 사용했던 이 '장테'는 '검은굴'에서 구운 '지세장테'로, 안쪽 면의 누런 얼룩은 세월의 흔적이다. 〈사진 137〉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사용했던 '장테'로, 대정읍 지역에서 만든 것이다.


〈사진 135〉 박애자 씨 소장 '장테'와 '망데기'


〈사진 136〉 양기옥 씨 소장 '장테'


〈사진 137〉 박순희 씨 소장 '장테'

(6) 독사발

'독사발'은 독으로 된 그릇이라는 말이다. 오늘날 '뚝배기'와 비슷한 그릇이다. 〈사진 138〉은 대평리 임중자 씨가 친정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그릇이다. 임 씨는 이 '독사발'을 '자리(자리돔)'나 '어렝이(어렝놀레기)' 등 작은 바닷물고기를 소금에 절일 때 사용했다.

"독사발 우리 어무니 써난 걸 거라. 고기 나까당, 자리나 헹 오민 그것에 소금 얼른 헷당 그거 널고 헤낫주게. 자리, 어렝이 ᄀᆞ튼 거 우리가 나끄나 누게가 주나 허민 저것에 소

금헤낫주게."[90]

(뚝배기 우리 어머니 썼던 걸 거야. 고기 낚아다가, 자리돔이나 해서 오면 그것에 소금 얼른 했다가 그거 널고 했었지. 자리돔, 어렝놀레기 같은 거 우리가 낚으나 누가 누자 하면 저것에 소금 했었지.)



〈사진 138〉 임중자 씨 소장 '독사발'

임 씨의 이 '독사발'은 〈사진 144〉의 '대베기'를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한 것이다. '독사발'과 '대베기', '망데기', '장테' 등 옹기그릇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와 구억리에 가서 살림을 불린다고 하여 구입한 것이다. 이 항아리류는 바다에서 채취한 'ᄆᆞᆯ망(모자반)'과 물물교환하여 등짐으로 다 져 온 것이다.

"독사발 옛날부터 저거 대베기영 ᄀᆞ찌 잇어난. 저 옛날에 이디 해녀덜 몰망 헹 졍 강 저 신평, 구억리 그디꺼지 강 바꽈와난. 그릇 보멍 ᄒᆞᆫ 멧 번 뿔아먹을 만이 허여근에 영 주민 기자 망데기 ᄀᆞ튼 거, 장테라도 조그만헌 거 바꽈와. ᄒᆞᆫ 짐내기 헤여근에 졍 와난. 살렴 일룬다고. 망데기도 헤여 와근에 그 살렴 하간 거 낳 먹젠게. 쏠이여 무시거여 소금도 놓고 장도 놓고 그레. 이제덜은 ᄉᆞ못 냉장고여 뭐여 잇주만은 옛날은 그것이 큰 그릇이주게."[91]

(뚝배기 옛날부터 저거 '대베기'랑 같이 있었어. 저 옛날에 여기 해녀들 모자반 해서 져서 가서 저 신평, 구억리 거기까지 가서 바꿔왔었어. 그릇 보면서 한 몇 번 빨아먹을 만큼 해서 이렇게 주면 그저 '망데기' 같은 거, 장태라도 조그마한 거 바꿔와. 한 짐 해서 져서 왔었어. 살림 일으킨다고. '망데기'도 해서 와서 그 살림 이런저런 거 넣어서 먹으려고. 쌀이랑 무슨 것이랑 소금도 넣고 장도 넣고 그리. 이제들은 사뭇 냉장고다 뭐다 있지만 옛날은 그것이 큰 그릇이지.)

90) 대평리 임중자 씨 구술.
91) 대평리 임중자 씨 구술.

(7) 약탕관

'약탕관'은 약을 달일 때 사용하는 질그릇이다. 〈사진 139〉는 대평리 임중자 씨가 한약을 달일 때 사용했던 '약탕관'이다. 손잡이가 부러진 채 집 옥상에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 139〉 임중자 씨 소장 '약탕기'

2.3.2. 허벅류

(1) 허벅

'허벅'은 물을 길러 다닐 때 쓰기 위해 질흙으로 만든 동이다. '허벅'은 간장이나 술, 곡식 따위를 넣어둘 때도 사용한다. '노랑굴'에서 구워낸 허벅은 '노랑허벅', '검은굴'에서 구워낸 '허벅'은 '지세허벅'이라고 한다.

〈사진 140〉은 동광리 박순희 씨가 사돈집에 팥죽 쒀 갈 때 사용했던 '허벅'이다. 제대로 된 사돈집에는 장사가 나면 '허벅'으로 팥죽 두 '허벅' 쒀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한 '허벅' 쒀 간다고 한다. '허벅'으로 두 개 쒀 가는 것을 '혼 바리'라고 한다.

"이 허벅 사둔칩이 폿죽 헤가는 거. 사돈집이 저걸로 허영 저디 허벅 하나 더 있거든. 제라헌 사둔칩이 두 허벅썩 헹 혼 바리엔 헹 가고. 저 그냥 가지사둔이엔 허민 사춘네 사둔이민 그 집이 혼 허벅 보태영 혼 허벅 헹 가고. 가지사둔네 집이 가멍은 혼 허벅 허영 허민, 방답 한 디 가민 그 집인 족으카부덴 혼 허벅 보태줘."[92]

(이 물동이 사돈집에 팥죽 해가는 거. 사돈집에 저걸로 해서 저기 물동이 하나 더 있거든. 제대로 된 사돈집에는 두 동이씩 해서 한 바리라



〈사진 140〉 박순희 씨 소장 '허벅'

92)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사진 141〉 고원매 씨 소장 '허벅'



〈사진 142〉 문성실 씨 소장 '허벅

고 해서 가고. 저 그냥 곁사돈 하면 사촌네 사돈이면 그 집에 한 동이 보태서 한 동이 해서 가고. 곁사돈 집에 가면서는 한 동이 해서 하면, 친척 많은 데 가면 그 집에는 적을까 봐서 한 동이 보태줘.)

〈사진 141〉은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서 물을 길러 다닐 때 사용했던 '허벅'이고 〈사진 142〉는 덕수리 문성실 씨 농장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다. '허벅'의 부리가 깨져 있다. 〈사진 143〉은 대평리에서 민속 공연 때 사용하는 '허벅'과 '물구덕'이다. 대평리 강월출 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143〉 강월출 씨 소장 '허벅'

(2) 대베기

'허벅'에 상대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작은 '허벅'을 '대베기'라고 하였다. '대베기' 구좌 지역에서는 '대바지'라고 하였다. '대베기'는 물을 길러 다닐 때 사용했던 작은 물동이다.

〈사진 144〉는 대평리 임중자 씨가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대베기'다. 술을 담아 보관할 때 사용하거나 물을 길러 다닐 때 사용했던 물동이다. 임씨는 '할망칩'에 다닐 때 제수를 하는 물을 뜨러 다닐 때도 이용했다. 보관 과정에서 '대베기' 부리가 손상되었다.


〈사진 144〉 임중자 씨 소장 '대베기'

"대베기도 할망 ᄀᆞ찌 쓴 거주게. 대베기도 술 허민 추니로 ᄒᆞ나 허민 대베기로 헤영 비왓다근에 글로 저 비우기 좋게. 추니에 막 술 ᄀᆞ득져 놩 나머지 먹을 때는 대베기레 거려 놩 비우멍 잔치허고. 옛날에 우리 저 동네 할망칩 시난 대베기로 저디 강 곤물, 동쪽으로 향허는 물이 좋덴 헤여. 해 뜨는 디, 그 물 강 곱게 질어당 걸로 메 허영 밥 헤영 저디 과일이영 헤영 할망디 가는 거. 저 대베기로. 엿날에 그 물 할망물, 할망물 허멍 그 물만 질어당 저 밥 허영, 쌀밥 허여근에 그디 걸로 다 과일도 씻고 다 허여근에 그걸로 출려근에 가주게. 일 년에 세 번. 정월에 가고 음력 유월 가고 동짓돌. 음력으로 십일월. 세 번도 가고 가는 사름은 ᄒᆞᆫ 자기 정성껏 군인 가젠 헤도 가고 동네 무슨 큰 행사 허젠, 어디 운동회나 체육대회 가젠 헤도 그디 가."[93]

('대베기'도 할머니 같이 쓴 거지. '대베기'도 술 하면 준으로 하나 하면 '대베기'로 해서 부었다가 그리고 저 붓기 좋게. 준에 막 술 가득 넣어서 나머지 먹을 때는 '대베기'에 떠 놓아서 부으면서 잔치하고. 옛날에 우리 저 동네 신당 있으니까 '대베기'로 저기 가서 깨끗한 물, 동쪽으로 향하는 물이 좋다고 해. 해 뜨는 데, 그 물 가서 곱게 길어다가 걸로 메 해서 밥 해서 저기 과일이랑 해서 신당에 가는 거. 저 '대베기'로. 옛날에 그 물 '할망물', '할망물' 하면서 그 물만 길어다가 저 밥 헤서, 쌀밥 해서 거기 것으로 다 과일도 씻고 다 헤사 그걸로 차려서 가지. 일 년에 세 번. 정월에 가고 음력 유월 가고 동짓달. 음력으로 십일월. 세 번도 가고. 가는 사름은 한 자기 정성껏 군인 가려고 해도 가고 동네 무슨 큰 행사 하려고, 어디 운동회나 체육대회 가려고 해도 거기 가.)

93) 대평리 임중자 씨 구술.

'할망칩'은 대평리에서 무속 신 '할망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神堂)을 가리키는 말이다. 당에 갈 때는 '할망물'이라고 하여, 대평리 우물에 가서 '곤물'을 길어다가 그 물로 쌀도 씻고 채소도 씻고 과일도 씻어 정성을 다했다. '곤물'은 깨끗한 물이라고 한다. 이 '대베기'는 임 씨가 '할망물'에 가서 물을 길어올 때 썼던 동이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 마을의 대소사가 있을 때는 아무 탈 없이 행사를 잘 치르게 해달라고 해서 '할망집'에 가서 기원했다.

〈사진 145〉는 덕수리 문성실 씨의 농장에 전시되어 있는 '대베기'다.


〈사진 145〉 문성실 씨 소장 '대베기'

(3) 허벅능셍이

'허벅능셍이'는 물동이 모양의 항아리를 말한다. 모양은 '허벅'처럼 생겼지만 부리가 커서 간장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사진 146〉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간장을 넣을 때 사용했던 '허벅능셍이'다.


〈사진 146〉 박순희 씨 소장 '허벅능셍이'

"허벅능셍인 이건 장물 거령 놔두는 거. 물 질레 뎅기는 거 안 뒌다. 허벅능셍이 이것엔 장물 놓곡 저 망데기엔 뒌장 놓곡."[94]

('허벅능셍이'는 이것은 간장 떠 놔두는 거. 물 길러 다니는 것은 안 되어. '허벅능셍이' 이것에는 간장 넣고 저 '망데기'에는 된장 넣고.)

94)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2.3.3. 병류

(1) 술펭

'술펭'은 술을 담을 때 사용하는 병이다. 표준어 '술병'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147〉은 동광리 박순희 씨가 보관하고 있는 술병으로, '한일소주'와 '진로'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사진 147〉 박순희 씨 소장 '술펭'

2.4. 제사 관련

2.4.1. 제기

'제기'는 제사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말한다. 밥그릇, 국그릇, 쟁반, 술잔, 편대, 향로, 향합, 촛대 등을 아우르는 용어로 쓰인다. 제기는 제사 때만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깨끗이 닦아 정성스럽게 보관해 둔다.

〈사진 148〉은 창천리 고원매 씨의 제기를 보관하는 궤다. 이 궤를 고씨는 '젯그릇 놓는 궤'라고 하였다. '젯그릇 놓는 궤'는 '제기를 넣어주는 궤'라는 의미다.

"젯 그릇 놓는 궤 나 역불 삿수궤. 젯그릇 보관허는 걸로. 이거 혼 칠팔 년 전의 십오만 원 줜 삿수게."[95]

('젯 그릇 놓는 궤' 나 부러 샀습니다. 제기 보관하는 것으로. 이거 한 칠팔 년 전에 십오만 원 줘서 샀습니다.)



〈사진 148〉 고원매 씨 소장 '젯그릇 놓는 궤'

95)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1) 놋그릇

'놋그릇'은 놋으로 만든 그릇이다. 놋밥사발, 놋국사발 등 다양하다. 〈사진 149〉과 〈사진 150〉은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서 촬영한 '놋그릇'과 '놋수저'다.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인데, 일제강점기에 여덟 벌 공출내고 남은 것이라고 한다.



〈사진 149〉 고원매 씨 소장 '놋그릇'



〈사진 150〉 고원매 씨 소장 '놋수저'

"이거 곡지 잇인 건 아주 옛날이고 곡지 엇인 건 그 다음 거라. 숟구락도 이건 제라허게 옛날 거고. 이건 중간에 산 것덜이라. 놋그릇, 아이고, 어떵사 보관헤신디 ᄋᆞ답불 공출헷젠 헨게. 우리 시어머니가, ᄋᆞ답불 공출허고 저거 남은 거난 대대로 ᄂᆞ리멍 허단 사발 새로 난 산 허난 안 헴수다게. 멩질 때 게난 다섯 개 다섯 개 싱것주. 그 전이 쪼글락헌 집이난 두 번에 헷주게. 그땐 그릇도 엇고 허난. 경허난 이 집 짓엉 온 후젠 저추룩 마리 늘리고 허난 다섯 개 홈치 싱그고. 그릇도 다 새로 헤영 허난. 경허난 상을 다섯 개 싱글 땐 두 번에 헷주게. 사발이 저거 뿐이난."[96]

(이거 꼭지 있는 것은 아주 옛날이고 꼭지 없는 건 그 다음 거야. 숟가락도 이건 제대로 옛날 거고. 이건 중간에 산 것들이야. 놋그릇, 아이고, 어떻게야 보관했는지 여덟 불 공출했다고 하던데, 우리 시어머니가, 여덟 벌 공출하고 저거 남은 거니까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다가 사발 새로 나서 사서 하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멩질 때 게난 다섯 개 다섯 개 싱것주. 그 전이 쪼글락헌 집이난 두번에 헷주게. 그땐 그릇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집 지어서 온 후에는 저처럼 마무 늘리고 하니까 다섯 개 한꺼번에 차리고. 그릇도 다 새로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상을 다섯 개 차릴 땐 두 번에 했지. 사발이 저거 뿐이니까.)

96)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2) 멧그릇, 게영그릇

'멧그릇'은 제사 때 '메'를 뜰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메'는 '제사지낼 때 신위 앞에 놓는 밥'을 말한다. '게영그릇'은 '갱'을 뜨는 그릇이다.

〈사진 151〉과 〈사진 152〉는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서 제사 때 사용했던 '멧그릇'과 '게영그릇'이다.



〈사진 151〉 고원매 씨 소장 '멧그릇'과 '게영그릇'



〈사진 152〉 고원매 씨 소장 '멧그릇'과 '게영그릇'

(3) 술잔, 잔대

'술잔'은 술을 따를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사진 153〉은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서 제사 때 술을 올렸던 술잔과 잔대다. 〈사진 154〉는 창천리 김덕순 씨 집에서 사용했던 '술잔'이다.



〈사진 153〉 고원매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154〉 김덕순 씨 소장 '술잔'

(4) 정반

'정반'은 반찬이나 과일 등을 담을 때 쓰는 그릇을 말한다. 육지에서 쟁반은 음식 그릇을 받쳐 들고 갈 때 쓰는 그릇이지만 제주에서 '정반'은 접시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된다. 나무로 만든 쟁반은 '낭정반'이라고 하였다.

〈사진 155〉는 사계리 유순옥 씨 집에서 사용했던 '정반'이다. 제사 때 떡 등의 반기를 넣을 때 사용해서 '떡정반'이라고 한다. '정반'을 달리 '젱반'이라고도 하였다.

"젱반 제서 때 떡 놓고 뭐야, 떡 놔사 떡 놓고, 고기 쟁반에 놓고. 떡정반. 저디 낭정반도 잇어."[97]

(쟁반 제사 때 떡 넣고 뭐야, 떡 넣어야 떡 놓고, 고기 쟁반에 넣고. 떡쟁반. 저기 나무 쟁반도 있어.)



〈사진 155〉 유순옥 씨 소장 '정반'



〈사진 156〉 진희선 씨 소장 '침떡젱반'

〈사진 156〉은 창천리 진희선 씨의 '침떡젱반'이다. 보통 시루떡 2켜, 또는 4켜를 올린다. '침떡젱반'은 '침떡'인 시루떡을 넣는 쟁반이다.

(5) 상합, 상돌

'상합'은 '제사 때 피우는 향을 담는 합'이다. 표준어 '향합'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97) 사계리 유순옥 씨 구술.

〈사진 157〉은 창천리 강영범 씨(1927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상합'이다.

"요즘은 불껑에 허지만은 옛날은 다 상가지 상합에 놔근에. 이디 ᄀᆞ득허게 놧다근에 제사에 영 올려근에. 할아버진 아버지에게 물려주고, 아버진 나에게 물려주난. 게난 나에 증조부님 거거든. 증조부님, 아부지, 나 헤근에. 엿날은 다 낭으로 만들앙. 이게 나무니까 이거 보라. 이거 오래가니까 몰라가니까 금 나불엇단 말이야. 게난에 할망이 쒜줄 헤갖고 이거 무껑. 더 벌어지지 안허게. 일로도 무끄고 우알로도 무끄니까 더 벌어지지 안 헌 거라. 요즘도 다 써."[98]

(요즘은 재에 하지만 예전에는 다 향가지 상합에 넣어서. 여기 가득하게 놨다가 제주사 이렇게 오려서. 할아버진 아버지에게 물려주고, 아버는 나에게 물려주니까. 그러니까 나의 중조부님 거거든. 증조부님, 아버지, 나 해서 . 예전에는 다 나나무로 만들어서. 이게 나무니까 이거 봐라. 더 벌어지지 안하게 이리로도 묶고 더 벌어지지 안한 거야. 요즘도 다 써.)



〈사진 157〉 강영범 씨 소장 '향합'



〈사진 158〉 진희선 씨 소장 '상돌'

'상돌'은 향을 피우는 물건으로, 표준어 '향로석'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158〉은 진희선 씨가 소장하고 있는 '상돌'이다.

(6) 술주젠지

'주젠지'는 표준어 '주전자'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술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면 '술

98) 창천리 강영범 씨 구술.

주젠지'라고 한다. 〈사진 159〉는 사계리 정춘자 씨 집에서 제사 때 사용했던 놋으로 만든 '술주젠지'와 '술잔'이다.


〈사진 159〉 정춘자 씨 소장 '술주젠지'와 '술잔'

"오래비가 여행 갓단 저걸 사온 거라. 고등학생 때난게. 이거 육십 멧 나시난 게 오랫주게. 우리 아이덜 주젠. 경허난 너미 아까완 그때엔 술주전지 헤낫주게. 저거 다끄민 놋그릇 잘도 고와. 저거 다끄지 안 헹 내부난 찬장에 놩 내부난. 그때 제때에 뭐 허민, 제때에. 그때게 영 그 뭣에 술 뭐 헤나민 그레 비왓다가. 경헨 우리 집이 온 후제 뭐에 써게 우리 먹실 안 허난. 경허난 그 안에 컵이영 잘도 요망지고 허난 그냥 놔 뒷주."[99]

(오빠가 여행 갔다가 저걸 사온 거야. 고등학생 띠니까. 이거 육십 몇 되었으니까 오랬지. 우리 아이들 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에는 술주전자 했었지. 저거 닦으면 놋그릇 잘도 고와. 저거 닦지 안 해서 내버리니까 찬장에 넣어서 내버리니까. 그때 제때에 뭐 하면, 제 때에. 그때 이렇게 그 뭣에 술 뭐해버리니까 그리로 부었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온 후에 뭣에 쓰지. 우리 먹실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컵이랑 잘도 야무지 하니까 그냥 놔뒀지.)

2.4.2. 기타

(1) 벵풍

'벵풍'은 바람을 막거나 무엇을 가리거나 또는 장식용으로 방 안에 치는 물건이다. 표준어 '병풍'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주로 제사 등 의례 때 병풍을 많이 사용하였다. 〈사진 160〉은 창천리 강영범 씨 집에 보관되고 있는 문자도 병풍이다. 강 씨의 증조부 때부터 내려온 것으로 크기가 작아서 강 씨가 개조를 하였다.

99) 사계리 정춘자 씨 구술.

"이 벵풍 이거 증조서부터 내려온 거주. 내려온 건디 나 중간에 ᄒᆞ꼼 족아서 요만이 헷는데 크게 내가 개조헷주."[100]

(이 병풍 이거 증조서부터 내려온 거지. 내려온 것인데 나 중간에 조금 작아서 요만큼 했는데 크게 내가 개조했지.)


〈사진 160〉 강영범 씨 소장 '벵풍'

(2) 젯자리

젯자리는 '제사를 지낼 때 까는 돗자리'를 말한다. 주로 왕골로 만든 것을 사서 쓰기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초석과 구분하여 제사 때 사용하는 초석이라고해서 '젯자리'라고 부른다. 표준어 '제석(祭席)'에 대응하는 말이다. 〈사진 161〉은 창천리 강영범 씨 집에서 사용하는 '젯자리'다.


〈사진 161〉 강영범 씨 소장 '젯자리'

"젯자리 제 헐 때만 페우난. 그냥은 펭소엔 아져내지 안 허주게. 그만이 놧다근에. 이거 왕골이라고 허주. 이것도 ᄒᆞᆫ 오십 년 뒛주. 나대로 산 거난. 왕골은 하하예리 그디가 주산진디 이런 거 열리라고 있는디 만드는 디가 셧주게. 열리서 나온 젯자리 이거 많이 사용허는디 글후에 근래에 와가지고 육지서 막 들어오거든. 풀레 다녀. '초석 삽서, 초석 삽서' 허멍."[101]

(젯자리 제 할 때만 펴니까. 그냥은 평소에는 가져내지 안 하지. 가만히 놨다가. 이거 왕골이라고 하지. 이것도 한 오십년 됐지. 나대로 산 것이니까. 왕골은 하예리 거기가 주산지인데 이런 거 '열리'라고 있는데, 만드는 데가 있었지. '열리'서 나온 젯자리 이거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후에는 근래에 와가지고 육지서 마구 들어오거든. 팔러 다녀. '초섭 사세오, 초석 사세요' 하면서.)

100) 창천리 강영범 씨 구술.
101) 창천리 강영범 씨 구술.

위의 구술 자료를 보면, 이 '젯자리'는 서귀포시 '예래동' 지역에서 생산된 왕골 초석이다. 마을에 팔러온 것을 구입했다고 한다.

(3) 문전상

'문전상'은 제주에서 제사 때 '문전신'을 위하여 제물을 올릴 때 쓰는 상이다. 지역에 따라서 '문체상'이라고 한다. 〈사진 162〉는 동광리 박순희 씨의 시어머니가 제사 때 사용했던 문전상이다. 가로 47cm, 세로 36cm, 높이 25cm, 받침 길이 31cm, 중간 길이 9.5cm, 공간 4.5cm 크기로 이루어졌다. 상의 받침 가운데 한쪽이 떨어져 나갔다.

"이거 씨어멍 써난 거. 문전상 놓고 헤난 거라. 이 후제는 출리는 것도 많고 허난 새 상 사단. 이것에 족앙 못 올리난 저기 놩 내분 거. 어떤 사름은 왕 막 풀아두렌 헤도 나 안 풀앙 저기 내분 거. 이 문전상 할망네 살 때난 80년대까장은 썻주게."[102]


〈사진 162〉 박순희 씨 소장 '문전상'

(이거 시어머니 썼던 거. 문전상 놓고 했던 거야. 이 후에는 차리는 것도 많고 하니까 새 상 사다가. 이것에 작에서 못 올리니까 저기 놔서 내버린 거. 어떤 사람은 와서 막 팔아달라고 해도 나 안 팔아서 저기 내버린 거. 이 문전상 할머니네 살 때니까 1980년대까지는 썼지.)

(4) 지방지 부찌는 거

'지방지 부찌는 거'는 제사나 명절 때 지방을 써서 붙이는 도구다. 〈사진 163〉은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집에서 사용하던 것이 헐자 재작년에 만오천 원 주고 산 것이라고 한다.

"저건 오래지 안 헌 거. 요즘도 저런 거 나. 옛날에 펭풍에 부쪙 허고. 아이고, 우린 펭

102)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풍에 부쪙 허는디 저 하르방 그땐 아프지도 안 허고 어떵 헹 저거 살 생각사 나신디. 경헨 상. '거 무시것과?' 허난에 저거 제사헐 때 톡 부쪈 헙디다게. 경허단 저거 털어젼 혼짝은 오꼿 문이 톤아져불언. 겨난 저거 재작년에 강 만오천 원 줜 사졋구나."[103]


〈사진 163〉 고원매 씨 소장 '지방지 부찌는 거'

(저것은 오래지 안 한 거. 요즘도 저런 거 나와. 옛날에 병풍에 붙여서 하고. 아이고, 우린 병풍에 부쳐서 하는데 저 할아버지 그땐 아프지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저거 살 생각이야 났는지. 그렇게 해서 사서. '거 무슨 것입니까?' 하니까 저거 제사할 때 톡 붙여서 합디다. 그렇게 하다가 저거 떨어져서 한쪽은 그만 문이 떨어져버렸어. 그러니가 저거 재작년에 가서 만오천 원 주고 사졌구나.)

(5) 적고지

'적고지[적꼬지]'는 산적을 꿰기 위해서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서 만든 꼬치다.


〈사진 164〉 진희선 씨 소장 '적고지'

"적고지, 묵이영 뒈야지궤기영 문 꿰영 젱반더레 놩 올리는 거."[104]

(꼬치, 묵이랑 돼지고기랑 몽땅 꿰어서 쟁반으로 넣어서 올리는 거.)

〈사진 164〉는 창천리 진희선 씨 집에서 제사 때 사용하는 '적고지'다. 예전에는 제사 때가 되면 제삿집 주인이 대나무를 베어다가 '적고지'를 만들어 적(炙)을 만들어 화롯불에서 구웠었다.

103)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104) 창천리 진희선 씨 구술.

Ⅱ 조사 내용

3. 주생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가운데 하나가 집의 변화다. 제주의 집은 전통 초가에서부터 슬레이트, 기와, 아파트까지 주거 양식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 양식의 변화는 곧 전통 주거 관련 도구들이 사라지고, 그 도구와 관련한 언어와 문화도 사라지게 만든다. 안덕면 지역의 주생활 관련 도구는 가재도구, 화로, 연장류, 집줄 관련 도구, 기타 도구로 나눠 기술하였다.

3.1. 가재도구

가재도구는 집안 살림에 쓰는 여러 물건을 말한다. '궤', '찬장', '화로' 등 집에 살림에 쓰는 도구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식생활과 의생활, 농어업, 축산 관련 도구를 제외한 주거 관련 도구 가운데 안덕면 지역에서 조사된 도구를 중심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1) 궤

'궤'는 '옷 따위의 물건을 넣도록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그릇'이다. 전통 사회를 산 사람들이 옷과 귀중한 물건 등을 보관할 때 사용했던 가재도구로, 여성들의 혼수품 가운데 하나였다. 보통 옷장 문이 옆으로 열고 닫는 문이라면 궷문은 위에서 아래로

여는 게 특이하다. 궤는 주로 소나무, 버드나무, 느티나무, 멀구슬나무 등으로 만든다. 버드나무로 만든 궤는 '사옥이궤', 느티나무로 만든 궤는 '굴무기궤', 멀구슬나무로 만든 궤는 '뭉쿠실낭궤'라고 한다. '뭉쿠실낭'은 달리 '고련목'이라고한다.

〈사진 1〉과 〈사진 2〉는 동광리 박순희 씨(1944년생) 집에서 촬영한 '굴무기궤'다. '굴무기궤'는 '굴무기'는 표준어 '느티나무'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재질이 단단하여 쉽게 좀이 슬지도 않아 고급 재목으로 꼽힌다. 박순희 씨가 보관하는 이 궤는 박 씨의 시할머니가 쓰던 것을 시어머니가 물려받고, 또 박 씨까지 3대째 물려온 가보다. 박 씨의 시어머니는 제주4·3사건 소개령으로 피난을 다닐 때도 지고 다닐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궤'다. 〈사진 1〉과 〈사진 2〉의 궤의 '장석'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사진 1〉 박순희 씨 소장 '굴무기궤'



〈사진 2〉 박순희 씨 소장 '굴무기궤'

"이 궨 시할망네 쓰던 거지게. 시어머니네가 그 옛날 저 피난 내려갈 때도 저거 졍 갓덴. 굴무기궤. 저거 완전히 좀도 안 먹는 거. 이디 건 좀 먹어신디 다 시어머니 쓰던 거. 시어머니 쓰단에 아들 하나뿐이난 고스란이 맡은 거지. 나 시집올 때 헌 거 저 방에 잇어. 궤 옷 담는 거. 할망 쓰던 건 것뿐이라."[105]

(이 궤는 시할머니네 쓰던 거지. 시어머니네가 그 옛날 저 피난 내려갈 때도 저거 져서 갔다고. 느티나무궤. 저거 완전히 좀도 안 먹는 거. 여기 것은 좀 먹었는데 다 시어머니 쓰던 거. 시어머니 쓰다가 아들 하나뿐이니까 고스란히 맡은 거지. 내가 시집올 때 헌 거 저 방에 있어. 궤 옷 담는 거. 할머니 쓰던 것은 것뿐이야.)

105)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사진 3〉은 화순리 양춘자 씨(1928년생)가 결혼한 후에 친정어머니가 해 준 가시나무로 만든 '궤'다. 이 궤에 양 씨는 큰아들이 태어날 때 입었던 '봇뎃창옷'과 자신이 죽으면 입을 수의 등을 보관해 놓고 있다. 〈사진 4〉는 70년 전에 양씨가 새 집을 지어서 구입한 '궤'다.


〈사진 3〉 양춘자 씨 소장 '궤'


〈사진 4〉 양춘자 씨 소장 '궤'

"저것은 신식 궤고, 이것은 열ᄋᆞ답에 단똘에기니까 이거 결혼헌 후제 친정엄마가 사 줫어. 저건 나냥으로 허난에 나가 문저 집 짓으니까 ᄒᆞᆫ 칠십년 뒈신가. 요거는 나광 ᄀᆞ찌 늙는 거고. 아덜이 절대 이거는 던지질 못허게. 이거는 가시낭으로 멘든 거. 좀 ᄒᆞᆫ빵울도 지금 셍긴 디가 엇어. 경허난 그디 이제 저 애기 옷도 놔두고."[106]

(저것은 신식 궤고, 이것은 열여덟에 외동딸이니까 이거 결혼한 후에 친정엄마가 사 줬어. 저것은 나대로 하니까 내가 먼저 집 지으니까 한 칠십년 됐는가. 요것은 나랑 같이 늙는 것이고. 아들이 절대 이것은 던지질 못하게. 이것은 가시나무로 만든 거. 좀 조금도 지금 생긴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저 아기 옷도 놔두고.)

〈사진 5〉는 동광리 박순희 씨 친정어머니가 썼던 '궤'다. 보통의 궤보다 크기가 크고 색깔도 거무스레한 게 유다르다. 〈사진 6〉은 화순리 강창석 씨(1928년생)가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아 사용했던 '궤'다. '먹구슬나무'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사진 7〉은 화순리 지중연 씨(1930년생)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궤'이고, 〈사진 8〉은 사계리

106) 화순리 양춘자 씨 구술.


〈사진 5〉 박순희 씨 소장 '궤'


〈사진 6〉 강창석 씨 소장 '궤'


〈사진 7〉 지중연 씨 소장 '궤'


〈사진 8〉 유순옥 씨 소장 '궤'


〈사진 9〉 진희선 씨 소장 '궤'


〈사진 10〉 김덕순 씨 소장 '궤'

유순옥 씨(1933년생)가 결혼할 때 혼수로 해 온 '궤'다. 〈사진 7〉과 〈사진 8〉의 궤는 나무의 재질은 다르나 장식이 비슷한 모양이다. 〈사진 9〉는 창천리 진희선 씨(1931년

생) 집에 보관 중인 '궤'다. 〈사진 10〉의 창천리 김덕순 씨(1930년생) '궤'와 〈사진 11〉 창천리 진희선 씨가 소장하는 '궤'는 '장석(장식)이 달려 있지 않다.


〈사진 11〉 진희선 씨 소장

(2) 경대

'경대'는 거울을 버티어 세우고 그 아래에 화장품 따위를 넣는 서랍을 갖추어 만든 가구다. 예전에 시집갈 때 여자들의 혼수로 많이 장만했다.

〈사진 12〉는 사계리 유순옥 씨가 사용했던 '경대'다. 유 씨가 시집갈 때 '궤'와 함께 혼수로 장만했던 것으로, 거울이 깨어져 거울 없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이제 거트민 화장대, 화장대. 나 시집올 때. 아이고, 거울은 옛날 데껴 불엇주게. 시집올 때 궤 하나 허고 경대. 이디 색경 셔낫주게. 거울. 거 던져불엇주게 벌러젼."[107]

(이제 같으면 화장대, 화장대. 나 시집올 때. 아이고, 거울은 옛날 던져 버렸어. 여기 거울 있었어, 거울. 거 던져 버렸어 깨져서.)


〈사진 12〉 유순옥 씨 소장 '경대'


〈사진 13〉 박순희 씨 소장 '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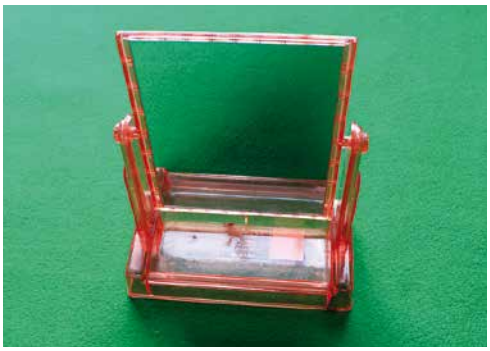
107) 사계리 유순옥 씨 구술.

〈사진 13〉은 동광리 박순희 씨의 친정어머니가 사용했던 경대다. 박 씨의 언니가 40년 전에 친정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경대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박 씨가 유품으로 보관하고 있다.

"경대 우리 친정어무니가 써난 거. 혼 삼사십년 뒌 거. 친정어멍 돌아가신 지 삼십년이난 혼 사십년 뒛저. 우리 언니가 사다 줜에 '어멍, 이것에서 씁서.' 헨. 거 영 들르민 거울도 나온다. 친정어멍 돌아가난 ᄀᆞ져갈 사람 엇이난 버리지 못헹 가져온 거. 겐 안 썬에 둥글이단 이디 놩 내부난."[108]

(경대 우리 친정어머니가 썼던 거. 한 삼사십년 된 거. 친정어머니 돌아가신지 삼십년이니까 한 사십년 됐지. 우리 언니가 사다 줘서 '어머니, 이것에서 쓰십시오.' 해서. 거 이렇게 들면 거울도 나와. 친정어머니 돌아가니까 가져갈 사람 없으니까 버리지 못해서 가져온 거. 그래서 안 써서 굴리다가 여기 놔서 내버리니까.)

〈사진 14〉는 화순리 양춘자 씨가 화장할 때 간편하게 사용하는 거울이다. 예전의 경대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다.


〈사진 14〉 양춘자 씨 소장 '거울'

(3) 함

'함'은 혼인 때 신랑 쪽에서 채단(采緞)과 혼서지(婚書紙)를 넣어서 신부 쪽에 보내는 나무 상자를 말한다. 이 함을 지역에 따라서는 '홍세함'이라고 한다. '혼서(婚書)'가 들어 있어서 '홍세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제주 사람들은 표준어 '혼서'를 '홍세'로 발음한 것이다.

〈사진 15〉는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함이다. 박 씨의 친정 '왕하르방', 즉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함으로, 박씨 집안 외에도 동네 결혼식에 소용되었던 귀한 물건이다. '함'은 가로 47cm, 세로 31cn, 높이 12cm 크기로 되어 있다. 재

108)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사진 15〉 박순희 씨 소장 '함'



〈사진 16〉 박순희 씨 소장 '함' 내부

질은 녹나무로 만들어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좀이 슬지 않았다. 이 함은 박 씨의 큰아들 장가보낼 때도 친정에서 빌려다 썼다. '함'은 혼사 때 신랑 집에서 예장과 무명을 넣어서 신부집에 가져간다. 함을 싸는 보자기는 푸른색과 붉은색 두 개를 이용하였다.

"함 이거 이신 집 엇어. 우리 친정 왕하르방 때부터 내려온 거. 그 우이서부떠 내려온 거라. 시집 장게갈 때 이디 무신 미녕 혼 필 놓고 예장 썽 가근에 이거 바찌는 거. 분홍색이나 청실홍실 보따리에 쌍 가. 잔치허는 디서 다 빌려가. 우리 큰아덜헐 때 이거를 친정에서 가져오난 이거 헹 갓어. 이제는 보로가미에 딱 헹 가잖아. 그때 이걸 헹 갓어. 우리 친정집이가 막 부제였었거든. 웨냐허민 집이 녹낭 헤근에 요 가지 끊언에 어느 똘 풀 때는 짜주고, 요 가지 끊언에 어느 똘 풀 때 짜주고 헌 나무. 밧디 그 낭이 현재도 잇어."[109]

(함 이거 있는 집 없어. 우리 친정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 그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야. 시집 장가갈 때 여기 무슨 무명 한 필 넣고 예장 써서 가서 바치는 거. 분홍색이나 청실홍실 보자기에 싸서 가. 잔치하는 데서 다 빌려가. 우리 큰아들 할 때 이것을 친정에서 가져오니까 이것으로 해서 갔어. 이제는 종이상자에 딱 해서 가잖아. 그때 이것으로 해서 갔어. 우리 친정집이 매우 부자였었거든. 왜냐하면 집에 녹나무 해서 요 가지 끊어서 어느 딸 팔 때는 짜주고, 요 가지 끊어서 어느 딸 팔 때 짜주고 했던 나무. 밭에 그 나무가 현재도 있어.)

109)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4) 벼룻집

'벼룻집'은 벼루, 먹, 붓, 연적 따위를 넣어 두는 나무로 만든 납작한 상자를 말한다. 한자어로 '연갑(硯匣)'이라고 한다.

〈사진 17〉은 창천리 진희선 씨 남편이 사용했던 '연갑'이다. '연갑' 안에 벼루와 먹, 글씨를 쓰던 종이가 담겨 있다. 〈사진 18〉은 창천리 고원매 씨(1944년생) 집에서 제사 때 지방문을 쓸 때 사용하는 '벼루'다. '벼루'를 제주에서는 '베리'라고 한다.



〈사진 17〉 진희선 씨 소장 '벼루통'



〈사진 18〉 고원매 씨 소장 '벼루'

(5) 통쒜와 열쒜

'통쒜'는 자물쇠, '열쒜'는 열쇠를 가리키는 제주어다. '통쒜'와 '열쒜'도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사진 19〉 박순희 씨 소장 '통쒜'



〈사진 20〉 박순희 씨 소장 '통쒜'와 '열쒜'



〈사진 21〉 강창석 씨 소장 '통쒜'



〈사진 22〉 양기옥 씨 소장 '자물쇠'

〈사진 19〉는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전래적인 '통쒜'다. 박 씨의 시할머니로부터 3대째 내려오는 '굴무기궤'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진 20〉은 〈사진 19〉의 '통쒜'를 떼어내 촬영한 것이다. 이 열쇠를 제보자에 따라서는 '게철'이라고도 한다. 〈사진 21〉은 화순리 강창석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물고기 모양의 '통쒜'다. 〈사진 22〉는 덕수리 양기옥 씨(1938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현대식' '통쒜'와 '열쒜'다.

〈사진 23〉은 동광리 박순희 씨 궤의 잠금 장치다. 굵은 철사를 구부려 궷문을 고정시켜



〈사진 23〉 박순희 씨 소장 '궤 잠금 장치'



〈사진 24〉 이영수 씨의 '걸쒜'



〈사진 25〉 지수선 씨의 '걸쒜'

놓았다. 〈사진 24〉는 사계리 이영수 씨(1933년생) 집 창고 문을 잠그고 있는 '걸쒜'이고, 〈사진 25〉는 사계리 지수선 씨(1939년생)의 방문에 달려 있는 '걸쒜'다. 한쪽에 박힌 못에 둥근 고리를 연결하여 묻을 잠그게 만든 장치다.

3.2. 난방 도구

제주 전래의 난방 도구는 화로가 있다. '화로'는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이다. 주로 불씨를 보존하거나 난방을 위하여 쓴다. 방을 땔 때는 '굴묵'을 이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화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화로'를 제주에서는 '화리'라고 한다. '화리'는 난방 도구이면서 때에 따라서는 제사 때에 '화리'에 숯불을 살라 고기를 굽기도 하고, 옷을 만들 때 인두질을 하기 위하여 '윤디(인두)'를 달구는 역할도 하였다. '화리'는 재질에 따라서 '정동화리', '옹기화리', '양은화리', '사기화리', '쒜화리', '돌화리' 등으로 나뉜다. 안덕면 지역에서는 '돌화리'는 방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주고 '정동화리'와 '옹기화리'를 사용하였다.

"돌화리는양 엿날에 막 엿날에 부엌에나 놓주. 돌화리 부엌에나 놓주 그런 거 안 놉니다. 저 우리는 돌화린 안 써 봣수다. 저 친정에서도 돌화리 써 보지 안 헷수다. 게난 말만 들엇수다. 이 부엌에 돌화리 놔근에 불도 초고 그디 불 살롸근에 저 옷도 몰리고 헌덴. 말만 들엇주 우린 써 보진 안 헷수다. 정동화리 헤근에 그 적도 굽곡 헷수다."[110]

(돌화로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부엌에나 놓지. 돌화로 부엌에나 놓지 그런 거 안 놓습니다. 저 우리는 돌화론 안 써 봤어요. 저 친정에서도 돌화로는 써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만 들었어요. 이 부엌에 돌화로 놔서 불도 쪼이고 거기 불 살라서 저 옷도 말리고 한다고. 말만 들었지 우린 써 보진 안 했어요. 정동화로 해서 그 적도 굽고 했지요.)

(1) 정동화리

'정동화리'는 표준어 '청동화로'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정동화리'는 겨울에 불잉걸

110)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을 담아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 기구다. '정동화리'의 화롯불은 옷을 지을 때 사용하는 '윤디(인두)' 등을 꽂아두는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사진 26〉은 대평리 강월출 씨(1954년생)가 시할아버지가 쓰던 것을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정동화리'다. 시할아버지는 이 '정동화리'에 묻어둔 불씨를 이용하여 담배를 피우곤 했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유품이어서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하고 있다.


〈사진 26〉 강월출 씨 소장 '정동화리'

(2) 옹기화리

'옹기화리'는 질흙으로 빚어서 구운 화로다. 표준어 '질화로'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와 구억리는 예로부터 질흙으로 만든 옹기가 유명하였다.

〈사진 27〉은 동광리 박순희 씨의 시아버지가 썼던 옹기 화로로, 추운 겨울에 불을 쬐던 난방 기구다. 제사 때 숯불을 피워 화로에 '적쒜'를 걸쳐서 돼지고기 산적을 구울 때도 사용하였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에서 생산된 '옹기화로'로, 1980년대 박 씨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적(炙)' 굽는 용도로 사용했다.

'적쒜'는 고기나 떡 같은 것을 올려놓고 불에다 구울 때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 모


〈사진 27〉 박순희 씨 소장 '옹기화리'


〈사진 28〉 박순희 씨 소장 '옹기화리'와 '적쒜'

양의 도구다. 표준어 '적쇠'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28〉의 화로에 얹어진 '적쒜'도 박 씨의 시아버지가 사용했던 것으로 제주4·3사건 소개령으로 피난 다닐 때도 들고 다녔던 것이다.

〈사진 29〉는 화순리 강창석 씨 집에서 사용했던 '옹기화리'로, 지금은 화초를 심어놓아 화분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29〉 강창석 씨 소장 '옹기화리'

"이 화리는 연대 오래지 안 헷어. 나 시집 왕 보난 싯드라. 화릿불 헤근에 적쒜 걸쳐근 궤기 굽고 경허는 거. 대정 구억리서 사 온 거. 이거 겨울 내낭 불 담아당 이디서 썻주게. 제사 때 궤기 굽는 거. 이거 화리에 불 담앙, 여기 재 놓고 불 담아당 놩 저 삶은 뒈지고기 헤근에 양념헤근에 젓갈러레 걸치민 간 들잖아. 저 장물에 헤근에 파영 놩 헌 때 살짝만 불 헤영 구우민 그게 맛 좋아. 나 시집온 후제 시아부지가 쓰던 거난. 시아부지 80년도에 돌아간. 적쒜는 물려온 거 닮아. 시아버지네 물려 온 거 닮아. 일본서 왕 묵은 집이서 사삼사건 만나난 이건 ᄀᆞ정 뎅긴 모양이라. 하르방 돌아갈 때까진 허단, 나 시집올 때 저 이모노 화리 헹 왓주게. 이모노 화리 헹 와신디 그 화리이 사춘 동생네 잔치에 막 추우난 ᄀᆞ져단 불 숨아난. 엿장시 오난 오꼿 줘불언."[111]

(이 화로는 연대 오래지 안 했어. 내가 시집 와서 보니까 있더라. 화롯불 해서 적쇠 걸쳐서 고기 굽고 그러는 거. 대정 구억리에서 사 온 거. 이거 겨울 내내 불 담아다가 여기서 썼어. 제사 때 고기 굽는 거. 이거 화로에 불 담아서, 여기 재 놓고 불 담아다가 놓고 저 삶은 돼지고기 해서 양념해서 젓갈에 걸치면 간이 들잖아. 저 간장에 해서 파랑 넣고 한 때 살짝만 불 해서 구우면 그게 맛 좋아. 내가 시집온 후에 시아버지가 쓰던 거니까. 시아버지가 80년도에 돌아가셨어. 적쇠는 물려받은 거 같아. 시아버지네가 물려 받은 거 같아. 일본서 와서 묵은 집에서 사삼사건 만나니까 이건 가지고 다닌 모양이야.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다가, 내가 시집올 때 저 '이모노화로' 해서 왔어. '이모노화로'

111)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해서 왔는데 그 화리 사촌 동생 잔치에 아주 추우니까 가져다가 불살랐었어. 엿장수 오니까 그만 줘버렸어.)

(3) 양은화리

'양은화리'는 양은으로 만든 화로를 말한다. 〈사진 30〉은 창천리 고원매 씨가 시집올 때 친구들에게 결혼 선물로 받은 '양은화리'다. '화리' 밑바닥에는 바닥이 타지 않도록 나무받침대가 붙어 있다.



〈사진 30〉 고원매 씨 소장 '양은화리'



〈사진 31〉 고원매 씨 소장 '양은화리' 바닥

"화리 저거 나 시집올 때 헨 온 거. 그때 일곱 사름이 모임을 허연. 혼 사름씩 시집갈 때마다 사발이영 저거영 다 사 줜. 냄비영. 낭은 뜨거우카부덴 저거 받침대주게. 저추룩 헌 거. 게난 이제 화리 썸서게, 쓰지 안 허난."[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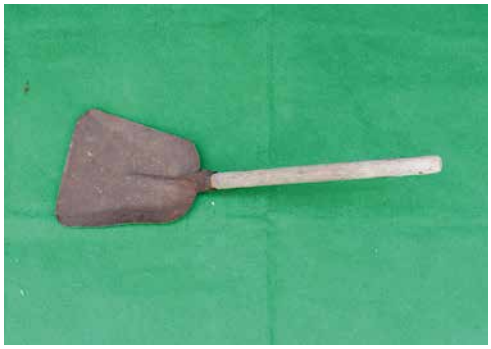
(화로 저거 내가 시집올 때 해서 온 거. 그때 일곱 사람이 모임을 했어. 한 사람씩 시집갈 때마다 사발과 저거 다 사 줬어. 냄비와. 나무는 뜨거울까봐 저거 받침대야. 저렇게 한 거. 그런데 이제 화로 쓰고 있나, 쓰지 않으니까.)

(4) 부삽과 불접게

'부삽'은 아궁이나 화로의 재를 치거나, 숯불이나 불을 담아 옮기는 데 쓰는 조그마한 삽을 말한다. 불에서 사용하는 삽이어서 붙은 명칭이다.

〈사진 32〉는 화순리 지중연 씨가 사용했던 부삽이고, 〈사진 33〉은 잉걸불을 담거

112)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사진 32〉 지중연 씨 소장 '부삽'


〈사진 33〉 지중연 씨 소장 '불접게'

나 옮길 때 사용하는 '불접게'로, 사용한 흔적이 없다. '불접게'는 표준어 '불집게'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3.3. 연장류

3.3.1. 톱

'톱'은 나무나 쇠붙이 따위를 자르거나 켜는 데 쓰는 연장이다. 크기나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다. 물건을 자를 때 사용하는 날이 있는 부분은 '톱날'이라고 하고, 손잡이는 '톱자루'이다. '톱'은 크기에 따라 '큰톱', '족은톱(작은톱)'이라고 하고, 용도에 따라 '나무 오리는 톱', '낭 싸는 톱' 등 다양하게 불렀다. 날이 양쪽으로 있는 톱


〈사진 34〉 양기옥 씨 소장 '톱'


〈사진 35〉 박순희 씨 소장 '톱'

은 '양톱'이라고 한다.

〈사진 34〉는 양기옥 씨 집에서 나무를 자를 때 사용했던 톱이다. 톱날만 남아 있는 이 톱을 양씨는 '낭 싸는 톱'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싸는'은 표준어 '켜는'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35〉는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나무 켜는 데 사용했던 톱이다.

3.3.2. 도끼류

(1) 도치

'도치'는 나무를 찍거나 패는데 쓰는 도구다. 표준어 '도끼'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36〉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나무를 깰 때 사용했던 '도치'다. 〈사진 37〉은 자루까지 쇠로 만들어진 '쒜도치'인데, 박 씨는 이 도치를 잔치 등 대소사에 돼지고기를 삶아서 뼈 등을 잘라낼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36〉 박순희 씨 소장 '도치'



〈사진 37〉 박순희 씨 소장 '도치'

"쒜도치 도새기라도 잡으민 꽝 끄치는 걸로 써난. 저 덩드렁에 놘에 팡팡허게."[113]
(쇠도끼 돼지라도 잡으면 뼈 자르는 것으로 썼었어. 저 '덩드렁'에 놓아서 팡팡하게.)

113)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사진 38〉 천성현 씨 소장 '도치'

〈사진 38〉은 사계리 천성현 씨(1945년생)가 장작 팰 때 사용했던 '도치 날'이다. '도치' 자루는 없이 날만 남아 있는데, 천 씨는 자루가 꺾이면 다시 새 자루를 끼워서 사용했다고 한다.

(2) 자귀

'자귀'는 나무를 깎아 다듬거나 나무를 깰 때 사용하는 연장의 하나다. 용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을 달리해 만들었다.



〈사진 39〉 임중자 씨 소장 '자귀'



〈사진 40〉 박순희 씨 소장 '자귀 날'



〈사진 41〉 김영랑 씨 소장 '자귀 날'



〈사진 42〉 정춘자 씨 소장 '자귀'

〈사진 39〉는 대평리 임중자 씨(1942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자귀'이고, 〈사진 40〉은 동광리 박순희 씨가 사용했던 '자귀 날'이다. 〈사진 41〉은 덕수리 김영랑 씨(1938년생) 집에 보관 중인 '자귀 날'이고, 〈사진 42〉는 사계리 정춘자 씨(1947년생)가 나무를 깨거나 깎을 때 사용하고 있는 '자귀'다.

"존존헌 나무 깰 때. 까끔도 허고 그걸론 오만 거 다 허는 거주게.[114)]
(자잘한 나무 깰 때. 깎기도 하고 그걸론 오만 거 다 하는 거야.)

(3) 나대, 미호미

'나대'는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데 쓰는 쇠로 만든 도구를 말한다. 일본어 '나다(なた)'에서 온 말이다. '나대'를 안덕면에서는 '미호미'라고도 하였다.


〈사진 43〉 박순희 씨 소장 '나대'


〈사진 44〉 정춘자 씨 소장 '나대'

"이 호미는 어염 비는 거. 어염도 비고 낭도 비고. 놀이 구짝헌 건 미호미야."[115)]
(이 낫은 밭 가장자리 베는 거. 가장자리도 베고 나무도 베고. 날이 곧은 것은 '미호미'야.)

〈사진 43〉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나무를 자르러 다닐 때 사용했던 '나대'다. 하나는 손잡이를 고무로 감았고, 다른 하나는 나일론 끈으로 친친 감아서 쓰고 있다.

114) 사계리 정춘자 씨 구술.
115) 화순리 양춘자 씨 구술.


〈사진 45〉 강영범 씨 소장 '나대'

〈사진 44〉는 사계리 정춘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나대'다. 〈사진 45〉는 창천리 강영범 씨(1927년생)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나대'다.

"손잡이 하도 써 가난 손잡이 영 주룩에 오그라지게끔 헹 뭐 셔낫주게, 공젱이가. 경헤나신디 그거 부러져불언. 하도 써 가난. 부러져부난 이제 손이 미끄러울 거 아니? 뭐 자르젠 허민. 게난 저거 고무 감안에 썸주게. 저 신돌에 막 골멍, 무껴근에 허민. 자귀도 무끼민 저것에 골고."[116]

(손잡이 많이 써 가니까 손잡이 이렇게 자루에 오그라지게 해서 뭐 있었어. 갈고리가. 그랬었는데 그거 부러져버렸어. 많이 써 가니까. 부러져버리니까 이제 손이 미끄러울 거 아니? 뭐 자르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거 고무 감아서 쓰고 있어. 저 숫돌에 갈면서, 무뎌서 하면. 자귀도 무디면 저거에 갈고.)

'나대'는 전체를 쇠로 만들었다. 손잡이는 보통 고무나 헝겊 따위로 친친 감아서 만든다. 쓰는 사람이나 용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한편 구좌읍 지역에서는 '나대'를 '장호미' 또는 '나다'라고 불렀다.

3.3.3. 망치류

(1) 망치/마께

'망치'는 못을 박거나 두드릴 때 쓰는 연장의 하나다. '쒜(쇠)'나 나무로 만드는데, '쒜'로 만든 것은 '쒜망치', 나무로 만든 것은 '낭망치'라고 부른다.


〈사진 46〉 천성현 씨 소장 '망치'

116) 사계리 정춘자 씨 구술.



〈사진 47〉 김영랑 씨 소장 '망치'



〈사진 48〉 고원매 씨 소장 '망치'



〈사진49 〉 고원매 씨 소장 '망치'



〈사진 50〉 강영범 씨 소장 '망치'

〈사진 46〉은 사계리 천성현 씨가 사용하는 '망치'이고, 〈사진 47〉은 덕수리 김영랑 씨 집에서 사용했던 망치다. 〈사진 48〉과 〈사진 49〉는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서 사용했던 '망치'다. 〈사진 50〉은 창천리 강영범 씨가 사용했던 망치인데, 강씨는 이를 '쒜마께'라고 불렀다. '쒜마께'는 쇠로 만든 망치라는 의미이다. '마께'는 표준어 '방망이' 또는 '망치'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2) 메

'메'는 '묵직하고 둥그스름한 나무토막이나 쇠토막에 자루를 박아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물건'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메'는 주로 쇠토막을 박아 만드는데, 돌 따위를 깰 때 사용한다.

〈사진 51〉은 대평리 임중자 씨 남편이 쓰던 '메'다. 임씨의 남편 사촌형이 쓰다가 물

려받은 것으로 돌을 깰 때 사용했던 도구다. 메로 돌 따위를 내려치는 것을 '메질'이라고 한다.

"메 돌 부수는 거. 저거 오랫어. 형님네가 나이 들고 일 버쳐 가난 동생 밧 허난에 그거 쓰렌 허난 그거 빌어단 써나신디 이제 나이 들어 가난 그것도 힘들어. 메질, 메질. 저거 메엔 허주."[117]

(메 돌 부수는 거. 저거 오랬어. 형님네가 나이 들고 일 부쳐 가니까 동생 밭 하니까 그거 쓰라고 하니까 그거 빌려다가 썼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어. 메질, 메질. 저거 메라고 하지.)



〈사진 51〉 임중자 씨 소장 '메'



〈사진 52〉 정춘자 씨 소장 '메'

〈사진 52〉는 사계리 정춘자 씨 집에서 돌을 깰 때 사용했던 '메'다.

"돌 벌르는 메. 옛날에는 돌 벌러근에 집도 짓고 땅도 가꾸고. 낭 꺼꺼져부난 이거 중간에 사단에 찔런."[118]

(돌 깨는 메. 옛날에는 돌 깨서 집도 짓고 땅도 가꾸고. 나무 꺾어져버려서 이거 중간에 사다가 찔렀어.)

〈사진 53〉은 덕수리 양기옥 씨 집에서 돌을 깰 때 사용했던 '메'이고, 〈사진 54〉는

117) 대평리 임중자 씨 구술.
118) 사계리 정춘자 씨 구술.



〈사진 53〉 양기옥 씨 소장 '메'



〈사진 54〉 박순희 씨 소장 '메'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사용했던 '메'다. 박 씨는 이 '메'를 일본어인 '겐노(げんのう)'라고 하였다.

(3) 못빼기

'못빼기'는 나무 따위에 박힌 못 따위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못뽑이'를 말한다. '못빼기'는 못을 뺄 때 사용하는 것도 있고, 못 같은 것을 쳐서 박기도 하고 빼기도 할 수 있도록 망치대가리와 못뽑이가 함께 붙어있는 것도 있다.

〈사진 55〉는 대평리 임중자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장도리'다. 쇠로만 되어 있는 이것을 임 씨는 일본어로 '빠루(バール)'라고 일컬었다. 〈사진 56〉은 동광리 박순희 씨(1944년) 집에서 사용했던 '못빼기'다. 〈사진 57〉은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서 사용



〈사진 55〉 임중자 씨 소장 '장도리'



〈사진 56〉 박순희 씨 소장 '못빼기'


〈사진 57〉 고원매 씨 소장 '못뻬기'


〈사진 58〉 강인숙 씨 소장 '못뻬기'


〈사진 59〉 정춘자 씨 소장 '못뻬기'


〈사진 60〉 진희선 씨 소장 '쒜망치'와 '못뻬기'

하고 있는 '못뻬기'이고, 〈사진 58〉은 대평리 강인숙 씨(1933년생) 소장 '못뻬기'다. 〈사진 59〉는 사계리 정춘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못뻬기'이고, 〈사진 60〉은 창천리 진희선 씨 집에서 사용했던 '쒜망치'와 '못뻬기'이다. 사진 위는 '쒜망치'이고, 사진 아래 두 개는 '못뻬기'다.

3.3.4. 기타

(1) 쒜손과 고데

'쒜손'은 표준어 '쇠손'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시멘트 따위를 벽에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쇠로 만든 손이어서 '쒜손'이라 하고, 나무로 만든 것은 '낭손'이라고 한다. 쇠손을 일본어로 '고데(こて)'라고도 한다. '세멘 받는 거'는 시멘트질을 할 때 사용할 시



〈사진 61〉 임중자 씨 소장 '쒜손'



〈사진 62〉 고원매 씨 소장 '세멘 받는 거'와 '고데'



〈사진 63〉 천성현 씨 소장

멘트 따위를 덜어 놓는 판을 말한다. 사계리 천성현 씨는 '쎄멘 받는 거'라고 표현하고, '쒜손' 가운데 큰 것을 '고데'라고 하였다. '세멘(セメン)'은 '시멘트'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시멘트질을 할 때는 왼손에는 '세멘 받는 거'에 시멘트를 떠놓은 후에 오른손으로는 쇠손을 이용하여 시멘트를 뜨면서 바르면 된다.

〈사진 61〉은 대평리 임중자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쒜손'이다. 〈사진 62〉는 창천리 고원매 씨의 '세멘 받는 거'와 '쒜손'이다. '쒜손'도 용도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사진 63〉은 사계리 천성현 씨 집에서 사용했던 '세멘 받는 거'와 시멘트를 젓거나 떠 놓을 때 사용하는 쇠손이다.

"저 세멘 헐 때, 세멘 헐 때게 ᄒᆞ꼼 헐 때 요런 디 ᄒᆞ꼼 헐 땐게 저것에 거령 영 헤근에 저걸로 영 영. 저 일름이 쒜손. 저것이 고데."[119]

(저 시멘트 할 때, 시멘트 할 때 조금 할 때 요런 데 조금 할 때는 저것에 떠서 이렇게 해서 저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 이름이 쇠손. 저것이 쇠손.)

119)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2) 대패

'대패'는 나무를 곱게 밀어 깎는 연장이다. 나무를 깎는 용도로도 쓰이고, 나무의 골을 파는 데도 사용된다. 〈사진 64〉는 사계리 천성현 씨가 사용했던 대패다.



〈사진 64〉 천성현 씨 소장 '대패'

(3) 뻰치

'뻰치(ペンチ)'는 외래어 '펜치'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펜치는 손에 쥐고 철사를 끊거나 구부리거나 하는 데에 쓰는 공구를 말한다. 〈사진 65〉는 대평리 임중자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뻰치'다. 〈사진 66〉은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뻰치'다.



〈사진 65〉 임중자 씨 소장 '뻰치'



〈사진 66〉 고원매 씨 소장 '뻰치'

(4) 징

'징'은 표준어 '정'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정'은 돌에 구멍을 뚫거나 돌을 쪼아서 다듬는, 쇠로 만든 연장이다.

〈사진 67〉은 대평리 임중자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징'이다. 〈사진 68〉



〈사진 67〉 임중자 씨 소장 '징'

은 사계리 정춘자 씨 집에서 사용했던 '징'으로 정 씨는 이것을 '돌 벌르는 징'이라고 불렀다.


〈사진 68〉 정춘자 씨 소장 '징'


〈사진 69〉 박순희 씨 소장 '끌'

(5) 끌

'끌'은 나무에 구멍을 파는데 쓰는 도구의 한 가지다. 〈사진 69〉는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사용했던 '끌'이다.

(6) 줄과 줄칼

'줄'은 쇠붙이를 쓸거나 깎는 데에 쓰는, 강철로 만든 연장이다. '줄칼'은 칼날 모양으로 끝이 뾰족하고 길둥글며, 얇게 생긴 줄의 하나다. 〈사진 70〉은 덕수리 양기옥


〈사진 70〉 양기옥 씨 소장 '줄'


〈사진 71〉 진희선 씨 소장 '줄칼'

씨 집에서 사용했던 '줄'이고, 〈사진 71〉은 창천리 진희선 씨 집에서 사용했던 '줄칼'이다.

3.4. 집줄 관련

(1) 줄호렝이

'줄호렝이'는 초가지붕을 묶는 '집줄'을 꼴 때 사용하는 도구다. 줄을 꼬는 것을 제주에서는 '줄 비다'라고 한다. 중세어 'ᄇᆡ다'가 제주도에서 '비다'로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



〈사진 72〉 박애자 씨 소장 '줄호렝이'



〈사진 73〉 구좌읍 홍영애 씨 소장 '호렝이'

〈사진 72〉는 대평리 박애자 씨(1934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줄호렝이'다. 이 '호렝이'는 박씨가 결혼해서부터 초가에 살 때 사용했던 것으로, 시아버지 때부터 썼던 것이다. 보통 '호렝이'는 손에 들어 사용하는데, 사진의 '호렝이'는 긴 다리가 붙어 있어 '줄 빌' 때 땅에 대고 한다. 〈사진 73〉은 구좌읍 세화리 홍영애 씨 소장 '호렝이'로, 모양이 다르다.

(2) 새

'새'는 제주에서 집을 일 때 사용하는 '띠'를 가리키는 제주어다. 〈사진 74〉는 덕수



〈사진 74〉 문성실 씨 소장 '새'



〈사진 75〉 문성실 씨 농장의 창고

리 문성실 씨(1964년) 농장에 보관되어 있는 '새'다. 이 '새'는 〈사진 75〉의 지붕을 덮을 때 사용했던 것이다.

3.5. 불미 공예 관련

덕수리는 제주의 대표적인 주물 공예의 산지다. '주물(鑄物)'은 쇠붙이를 녹여 거푸집에 부은 다음, 굳혀서 만든 물건으로, 덕수리에서는 솥과 보습을 주로 생산했다. '주물 공예'를 덕수리에서는 '불미 공예'라고 부른다. 1986년 4월 10일 제주도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매년 가을에 '불미 공예' 시연 행사를 벌이고 있다.

'불미'는 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인 '풀무'를 덕수리에서 부르는 말이다. 덕수리에서는 솥이나 보습 등을 만드는 풀무간의 일이라는 의미로 '불미'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불미'는 손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켜 쇠를 녹이거나 달구는 '손불미(손풀무)'와 땅바닥에 장방형으로 골을 파서 중간에 굴대를 가로 박고, 그 위에 골에 맞는 판자를 걸어 놓아 판자 양쪽에서 널뛰기하듯이 디뎌서 바람을 일으키는 골풀무가 있다. '손불미'는 '똑딱불미'와 '토불미'로 나뉜다. '똑딱불미'는 1~2명이 시우쇠를 달군 후에 매질하여 칼이나 호미 등을 벼리는 일을 말하고, '토불미'는 '둑'에서 녹인 쇳물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푸집에 집어넣어 솥과 볏, 보습 등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덕수리의 '불미 공예'는 '토불미'에 해당하는 것이다.

'불미 공예' 관련 도구는 '불미 공예' 기능보유자 윤문수 씨(1934년생)의 도움말과 『덕수리 민속지』의 '주물공예'(고광민) 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불미 공예' 관련 설명에서 제시한 구술 자료는 윤문수 씨의 자료여서 별도의 주석을 달지 않았다.

3.5.1. 불미 마당 조직

'불미 마당'은 보습, 볏, 솥 따위를 대량으로 주조하는 곳을 말한다. '불미 마당'은 원대장, 알대장, 젯대장, 둑대장, 질먹대장, 불미 부는 사람, 일꾼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었다. '대장'은 책임자를 말한다.

(1) 원대장

'원대장'은 '불미마당'의 주인이자 자본주다. '원대장'은 솥이나 보습 등을 만들 때 모든 물자를 마련하고, 일꾼들에게 품삯도 줘야 한다. 품삯은 돈으로 주기도 하지만 주로 솥이나 보습으로 준다.

(2) 알대장

'알대장'은 보습의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다. '알'은 보섭이 쟁깃술(무클)에 끼울 수 있게 보습의 구멍에 깨우는 물건이다. '알'은 질흙을 섞은 물에 모래를 비벼 넣어 보습 구멍의 크기만큼 만들었다가 보습을 만들고 나며 헐어내면 쟁깃술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알대장'은 '불미 마당'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3) 둑대장

'둑대장'은 용광로(鎔鑛爐)인 '둑'을 만들고, 보습 따위를 만들 쇳물을 녹이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둑'은 '알둑', '셋둑', '웃둑'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젯대장도 3명이 필요하다.

"쒜 녹이는 사름이 둑대장."
(쇠 녹이는 사람이 '둑대장'.)

(4) 질먹대장

'질먹대장'은 거푸집[鑄型]에 바를 '질먹'을 만들거나 '질먹'을 바르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질먹'은 숱이나 흑연을 갈아서 물에 개어놓은 것을 말하는데, 이 '질먹'을 거푸집에 잘 발라줘야 보습 등의 모형이 곱게 나온다.

(5) 젯대장

'젯대장'은 보습 등의 틀에 쇳물을 부어넣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뜨거운 '쒯물'을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일이 가장 힘들다.

"쒯물 지르는 사름 젯대장. 젯대장은 사름이 ᄋᆞ라이 잇어야 뒈여. 옷 다 케우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이가 나. 겐디 젯대장허고 둑대장허고 알대장허고. 알대장이 기술이 능허니까. 알대장은 알 헐 때는 알 뜨고 보도 놓고 가끄곡."

(쇳물 긷는 사람 '젯대장'. '젯대장'은 사람이 여럿이 있어야 돼. 옷 다 테우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이가 나. 그런데 '젯대장'하고 '둑대장'하고 '알대장'하고. '알대장'이 기술이 능하니까. '알대장'은 '알' 할 때는 '알 뜨고' '보'도 놓고 깎고.)

(6) 불미 부는 사람

'불미 부는 사람'은 '불미'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다.

(7) 일꾼

'일꾼'은 '불미 마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이다. 원대장, 알대장, 젯대장, 둑대장, 질먹대장 등 여러 대장들의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이다.

3.5.2. 보섭 만들기

'보섭'은 표준어 '보습'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보섭' 주조 과정을 보면, 크게 '보섭뎅이 만들기', 쟁기의 쟁깃술에 끼우는 구멍인 '알' 만들기, '보섭뎅이'에 쇳물을 부어 보섭을 완성시키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보섭뎅이, 벳뎅이

‘보섭뎅이’는 무쇠를 녹인 쇳물을 부어 보습을 만드는 주형을 이르는 말이다. ‘벳(볏)’을 만들 때 사용하는 ‘뎅이’는 ‘벳뎅이’라고 한다.


〈사진 76〉 ‘보섭뎅이’

“보섭뎅이는 부서지지 아녀믄 십년 이십년 써. 보섭뎅이에 알을 박아서 굽거든. 전날 굽게 뒈면 순번대로 끼와놩.”

(‘보습뎅이’는 부서지지 않으면 십년 이십년 써. ‘보습뎅이’에 ‘알’을 박아서 굽거든. 전날 굽게 되면 순번대로 끼워놓아서.)

‘보섭뎅이’는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두면 오래 쓸 수 있다. 그러나 ‘벳뎅이’는 한번 쇳물을 받고 나면 다시 쓰지 못한다.


〈사진 77〉 ‘뎅이’를 만들 때 찰흙에 섞어서 사용하는 ‘ᄀᆞ시락’

‘뎅이’는 찰흙에 보리 까끄라기인 ‘ᄀᆞ시락’ 등을 잘 섞어서 반죽해서 만든다. 보리 까끄라기를 넣는 것은 ‘뎅이’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보섭뎅이’는 ‘알뎅이’와 ‘웃뎅이’로 이루어진다. ‘뎅이’는 ‘알뎅이’부터 만드는데, 틀이 있어 이긴 흙덩이를 그 속에 담아가면서 만든다. ‘알뎅이’의 보습 모양의 틀은 ‘보섭본’이라고 한다. ‘웃뎅이’는 ‘뎅이’의 뚜껑이다. ‘뎅이’가 다 만들어지면 잘 말린 후에 장작불에 잘 달군다.

(2) 알 만들기

‘알’은 보습의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이다. ‘알’은 찰흙 물에 모래를 비벼가면서 보습 구멍의 크기만큼 만들었다가 모두 만들고 난 후에 헐어버리면 보습

구멍이 생긴다. 이 구멍에 쟁기의 '무클(쟁깃술)'을 끼워서 밭을 가는 것이다.

'알'의 재료는 불에 구웠던 흙을 빻아서 사용했었다. '알'을 '뎅이'에 넣는 일을 '알박음'이라고 하고, 그 박은 알의 형태를 잡아주는 일을 '알 뜨기'라고 한다. 알을 뜰 때는 쇳물이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내주는데, 이 구멍을 '무십'이라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알'은 잘 손질한 후에 불에 구워 습기를 제거한다. '알'을 구울 때는 볏짚 등을 이용하는데, 볏짚은 다 타버린 후에도 재가 사그라지지 않아 열의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 재는 쇳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쇳물 위에 덮는 열 막이 재료로도 활용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재를 일컬어서는 '마물찍'이라고 하였다.

(3) '뎅이' 손질

'뎅이'에 쇳물을 붓기에 앞서서 '뎅이' 손질을 잘 해줘야 한다. '뎅이' 내부 표면에 낀 때를 잘 밀어주고 '비알'에 '춘흑물(찰흙물)'을 적셔 깨끗하게 닦아낸다.

"춘흑물보고 토물. 토물이 칠허면서 모래 놔가면서 돌려야 모래가 군 다음에 뜻뜻해야 부뜨기도 허고 제게 몰라야 질먹칠. 질먹칠 헌 다음에 시앙에 덜 뒌 디 잇이민 솔로 밀고. 그 솔은 옛날에 찍으로 멘들아신디."

(찰흙물보고 '토물'. '토물' 칠하면서 모래 넣어가면서 돌려야 모래가 군 다음에 따뜻해야 붙기도 하고 재우 말라야 '질먹칠'. '질먹칠' 한 다음에 완성이 덜 된 데 있으면 솔로 밀고. 그 솔은 옛날에 찍으로 만들었는데.)

'비알'은 솔의 일종으로, '귀얄'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쇳물을 붓기 전에 흑연 가루를 물에 타서 '귀얄'로 '뎅이' 안쪽 면을 칠한다. 이를 '질먹 칠하다'라고 한다. 예전에는 숯을 갈아서 사용했지만 요즘은 흑연가루를 이용하고 있다.

'질먹'을 칠한 '뎅이'는 다시 한 번 불을 지펴 말려준 후에 '알'을 박고 '알' 위에 '보'라고 불리는 알맹이를 얹어 놓은 후 '웃뎅이'를 덮어준다. '보'는 '알'과 '웃뎅이' 사이의 틈으로 쇳물이 들어가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받쳐주는 일종의 기둥 같은 것이다. '웃뎅이'를 얹은 후에는 '알뎅이'와 '웃뎅이'가 맞물린 틈을 까끄라기를 넣어 이긴 흙덩이로 막는다. 이런 작업을 윤문수 씨는 '장뒤허다'라고 하였다. 즉, 솥이나 보



〈사진 78〉 '보섭뎅이'에 '질먹'을 바르는 모습



〈사진 79〉 '질먹'을 바른 후에 '보섭 알뎅이'

습을 만들 때 솥의 주형물인 '알바슴'과 '웃바슴'을 연결하는 것을 '장뒤허다'라고 한다. 두 개의 주형물을 붙여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흙을 발라 마무리하는 일을 말한다.

(4) 둑

쇳물을 녹이기 위해서는 용광로가 필요하다. 용광로를 덕수리에서는 '둑'이라고 하였다. '둑'은 드럼통을 잘라서 만들어졌다. '알둑', '셋둑', '웃둑' 세 개의 '둑'을 이어서 만든다. '둑'은 '알둑-셋둑-웃둑' 차례로 만들어 간다. '알둑'은 아래쪽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놓았다. 하나는 쇳물을 빼내는 구멍이고, 나머지 하나는 쇳물의 찌꺼기를 빼내는 구멍이다. '쇳물'을 빼내는 구멍을 '잰철'이라고 하고, 쇳물의 찌꺼지를 빼내는 구멍은 '청녹구멍'이라고 한다. '청녹'은 '쒜'를 녹일 때 나오는 쇠에 피는 녹이다. 물구멍은 찰흙을 반죽하여 주변에 붙여서 만든다.

"체얌에 알둑부터 놓는 거지. 다음에 셋둑 놓곡 웃둑 놓고. 셋둑은 거꾸로 올려 놓는 거. 셋둑에서 쒤 녹이는 거라. 알둑에는 물 빠는 구멍이 잇고. 쒯물 빠는 구멍이라. 쒜 녹일 때 나오는 개스 빠는 구멍. 그 개스보고 청녹이라고 해. 게난 청녹이엔 헌 건 이 숫 녹은 게 청녹 뒈는 거. 쒯물 빠는 고망보고 잰철. 잰철 또 부쪄. 잰철은 물 빼는디 ᄒᆞ꼼 흑을 부쪄야지. 촌흑으로."

(처음에 '알둑'부터 놓는 거지. 다음에 '셋둑' 놓고 '웃둑' 놓고. '셋둑'은 거꾸로 열로 놓

는 거. '셋둑'에서 쇠를 녹이는 거야. '알둑'에는 물 빼는 구멍이 있고. 쇳물 뽑는 구멍이야. 쇠 녹일 때 나오는 가스 빼는 구멍. 그 가스보고 청녹이라고 해. 그러니까 청녹이라고 한 것은 이 숯 녹은 게 청녹 되는 거. 쇳물 뽑는 구멍보고 '잰철', '잰철' 또 붙여. '잰철'은 물 뽑는데 조금 흙을 붙여야지. 찰흙으로.)



〈사진 80〉 쇳물을 만들 '무쇠'



〈사진 81〉 쇠를 녹일 때 사용하는 '코크 숫(흑연)'

'쒜'를 녹이는 곳은 '셋둑'이다. '셋둑'에 불을 피워 나무를 넣어서 어느 정도 불로 달군 다음에는 '코크 숫(흑연)'을 넣고 그 위에 쇠를 넣어서 녹인다.

"불 부찌민 얼로 부찌냐 허면 여기다 다 얹어 놓은 다음에 어퍼졍. 체얌엔 이걸 이렇게 달과 놧다가 어느 정도 달룬 다음에. 달룰 때도 일로 불을 집어놓아야 뒈여. 체음 남을 놓거든. 남을 놓은 다음에 불 헤갖고 남을 어느 정도 놓느냐면 거꾸로 뒈여부니까 허지 셋둑 반 이상 요 정도. 그 우에는 숫. 숫을 놓은 다음에 쒜 놔"

(불 붙이면 어디로 붙이냐 하면 여기다 다 얹어 놓은 다음에 엎어져서. 처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달궈 놓았다가 어느 정도 달군 다음에. 달굴 때도 이리로 불을 집어넣어야 돼. 처음 나무를 넣거든. 나무를 넣은 다음에 불 해가지고 남을 어느 정도 넣느냐면 거꾸로 되어버리니까 하지 '셋둑' 반 이상 요 정도. 그 위에는 숯. 숯을 넣은 다음에 쇠 놓아.)

쇳물을 뽑아낸 다음에는 쇳물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찰흙 이긴 흙으로 잠시 구멍을 막아둔다. 이때의 흙을 '물마개흙'이라고, 그 막대를 '물마개'라고 한다. '쇳물'을 뽑을 때는 '무도리'라는 막대로 구멍을 뚫어 쇳물을 '오시'에 담아 그 위에 재를 덮은 다음

‘오시레’에 얹어서 ‘보섭뎅이’에 박아둔 ‘알’의 ‘무십’으로 쇳물을 넣는다. 쇳물이 굳으면 보습이 완성되는 것이다.

“쒯물 뎅이에 질엉 언디믄 솟이 나오는디 빨리 까불민 솟이 곱지 아녀. 쒯물 질엉 솟은 삼십 분, 보섭은 십오 분 정도 잇이민 나오고.”
(쇳물 ‘뎅이’에 길어서 굳으면 솥이 나오는데 빨리 깨버리면 솥이 곱지 않아. 쇳물 길어서 솥은 삼십 분, 보습은 십오 분 정도 있으면 나오고.)

‘젯대장’이 뎅이에 쇳물을 넣을 때 받쳐주는 끈을 ‘뎅잇베’라고 한다.

보습이 완성되면 깨끗하게 손질을 해야 한다. 보습에 붙어있는 ‘질먹’은 돼지기름을 이용하여 닦았다.


〈사진 82〉 완성된 ‘보섭’(위)과 ‘벳’(아래)


〈사진 83〉 완성된 ‘보섭’

“질먹 벳겨낼라면 옛날엔 덕수선 뒈야지기름, 춤지름으로. 돗지름으로 따까. 질먹 벳겨낼라면 돗지름으로 따깠어. 돗지름 젤 흔전헌 거. 뜻뜻헌 거난.”
(‘질먹’ 벗겨내려면 옛날에는 덕수에선 돼지기름, 참기름으로. 돼지기름으로 닦아. ‘질먹’ 벗겨내려면 돼지기름을 닦았어. 돼지기름 젤 흔한 것. 따뜻한 것이니까.)

3.5.3. 솟 만들기

‘솥 만들기’도 보섭 만드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솥 주조 과



〈사진 84〉 완성된 '솥두껑' 모습



〈사진 85〉 완성된 '솥' 모습

정에서 생산되는 도구 관련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솟바슴

'솟바슴'은 솥을 만들 때 사용하는 주형이다. 솥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바슴'이라고 하여 '솟바슴'이라고 한다. '바슴'은 '뎅이'와 마찬가지로 찰흙에 까끄라기를 섞은 반죽을 이겨서 만든다. '솟바슴'은 '알바슴'과 '웃바슴', '솟뚜껭이바슴'으로 이루어졌다.

'바슴'을 만든 후에 4시간 정도 불에 구운 후 그 안에 쇳물을 부어 식으면 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바슴 다 궈야 뒈여. 네 시간은 궈야 뒈여. 낼이 쒜를 녹힐 거 아니. 그러면 전날 밤이



〈사진 86〉 '솟바슴'



〈사진 87〉 '솟바슴'과 '두융'

궈야 뒈여. 밤의 궝 놔둬야 덜 식게. 식어불민 쒯물 안 받아. 속에가 조금 따뜻헤야. 쒯물이 한 이천 도 뒈는디 식으민 도수가 너무 차이가 나부니까 잘 안 뒈."

('바슴' 다 궈야 되어. 네 시간은 궈야 되어. 낼이 쇠를 녹일 거 아니. 그러면 전날 밤에 궈야 되어. 밤에 궈서 놔둬야 덜 식게. 식어버리면 쇳물 안 받아. 속이 조금 따뜻해야. 쇳물이 한 이천 도 되는데 식으면 도수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잘 안 돼.)

(2) 바슴더께, 볼편

'바슴더께'는 솥의 주형인 '솟바슴'을 덮은 용도의 물건이다.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둥글납작하게 만든다. 그 구멍으로 솥이 구워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볼편'이라고 한다.



〈사진 88〉 '바슴더께'의 '볼편'(구멍 부분)



〈사진 89〉 '바슴더께'

"이건 바슴더께엔도 허고 볼편. 볼편 주로 동글락허게. 볼편 역할은 더께. 솟 더께라고. 더끈 다음에 불이 안 퍼지게 감아야. 솟 구울라고 하면 볼펜 솟 궈졋나 본다고 볼편. 글로 확인헌다고 볼편. 볼편 떡치록 만들언."

(이것은 '바슴덮개'라고도 하고 '볼편'. '볼편' 주로 동글게. '볼편' 역할은 덮개. 솥 덮개라고. 덮은 다음에 불이 안 퍼지게 감아야. 솟 구우려고 하면 '볼펜' 솥 구워졌다 본다고 '볼편'. 그리고 확인한다고 '볼편'. '볼편' 떡처럼 만들었어.)

(3) 두융, 솟입

'두융'은 솥 안을 말하고, '솟입'은 솥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솥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융'을 세운 다음에 그 사이에 노를 감아둔다. '솟입'은 솥의 전을 말한다.

"두융 부찐 다음에 굳어야 노를 헤야 속이 구리게 나오니까. 이 속엔 노를 감아난 거. 노 빼는 것도 너무 몰라도 안 뒈고 안 몰르민 딱 빨 수가 없어."
('두융' 붙인 다음에 굳어야 노를 해야 속이 비게 나오니까. 이 속에는 노를 감았던 거. 노 뽑는 것도 너무 말라도 안 몰르민 딱 뽑을 수가 없어.)

(4) 솟거림

'솟거림'은 솥의 뎅이 가운데 아랫부분을 말한다.

"그 다음엔 솟거림. 거림도 나가 어느 정도 다 헹 놔뒀거근. 아랫거 보고 거림이라고."
(그 다음에 '솥거림'. '거림'도 내가 어느 정도 다 해서 놔뒀거든. 아래 거 보고 거림이야.)

3.5.4. 불미 도구

(1) 오시, 오시틀레, 오시바대

'오시'는 '쇳물'을 부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찰흙에 까끄라기를 섞은 반죽으로 부리가 달린 항아리 모양으로 만든다. '오시틀레'는 '쇳물'을 담은 '오시'를 받쳐서 들고 다니는 물건이다. '오시틀레'는 철사줄을 꼬아서 8자 모양으로 만든 후에 새끼를 꼬아서 만든 들것이다. '오시바대'는 '쇳물'을 담은 '오시'와 '오시틀레' 사이에 덧대는 조각


〈사진 90〉 '오시'와 '틀레바대'


〈사진 91〉 '틀레바대'로 쓰이는 '멍석' 조각



〈사진 92〉 '오시톨레'와 '오시'



〈사진 93〉 '오시톨레'



〈사진 94〉 굽기 전의 '오시'와 '오시톨레'



〈사진 95〉 굽기 전의 '오시' 모습

이다. 윤문수 씨는 물을 적신 멍석 쪼가리를 '오시바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짚신 바닥을 이용했다고 한다.

"오시도 나가 멘든 거. 오시 만드는 게 힘들어. 흑이 무른 거니까 이렇게 얍게 허는게 힘들어. 오시바대 물 적져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놓는 거. 뜨거운 거라부난예. 이천 도 뒈는 거 이렇게 들렁 뎅기는 거지. 오시톨렌 소곱에 쒜줄 놓고 노 꼬아가지고. 나룩찍 헤갖고. 오시톨레 옆에는 오시바대 헤갖고. 바대 허젠 허민 주로 신착. 신착허고 멍석. 바대로 헐려고 멍석 산 거 여기 잇어. 옛날 초신착 알창으로."

('오시'도 내가 만든 거. '오시' 만드는 게 힘들어. 흙이 무른 것이니까 이렇게 얇게 하는 게 힘들어. '오시바대' 물 적셔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놓는 거. 뜨거운 거여서. 이천 도 되는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지. '오시톨레'는 속에 쇠줄 넣고 노 꼬아가지고. 볏짚해가지고. '오시톨레' 옆에는 '오시바대' 해가지고. 바대 하려고 하면 주로 신짝. 신짝하고 멍

석. 바대로 하려고 멍석 산 거 여기 있어. 옛날 짚신짝 밑창으로.)

(2) 마물찍

'마물찍'은 짚을 태운 재를 말한다. 쇳물이 식지 않게 덮는 용도로 쓰는 재이다.


〈사진 96〉 '마물찍' 재료


〈사진 97〉 '마물찍'

(3) 무도리

'무도리'는 '둑'에서 녹인 쒯물을 빼는 도구다.

"무도리 뭐허는 거냐? 뚫러가지고 쒯물 빼는 거."
'무도리 뭐하는 거냐? 뚫어가지고 쇳물 뽑는 거.)


〈사진 98〉 '무도리'


〈사진 99〉 '물마개'

(4) 물마개

'물마개'는 ᄭᅴ물을 뺀 다음에 용광로 구멍을 막는 마개다.

"요건 물마개. 물 빠나민 딱 막는 거여. 여기 흑도 물마개흙. 물마개흙은 ᄀᆞ스락을 더 많이 놔. 하영 놔야 흑이 단단허여."

(요것은 물마개. 물 뽑아나면 딱 막는 거야. 여기 흙도 물마개흙. 물마개흙은 까끄라기를 더 많이 놔. 많이 놔야 흙이 단단해.)

(5) 비알

'비알'은 솔의 일종이다. 예전에서 볏짚의 속대를 백반을 넣어서 삶은 다음에 묶어서 만들었다. '질먹'을 칠할 때 사용하는 솔이다. '비알'은 표준어 '귀얄'의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100〉 '비알'

"비알은 뭐허는 거냐? 이렇게 이걸 쭈런히 논다 말여. 질먹 헤가지고 착 볼르고, 착 볼르고. 빤 다음에 깨끗이 질먹 물 타가지고 볼라야. 옛날은 찍 소독. 찍대는 마디가 잇엉 안 뒈여. 이딘 찍도 나빠 놓니까 끄트머리만 헤가지고 벡번 놔가지고 숢아."

(귀얄은 뭐하는 거냐? 이렇게 이걸 느런히 놓는다 말이야. '질먹' 해가지고 착 바르고, 착 바르고. 빤 다음에 깨끗이 질먹 물 타서 발라야. 옛날은 짚 속대. 짚은 마디가 있어서 안 돼. 여기는 짚도 나빠 놓으니까 끄트머리만 해가지고 백반 넣어가지고 삶아.)

(6) 불체

'불체'는 표준어 '재'의 방언형이다. 솥을 만들 때 '두융'을 세울 때 소용되는 물건이다.

"요것이 두융. 이건 솟입. 두융 세운 다음에 끄넷기로 감아가지고 솟입을 붙이는 거야."

(요것이 '두융', 이것은 '솟전'. '두융' 세운 다음에 끈으로 감아가지고 솥전을 붙이는 거야.)

(7) 종쒜

'종쒜'는 솥의 '바슴'을 손질할 때 끼워서 사용하는 도구다.



〈사진 101〉 '종쒜'



〈사진 102〉 '종쒜'를 이용하여 '솟바슴'을 손질하는 모습



〈사진 103〉 '종쒜'를 이용하여 '솟거림'을 손질하는 모습



〈사진 104〉 '지들커'

(8) 지들커

'지들커'는 '보습뎅이'나 '솟바슴' 등을 굽거나 쇳물을 녹일 때 사용하는 땔감을 말한다. 솔잎이나 장작을 이용하였다.

"옛날엔 솔썹이라고 헤가지고 소낭 솔썹으로 두 시간 쯤 불 때난 다음에 장작으로 구워. 웨 장작으로 불을 때느냐 허민 잉경이가 잇어야 뎅이가 빨리 식지 아녀게. 지들커는 혼 어귀에 혼 졸레 들어. 장작 혼 졸레는 잘 지는 사름이 혼 짐 정도라."

(옛날에는 솔잎이라고 해가지고 소나무 솔잎으로 두 시간 쯤 불 때난 다음에 장작으로 구워. 왜 장작으로 불을 때느냐 하면 잉걸이 있어야 '뎅이'가 빨리 식지 않아. 땔감은

한 어귀에 한 묶음 들어. 장작 한 묶음은 잘 지는 사람이 한 짐 정도야.)

(9) 어귀

'어귀'는 '솟바슴'이나 '보섭뎅이'를 구울 때 불이 들어가는 곳을 말한다. '어귀'를 셀 때는 '한 어귀', '두 어귀'처럼 세는데, 윤문수 씨가 예전에 불미일을 했을 때는 '백 어귀'까지 불을 땠었다고 한다. 한번 '보습뎅이'를 구우려고 하면 4~5시간은 구워야 한다.



〈사진 105〉 '어귀'



〈사진 106〉 '질먹' 재료인 '코크 숫'

(10) 숫

'숫'은 불을 피우는 재료이다. 용광로에서 쇠를 녹일 때 사용한다. 제보자 윤문수 씨는 '코크 숯'을 사용한다고 했다. '코크'는 일본어 'こく'로, '흑연'을 말한다.

"숫은 아무 숫이라도 안 뒈여. 코크숫. 쒜 녹일 수 있는 것은 코크숫."
(숯은 아무 숯이어도 안 되어. 흑연. 쇠 녹일 수 있는 것은 흑연.)

(11) 벡돌ᄀᆞ르, 질먹

'백돌ᄀᆞ루'는 '바슴' 돌레를 도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건이다. '돌레 도르는' 것은 바슴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매끄럽게 해주는 일을 말한다. '바슴'을 도를 때는 모레와 흑연을 사용한다. 모레는 틈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하고, 흑연은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쇳물이 '바슴'에 스며들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덕수리에서는 이를 '질먹'이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물에 끈 장작 숯을 빻아서 물에 섞어서 '질먹'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벡돌ᄀᆞ르, 돌레 돌르젠 허믄 모래가 들어가야 뒈고 흑연 들어가야 뒈여. 옛날엔 흑연보고 질먹이라고. 뭣으로 질먹 헷는가 저 게수미. 불때난 장작 끈 거. 그걸 뽓아가지고 질먹으로 썻거든. 질먹은 모래로 도른 다음에 흑연으로 돌라야 뒈여. 모래도 돌르는 건 질기라고 도르는 거. 흑연으로 돌라야 이뻐지고 쒯물이 안 들어가"

(벽돌가루, 둘레 두르려고 하면 모래가 들어가야 되고 흑연 들어가야 되어. 옛날에는 흑연보고 '질먹'이라고. 뭣으로 '질먹' 했는가 저 '숯'. 불 땠던 장작 끈 거. 그것을 빻아가지고 '질먹'으로 썼거든. '질먹'은 모래로 두른 다음에 흑연으로 둘러야 돼. 모래로 둘른 것은 질기라고 도르는 거. 흑연으로 둘러야 예뻐지고 쇳물이 안 들어가.)

3.6. 기타

(1) 덩드렁과 덩드렁마께

'덩드렁'은 짚 따위를 납작하게 두들길 때 밑에 받치는 돌을 말한다. '덩드렁마께'는 '덩드렁'이라는 돌 위에서 볏짚 등을 두들길 때 사용하는 방망이다.



〈사진 107〉 박순희 씨 소장 '덩드렁'과 '덩드렁마께'



〈사진 108〉 김덕순 씨 소장 '덩드렁'과 '덩드렁마께'

〈사진 107〉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사용했던 '덩드렁'과 '덩드렁마께'다. 좀이 많이 슬은 '덩드렁마께'가 세월의 흐름을 말해 주고 있다. 박씨의 시아버지가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108〉은 창천리 김덕순 씨 집에서 사용했던 '덩드렁'과 '덩드렁마께'다.

(2) 돗도고리

'돗도고리'는 돼지 먹이를 주는 돌을 파서 둥그렇게 만든 그릇이다. 〈사진 109〉는 대평리 박애자 씨가 돼지를 기를 때 사용했던 '돗도고리'다. 보통은 현무암을 파서 만드는데 박씨가 사용했던 '돗도고리'는 '속돌'을 이용해서 만들어 무겁지 않다고 한다. '속돌'은 잔구멍이 많이 뚫리어 있는 가볍게 된 화산의 용암 덩이다. 박 씨는 이 '돗도고리'를 이용하여 돼지를 길러 새끼를 치면서 용돈을 벌었다고 한다.



〈사진 109〉 박애자 씨 소장 '돗도고리'



〈사진 110〉 박순희 씨 소장 '돗도고리'



〈사진 111〉 고원매 씨 소장 '돗도고리'



〈사진 112〉 문성실 씨 소장 '돗도고리'

〈사진 110〉은 동광리 박순희 씨가 사용했던 '돗도고리'다. 속돌로 만들어서 물이 샌다고 한다. 〈사진 111〉은 창천리 고원매 씨가 사용했던 '돗도고리'이고, 〈사진 112〉는 덕수리 문성실 씨의 농장에 전시되어 있는 '돗도고리'다.

(3) 방석(낭방석/남방석)

'방석'은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를 말한다. '집줄'을 하다 남은 것으로 만든 방석을 '줄방석'이라고 하고, 나무를 네모나게 쪼개서 만든 것을 '낭방석/남방석'이라고 한다. '낭'은 나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부엌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하여 '정젯방석'이라고 한다. 〈사진 113〉은 창천리 김덕순 씨 집에서 촬영한 '낭방석'으로, 김 씨의 시아버지가 만든 것이다. 〈사진 114〉는 창천리 진희선 씨 집에서 사용했던 '낭방석'이고, 〈사진 115〉는 대평리 임중자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낭방석'이다. 〈사진 116〉은 화순리 지중연 씨 소장 '낭방석'이다.



〈사진 113〉 김덕순 씨 소장 '낭방석'



〈사진 114〉 진희선 씨 소장 '낭방석'



〈사진 115〉 임중자 씨 소장 '낭방석'



〈사진 116〉 지중연 씨 소장 '낭방석'

(4) 세숫대야와 바가쓰

'세숫대야'는 세숫물을 담는 둥글넙적한 그릇을 말한다. 예전에는 '장태'나 '놋'으로



〈사진 117〉 양성지 씨 소장 '세숫대야'



〈사진 118〉 진희선 씨 소장 '세숫대야'



〈사진 119〉 양기옥 씨 소장 '세숫대야'



〈사진 120〉 김덕순 씨 소장 '바게쓰'

도 만들기도 하였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사기 등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

〈사진 117〉은 대평리 양성지 씨(1932년생)가 사용했던 알루미늄으로 만든 세숫대야로, 요즘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진 118〉은 창천리 진희선 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119〉는 덕수리 양기옥 씨가 사용하고 있는 세숫대야다.

'바가쓰'는 '한 손으로 들 수 있도록 손잡이를 단 들통'으로 표준어 '양동이'에 대응한다. 일본어 '바케츠(バケツ)'에서 온 말이다. 〈사진 120〉은 창천리 김덕순 씨 집에서 촬영한 '바가쓰'로, 김 씨는 손잡이가 헐자 전선으로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다.

(5) 비치락과 구둠받이

'비치락'은 안덕면에서 '빗자루'를 가리키는 방언형이다. '구둠받이'는 표준어 '쓰레받



〈사진 121〉 지중연 씨 소장 '비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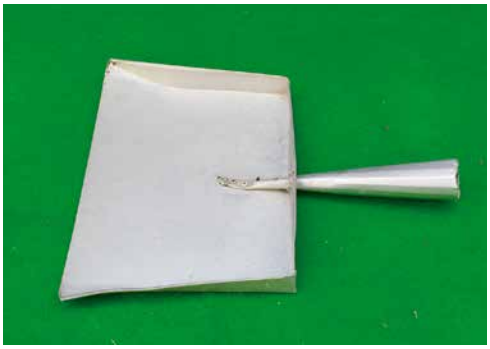
〈사진 122〉 진희선 씨 소장 '비치락'



〈사진 123〉 임중자 씨 소장 '비치락'과 '쓰레받이'



〈사진 124〉 지수선 씨 소장 '비차락'과 '구둠받이'



〈사진 125〉 지중연 씨 소장 '구둠받이'

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구둠받이'는 '구둠+받이' 구성으로, '구둠'은 표준어 '먼지', '받이'는 '받는 물건'의 의미다.

〈사진 121〉은 화순리 지중연 씨 집에서 사용하는 '비치락'이고, 〈사진 122〉는 진희선 씨가 사용하고 있는 '비치락'이다. 〈사진 123〉은 대평리 임중자 씨가 사용하는 '비치락'과 '쓰레받이'다. 〈사진 124〉는 사계리 지수선 씨가 사용하는 '비치락'과 '쓰레받이'로, 지 씨는 '쓰레받이'를 '구둠받이'라 했다. 〈사진 125〉는 화순리 지중연 씨가 사용하고 있는 '구둠받이'다.

(6) 요강단지

'요강'은 오줌을 누울 때 사용하는 도구다. 사기나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다. 예전에 여자가 시집갈 때는 반드시 혼수품으로 요강을 장만해 갔다. 동광리 박순희 씨는 이를 가리켜 '요강단지'라고 하였다.

〈사진 126〉는 박 씨가 사용했던 사기로 만든 '요강단지'다. 〈사진 127〉은 창천리 고원매 씨가 구입해서 사용했던 '스텐인리스 요강'이다.



〈사진 126〉 박순희 씨 소장 '요강단지'



〈사진 127〉 고원매 씨 소장 '요강'

"나 산 거. 시집올 때 옛날은 사기 거 헷수게, 사기. 저건 중간에 산 거. 이제 그런 거 썸수과? 화장실 허난. 옛날엔 시집올 땐 단지, 단지 그것에 헷주만은 그거 벌러져부난 저 단지 뚜껑 더끄고 허는 거 하나 산디 이제 화장실 헤부난. 게도 그레 놩 내불엉 데껴불지 안 허연."[120]

(내가 산 거. 시집올 때 옛날은 사기 거 했지요, 사기. 저건 중간에 산 거. 이제 그런 거 쓰나요, 화장실 하니까. 옛날에 시집올 땐 단지, 단지 그것에 했지만 그거 깨져버리니까 저 단지 뚜껑 덮고 하는 거 하나 샀는데 이제 화장실 하니까. 그래도 거기 놔두고 던져버리지는 안 했어.)

(7) 지펭이

'지펭이'는 걸을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막대기다. 표준어 '지팡이'를 말한다.

120)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사진 128〉은 강영범 씨가 자죽(紫竹)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지펭이'다. '자죽'는 껍질이 자주색을 띠는 대의 한 가지로, 지팡이나 담뱃대 등을 만드는 재료로 활용했다.


〈사진 128〉 강영범 씨 소장 '지펭이'

"그거 나가 멘든 거주. 그건 대가 아니라 자죽이라고, 자죽. 나 어린 때에 옛날 어른덜 보면은 보통으로 대지펭이를 멘들앙 뎅기는디 요건 자죽대라고 이 지펭인 멧 사람 이시나마나 허여. 어려와, 어려와."[121]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그건 대가 아니라 자죽이라고, 자죽. 내가 어린 때에 옛날 어른들 보면은 보통으로 대지팡이를 만들어서 다니는데 요건 자죽대라고 이 지팡인 몇 사람 있으나마나 해. 어려워, 어려워.)

(8) 자전거와 뽐뿌

'자전거'는 사람이 타고 앉아 두 다리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서 가게 된 탈것이다. '뽐뿌(ポンプ)'는 펌프를 일본어식으로 표현한 말이다. 자전거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바람을 넣을 때 사용하는 기구다. 〈사진 129〉는 사계리 이영수 씨가 타고 다니는 자건거이고, 〈사진 130〉은 사계리 천성현 씨가 사용하는 '뽐뿌'다.


〈사진 129〉 이영수 씨 소장 '자전거'


〈사진 130〉 정춘자 씨 소장 '뽐뿌'

121) 창천리 강영범 씨 구술.

(9) 사다리

'사다리'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를 말한다. 덕수리 양기옥 씨는 사다리를 '사드레'라고 하였다. 〈사진 131〉은 양기옥 씨 집에서 사용하는 나무 사다리이고, 〈사진 132〉는 창천리 김덕순 씨가 장독대가 있는 옥상을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사다리로, 쇠로 만들었다. 〈사진 133〉은 사계리 정춘자 씨 집에서 사용하는 나무사다리이다.



〈사진 131〉 양기옥 씨 소장 '사드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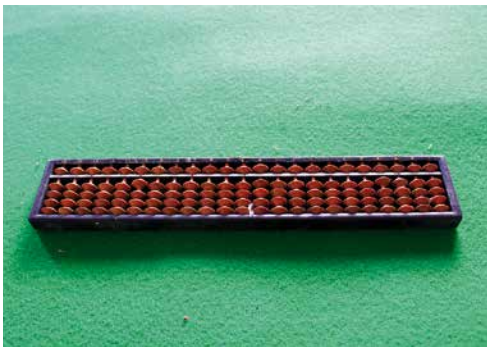
〈사진 132〉 김덕순 씨 소장 '사다리'



〈사진 133〉 정춘자 씨 소장 '사다리'

(10) 수판

'수판'은 '셈을 놓는 데 쓰는 기구의 하나'로 표준어 '주판'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전자계산기가 나오기 이전에는 가게 등지에서 대부분 주판으로 셈을 했다. 〈사진 134〉는 대평리 강월출 씨 자식들이 사용했던 '수판'이다. 주산 알이 네 알로 된 것을 보면 1980년대 이후에 나온 것이다.



〈사진 134〉 강월출 씨 소장 '수판'

(11) 카세트 라디오와 하모니까

'카세트 라디오'는 카세트테이프(cassette tape)를 간편하게 장착하여 녹음을 하거

나 녹음된 것을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든 녹음기와 라디오 기능을 동시에 가진 전자기기다. 〈사진 135〉는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카세트 라디오로, 박 씨의 친정 오빠가 썼던 것이다. 카세트 라디오에 'NATIONAL'이라는 상호가 선명하게 박혀 있다. 〈사진 136〉의 '하모니카'도 박 씨의 오빠가 쓰던 물건이다.



〈사진 135〉 박순희 씨 소장 '카세트 라디오'


〈사진136 〉 박순희 씨 소장 '하모니카'

"라디오 우리 친정 오라방이 써난 거. 오라방 아시아방송 뎡겨나난 저 아메도 칠십년대 뒈겠지. 이제 살아시민 팔십인데 돌아가셨어."[122]

(라디오 우리 친정 오빠가 썼던 거. 오빠가 아세아방송 다녔었으니까 저 아마도 천구백칠십년대 되겠지. 이제 살았으면 팔십인데 돌아가셨어.)

(12) 장귀

'장귀'는 표준어 '장구'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예전에 마을에서 대소사가 끝날 때 뒤풀이를 할 때 많이 썼던 도구다. 〈사진 137〉은 대평리 잠녀들이 물질 등의 내용으로 민속공연을 할 때 사용했던 '장귀'다. 대평리 해녀식당에서 장식물로 전시되어 있다.


〈사진 137〉 대평리 해녀 식당에서 촬영한 '장구'

122)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13) 윳

'윷'은 작고 둥근 통나무 두 개를 반씩 쪼개어 네 쪽으로 만든 놀잇감이다. 도, 개, 걸, 윷, 모의 다섯 등급을 만들어 승부를 겨루는 놀이에 쓴다.

〈사진 138〉은 화순리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 '윳놀이'에 사용하는 '윳'이다. 이 윷



〈사진 138〉 화순리 노인정에서 촬영한 '윳'



〈사진 139〉 '종지윳'



〈사진 140〉 '말판'



〈사진 141〉 화순리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 '윳놀이'를 하는 장면



〈사진 142〉 창천리 노인회관에서 촬영한 '장작윳'



〈사진 143〉 창천리 노인회관에서 촬영한 '윳놀이'용 '멍석'

을 할머니들은 종지에 넣어서 사용하는데, 이런 윷을 '종지윳'이라고 한다. 〈사진 140〉은 윷놀이에 이용하는 말이 가는 길을 그린 판인 '말판'이고, 〈사진 141〉은 화순리 노인정의 할머니들의 '윳놀이' 장면이다. 〈사진 142〉는 창천리 노인회관에 보관 중인 '장작윳'이고, 〈사진 143〉은 '윳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멍석'이다.

(14) 호루라기

'호루라기'는 불어서 소리를 내는 신호용 도구다. 예전에 운동회 때 운동경기의 시작과 끝에 호루라기를 불어서 신호했다. 〈사진 144〉는 양기옥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호루라기다.



〈사진 144〉 양기옥 씨 소장 '호루라기'

Ⅱ 조사 내용

4. 농업 관련

농작물의 변화와 농기계의 발달은 제주의 농업 구조를 바꿔 놓았다. 제주의 농촌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통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 보리, 조, 콩, 메밀 등의 곡물과 고구마 농사가 주 작물이었으나 농업의 발달과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제주의 농작물도 바뀌고 있다. 요즘은 전통 방식의 보리와 조, 고구마 등의 곡물 대신에 콩 농사와 귤, 채소 작물 등 특용작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전통 방식의 농사 도구 등도 잊혀가는 유물이 되고 있다. 농업 관련 도구는 파종 관련 도구, 김매기와 수확 도구, 건조와 손질 도구, 운반 도구, 계량 도구로 나눠 정리하였다.

4.1. 파종 관련

4.1.1. 밭갈이 도구

(1) 잠대와 멍에

'잠대'는 논밭을 가는 농기구로,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다. 밭은 소의 어깨에 짊어진 멍에와 연결된 '잠대'를 운용하여 갈게 된다. '잠대'는 표준어 '쟁기'에 대응하는 말이다.



〈사진 1〉 박애자 씨 소장 '잠대'



〈사진 2〉 이영수 씨 소장 '잠대'



〈사진 3〉 강영범 씨 소장 '잠대'



〈사진 4〉 양춘자 씨 소장 '잠대'

〈사진 1〉은 대평리 박애자 씨(1934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잠대'다. 1970년대 경운기가 나오기 전까지 농사지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박 씨의 창고 천장에 보관되고 있었다. 〈사진 2〉는 사계리 이영수 씨(1935년생) 집 창고 천장에 보관되어 있는 '잠대'다. 〈사진 3〉은 창천리 강영범 씨(1927년생)가 사용했던 '잠대'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벽에 걸어서 보관하고 있다. 경운기로 밭을 갈기 시작하니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4〉는 화순리 양춘자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잠대'다. 잠대 형태가 온전하게 보전되고 있다. 잠대 손잡이를 '양주머리(❶)', 양주머리와 가로로 길게 연결된 대가 '성에(❷)'라고 한다. 밭을 가는 '보섭(보습·❸)'이 끼워진 부분의 곡선 막대는 '무클(쟁깃술·❹)', '성에'와 '무클'을 가로지르는 쟁기 가운데 나무는 '설칫(한마루)'이라고 한다. 보습 위에 끼워서 흙이 한쪽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도구는 '벳(볏·❺)'이다. 멍에와 연결하는 '성에' 끝의 작은 막대는 '물벵이뿔(물추리막대·❻)'이라고 한다.

〈사진 5〉는 대평리 해녀식당에 전시되어 있는 '잠대'다. '잠대'에 주전자 소쿠리 냄비 등을 걸려 있다. 사진 속 '잠대'는 대평리 김영희 씨(1957년생) 집에서 농사지을 때 남편이 밭 갈 때 사용했던 것으로, 8~9년 전에 해녀식당을 운영할 때 장식물로 갖고 와 전시해 놓고 있다.


〈사진 5〉 대평리 해녀식당에 걸려 있는 '잠대'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한다. 소나 말을 수레에 연결해서 끌거나 소로 밭을 갈 때 소와 쟁기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막대다.

〈사진 6〉은 동광리 박순희 씨(1944년생) 집에서 쟁기에 소를 매서 밭을 갈 때 사용했던 '멍에'로, '멍에'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사진 7〉은 화순리 양춘자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멍에'다. 멍에 가운데로 내려온 두 개의 곡선 막대는 소의 어깨에 걸치게 되는데, 이를 안덕면에서는 '접게'라고 하였다.


〈사진 6〉 박순희 씨 소장 '멍에'


〈사진 7〉 양춘자 씨 소장 '멍에'

(2) 보섭과 벳

'보섭'은 표준어 '보습', '벳'은 '볏'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보섭'은 밭갈이할 때 '잠대' 끝에 끼워 사용하고, '벳'은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쇳조각'으로, '보섭'으로 갈

아 넘기는 흙을 받아 한쪽으로 떨어지게 한다.

'벳'은 표준어 '볏'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벳'은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쇳조각이다. 보습으로 갈아 넘기는 흙을 받아 한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사진 8〉 김영랑 씨 소장 '벳'



〈사진 9〉 '사진 8' 신문지를 벗긴 후

〈사진 8〉과 〈사진 9〉는 덕수리 김영랑 씨(1938년생) 집에서 소로 밭을 갈 때 사용했던 '벳'으로, 신문지에 싸 있는 모습과 신문지를 벗긴 모습이다. 지금은 김 씨가 신문지에 싸서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 쇠붙이를 머리맡에 두고 자면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다.

"이 벳은 구신 뎅기지 말렌. 아기 어멍 허면은 저 이거 벳 머리맛듸 놩, 애기 낭 허면 구신 뎅기지 말렌. 게난 우리 옛날에 동네 사돈 허니까 '머리맛듸 뭐 놩 눕서.' 경 허길레 수건에 똔똔 쌍 머리맛듸 놔. 이거만 놔도, 칼은 요번이사 봔. 사둔이 혼자만 자고 허니까. 사둔 죽건 디도 십오년 넘엇저. 밧 갈아난 거 놔두난 보미엿저."[123]

(이 볏은 귀신 다니지 말라고. 아기 어머니 하면서 저 이거 볏 머리맡에 놓아서, 아기 낳아서 하면 귀신 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동네 사돈 하니까 '머리맡에 뭐 놔서 누세요.' 그렇게 하기에 수건에 단단히 싸서 머리맡에 놔. 이것만 놔도, 칼은 요번에야 봤어. 사돈이 혼자만 자고 하니까. 사돈 죽은 지도 십오 년 넘었지. 밭 갈았던 것 놔두니까 녹슬었네.)

123) 덕수리 김영랑 씨 구술.



〈사진 10〉 박순희 씨 소장 '벳'



〈사진 11〉 이영수 씨 소장 '골 갈리는 벳'



〈사진 12〉 강영오 씨 소장 '중경벳'

〈사진 10〉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사용하던 '벳'이다. 고구마를 심어서 흙을 올려줄 때 사용했던 '중경벳'이다. '중경벳'을 사계리 이영수 씨는 '골 갈리는 벳'이라고 하였다. 〈사진 11〉은 이 씨가 사용했던 '골 갈리는 벳'으로, 30년 전에 감자 심은 후에 흙을 올려줄 때 주로 사용했던 '벳'이다. 〈사진 12〉는 창천리 강영오 씨(1944년생)가 고구마와 감자를 중경할 때 사용하던 '중경벳'이다.

"밧 가는 벳허고 골 갈르는 것이 또나지게. 나중에 헌 건 골 갈르는 벳. 밧 고랑으로 갈던지 지슬 헤 먹을려고 허면 고지를 흙게 갈아주거든. 지실 심고 경헤서 고랑 짝 허게 갈면은 양쪽더레 흑이 갈라지거든. 겐 고지에 흑이 씌와져. 쉐로 밧 간지도 나 헐 적에는 혼 삼십 년 거자 뒛어."[124]

(밭 가는 볏하고 골 만드는 것이 다르지. 나중에 한 건 골 만드는 볏. 밭 고랑으로 갈던지 감자 해 먹으려고 하면 이랑을 높게 갈아주거든. 감자 심고 그렇게 해서 고랑 짝 하게 갈면은 양쪽으로 흙이 갈라지거든. 겐 이랑에 흙이 씌워져. 소로 밭 간 지도 내가 할 적

124) 사계리 이영수 씨 구술.

에는 한 삼십 년 거의 됐어.)

4.1.2. 땅 파는 도구

(1) 갈레죽

'갈레죽'은 '삽'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나무로 만든 것을 일컬을 때는 '낭갈레죽'이라고 한다. '낭'은 나무, '갈레죽'은 '가래'를 의미하는데, 보통 '삽'의 의미로 쓰인다. '갈레죽'은 밭의 흙을 파거나 흙이나 모래 따위를 용기에 담을 때 사용하였다.



〈사진 13〉 진희선 씨 소장 '갈레죽'



〈사진 14〉 지중연 씨 소장 '삽'과 '부삽'

〈사진 13〉은 창천리 진희선(1931년생) 씨 집에서 촬영한 '갈레죽'이다. 이 삽은 땅을 파거나 흙을 퍼낼 때 사용하는 '갈레죽'이다. 〈사진 14〉는 화순리 지중연 씨(1930년생) 집에서 촬영한 삽과 부삽이다. 사진 속의 큰 것이 '삽'으로, 모래나 흙 따위를 담거나 퍼낼 때 사용하는 삽이다. 사진 아래의 작은 삽은 부엌에서 아궁이의 재를 퍼낼 때 사용하는 '부삽'이다.

(2) 궹이

'궹이'는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괭이'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궹이'는 밭을 새로 일구거나 땅을 팔 때, 그리고 흙을 고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사진 21〉의 오른쪽이 '궹이'다.

(3) 못궹이

'못궹이'는 땅에 묻힌 돌이나 나무뿌리 따위를 파낼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다. 황새의 부리처럼 양쪽으로 길게 날을 내고 가운데 구멍에 긴 자루를 박은 괭이를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곡궹이'라고도 하였다. '못궹이', '곡궹이'는 표준어 '곡괭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15〉는 대평리 박애자 씨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했던 도구다. 박 씨는 이 '못궹이'로 사십팔년 전에 감귤 과수원을 조성할 때 땅을 파고 땅속의 돌이나 나무뿌리 등을 파낼 때 사용했다고 한다.

"저 못궹인 미깡 싱글 때, 미깡 싱글 때. 미깡이 우리 싱그건 디가 한 ᄉᆞ십팔 년. 막 일찍 싱건, 우리. 걸로 허멍 아이덜 공부시켯어."[125]

(저 곡괭이 귤 심을 대, 귤 심을 때. 귤이 우리 심은 지가 한 사십팔 년. 매우 일찍 심었어, 우리. 그것으로 하면서 아이들 공부시켰어.)



〈사진 15〉 박애자 씨 소장 '못궹이'



〈사진 16〉 박순희 씨 소장 '곡궹이'

〈사진 16〉과 〈사진 17〉은 동광리 박순희 씨의 남편이 땅에 돌을 파낼 때 썼던 곡괭이다. 〈사진 16〉의 곡괭이의 휘어진 자루가 인상적이다. 〈사진 18〉은 창천리 강영범 씨 집에서 사용했던 '못궹이'다.

125) 대평리 박애자 씨 구술.



〈사진 17〉 박순희 씨 소장 '곡궹이'



〈사진 18〉 강영범 씨 소장 '못궹이'

〈사진 19〉는 창천리 고원매 씨(1944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곡궹이'다. 고 씨는 이 '곡궹이새끼'라고 하였다. 앉아서 자갈 등을 파낼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사진 19〉 고원매 씨 소장 '곡궹이'

(4) 철궤

'철궤'는 땅에 박힌 돌 따위를 일으킬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지렛대'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20〉은 덕수리 양기옥 씨(1938년생)가 사용했던 것이다.

"철궤 영 헹 뭐 돌멩이 파는 거. 옛날에 큰 돌 일러근에 이걸로 깨고. 포크레인 엇은 때에 저걸로 밧 문 일런에 밧 만들고. 돌 일어나지 안 허민 저거 떠받쳐 근에 영 놔근에 돌 이거 시민 영 앗다 놔근에 이렇게 허여근에 허민 뒙니다. 영 헤근에 우리 밧 만들엇수다게."[126]



〈사진 20〉 양기옥 씨 소장 '철궤'

126)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지렛대 이렇게 해서 돌멩이 파는 거. 옛날에 큰 돌 일으켜서 이것으로 깨고. 굴착기 없는 때에 저것으로 밭 몽땅 일으켜서 밭 만들고. 돌 일으키지 못 하면 저거 떠받쳐서 이렇게 놓아서 돌 이거 있으면 이렇게 가져다 놔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밭 만들었습니다.)

(5) 쉐스렁, 호크/호꼬

'쉐스렁'은 '쇠스랑'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쉐스렁'은 거름을 내거나 땅을 파거나 고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보통 갈퀴가 세 개로 되어 있으나 용도에 따라서 두 개 또는 여러 개로 되어 있다.


〈사진 21〉 양춘자 씨 소장 '쉐스렁'과 '궹이'

'호크/호꼬'는 영어 '포크(fork)'를 차용한 일본어(フォーク)식 발음으로 농기구 이름으로 정착한 경우다. 모양이 포크 모양이어서 '호크'라고 하는데, 거름을 내거나 거름 따위를 밭에 흩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사진 21〉은 화순리 양춘자 씨(1928년생) 집 창고에 걸려 있는 '쉐스렁'과 '궹이'다. '쉐스렁'은 땅을 파거나 돼지우리 등에서 거름을 낼 때 사용하고, '궹이'는 땅을 파거나 흙을 모와 밭의 이랑을 만들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4.1.3. 기타 농기구

(1) 곰베

'곰베'는 밭을 갈 때 나오는 흙덩어리를 부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곰방메'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2) 글겡이

'글겡이'는 솔잎 등을 긁어모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밭의 자갈을 긁어모을 때도 사

용하였다. '쒜(쇠)'로 만든 것은 '쒜글겡이', '왕대'로 만든 것은 '대글겡이'라고 한다. 표준어로는 '갈퀴'라고 한다.

〈사진 22〉는 사계리 정춘자 씨(1947년생)가 밭의 자갈을 골라낼 때 사용했던 '글겡이'다. 갈퀴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사진 22〉 정춘자 씨 소장 '글겡이'

(3) 공젱이

'공젱이'는 끝을 뾰족하게 만든 쇠로 만든 굽은 못이다. 사용 용도에 따라 여러 모양이 있다. 〈사진 23〉은 사계리 이영수 씨 집에서 사용하는 '공젱이'로 비닐 속에서 자라는 마늘 순을 끄집어 낼 때 사용하였다. 이 씨는 이 도구를 '마농 터지우는 공젱이'라고 하였다.


〈사진 23〉 이영수 씨 소장 '공젱이'

"마농 터지우는 거엔 헌다. 마농 터지우는 공젱이. 마농 날 때 터지우는 공젱이. 땅 우터레 솟지 안헐 때 모르거든. 이렇게 뽀족허게 나면은 비니루가 훤히 베껴디서 보여. 그거 톡 터추는 거주게."[127]

(마늘 (구멍) 뚫는 것이라고 한다. 마늘 (구멍) 뚫는 '공젱이'. 마늘 날 때 뚫는 '공젱이'. 땅 위로 솟지 안할 때 모르거든. 이렇게 뽀족하게 나면 비닐이 훤히 바깥에서 보여. 그거 톡 터뜨리는 거지.)

〈사진 24〉는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서 사용했던 '공젱이'로, 고구마 마대를 어깨에

127) 사계리 이영수 씨 구술.

둘러맬 때 사용하였다. 표준어 '갈고랑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고 씨는 이 도구를 '갈쿵이'라고도 하고, '공젱이'라고도 하였다. 두 명칭 모두 '갈고랑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24〉 고원매 씨 소장 '공젱이'

"저거 인칙 곧지 안 헷어. 감저 마다리 뚜러멜 때 그걸로 영 걸려근에 헤난 거. 갈쿵인가. 그거 담은 거 차레나 감저 공장에서 그 인부들이 사름덜이 왕, 영 밧 가운디 헤 놓민 차레 시끌 땐 저 공젱이 헤근에 확 떼여근에 뚜레메근에 간게게."[128]

(저거 아까 말하지 안 했어. 고구마 마대 둘러멜 때 그걸로 이렇게 걸려서 했던 거. 갈고랑인가. 그거 담은 거 차에나 고구마 공장에서 그 인부들이 사름들이 와서, 이렇게 밭 가운데 해 놓으면 차로 실을 때 저 갈고랑이 해서 확 떼서 둘러메고 갔어.)

(4) 씨멩텡이/씨망텡이

'씨멩텡이'는 '씨+멩텡이' 구성으로 씨를 뿌릴 때 사용하는 멱둥구미다. '씨멩텡이'는 씨를 뿌릴 때 어깨에 메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멩텡이' 양쪽에 끈을 달았다. '멩텡이'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멱둥구미'다.

4.2. 김매기와 수확 관련

4.2.1. 호미류

(1) 골겡이

'골겡이'는 김을 매거가 고구마 따위를 수확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호미'에

128)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사진 25〉 김영랑 씨 소장 '골겡이'



〈사진 26〉 진희선 씨 소장 '골겡이'



〈사진 27〉 지중연 씨 소장 '골겡이'



〈사진 28〉 박순희 씨 소장 '골겡이'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호미도 쓰임과 밭의 환경에 따서 잎과 자루, 손잡이 모양이나 크기가 달랐다.

〈사진 25〉는 덕수리 김영랑 씨가 사용하는 '골겡이'이고, 〈사진 26〉은 창천리 진희선 씨가 김맬 때 사용했던 '골겡이'다. 〈사진 27〉은 화순리 지중연 씨, 〈사진 28〉은 동광리 박순희 씨가 사용하고 있는 '골겡이'다.

(2) 호미, 어염 비는 호미, 마농 끄치는 호미

'호미'는 곡식이나 꼴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낫'을 가리킨다. '어염 비는 호미'는 밭의 가장자리의 풀이나 나무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낫이고, '마농 끄치는 호미'는 마늘대와 뿌리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낫이다.

〈사진 29〉는 덕수리 김영랑 씨가 콩 따위를 꺾을 때 사용하는 '호미'이다. 사용자와



〈사진 29〉 김영랑 씨 소장 '호미'



〈사진 30〉 임중자 씨 소장 '호미'



〈사진 31〉 진희선 씨 소장 '호미'



〈사진 32〉 양춘자 씨 소장 '호미'

용도에 따라 '호미'의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사진 30〉은 대평리 임중자 씨(1942년생)가 곡식 따위를 벨 때 사용했던 '호미'다. 〈사진 31〉은 창천리 진희선 씨가 사용했던 '호미'다. 〈사진 32〉는 화순리 양춘자 씨가 밭가의 풀을 제거하거나 나무 등을 자를 때 사용하는 '호미'다. 양 씨는 이 호미를 '어염 비는 호미'라고 해서 보통의 '호미'와 구분하였다. '호미'의 날이 크고 단단하게 보인다.

"어염 비는 호미. 낭 비는 거. 어염도 비고 남도 비고. 미호미도 낭 허는 건디 놀이 구짝헌 거 곧은 거."[129]

(밭 가장자리 베는 낫. 나무 베는 거. 가장자리의 (풀도) 베고 나무도 베고. '미호미'도 나무 하는 것인데 날이 곧은 거, 곧은 거.)

129) 화순리 양춘자 씨 구술.



〈사진 33〉 양춘자 씨 소장 '마농 끄치는 호미'



〈사진 34〉 진희선 씨 소장 '마농 끄치는 호미'

〈사진 33〉과 〈사진 34〉는 '마농 끄치는 호미'다. 나무 판에 '호미' 날을 눕혀 세워 만들었는데, 이는 나무 판에 앉아서 마늘대를 앞에서 뒤로 밀면서 자를 수 있게 만들어졌다. 〈사진 33〉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마늘 자를 때 사용하는 '마농 끄치는 호미'이고, 〈사진 34〉는 창천리 진희선 씨가 사용하는 '마농 끄치는 호미'이다. 여기에서 '끄치는'은 '끊는' 또는 '자르는'의 의미의 방언형이다.

4.2.2. 타작 도구

(1) 도께

'도께'는 곡식의 낟알을 뚜드려 떨기 위하여 쓰던 재래식 농기구의 한 가지다. 긴 작대기 끝에 회초리를 서너 개 달아서 휘두르면 돌아가게 만들어졌다. 긴 막대를 '도께어시'라고 하고, 자잘한 회초리는 '도깨아덜'이라고 한다. '도께어시'는 표준어 '도리깻장부', '도깨아덜'은 표준어 '도리깻열'에 대응하는 방언형다. 도리깻열이 돌게끔 '도께아덜'과 연결해 주는 작은 막대는 '도께ᄇᆞᆯ레'라고 한다. '도께ᄇᆞᆯ레'는 표준어 '도리깨꼭지'에 대응하는 방언형인데, 도리깨 자루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깻열을 매는 데 쓰는 나무로 된 비녀못으로, 도리깻열을 위아래로 돌릴 때 축의 구실을 한다.

〈사진 35〉는 동광리 박순희 씨가 사용하는 '도께'다. '도께아덜' 부분을 철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예전에는 '윤노리나무'로 만들었는데, 박 씨의 남편이 철사로 보수해 놓았다.



〈사진 35〉 박순희 씨 소장 '도께'



〈사진 36〉 이영수 씨 소장 '도께'

"도께 이거 이제도 썸서. 우영팟디 요런 검은콩 갈앙 헐 때 도께 썸주게. 옛날에 저 도께아덜 허는 거 윤노리. 이 쒜로 헌 건 하르방 멘든 거. 저 나무 못 끊어오니까이 쒜로 멘든 거. 생전 망가지지 안허게 이거 꺼꺼지지 안 헐 동안은 쓸 거니까."[130]

(도리깨 이거 이제도 쓰고 있어. 텃밭에 요런 검은콩 갈아서 할 때 도리깨 쓰고 있지. 옛날에 거 도리깻열 하는 거 윤노리나무. 이 쇠로 한 것은 할아버지가 만든 거. 저 나무 못 끊어오니까 쇠로 만든 거. 생전 망가지지 안하게 이거 꺾어지지 안 할 동안은 쓸 것이니까.)

〈사진 36〉은 사계리 이영수 씨 집에서 콩과 메밀 등을 타작할 때 쓰고 있는 '도께'다. 이 씨가 약 사십오 년 전에 만든 '도께'로 도리깻열 부위가 철사 줄로 되어 있다. 이 씨는 '도께'로 타작하는 것을 '도께질 헌다', 타작하는 것을 '때리다'라고 표현하였다. '때리다'는 '두들기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거 콩 때릴 때, ᄆᆞ멀 헤서 때릴 때 사용허는 거. 도께질 헐 때 재밌어. 어야 홍야 허멍 때려서 때려지민 문 불려근에. ᄆᆞ멀 때리는 거지. 나가 만든 거라. 나 혼 삼사십 세 혼 ᄉᆞ십오년 뒛저. 저걸로 늘 때렷지. 콩도 때리고 ᄆᆞ멀도 때리고."[131]

(거 콩 때릴 때, 메밀 해서 때릴 사용하는 거. 도리깨질 할 때 재밌어. '어야 홍야' 하면서 때렸어. 때려지민 모두 불려서. 메밀 때리는 거지. 내가 만든 거야. 나이 한 삼사십 세,

130)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131) 사계리 이영수 씨 구술.

한 사십오 년 됐어. 저걸로 늘 때렸지. 콩도 때리고 메밀도 때리고.)

(2) 보리클


〈사진 37〉 박순희 씨 소장 '보리클'

'보리클'은 보리를 훑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한다. 표준어 '그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산듸(밭벼)'를 훑는 데 쓰는 농기구는 따로 '산듸클'이라고 한다.

〈사진 37〉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사용했던 '보리클'이다. 1970년 경운기가 나오고 탈곡기가 나오면서 '보리클'은 사용하지 않았다. 좀이 슬고 녹이 슨 것으로 보아 이 '보리클'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8〉 박순희 씨 소장 '메타기'

(3) 메타기, 메탁기

'메타기·메탁기'는 보리나 밭벼, 조, 콩 등을 장만할 때 사용하는 기계이다. 표준어 '탈곡기'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주로 경운기의 엔진을 이용하여 탈곡한다.

〈사진 38〉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사용했던 '메타기'다. '메타기'가 나오면서 '보리클'은 자취를 감추었다. '메타기'가 나오면서 보리는 물론이고 밭벼, 콩, 메밀 따위를 빠른 시간 안에 탈곡할 수 있어서 농촌에서는 노동력을 한층 절감할 수 있었다.

(4) 마께

'마께'는 방망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조나 팥 등의 곡식알을 떨어낼 때 사용한



〈사진 39〉 박순희 씨 소장 '마께'



〈사진 40〉 박순희 씨 소장 '덩드렁'

다. 이 '마께'는 '덩드렁'과 함께 짚 등을 두들길 때 사용하는 마께여서 '덩드렁마께'라고도 한다.

〈사진 39〉와 〈사진 40〉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마께'와 '덩드렁'이다. 박 씨의 시아버지가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41〉은 창천리 진희선 씨 집에서 촬영한 '덩드렁'이다. 〈사진 42〉는 창천리 김덕순 씨(1930년생)가 사용했던 '덩드렁 마께'다. 김 씨는 이것을, 감을 빻아 감물 들일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41〉 진희선 씨 소장 '덩드렁'



〈사진 42〉 김덕순 씨 소장 '덩드렁 마께'

"이거도 초상 때 물린 거주. 요즘은 없어, 없어. 저 찍 알탸, 찍? 나룩찍 마께로 두드려근에 그거 복삭허민 영. 요샌 나이론 끈 한한허난 헤도 베 꼬아근에 쉐도 걸리고 짐도 시꺼오고. 다 헷주게. 찍신도 삼아 신고. 우리 시아버님 써난 거. 요즘은 감 뽓아근에, 썻주."[132]

132) 창천리 김덕순 씨 구술.

(이것도 조상 때 물린 거야. 요즘은 없어, 없어. 저 짚 알아, 짚? 볏짚 방망이로 두드려서 그거 부드러워지면 이렇게. 요즘은 나일론 끈이 많으니까 해도 참바 꼬아서 소도 걸리고 짐도 실어오고 다 했어. 집신도 삼아 신고. 우리 시아버님 썼었던 거. 요즘은 감 빻아서, 썼어.)

4.3. 건조와 손질 관련

4.3.1. 건조 도구

(1) 멍석

'멍석'은 곡식을 널어 말릴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주로 볏짚이나 밭볏짚으로 결어 만들었다. 멍석에 말리는 곡식을 '날레'라고 하는데, '날레'를 널 때 사용하는 도구가



〈사진 43〉 박순희 씨 소장 '멍석'



〈사진 44〉 고원매 씨 소장 '멍석'



〈사진 45〉 정춘자 씨 소장 '멍석'

'멍석'이다.

〈사진 43〉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날레'를 널거나 곡식을 드릴 때 사용했던 '멍석'이다. 박 씨의 시아버지가 '산듸찍(밭볏짚)'으로 결은 것이다. 〈사진 44〉는 창천리 고원매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멍석이다. 폭이 113cm로 다른 멍석보다 크기가 작다. 보리나 조 등을 말릴 때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45〉는 사계리 정춘자 씨 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멍석'이다.

(2) 독석

'독석'은 'ᄀᆞ레'를 올려 놓아 곡식 따위를 갈거나 곡식을 널 때 사용하는 짚으로 만든 그릇이다. '멍석'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결었다면 '독석'은 둥그렇게 결어 만든다. 구좌읍 지역에서 'ᄀᆞ렛방석'이라고 불렀던 '맷방석'을 안덕면 지역에서는 '독석'이라고 하였다.

"ᄆᆞ물이엔 허민 알아? 메밀. 메밀 저 초불 골앙, 그걸로 영 영 치민 쏠이 나와. 경허고 대거름첸 그 대체 아래 거 따시 영 치민 그 우이 건 ᄉᆞ레기. 거 흙은 ᄉᆞ레기. ᄯᅮ로 이젠 중체에 건 그걸로 ᄯᅮ로 치민 또 좀진 ᄉᆞ레기가 나와. 경헤영 대거름체 아래 걸로 치민. 경허난게 흙은 쏠, 흙은 ᄉᆞ레기, 좀진 ᄉᆞ레기, 는젱이, 메밀ᄀᆞ루 멧 가지라게. ᄆᆞ물론 다섯 가지주. ᄉᆞ레기도 두 가지난. 열두 번 골아, ᄆᆞ물. 그 검은 거, 검은 거 엇도록 그걸 막 쳐 둬근에 따시 푸는체로 퍼뒁 또 놩 골고, 또 놩 골고. 그 혼두 번에 골아지는 거 아니. 요샌 기곗방 좋난 기계에 강 혼두 번만 멕이민 싹 골아졈주만은 옛날엔 우린. 나도 드러 헷어. 이디 ᄉᆞ못 멍석 펭왕, 독석 펭왕 독석. 그거 페와근에 ᄀᆞ레 헴시민, 난 나만 헴시민, 이제 이디 안 살앗구나만 요디 어른 하나 잇어. 놀레 왓당 ᄀᆞ치 헤주곡. 경헨 는젱이 헹 ᄌᆞ베기 헹 먹곡 경허멍."[133]

(메밀이라고 하면 알아? 메밀. 메밀 저 애벌 갈아서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치면 쌀이 나와. 그리고 '대거름체'는 그 '대체' 아래 거 또 이렇게 치면 그 위에 건 싸라기. 거 굵은 싸라기. 따로 치면 또 가는 싸라기가 나와. 그러면 '대거름체' 아래 거로 치면. 그러니까 굵은 쌀, 굵은 싸라기, 가는 싸라기, 나깨, 메밀가루 몇 가지야. 메밀론 다섯 가지지. 싸라기도 두 가지니까. 열두 번 갈아, 메밀. 그 검은 거, 검은 거 없도록 그걸 마구 쳐 두고 다

133)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시 키로 까불리고 또 넣고 갈고, 또 넣고 갈고. 그 한두 번에 갈리는 거 아니. 요샌 정미소가 좋아서 정미기에 가서 한두 번만 먹이면 쌀 갈리지만 옛날엔 우린. 나도 많이 했어. 여기 사뭇 멍석 펴서. 맷방석 펴서 맷방석. 그거 펴서 맷돌 하고 있으면, 난 나만 하고 있으면, 이제 여기 안 살고 있지만 여기 어른 하나 있어. 놀러 왔다가 같이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나깨 해서 수제비 해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3) 당그네

'당그네'는 곡식을 널거나 저을 때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도구다. 표준어 '고무래'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사진 46〉은 동광리 박순희 씨가 사용하고 있는 '당그네'다. 사진의 아래 쪽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당그네'라면 사진 위쪽의 '당그네'는 최신 모습이다. 박 씨가 이웃집에서 빌려온 것이다. 구좌읍 지역에서는 '당그네'를 '날렛군데'라고 하여 동서 지역에 따라 방언차가 확연하게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46〉 박순희 씨 소장 '당그네'

"이 당그네 이제도 뭐 널 때 써. 이것도 하르방 멘든 거 닮다. 이건 놈의 집이 거빌어온 거. 혼 해 유채 갈안에 헐 때 빌어온 거."[134]

(이 고무래 이제도 뭐 널 때 써. 이것도 할아버지가 만든거 같다. 이것은 남의 집의 것 빌려온 거. 한 해 유채 갈아서 할 때 빌려온 거.)

(4) 솔박

'솔박'은 둥그스름하면서도 납작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 비슷한 도구다. 곡식을 퍼 담거나 곡식의 쭉정이 등을 없애기 위하여 바람에 드릴 때 사용했던 나무 그릇이다. 예전에는 나무로 파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판다.

134)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사진 47〉은 대평리 강월출 씨(1954년생)가 소장하는 '솔박'으로,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끝이 금가고 깨져 있다. '솔박' 여기저기에 거무튀튀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다. 〈사진 48〉은 사계리 정춘자 씨가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솔박'이다. '솔박' 나이테가 선명한 것이 눈에 띈다.

"솔박 저거 오래서. 흔 삼십년 뒈실 거라. 꿰 털민 이거 담고 그런 거 허는 거. 날레 담고 쏠 거튼 것도 ᄀᆞ져뎅길 때 허는 거주게. 옛날에 풀레 뎅겸시난 산 거주게."[135]

('솔박' 저거 오랬어. 한 삼십년 됐을 거야. 깨 털면 이거 담고 그런 거 하는 거. '날레' 담고 쌀 같은 것도 가져다닐 때 하는 거지. 옛날에 팔러 다니고 있으니까 산 거지.)


〈사진 47〉 강월출 씨 소장 '솔박'


〈사진 48〉 정춘자 씨 소장 '솔박'


〈사진 49〉 김덕순 씨 소장 '솔박'


〈사진 50〉 지중연 씨 소장 '솔박'

135) 사계리 정춘자 씨 구술.


〈사진 51〉 양기옥 씨 소장 '솔박'


〈사진 52〉 고원매 씨 소장 '솔박'

〈사진 49〉는 창천리 김덕순 씨가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아서 쓰는 '솔박'이다. '솔박' 가운데로 금가서 깨진 것을 철사로 고정시켜 놓았다. '솔박' 가장자리가 좀이 슬고 닳아 세월이 흔적을 느끼게 해준다. 〈사진 50〉은 화순리 지중연 씨가 사용하는 양철로 만든 '솔박'이다. 초록색 페인트를 칠했던 '솔박'이 시간이 흐르면서 벗겨지고 녹이 피어 있다. 〈사진 51〉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곡식 등을 담거나 퍼낼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솔박'이고, 〈사진 52〉는 창천리 고원매 씨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솔박'이다.

4.3.2. 체류

(1) 얼멩이

'얼멩이'는 쳇불을 굵게 만들어 곡식을 손질할 때 사용하는 기구다. 표준어 '어레미'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예전에는 이대를 이용하여 네모나게 만들어 쓰다가 요즘은 나무로 둥그렇게 쳇바퀴를 만들고, 쳇불은 철사를 이용하여 만들고 있다. 〈사진 53〉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멩이'다.


〈사진 53〉 박순희 씨 소장 '얼멩이'

"체 이제 다 쓰는 거. 뭐 칠 거 시민 치고 ᄒᆞ꼼썩 저 무시거 농사허여근에, 무시거 먹을 거 요런 디라도 ᄒᆞ꼼썩 허여근에 이거 문딱 치는 거. 이거 아주 오랫수다게. 게난 무시거 엇인게. 이디 얼멩이. 얼멩이 족은아덜네 집이 션에. 얼멩이 큰 거, 이만이 큰 거. 그건 족은아덜네 집이 콩 치레 강 내불어져신게. 체 종륜 얼멩이, 요건 대체, 요건 대거름체, 요건 저 총체. 저건 총체 아주 좀진 거. 옛날 개역, 저 미숫ᄀᆞ루 집이서 허영 저걸로 쳥 먹엇주게. 질 좀진 것이 저거. 이건 대거름체."[136]

(체 이제 다 쓰는 거. 뭐 칠 것 있으면 치고 조금씩 저 무슨 것 농사해서, 무슨 것 먹을 거 요런 데라도 조금씩 해서 이거 몽땅 치는 거. 이거 아주 오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것 없는데. 여기 어레미. 어레미 작은아들 집에 있어서. 어레미 큰 거, 이만큼 큰 거. 그것은 작은아들 집에 콩 치러 가서 내버렸는데. 체 종류는 어레미, 요것은 대체, 요것은 '대거름체', 요것은 저 총체. 저것은 총체 아주 가는 거. 옛날 미숫가루, 저 미숫가루 집에서 해서 저것으로 쳐서 먹었지. 가장 가는 것이 저거. 이것은 '대거름체'.)

(2) 체

'체'는 곡식을 깨끗하게 손질하거나 가루를 곱게 칠 때, 또는 액체를 밭거나 거르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한다. '체'도 쓰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차이나고, 이름도 '대체–대거름체–거름체–총체'라고 달리 부르고 있다. 쳇불의 크기는 '대체〉대거름체〉거름체〉총체' 순이다. '총체'는 쳇불이 가장 작은 것으로, 예전에 말의 꼬리인 '말총'으로 많이 만들어서 붙은 명칭이다. 달리 '[illegible]는체'라고도 한다. 표준어 '고운체' 또는 '가



〈사진 54〉 김성옥 씨 소장 '총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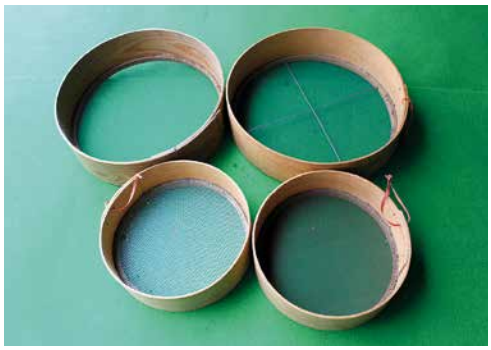
〈사진 55〉 양기옥 씨 소장 '체'

136)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는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54〉는 대평리 김성옥 씨(1937년생)가 사용하는 '총체'이다. 〈사진 55〉는 덕수리 양기옥 씨 창고 벽에 걸려 있는 체다. 〈사진 56〉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체', '거름체', 'ᄌᆞᆷ진체'이다. 〈사진 57〉은 창천리 고원매 씨가 사용하고 있는 '얼멩이', '대체', '거름체', '합체' 따위다. 고 씨는 'ᄌᆞᆷ진체'를 '합체'라고 하였다.

"첸 젤 큰 건 얼멩이. 그 다음엔 대체, 대거름체, 중체, 합체. 합첸 젤 ᄌᆞᆷ진 거 ᄀᆞ루치는 거. 얼멩인게 옛날 그 보리 갈고 헤나근에 그 메타기로 헤도 그 고고리거튼 거 하나씩 나옵니다게. 경허민 물류왕 들여놀 때 저걸로 영 영 걸렁 경헨 들여 놓고. 대첸 ᄆᆞ물 겁질, ᄆᆞ물이엔 허민 알아? 메밀. 메밀 저 초불 골앙, 그걸로 영 영 치민 쏠이 나와. 경허고 대거름첸 그 대체 아래 거 따시 영 치민 그 우이 건 ᄉᆞ레기. 거 홁은 ᄉᆞ레기. ᄯᅮ로 이젠 중체에 건 그걸로 ᄯᅮ로 치민 또 ᄌᆞᆷ진 ᄉᆞ레기가 나와. 경헤영 대거름체 아래 걸로 치민. 경허난게 홁은 쏠, 홁은 ᄉᆞ레기, ᄌᆞᆷ진 ᄉᆞ레기, 는젱이, 메밀ᄀᆞ루 멧 가지라게. ᄆᆞ물론 다섯 가지주. ᄉᆞ레기도 두 가지난. 열두 번 골아, ᄆᆞ물. 그 검은 거, 검은 거 엇도록 그걸 막 쳐 둬근에 따시 푸는체로 퍼뒁 또 놩 골고, 또 놩 골고. 그 혼두 번에 골아지는 거 아니. 요샌 기곗방 좋난 기계에 강 혼두 번만 멕이민 싹 골아졈주만은 옛날엔 우린. 나도 드러 헷어. 이디 ᄉᆞ못 멍석 펭왕, 독석 펭왕 독석. 그거 페와근에 ᄀᆞ레 헴시민, 난 나만 헴시민, 이제 이디 안 살앗구나만 요디 어른 하나 잇어. 놀레 왓당 ᄀᆞ치 헤주곡. 경헨 는젱이 헹 ᄌᆞ베기 헹 먹곡 경허멍."[137]



〈사진 56〉 박순희 씨 소장 '체'



〈사진 57〉 고원매 씨 소장 '체'들

137)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첸 제일 큰 건 어레미. 그 다음엔 '대체', '대거름체', '중체', '합체'. '합첸' 제일 가는 거. 가루 치는 거. 어레미는 옛날 그 보리 갈고 해서 그 탈곡기로 해도 그 이삭 같은 거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면 말려서 들여 놓을 때 저걸로 이렇게 이렇게 걸러서 들여 놓고. '대체'는 메밀 겁질, 메밀이라고 하면 알아? 메밀. 메밀 저 애벌 갈아서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치면 쌀이 나와. 그리고 '대거름체'는 그 '대체' 아래 거 또 이렇게 치면 그 위에 건 싸라기. 거 굵은 싸라기. 따로 치면 또 가는 싸라기가 나와. 그러면 '대거름체' 아래 거로 치면. 그러니까 굵은 쌀, 굵은 싸라기, 가는 싸라기, 나깨, 메밀가루 몇 가지야. 메밀론 다섯 가지지. 싸라기도 두 가지니까. 열두 번 갈아, 메밀. 그 검은 거, 검은 거 없도록 그걸 마구 쳐 두고 다시 키로 까불리고 또 넣고 갈고, 또 넣고 갈고. 그 한두 번에 갈리는 거 아니. 요샌 정미소가 좋아서 정미기에 가서 한두 번만 먹이면 쌀 갈리지만 옛날엔 우린. 나도 많이 했어. 여기 사뭇 멍석 펴서. 맷방석 펴서 맷방석. 그거 펴서 맷돌 하고 있으면, 난 나만 하고 있으면, 이제 여기 안 살고 있지만 여기 어른 하나 있어. 놀러 왔다가 같이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나깨 해서 수제비 해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체도 대체, 거름체, 총거름체, 막 좀진 건 총거름체. ᄒᆞ쏠 훍은 건 거름체, ᄒᆞ쏠 헌 건 대거름체, ᄒᆞ쏠 헌 건 대체 네 가지. 이것도 시집가난 살림 사난 산 거주게. 그때 보리, 조만 헤 먹으난 밧디 강 이것도 쳐사 헐 거. 조도 쳐사 헐 거, 보리 갈민 쳐사 헐 거, 콩도 쳐사 헐 거, ᄆᆞ물도 쳐사 헐 거. 문딱 몬지레긴 이걸로 치멍 헷주. 불리단 이걸로 치고 다듬고. 대나무로 헌 건 얼멩이게."[138]

(체도 '대체', '거름체', '총거름체', 아주 가는 건 '총거름체'. 조금 굵은 거 '거름체', 조



〈사진 58〉 지중연 씨 소장 '체'들



〈사진 59〉 유순옥 씨 소장 '얼멩이'와 '체'들

138) 화순리 지중연 씨 구술.

금 한 건 '대거름체', 조금 한 건 '대체' 네 가지. 이것도 시집가니까 살림 사니까 산 거지. 그때 보리, 조만 해서 먹으니까 밭에 가서 이것도 쳐야 할 거. 조도 쳐야 할 거, 보리도 갈면 쳐야 할 거, 콩도 쳐야 할 거. 메밀도 쳐야 할 거. 모두 먼진 이걸로 치면서 했지. 불리다가 이걸로 치고 다듬고. 대나무로 한 건 어레미.)

〈사진 58〉은 화순리 지중연 씨가 사용하는 '체'들이다. 시집와서 살림을 살 게 되니까 구입했다고 한다. 〈사진 59〉는 사계리 유순옥 씨(1933년생)가 보리와 콩 등의 검불을 떨어낼 때 사용했던 '얼멩이'와 '체'들이다.

(3) 푸는체

'푸는체'는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를 말한다. 표준어 '키'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푸는체'는 갈무리할 곡식을 넣어 양손으로 위 아래로 흔들면서 사용하는데, 그때 바람의 영향으로 까끄라기 등이 밖으로 나가 곡식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푸끄다'라고 한다. '푸는체'는 손을 이용하여 '푸끄면서(흔들면서)' 치기 때문에 얻은 명칭이다. 몸통은 주로 '자골'을 이용하여 만들고, 손잡이 부분인 '어음'은 왕대를 쪼개서 만든다.

〈사진 60〉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사용하고 있는 '푸는체'다. 예전 모습을 거의 간직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푸는체'를 쓰다가 헐자 장에 가서 직접 사온 것이라고 한다. 〈사진 61〉은 덕수리 김영랑 씨가 요즘도 사용하고 있는 '푸는체'다. '푸는체'가 낡아서 종이를 발라서 쓰다가 헝겊으로 덧발라서 쓰고 있다. '푸는체' 위에 나물 씨가


〈사진 60〉 양기옥 씨 소장 '푸는체'


〈사진 61〉 김영랑 씨 소장 '푸는체'



〈사진 62〉 박순희 씨 소장 '푸는체'



〈사진 63〉 고원매 씨 소장 '푸는체'

널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물 씨를 장만한 후에 '푸는체'에 손질한 후 널어 둔 것이다. 〈사진 62〉는 동광리 박순희 씨가 사용하고 있는 '푸는체'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이 '푸는체'는 자골로 만든 것인데, 헐어가니까 박 씨가 종이를 발라서 사용하고 있다. 또 '푸는체' '어음'은 나일론 끈으로 고정시켜 놓았다. 〈사진 63〉은 창천리 고원매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쓰다가 헐어가니까 풀가사리 풀을 이용하여 헝겊 따위로 수선해 놓은 것이고, 〈사진 64〉는 창천리 김덕순 씨가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푸는체'다. '푸는체'가 헐어가니까 천을 발라 사용하고 있다.



〈사진 64〉 김덕순 씨 소장 '푸는체'



〈사진 65〉 지중연 씨 소장 '푸는체'

"이건 푸는체. 이건 쏠이나 뭐 아무 거라도 찌끄레기 들면은 퍼닥퍼닥 허면은 그것이 나가. 쏠은 들어오고 체는 저레, 겁데긴 나가고. 요즘은 잘 안 쓰주만은 게도 잇당 생각

날 때가 잇어. 할망 써나난 생각으로. 이건 풀 안 볼랑은 놓지 못 허주. 다 걸리고 샘도 허고. 이 험벅 볼른 걸로 의지헤영 살아나가는 거 닮아. 이거 볼름 시작헌 지도 혼 삼십 년."[139]

(이건 키. 이건 쌀이나 뭐 아무 거라도 찌꺼기 들면 '퍼닥퍼닥' 하면 그것이 나가. 쌀은 들어오고 겨는 저리, 껍질은 나가고. 요즘은 잘 안 쓰지만은 그래도 있다가 생각날 때가 있어. 할머니 썼었으니까 생각으로. 이건 풀 안 바르고는 놓지 못 해. 다 걸리고 새기도 하고. 이 헝겊 바른 걸로 의지해서 살아나가는 거 닮아. 이거 바르기 시작한 지도 한 삼십 년.)

〈사진 65〉는 화순리 지중연 씨가 사용하는 '푸는체'로 많이 헌 안쪽에만 헝겊을 발라서 사용하고 있다.

(4) 선풍기

'선풍기'는 회전축에 붙은 날개를 전동기로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다. 여름에 더위를 쫓을 때 쓰는 기구다. 그러나 이 선풍기를 덕수리 양기옥 씨는 곡식의 까끄라기를 드릴 때 사용하고 있다. 선풍기 가운데에 'Goldstar'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30년이 넘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 66〉 양기옥 씨 소장 '선풍기'

"이 선풍긴 원 고장도 안 나고 나 뭐 불리는 거. 바람이 경 쎄여 이것이. 바람이 경 쎄연 고장 혼 번 안 나고 저걸로 무시거 불렴주."[140]

(이 선풍긴 원 고장도 안 나고 나 뭐 불리는 거. 바람이 그렇게 세 이것이. 바람이 세서 고장 한 번 안 나고 저걸로 뭐 불려.)

139) 창천리 김덕순 씨 구술.
140)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4.3.3. ᄀᆞ레류

(1) 물방에

‘ᄀᆞ레’는 곡식을 빻거나 찧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말이나 소를 이용하여 곡식을 찧거나 빻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물방에’ 또는 ‘물ᄀᆞ레’라고 한다. 〈사진 67〉은 사계리 마을 정자나무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촬영한 ‘물방에’와 ‘방엣돌’이다. ‘물방에’는 표준어 ‘연자매’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67〉 사계리에서 촬영한 ‘방엣돌’

(2) ᄀᆞ레

‘ᄀᆞ레’는 곡식을 쪼개거나 찧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맷돌’에 해당한다.

〈사진 68〉은 창천리 고원매 씨가 시어머니 사용하던 ‘ᄀᆞ레’를 물려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ᄀᆞ렛 ᄌᆞ룩(맷손)’이 헐자 고 씨가 ‘쿳낭(구지뽕나무)’을 해다가 다시 만들었다. 요즘도 고 씨는 설날에 이 ‘ᄀᆞ레’에 엿기름을 갈아서 감주를 만들고 있다.

“ᄀᆞ렌 나 스물하나에 시집오난, 그때 완 보난 ᄀᆞ레가 잇언. 저거 시어머니 써난 거. ᄌᆞ룩은 나냥으로 만든 거. 저거 어느 때사 멘들아져신디 그 ᄌᆞ룩이 삭으난 꺼꺼져불어. 게난 밧디 뎅기단 보난 낭이 똑 저추룩 저걸 헤시민 좋아직헌 낭이 잇어. 우리 밧디. 저거 게난 쿳낭. 그거 헤단에 저거 나냥으로 멘드난 좋은게. 저 설날 땐 우리 조케덜 하놓난 세배 오민 줄 거 엇엉 골 골앙 감주 헹 주민 막 좋아해. 정월멩질 때만. 젯상에도 올리고. 옛날부떠 우리 시아부지 적부떠 술을 안 썬, 술을 잡수시지 안허난. 겨난 우리 아저씨도 술 안 먹어. 우리 아이덜도 술 안 먹고. 경허난 감주 헤근에 그자.”[141]

(맷돌은 나 스물하나에 시집오니까, 그대 와서 보니까 맷돌이 있었어. 저거 시어머니가 썼던 거. 자루는 나대로 만든 거. 저거 어느 때야 만들어졌는지 그 자루가 삭으니까

141)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꺾어져버려. 그러니까 밭에 다니다가 보니까 나무가 똑 저처럼 저걸 했으면 좋을 것같은 나무가 있어. 우리 밭에. 저거 그러니까 구지뽕나무. 그거 해다가 저거 나대로 만드니까 좋은데. 저 설날 땐 우리 조카들 많으니까 세배 오면 줄 거 없어서 엿기름 갈아서 감주를 해서 주면 매우 좋아해. 정월 명절 때만. 제상에도 올리고. 옛날부터 우리 시아버지 적부터 술을 안 썻어. 술을 잡수시지 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도 술 안 먹어. 우리 아이들도 술 안 먹고. 그러니까 감주를 해서 그저.)



〈사진 68〉 고원매 씨 소장 '□레'



〈사진 69〉 양춘자 씨 소장 '□레'

'□레'도 크기에 따라서 한 명이 갈 수 있고, 또 둘이 마주앉아 가는 □레도 있다. 화순리 양춘자 씨는 한 명이 갈 수 있는 작은 '□레'를 '정□레'라고 하고, 둘이서 가는 '□레'는 '큰□레'라고 하였다. 〈사진 69〉는 화순리 양춘자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레'다, 위에 것은 양 씨의 시할머니가 쓰는 '정□레'이고, 밑의 것은 두 명이 찧는 '큰□레'다. 오래 사용하다 보니 닿아져서 맷돌이 얇아졌다고 한다.

"저 우에 거는 무신 정□레. 아랜 큰□레. 우에 거는 혼 놈만 □는 거. 족은 거는 혼 놈만 골주마는. □룩 나 빵 데껴불고. 씨할망 거. 씨할망 골단 거. 저 큰 거 막 커난 건디 골아가니까 다여불언 작은 거라. 저거 이제 무끼면은 저 보섭 그걸로 독독독독 줏앙 니 멘들앙. 니 멘들민 ᄂᆞ슬게 골아져. 보섭 헌 걸로 니 멘들안. 보섭으로 그 영 뀌는 거 잇거든. 뀌여근에 우리 씨아버님네, 친정아버님네 독독독독 찍어놩 니 셍경은에 얼크락덜크락헤서 골아지는 거. 그거 ᄋᆞ라 해 골아 가면 맷돌이 멘짝헤불거든. 골아지지 안허여. 곡석이 거기 걸려근에 넘어갈 때에 골아지는 거. 정□레는 자기 혼차 골 때. 큰□레는 두 사람이

골아사. 무거와. 이디 씨집오란도 혼 아기 두 개 나도록은 골아서. 보리밥은 골아사 벌러사 먹거든. 벌러사."

(저 위에 것은 무슨 '정ᄀᆞ레'. 아래는 '큰ᄀᆞ레'. 위에 것은 한 놈만 가는 거. 작은 것는 한 놈만 갈지만. 자루 내가 빼서 던져버리고. 시할머니 거. 시할머니 갈던 것. 저 큰 거 매우 컸던 것인데 갈아가니까 닳아버려서 작은 거야. 저거 이제 무디면 저 보습 그것으로 독독독독 찍어서 이 만들어서. 이 만들면 날카롭게 갈아져. 보습 헌 것으로 이 만들어서. 보습으로 그 이렇게 끼우는 거 있거든. 끼워서 우리 시아버님네, 친정아버님네 독독독독 찍어놓아서 이 생겨서 얼크락덜크락해서 갈아지는 거. 그거 여러 해 갈아 가면 맷돌이 평평해버리거든. 갈아지지 않아. 곡식이 거기 걸려서 넘어갈 때에 갈아지는 거. '정ᄀᆞ레'는 자기 혼자 갈 때. '큰ᄀᆞ레'는 두 사람이 갈아야. 무거워. 여기 시집와서도 한 아기 두 개 나도록 갈았어. 보리밥은 갈아야 쪼개야 먹거든. 쪼개야.)

위의 구술을 보면, 맷돌이 닳으면 보습 끝으로 맷돌 부위를 탁탁 쳐서 '니(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맷돌 표면이 울퉁불퉁하여 그 사이로 곡식이 들어가면 맷돌을 돌리면서 찧어지는 것이다.

"ᄀᆞ레 저걸로 밤이 뒈고 말고 나가 밤이 저 일을 허고. 물에 가와야 뒷날 낮이 밧디 강 일 허지. 낮에 그 물 져오고 ᄀᆞ레에 역쉬허고 그 아기덜 기저귀 문 뿔아. 이거 중시리. 저거 엇으민 저거 넘어가불언에 돌지 안 허주게. 이거 셔야. 이거 ᄀᆞ레혹. 영영 이렇게 이디 놔근에 이디 마직만썩 놩 골아. 손으로 영 밀리멍. 경 안허면은 어깨 아파서 못허주게. 이ᄀᆞ레로 쏠 만들고 쏠 만들어 놩 이제 ᄀᆞ루도 만들고. ᄀᆞ루 만들어사 그걸로 옛날은 묵도 쑤고 세미떡도 허고."[142]

(맷돌 저걸로 밤이 되고 말고 내가 밤에 저 일을 하고. 물에 다녀와야 뒷날 낮에 밭에 가서 일을 하지. 낮에 그 물 져오고 맷돌에 힘쓰고 그 아기들 기저귀 모두 빨아. 이거 '중시리'. 저거 없으면 저거 넘어가버려서 돌지 않아. 이거 있어야. 이거 맷돌 확. 이렇게 이렇게 여기 넣고 여기 알맞게 넣고 갈아. 손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그렇게 안 하면은 어깨 아파서 못하지. 이 맷돌로 쌀 만들고 쌀 만들고 나서 이제 가루도 만들고. 가루 만들어야 그걸로 옛날은 묵도 쑤고 '세미떡'도 하고.)

142) 창천리 김덕순 씨 구술.



〈사진 70〉 김덕순 씨 소장 'ᄀᆞ레'



〈사진 71〉 김덕순 씨 소장 'ᄀᆞ레'

〈사진 70〉은 창천리 김덕순 씨가 사용하는 'ᄀᆞ레'다. 이 'ᄀᆞ레'를 이용하여 쌀을 만들어 밥해 먹고 가루도 갈아서 떡도 만들었다고 한다. 맷돌 위아래 연결하는 것을 '중시리'라고 하고, 쌀을 넣는 구멍을 'ᄀᆞ레혹'이라고 한다. 'ᄀᆞ레혹'은 맷돌의 확을 말한다. 손잡이인 'ᄀᆞ렛ᄌᆞ룩'은 나중에 다시 해서 끼워 넣었다. 〈사진 71〉은 김 씨 집에서 'ᄀᆞ레' 위쪽을 밧줄 고정하는 받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3) 풀ᄀᆞ레

'풀ᄀᆞ레'는 물에 불린 쌀을 갈 때 사용하는 맷돌이다. 표준어 '풀매'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72〉는 창천리 김치호 씨(1927년생)가 사용하던 '풀ᄀᆞ레'로, 아들 강남철 씨(1958년생) 집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사진 72〉 김치호 씨 소장 '풀ᄀᆞ레'

"풀ᄀᆞ레 막 오래서. 저거 아메도 혼 이백 년 거자 뒛주. 옛날에 나 시집오란 보난 썸선게. 저거 젊을 때 나 우알착 혼디 졍 다녀나신디. 부쪙 홈치. 풀ᄀᆞ렌 풀 헐 때게. 옛날은 모멘옷 입으난 곤썰 시쳥 놧당 물올르민 저거에 숟구락으로 들이쳥 골민 이 코로 졸졸 나오주게. 받앙 경허민 그거 쒀근에 풀 헤낫주게. 옷에 풀 헤난 거. 경허난 풀ᄀᆞ레, 일름이 풀ᄀᆞ레. 먹을 것도 엇인디 허영헌 옷에 경허연. 엿날은 모멘옷이난게. 미녕 허

영, 미녕 손으로 헤근에 짜근에. 나도 미녕 짜고 놀고 메고 다 헷주게. 나 다 헤서. 저 우이 건 우착, 아래 건 알착. 저 쏠 ᄀᆞ는 구녕. ᄌᆞ룩은 엇언. 하도 오래난 문 삭앙 꺼꺼져불엇주게. 콩 물 컷다근에 골앙 두부 허민 막 맛 좋주게."[143]

(풀매 아주 오래 됐어. 저거 아마도 한 이백 년 거의 됐지. 옛날에 내가 시집와서 보니까 쓰고 있었어. 저거 젊었을 때 내가 위, 아래 거 같이 지고 다녔는데. 붙여서 같이. 풀매는 풀 할 때. 옛날은 무명옷 입으니까 흰쌀을 씻어 두었다가 물오르면 저거에 숟가락으로 넣어서 갈면 이 코로 졸졸 나와. 받아서 그러면 그거 쒀서 풀 했었지. 옷에 풀 했던 거. 그래서 풀매, 이름이 풀매. 먹을 것도 없는데 하얀 옷에 그렇게. 옛날은 무명옷이니까. 무명 해서, 무명 손으로 짜서. 나도 무명 짜고 날고 매고 다 했어. 나 다 했어. 저 위에 것은 '우착', 아래 것은 '알착'. 저 쌀 가는 구멍. 자루는 없어. 아주 오래되니까 다 삭아서 꺾어져 버렸어. 콩 물에 담갔다가 갈아서 두부하면 아주 맛 좋아.)

(4) 남방에

'남방에'는 나무로 만든 방아다. 가운데 돌로 만든 방아확을 넣어서 방앗공이로 쌀 등을 찧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둘이 방아를 찧으면 '두콜방에', 셋이 찧으면 '세콜방에'라고 한다. 넷이서 찧으면 '네콜방에'라고 한다.

"옛날은 남방에도 저 무시거. 시콜방에엔 헌 건 세 사름이 지는 거. 네 사름은 ᄒᆞ꼼 복잡헤마씨. 세 사름이 좋아. 헤도 서툰 사름은 안 뒈마씨. 익숙어야. 게난에 그거 허여근에 남방에에 섯보리. 먹다보면은 쏠이 떨어지면은 그 보리 퍼렁헌 섯보리 비여다근에 솖아근에양, 솖아근에 남방에 져근에 거 솟디 밥 헹 먹고 헷수다. 옛날에게."[144]

(옛날에 남방아도 저 무슨 거. '세콜방아'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이 찧는 거. 네 사람은 조금 복잡해요. 세 사람이 좋아. 해도 서툰 사람은 안 돼요. 익숙해야. 그러니까 그거 해서 남방아에 풋보리. 먹다보면 쌀이 떨어지면 그 보리 퍼런 풋보리 베어다가 삶아서요, 삶아서 남방아 찧어서 거 솥에 밥 해서 먹고 했습니다. 옛날에.)

방아확을 안덕면에서는 '방엣혹'이라고 하고, '방앗공이'를 '방엣귀'라고 한다. 예전에 쌀 등을 찧었던 '방엣혹'을 이용하여 요즘은 깨나 마늘 등을 빻는데 사용하고 있

143) 창천리 김치호 씨 구술.
144)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다. 덕수리 양기옥 씨는 감물 들이는 '풋감'을 빻을 때 사용하고 있다.

"방엣혹 거 남방에에 거 하나 뽑안에 남방에사 어디사 버려져신디 모르고 저디 방엣혹은 잇수다. 게난 그 방에에서 뻣아근에 너른 다라에서. 요 엊그지게까지도 헷수다게. 아덜덜이양 저 감옷만 입으켄 헤근에 그 판이 쳐진 거 장에 가근에 이만씩 넓은 거 사다근에, 빌로 사다근에 저 성제가 헤단 이제 어디 실 거우다."[145]

(방아확 거 남방아에 거 하나 빼다가 남방아야 어디야 버려졌는지 모르고 저기 방아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아에서 빻아서 너른 대야에서. 요 엊그제까지도 했습니다. 아들들이요 저 감옷만 입겠다고 해서 그 무늬 쳐진 거 장에 가서 이만큼씩 넓은 거 사다가, 필로 사다가 저 형제가 해다가 이제 어디 있을 겁니다.)

4.3.4. 바농류

(1) 멕바농

'멕바농'은 가마니를 꿰매거나 멱서리, 멍석 따위가 헤졌을 때 기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늘이다. 예전에 보리 따위를 가마니에 넣어 판매할 때 짚 따위로 가마니를 봉할 때 사용했다. '멕바농'은 '멕+바농' 구성으로, '멕'은 표준어 '멱', '바농'은 '바늘'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공판헐 때에 멕바농으로 줘주게. 멕바농 이걸로 막 줘근에 저 고구마도 포장허고 또 보리거튼 거 문 포장헷주게. 이걸로 문 포장헨. 이거 만들앙 헌 거. 우산살 이런 거 영허영 이거 코젱이만 내오민 뒈는 거난."[146]

(공판할 때에, '멱바늘'로 기웠지. '멱바늘' 이것으로 마구 기워서 저 고



〈사진 73〉 양기옥 씨 소장 '멕바농'

145)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146) 덕수리 양기옥 씨 구술.

구마도 포장하고 또 보리같은 거 몽땅 포장했지. 이것으로 몽땅 포장했어. 이거 만들어서 한 거. 우산살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이거 코만 나오면 되는 것이니까.)

〈사진 73〉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우산살을 이용하여 만든 '멕바농'으로, 곡식을 담은 부대와 가마니를 봉할 때 사용했던 것이다.

4.4. 운반 도구

(1) 질메

'질메'는 표준어 '길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74〉는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철구루마' 끄는 소에 사용했던 '질메'다. 이를 박 씨는 '구루마질메'라고 하였다. '구루마'는 수레를 일본어 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철구루마'는 수레바퀴가 철로 둘러진 것을 말한다. 마소의 먹이인 '촐(꼴)'이나 곡식 등을 운반할 때 사용했던 '질메'다.


〈사진 74〉 박순희 씨 소장 '질메'

(2) 리어카

'리어카'는 자전거 뒤에 달거나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둘 달린 작은 수레를 말한다. '손수레'에 해당하는 말로, 곡식 등의 짐을 싣고 운반할 때 사용한다.

〈사진 75〉는 사계리 한 골목길에


〈사진 75〉 사계리에서 촬영한 '리어카'



〈사진 76〉 임중자 씨 소장 '리어카'



〈사진 77〉 양춘자 씨 소장 '손수레'

세워진 있는 '리어카'를 촬영한 것이다. 〈사진 76〉은 대평리 임중자 씨가 짐을 실어서 옮길 때 사용하는 '리어커'다. 〈사진 77〉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손수레'로, 양 씨는 가까운 밭에 갈 때 일할 도구를 싣고 끌고 간다고 한다.

(3) 경운기

경운기는 농촌에서 농작물을 운반하기도 하고, 사람을 싣고 나를 때, 밭을 갈 때는 다양하게 쓰이는 농기구다.



〈사진 78〉 이영수 씨 소장 '경운기'



〈사진 79〉 양춘자 씨 소장 '경운기'

〈사진 78〉은 사계리 이영수 씨가 사용했던 경운기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샀다고 한다. 〈사진 79〉는 화순리 양춘자 씨 집에 놓여 있는 경운기다.

(4) 걸렝이

'걸렝이'는 물건을 져 나를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걸렝이'는 짐을 질 때 사용하는 헝겊 따위로 만든 줄이다.



〈사진 80〉 임중자 씨 소장 '걸렝이'



〈사진 81〉 박순희 씨 소장 '걸렝이'



〈사진 82〉 박순희 씨 소장 '걸렝이'

〈사진 80〉은 대평리 임중자 씨가 천을 사다가 직접 손바느질을 해서 만든 것이고, 〈사진 81〉과 〈사진 82〉는 동광리 박순희 씨가 짐을 질 때 사용했던 '걸렝이'다. 〈사진 81〉은 박 씨가 '허벅'에 물을 길어서 나를 때 사용했던 '걸렝이'이로 3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82〉는 박 씨가 직접 바느질해서 만든 '걸렝이'로 짐을 묶거나 지고 다닐 때 사용했던 것이다.

(5) 용도베, 도레기베, 쉐얏베

'용도베'는 짐을 실을 때 짐을 단단히 묶기 위해서 '도르레'를 연결해 만든 바를 말한다. 달리 '도레깃베'라고도 한다.

〈사진 83〉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사용했던 '용도베'다. 사기 '도르레'가 달려 있다. 〈사진 84〉는 사계리 이영수 씨가 짐 실을 때 사용했던 '도레깃베'와 '쉐얏베'다.



〈사진 83〉 박순희 씨 소장 '용도베'



〈사진 84〉 이영수 씨 소장 '도레깃베'와 '쉐얏베'

'쉐얏베'는 짐을 싣고 단단하게 묶을 때 사용하는 바다.

"도레깃베 요거는 경운기에 짐을 많이 시끄민 잘 눌어야 뒈거든 데깍허게. 저걸로 허면은 호르싸기가 좋아. 공젱이 걸어근에 저레 도레기 저것더레 끼왕 박박 둥기면은 쫙쫙 줴와지거든. 겐 톤톤허거든. 짐 시끌 때 털어질까봐 무끌 때는 저 도레깃베를 무껏거든. 짐 톤톤허게 줴우는 도레깃베."[147]

(도르랫줄 요것은 경우기에 짐을 많이 실으면 잘 가리어야 되거든 빽빽하게. 저것으로 하면 조이기가 좋아. 고리 걸어서 저리로 도르래 저것에 끼워서 박박 당기면은 쫙쫙 조여지거든. 그래서 단단하거든. 짐 실을 때 떨어질까봐 묶을 때는 저 도르래 바를 묶었거든. 짐 단단하게 죄우는 도르랫줄.)

(6) 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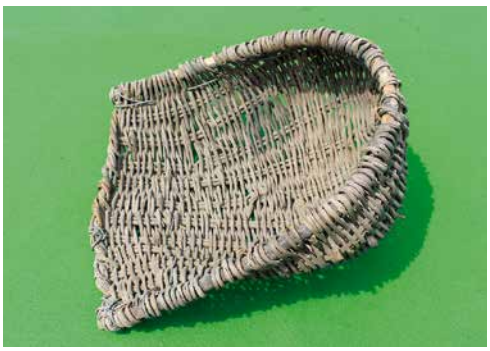
'골체'는 '흙이나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한다. '골체'는 표준어 '삼태기'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재료에 따라서 '졸골체, 정동골체, 찍골체, 대골체, 칙골체' 등으로 부른다. '졸골체'는 으름나무덩굴을 이용하여 만든 골체이고, '정동골체'는 '정동' 즉 댕댕이덩굴을 이용하여 만든 삼태기다. '찍골체'는 짚으로 엮어서 만든 삼태기이고, '대골체'는 대오리로 엮은 삼태기, '칙골체'는 칡줄로 엮은 삼태기다.

147) 사계리 이영수 씨 구술.

〈사진 85〉는 사계리 정춘자 씨 집에서 사용하던 '골체'로, 정 씨의 시아버지가 으름나무덩굴로 결은 것이다. 정 씨는 이 '골체'를 고구마 따위를 가져다니는 것으로 썼다고 한다. 정씨는 으름나무덩굴을 '졸겡이줄'이라고 하고, 어음은 '두렛줄(다래나무줄)'로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35cm, 폭 29cm, 뒤쪽 깊이 27cm로 되어 있다. 보통 흙이나 거름 등을 나르는 '골체'보다 크기가 작다.

"골체 저거 시아부지 졸은 거. 저것도 혼 삼십년은 뒛어. 저거 산에 가믄 저런 줄 잇주게. 졸겡이 줄이라고 그걸로 허연에 저거 졸은 거주게. 이젠 뭐 안 헤도 전인 밧듸서 고구마 가져다근에 시쳐근에 걸 쪄근에. 밧디서 먹는 건 저런 것에 ᄀᆞ져뎅기고. 감저 찐 것도 ᄀᆞ져뎅기고. 저거 걸언 내부난에 안 쓰난에 저영 궂엇주. 그땐 깨끗헨 고와낫주게. 어음도 저 두렛줄 막 솔진 거 싯주게."[148]

(삼태기 저거 시아버지 결은 거. 저것도 한 삼십년은 됐어. 저거 산에 가면 저런 줄 있지. 으름덩굴나무 줄이라고 그것으로 해서 저거 결은 거지. 이젠 뭐 안 해도 전에는 밭에서 고구마 가져다가 씻어서 그것을 쪄서. 밭에서 먹는 것은 저런 것에 가져다니고. 감자 찐 것도 가져다니고. 저거 걸어서 내버리니까 안 쓰니까 저렇게 궂었지. 그땐 깨끗해서 고왔었지. 어음도 저 다래나무 줄 매우 굵은 거 있지.)



〈사진 85〉 정춘자 씨 소장 '골체'



〈사진 86〉 오연수 씨 소장 '골체'

〈사진 86〉은 대평리 오연수(1955년생) 씨가 사용했던 '골체'다. 정 씨는 이것을 밭

148) 사계리 정춘자 씨 구술.

에서 일할 때도 사용했고 고구마나 채소 등을 넣어 나를 때 사용했다고 한다.

(7) 멩텡이, 멜망텡이

'멩텡이'는 '멱둥구미'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산듸찍(밭볏짚)'으로 짠 짚 그릇으로, 소 똥 등을 주울 때 사용하거나 밭에서 딴 조 이삭을 집으로 져올 때도 사용하였다. 표준어 '멱등구미'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멜망텡이'는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게 '망텡이' 양쪽에 끈을 매달아 만든 것이다.

4.5. 계량 도구

(1) 뒛박, 두뒈가웃들이

'뒛박'은 안덕면에서 '되'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 '관뒈, 뒈'라고 말한다. '뒈'는 '뒈약세기'로 두 개 반의 분량이 들기 때문에 '두뒈가웃들이'라고도 한다.

〈사진 87〉은 대평리 오연수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되다. 되 모서리 부분에 얇은 철사를 둘러서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데, 손때 묻은 흔적이 '뒛박'의 역사를 말해 주는 것 같다.


〈사진 87〉 오연수 씨 소장 '뒈'

"이거는 뒈, 뒛박. 이거는 이렇게 보리썰이고 좁썰이고 뒈여근에. 옛날에 꿰도 뒈여근에 풀곡 허는 거. 뒈 혼 뒈, 두 뒈, 석 뒈, 넉 뒈 허영 혼 말 허는 거. 이거 우리가 써마씨. 옛날 우리가 썻수다. 우리 농사헐 때도. 우리 시어머니가 물려준 거 우리가 쓰단 거. 시어머니가 뒈왁세기고 뭐고 다 물려준 거예."[149]

149) 대평리 오연수 씨 구술.

(이것은 되, 되. 이것은 이렇게 보리쌀이고 좁쌀이고 되어서. 옛날에 깨도 되어서 팔고 하는 거. 되 한 되, 두 되, 석 되, 넉 되 해서 한 말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써요. 옛날 우리가 썼습니다. 우리 농사할 때도. 우리 시어머니가 물려준 거 우리가 쓰던 것. 시어머니가 식되고 뭐고 다 물려준 거예요.)



〈사진 88〉 양기옥 씨 소장 '됏박'



〈사진 89〉 박순희 씨 소장 '됏박'



〈사진 90〉 정춘자 씨 소장 '됏박'



〈사진 91〉 고원매 씨 소장 '됏박'



〈사진 92〉 진희선 씨 소장 '됏박'



〈사진 93〉 양춘자 씨 소장 '됏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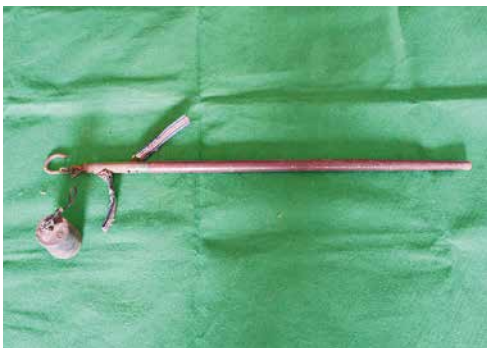
〈사진 88〉은 덕수리 양기옥 씨가 사용하고 있는 '뒛박'이다. '뒈' 표면에 페인트칠을 했는데 오래 쓰다 보니 벗겨졌다. 〈사진 89〉는 동광리 박순희 씨가 사용하는 '뒛박'이다. '뒛박' 위쪽에 철사를 박았고, 둘레에 테이프로 붙여 놓았는데, 박 씨는 이 '뒛박'을 '두뒈가웃들이'라고 하였다. 〈사진 90〉은 사계리 정춘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뒛박'이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는 '뒛박'으로, 틈이 벌어져서 깨같은 것이 끼니가 2015년에 겉면에 은박지로 싸서 사용하고 있다. 〈사진 91〉은 창천리 고원매 씨가 사용하는 '뒛박'이다. 예전에 모슬포 장에서 육천 원 주고 산 것이다. 〈사진 92〉는 창천리 진희선 씨, 〈사진 93〉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썼던 '뒛박'이다.

(2) 손저울/드르는저울·앚은베기저울

'저울'은 무게를 다는 도구다. 손으로 쥐고 물건의 무게를 다는 작은 저울은 '손저울'이라고 한다. 들거나 메지 않고 바닥에 놓은 채 받침판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위쪽에 있는 저울대에서 저울추로 무게를 다는 저울은 '앉은뱅이'저울이라고 한다.

〈사진 94〉는 동광리 박순희 씨가 사용했던 '손저울'이다. 저울대 한쪽이 좀이 슮어 있다. 〈사진 95〉는 화순리 강창석 씨(1929년생)씨가 고사리를 사서 팔 때 사용했던 저울이다. 손으로 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강 씨는 '드르는저울, 드르는제울'이라고 하였다. 강 씨는 '앉은뱅이저울'을 '앚은베기'라고 하였다.


〈사진 94〉 박순희 씨 소장 '손저울'


〈사진 95〉 강창석 씨 소장 '손저울'

"저울 막 오랜 거게. 혼 백 년 뒌 거주. 저 할망덜 고사리 꺾을 때 이거 혼 백년 뒌 거

여. 아이고 그때 막 꺼껑 이걸로 저울이고 헷에. 젊은 때 혼 육십대. 저 돌오름팟에 막 뎅겨낫주. 고사리 이거 저울여야지. 이녁냥으로 헹 풀아야지. 사레 오민. 이 저울은 고사리 헐 때만 허엿저게. 무시거 다른 거 헐 때도 허긴 허는디. 미깡덜은 그냥 앚은베기로 허고. 이건 엿날 거 떠근에 헷주게. 이건 영 드르는 저울. 드르는 제울이엔 헌다."[150]

(저울 아주 오래된 거. 한 백 년 된 거야. 저 할머니들 고사리 꺾을 때 이거 한 백 년 된 거야. 아이고 그때 마구 꺾어서 이걸로 저울질하고 했어. 젊은 때 한 육십대. 저 '돌오름팟'에 자주 다녔었지. 고사리 이거 저울질해야지. 자기대로 해서 팔아야지. 서러 오면. 이 저울은 고사리 할 때만 했어. 무엇 다른 거 할 때도 하기는 하는데. 귤은 그냥 '앚은베기'로 하고. 이건 옛날 거, 떠서 했어. 이건 이렇게 드는 저울. 드는 저울이라고 해.)

〈사진 96〉은 화순리 양춘자 씨가 '꿰(참깨)' 등의 무게를 달 때 사용하는 '젭시저울'이다. '젭시'는 표준어 '접시'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97〉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보리농사 지을 때 구입해서 사용했던 '앉은뱅이저울'이다. 1970년대 80킬로그램짜리 보리 가마를 쟀던 저울이다.



〈사진 96〉 양춘자 씨 소장 '젭시저울'



〈사진 97〉 박순희 씨 소장 '앉은뱅이저울'

150) 화순리 강창석 씨 구술.

4.6. 저장 도구

(1) 통개

'통개'는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항아리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사진 98〉은 대평리 박애자 씨가 살림할 때 사용했던 '통개'들이다. 〈사진 99〉도 박 씨의 '통개'와 '망데기'다. 박 씨가 직접 항아리를 생산했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에 가서 사서 등짐으로 지고 온 소중한 물건들이다. 〈사진 98〉의 가운데 '통개'는 곡식 한 섬이 드는 크기다. 곡식 한 섬은 제주에서 되로 열다섯 말 분량을 가리킨다. 육지에서는 한 말을 열 되 분량이지만 제주에서는 한 말을 넉 되를 말한다. 육지에서의 한 말은 '대두 한 말', 제주에서 한 말은 '소두 한 말'을 가리키는 용어다. 크기에 따라서 '중통개', '망데기' 등으로 부른다.



〈사진 98〉 박애자 씨 소장 '통개'들



〈사진 99〉 박애자 씨 소장 '통개'와 '망데기'

"이건 나 살렴 살 때게 나 혼 어이구, 스무남은부떠 살렴 사난게 이걸 쭉. 이거 구억리 강산 졍 왓젠 허난. 구억리 간에 이거. 통개가 이디 가뜩 놔두난 이디 육지 아이덜 살켄 헨 왕 살멍 이디 뭐 만들켄 허영 세멘 헌 거 아졍오멍 다 벌러불언게. 큰 통갠 곡석으로 놩은 혼 섬 들어. 경 안 헌 건 또 열 말. 이런 존 것덜은 혼 닷 말. 요런 것덜은 혼 두어 말 뒐 거라. 저건 망데기 요건 그 중통개고. 다 까젼 못 쓰큰게. 이 통개덜은 옛날에 곡석 담고 장 담고 물

담앙 먹곡. 물 그땐 다 져당게 이거에 저장헤 둠서 먹기 때문에이. 이거에 다 경 헌 거주."[151]

(이것 나 살림 살 때 나 한 아이고, 스물남은부터 살림 사니까 이걸 쭉. 이거 구억리 가서 사서 져서 왔다고 하니까. 구억리 가서 이거. '통개'가 여기 가득 놔두니까 여기 육지 아이들 살겠다고 해서 와서 살면서 여기 뭐 만들겠다고 해서 시멘트 한 것 가져오면서 다 깨버렸어. 큰 '통개'는 곡식으로 넣어서는 한 섬 들어. 그렇게 안 한 것은 또 열 말. 이런 잔 것들은 한 닷 말. 요런 것들은 한 두어 말 될 거야. 저것은 '망데기' 요것은 그 '중통개'고. 다 깨져서 못 쓰겠어. 이 '통개'들은 옛날에 곡식 담고 장 담고 물 담아서 먹고. 물 그때는 다 져다 이것에 저장해 두고서 먹기 때문에. 이것에 다 그렇게 한 거지.)

(2) 도라무깡·도로무깡

'도라무깡·도로무깡'은 드럼통을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예전 농가에서는 보리 등 곡식을 저장할 때 항아리 대신에 드럼통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드럼통 하나에 곡식 두 섬이 들어간다.

〈사진 100〉은 창천리 김덕순 씨 집에서 쌀 등을 보관할 때 사용했던 '통개'와 '도라무깡'이다. '통개'는 항아리를 말하는데 이 항아리는 두 섬들이다. 제주에서 한 섬은 열다섯 말을 가리킨다. 한 말은 육지에서와 달리 되로 네 개를 말한다. 즉 한 섬은 2리터짜리 되로 60되가 들어가는 분량이다. 따라서 두 섬 들이 항아리에는 120되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다. 김 씨는 요즘 되로 재어보니 스물여섯 말, 즉 112되가 들더라고 하였다.


〈사진 100〉 김덕순 씨 소장 '통개'와 '도라무깡'

"이 항은 우리 시아버님 사ᄀᆞ렌 허난 그때에 두 섬 든다, 두 섬 든다 헤도. 섬이엔 허민 알아지카이? 두 섬이 ᄒᆞ썰 안 들 거라. 나 요새 뒈가 크고 허난 나냥으로 놔 본 경우에는

151) 대평리 박애자 씨 구술.

혼 스물으답 말. 경헌디 그것이 아니라 두 섬짜리여, 두 섬짜리여. 이렇게 골아낫주게. 이 도라무깡도 곡석 놔난 거."[152]

(이 항아리는 우리 시아버님이 샀다고 하니까 그때에 두 섬 든다, 두 섬 든다 해도. 섬이라고 하면 알겠어? 두 섬이 조금 안 들 거야. 나 요새 되가 크고 하니까 나대로 놔 본 경우에는 한 스물여덥 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두 섬짜리여, 두 섬짜리여. 이렇게 말했었어. 이 드럼통도 곡식 놨던 거.)

〈사진 101〉은 창천리 고원매 씨 집 창고에 보관 중인 '도라무깡'이다. 보리를 수확한 후에 보관했다가 겨울 내내 방아를 찧으면서 밥을 해먹었다고 한다. 뚜껑은 고 씨가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옛날 아이고, 첨, 보리 헤다근에게 도라무깡에 담아근에게 놧당 겨울내낭 까끄멍 먹곡 헷주게. 통개에도 놓고. 통개보단 저것이 하영 드난. 두껑은 나가 만든 거."[153]

(옛날 아이고, 참, 보리 해다가 드럼통에 담아서 넣었다가 겨울 내내 찧으면서 먹고 했지. '통개'에도 넣고. '통개'보다 저것이 많이 드니까. 뚜껑은 내가 만든 거.)



〈사진 101〉 고원매 씨 소장 '도라무깡'

〈사진 102〉는 화순리 지중연 씨가 1940년대 말 미군정시기에 그때 모슬포훈련소에 왔던 미군들에게 돈 천 원 주고 샀다가 남편한테 욕을 들었다고 한다. '도라무깡' 하나에 서른 말의 곡식을 보관할 수 있어서 1950년 이후에 곡식 보관 용도로 많이 썼다.

152) 창천리 김덕순 씨 구술.
153) 창천리 고원매 씨 구술.


〈사진 102〉 지중연 씨 소장 '도라무깡'

"도로무깡 저거 미국 사름덜 쳇 번 올 때 산 거난 멧 해 됨신고? 미국 사름덜 제주도 오란에 저 모슬포훈련소에 셔시녜. 그 사름덜 오란에 가정살이 허는 사름덜 멧 개썩 풀앗저게. 이디 군인덜 완 사난에 '할머니 도로무깡 안 사요?' 허난에, 그때 촌에 이만이 헌 두지, 세 가멩이 네 가멩이 드는 거, 저 목쉬덜은 두질 풀아. 경허민 구석에 놩 허여. 할머님 저걸랑 치와 두고 이거 두 개 허민 예순 말 든덴, 하나에 서른 말썩 예순 말. 아, 그 사람이 추키난 그 말도 닮아 뵈. 저 도로무깡 두 개 그때 돈으로 천 원이난에 이제 돈 혼 이삼만 원 간 거주. 천 원 줜 허난 그걸 허엿젠 하르방이 아이고, 그 작산. 이젯 돈이민 오죽 큰 돈이가게. 여주가 통아리가 그렇게 컹 뭣 허느닌 막 욕 들언."[154]

(드럼통 저거 미국 사람들 첫 번 올 때 산 거니까 몇 해 되었나? 미국 사람들 제주도 와서 저 모슬포훈련소에 있었지. 그 사름들 와서 가정 살림하는 사람들 몇 개씩 팔았어. 여기 군인들 와서 사니까 '할머니 드럼통 안 사요?' 하니까, 그때 촌에 이만큼 한 뒤주, 세 가마니 네 가마니 드는 거, 저 목수들은 뒤주를 팔아. 그러면 구석에 놓고 해. 할머님 저거는 치워 두고 이거 두 개 하면 예순 말 든다고, 하나에 서른 말씩 예순 말. 아, 그 사람이 부추기니까 그 말도 닮아 보여. 저 드럼통 두 개 그때 돈으로 천 원이니까 이제 돈 한 이삼만 원 간 거지. 천 원 줘서 하니까 그걸 했다고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 큰 (돈). 이제 돈이면 오죽 큰돈이니. 여자가 통이 이렇게 커서 뭣 하느냐고 마구 욕 들었어.)

154) 화순리 지중연 씨 구술.

Ⅱ 조사 내용

5. 어업 관련

안덕면 지역의 어업 관련 도구는 잠녀들의 물질 관련 작업에 국한하여 조사하였다. 잠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할 때 입는 '물옷', 잠녀들이 물질할 때 들고 가는 '테왁'과 '망사리', 그리고 잠녀들이 물질할 때 사용하는 '채취 도구'로 나눠 기술하려고 한다.

5.1. 물옷

'물옷'은 잠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할 때 입는 옷을 말한다. 예전에는 무명과 광목으로 만든 '물옷'을 입었다면 요즘은 고무로 만든 '고무옷'을 입고 물질을 한다.

(1) 속곳

'속곳'은 잠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할 때 입었던 무명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사진 1〉은 대평리 오연수 씨(195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속곳'이다. 오 씨가 물질할 때 입었던 '속곳'으로, '고무옷'이 나오니까 입지 않았다. 검정 물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왼쪽으로 옆트임을 해 매듭단추를 달았다. 어깨는 예전에 왼쪽 어깨에만 어깨끈을 달았던 것과는 달리 러닝 모양으로 해서 어깨를 가리게 만들었고, 허리에는 '허리끈'을 달았다. '허리 끈'을 오 씨는 '속곳 끈'이라고 이름하였다.


〈사진 1〉 오연수 씨 소장 '속곳'

"나 열여섯 설 때부떠 물질헨. 열여섯 설에 물질헹 55년생 육십이세난 몇 년 뒌? 사십년 넘엇잖아. 육지도 이년 갓다왓지. 열여섯에 물질헹 열여덥, 열아홉에 2년 갓다와서. 저 속곳은 중간에 혼 오십년 뒈실 거여. 저거 멘든 지가. 고무옷 나난 안 입엇지. 고무옷은 한 삽십 설서부터 입어져실 거라. 서른 살부떠. 게난 이거 그 전이 만들앙 놔 둬난 거난 얼마나 오랜 거라게. 처음에는 하얀 속곳 입어나서. 경허난 이거 물들이멍 입은 거. 하얀 속곳 입단에 저거 물들인 거지. 친정어무니 만들아 준 거. 친정어무니 돌아가신 지도 우리 시어머니보단 친정어무니 돌아가신 게 한 이년 더 뒈난 칠년 뒛지. 어깨 하나로만 이신 거 입어낫주게. 경허난 하나 신 거는 불편허난 두 개 신 거 헷어. 속곳 끈만 돌앙."[155]

(나 열여섯 살 때부터 물질했어. 열여섯 살에 물질해서 55년생 육십이세니까 몇년 됐어? 사십년 넘었잖아. 육지도 이년 다녀왔지. 열여섯에 물질해서 열여덟, 열아홉 2년 다녀왔어. 저 속곳은 중간에 한 오십년 됐을 거야. 저거 만든 지가. 고무옷 나니까 안 입었지. 고무옷은 한 사십 살부터 입어졌을 거야. 서른 살부터. 그러니까 이거 그 전에 만들어서 놔뒀던 거니까 얼마나 오랜 거야. 처음에는 하얀 속곳 입었었어. 그러니까 이거 물들이면서 입은 거. 하얀 속곳 입다가 저거 물들인 것이지. 친정어머니 만들어 준 거.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우리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것이 한 이년 더 되니까 칠년 됐지. 어깨 하나로만 있는 거 입었었지. 그러니까 하나 있는 것은 불편하니까 두 개 있는 것 했어. 속곳 끈만 달아서.)

(2) 고무옷

'고무옷'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고무로 만든 옷이다. 1970년 이후에 무명으로 만든 '속곳' 대신에 '고무옷'과 '고무모자', '오리발'이 나오면서 잠녀들은 추위에 떨지 않고 물질을 할 수 있었다. 하루 두세 번씩 물에 들고 나던 것을, '고무옷'이 나오면서 물질 시간이 길어졌다. '고무옷'도 세월이 흐르면서 주황색으로 바뀌고 있다.

155) 대평리 오연수 씨 구술.

(3) 고무모자

'고무모자'는 잠녀들이 물질할 때 사용하는 고무로 만든 모자다. 〈사진 2〉의 '고무모자'는 대평리 강월출(1954년생)이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2〉 강월출 씨 소장 '고무 모자'

(4) 눈, 물안경

'눈'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바다에서 쓰는 물안경을 말한다. 대평리에서는 물안경 가운데 큰 것을 '대본'이라고 하였다. 물안경도 대, 중, 소로 나누는데, 크기가 큰 것을 '대본' 중간 것을 '중본'이라고 하였다.

〈사진 3〉은 대평리 강월출씨가 물질할 때 사용했던 '중본'으로, 8~9년 정도 사용했다고 한다. '중본' 알에 긁힌 자국이 많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한 지 오래된 물안경이다. 물안경에 'TEMPERED GRASS (2)'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보면 물안경은 강화유리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숫자 '(2)'는 크기를 표시한 것 같다. 강씨는 열여덟 살 때부터 육지로 출가물질을 다녔는데, 그때부터 '대본'을 이용해 물질을 했다고 한다. 〈사진 4〉는 대평리 임중자 씨(1942년생)가 3~4년 정도 사용했던 물안경이다.



〈사진 3〉 강월출 씨 소장 '눈'



〈사진 4〉 임중자 씨 소장 '눈'

(5) 연철

'연철'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고무옷의 허리에 차는 물건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연철의 무게는 더해진다. 이는 나이 든 사람들이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갈 때 힘이 부치기 때문에 '연철' 무게에 의지하여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오 킬로도 차고, 육 칠로도 차고 칠 킬로도 차고 간다는 것이다.

"물질허젠 허민 연철도 져야. 연철, 쒜. 노인덜은 힘이 엇이민 혼 칠 키로썩 지고, 육 키로도 지고, 오 키로도 지고."[156]

(물질하려고 하면 연철도 져야. 연철, 쇠. 노인들은 힘이 없으면 한 칠 킬로씩 지고, 육 킬로도 지고, 오 킬로도 지고.)

5.2. 테왁과 망사리

(1) 테왁

'테왁'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예전에는 박의 씨를 파내어 만들었는데, 요즘은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만들고 있다. 박을 안덕면 지역에서는 'ᄀᆞᆯ락/ᄀᆞᆯ왁'이라고 하였다. 'ᄀᆞᆯ락'으로 만든 테왁을 달리 'ᄀᆞᆯ락박세기'라고 한다. '테왁'을 제보자에 따라서는 '두렁박'이라고도 하고 있다.

"테왁 옛날은 저 콜락게. 저 무신거 이제 호박 닮은 거 사춘. 골락헤여근에 영 집이 놓민 그것이 호박거치 열매 열민 그걸 막 말려가지고 씨 꺼내 뒁. 바싹 물령 그것에 노꼿으로 막 얽어근에 그것이 망시리. 망시리 어음, 그때는 그물도 이렇게 잘 나지 안 허난 찍으로 영 꼬아근에 막 좀지렁허게. 나룩찍 허영. 그땐 나룩 많이 헐 때난게. 못 허는 딘 강 얻어오고 집이 쓸라고. 나룩찍 망시리 허건 지가 혼 삼십 멧 년 거의 사십 년이나 뒛주. 요즘은 테왁도 스폰지게 하얀 거. 거 물에 잘 뜨고 허난. 거 뭣이 수협에서 거 해녀덜 바다에 들면 선허게 빨강헌 험벅 다 테웁니다. 이 수협에서 그 배 다 지나갈 때에 그 표시

156) 대평리 임중자 씨 구술.

로예, 몰라가지고 넘어갈 때에 그 테왁이 벌겅게 틔우민 아 저거 해녀덜이 영업헴구나 헹 좀 비껴서 가게시리. 그거 테와 주민 그자 그걸로 헹 두렁박 싸근에."[157]

(테왁 옛날은 저 박. 저 뭐 이제 호박 닮은 거 사촌. 박 해서 이렇게 집에 놓으면 그것이 호박 같이 열매 열면 그걸 잘 말려서 씨 꺼내 두고. 바싹 말려서 그것에 노끈으로 잘 얽어서 그것이 망사리. 망사리 어음, 그때는 그물도 이렇게 잘 나지 않으니까 짚으로 꼬아서 아주 잘게. 볏짚 해서. 그땐 벼 많이 할 때니까. 못 하는 덴 가서 얻어오고 집에서 쓰려고. 볏짚 망사리 한 지가 한 삼십 몇 년 거의 사십 년이나 됐어. 요즘은 테왁도 스폰지 하얀 거. 거 물에 잘 뜨고 하니까. 거 뭣이 수협에서 거 해녀들 바다에 들어가면 선하게 빨간 헝겊을 다 나눠줍니다. 이 수협에서 그 배 다 지나갈 때에 그 표시로. 몰라서 넘어갈 때에 그 테왁이 벌겋게 띄우면 아 저거 해녀들 일하고 있구나 해서 좀 비켜서 가도록. 그거 나눠 주면 그저 그걸로 박을 싸서.)

〈사진 5〉는 대평리 박애자 씨(1934년생)가 예전에 물질할 때 사용했던 '테왁'과 '망사리'다. 박 씨의 '테왁'은 스티로폼 테왁에 꽃무늬 천으로 감싸서 만들었는데 요즘 사용하는 '테왁'보다 작다. 망사리도 가는 나일론 줄로 엮어서 만들었다. 박 씨가 50년 가까이 썼던 '테왁'과 '망사리'로, 요즘은 쓰지 않고 있다. 〈사진 6〉은 대평리 해녀식당에서 촬영한 것이다.



〈사진 5〉 박애자 씨 소장 '테왁'



〈사진 6〉 대평리 해녀식당 앞에 걸려 있는 '테왁'

"이건 물질헐 때 써난 쪼그만헌 테왁. 큰 테왁 안 허영 조끄만헌 테왁 이거 허연에 이

157) 대평리 임중자 씨 구술.

건 아메도 흔 오십년 뒈여실 거여. 쪼그만헌 거여. 이젠 막 큰 거 쓰는디. 그땐 소라를 가두지 안 헷어. 엿날은 그자 매날 들어가면은 잡아먹엇잖아. 요즘은 딱 가두왓다가 흔번에 이렇게 잡게 뒈면은 이런 테왁덜이 큰 거 허여근에 흔번 가근에 흔 칠팔십 키로썩 잡아. 나도 저디 망아리덜 큰 거 이신디 저런 것엔 흔 팔십 키로 백 키로 경 가."[158]

(이것은 물질할 때 썼던 자그마한 테왁. 큰 테왁 안 해서 조그마한 테왁 이거 해서 이것은 아마도 한 오십년 되었을 거야. 조그마한 거야. 이젠 매우 큰 거 쓰는데. 그땐 소라가 가두지 않았어. 옛날은 그저 매날 들어가면 잡아먹었잖아. 요즘은 딱 가두웠다가 한번에 이렇게 잡게 되면 이런 테왁들 큰 거 해서 한번 가서 헌 칠팔십 킬로씩 잡아. 나도 저기 망사리들 큰 거 있는데 저런 것엔 한 팔십 킬로 백 킬로 그렇게 가.)

(2) 망사리

'망사리'는 미역이나 소라, 전복 따위를 따서 넣기 위해서 만든 그물주머니다. 달리 '망시리'라고도 한다. '망사리'는 짚이나 억새 속잎을 꼬아 만들었다. '짚'으로 꼬아 만든 것은 '찍망사리', 억새 속잎을 꼬아 만든 것은 '미망사리'라고 한다. 요즘은 나일론 줄을 꼬아 만들고 있다. '망사리'를 두른 '테'는 '어움'이라고 한다. '어움'은 'ᄃᆞ렛줄(다래나무)'이나 '삼동낭(상동나무)'을 이용해 만드는데, 'ᄃᆞ렛줄'은 사다가 쓰고, '상동낭'은 직접 잘라다가 사용하였다. '테왁'을 감싼 끈은 '관제'라고 한다.

"어음, ᄃᆞ렛줄. ᄃᆞ렛줄 산에 잇잖아. 아니면 삼동낭. 이거 ᄃᆞ렛줄은 엿날 산 거주만은 삼동낭은 우리가 요 우에 과수원 있어. 과수원 흔 삼천 펭 이시난 그디 이 바우로 민딱이 삼동낭 이시난 그 삼동낭 잘라당 만들어낫주게. 불에 궝 그 까시 다 다듬아 둰."[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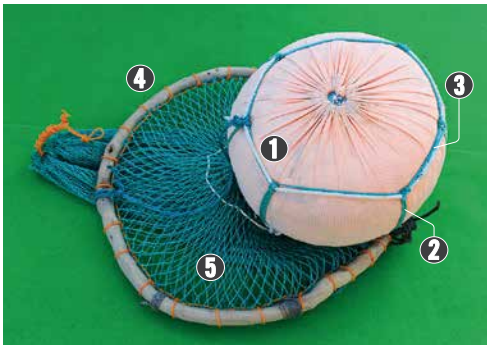
(어음, 다래나무 줄. 다래나무 줄 산에 있잖아. 아니면 상동나무. 이거 다래나무 줄 옛날 산 거지만 상동나무는 우리가 요 위에 과수원 있어. 과수원 한 삼천 평 있으니까 거기 이 가장자리로 몽땅 상동나무 있으니까 그 상동나무 잘라다가 만들었었지. 불에 궈서 그 가시 다 다듬어 두고.)

〈사진 7〉은 대평리 임중자 씨가 물질 허채기를 앞두고 테왁과 망사리를 손질하는 모습니다.

158) 대평리 박애자 씨 구술.
159) 대평리 박애자 씨 구술.



〈사진 7〉 임중자 씨 '테왁'을 손질하는 모습



〈사진 8〉 임중자 씨 소장 '테왁'

"이거 망시리 만드는 중이여. 이건 베또롱줄이여. 이건 관지 둘렁 이거 메영. 지동 노꼿, 이건 관지, 이건 어음, 이건 망시리. 닷줄로 영 헤여근에 돌 놔근에 바다에 강 물속에 들이쳐. 이거 우리 닷 놓는 줄이엔 허주, 닷 놓는 줄. 이건 망시리. 홍사린 제라허게 작은 거, 요만인헌 거 돌아멩 허여."[160]

(이거 망사리 만드는 중이야. 이것은 '베또롱줄'이야. 이것은 '관자' 둘러서 이거 매서. 기둥 노끈, 이건 관자, 이건 어음, 이건 망사리. 닻줄로 이렇게 해서 돌 넣어서 바다에 가서 물속에 집어넣어. 이거 우리 닻 놓는 줄이라고 하지, 닻 넣는 줄. 이것은 망사리. '홍사리'는 제대로 작은 거, 요만큼한 것 매달아서 해.)

위의 구술을 보면, 테왁과 망사리에도 부속품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망사리'는 또 '망시리'라고도 한다. '테왁'을 중심으로 가로로 단단히 묶는 줄을 '지동노끗'이라고 하고, 세로로 엮은 줄은 '관지'라고 한다. '지동노끗'은 '지동+노끗' 구성으로, '지동노끗'은 '테왁'을 엮을 때 기둥이 되는 노끈을 말한다. '관지'는 '관자'라는 의미로, '테왁'을 둘러 가로로 엮어 놓은 줄을 의미한다. 〈사진 8〉의 ①은 '테왁' ②는 '지동노끗', ③은 '관지'다. ④는 '어음' ⑤'망시리'다. '테왁'은 보통 스티로폼을 이용해 만들고 그 위에 헝겊을 덧씌워 만들고, '지동노끗'과 '관지'와 '망시리'는 나일론줄을 이용한다. '어음'은 '삼동낭(상동나무)'이나 '[illegible]렛줄(다래나무)'을 이용하였다. 요즘은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160) 대평리 임중자 씨 구술.

"이거는 삼동낭. 삼동낭이 경 무거워게. 두렛줄이 헐랑헐랑 거꺼지지 안 헹 막 좋아. 삼동낭은 막 베고 무작이 하. 두렛줄 어음은 무작이 엇어근에 매끈헤근에 좋아."[161]

(이것은 상동나무. 상동나무가 그렇게 무거워. 다래나무 줄이 헐렁헐렁 꺾어지지 안 해서 매우 좋아. 상동나무는 매우 무겁고 마디가 많아. 다래나무 줄 어음은 마디가 없어서 매끈해서 좋아.)

임중자 씨의 구술에 의하면, '삼동낭 어음'은 무겁고 매듭이 많은데 반해 '두렛줄 어음'은 미끈하고 신축성 있게 잘 휘어서 '어음'으로 사용하기 좋다고 한다.



〈사진 9〉 임중자 씨 소장 '도렛줄 어음'



〈사진 10〉 박애자 씨 소장 '삼동낭 어음'

〈사진 9〉는 대평리 임중자 씨가 사용하던 '두렛줄 어음'이다. 〈사진 10〉은 대평리 박애자 씨가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는 '삼동낭 어음'이다.

'테왁'과 '망사리'는 하나로 연결해서 쓴다. 요즘은 해안가에 탈의실이 있어서 그곳에 '테왁'과 '망사리'를 보관해 두고 사용했지만 예전에는 '질구덕'에 넣어서 지고 다녔다. 바다에서 채취한 소라나 미역 등도 '질구덕'에 넣은 후 그 위에 '테왁'과 '망사리'를 넣어서 지고 다녔다.

(3) 홍사리

'홍사리'는 망사리 가운데 작은 것을 말한다. 보통 '테왁 어움'에 매달아 사용하는

161) 대평리 임중자 씨 구술.

데, 전복 등의 해산물을 넣거나 신발을 담는 용도로 쓰는 작은 그물주머니를 말한다. 달리 '조락'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홍사리. 홍사리 주머니엔도 허고. 이건 나 저 메옹이 노랑헌 거 잇지. 장마 뒈민 그거 잡아. 그거 잡젠 이거 영 허민 그냥 손으로 영 허단 보민 오꼿 털어져불고. 이걸론 허민 혼두 번 헹 다 이디 거 허여 오는디 손으로 허젠 허민 막 멧 번 가오주게. 알러레 막 털어져불고. 게난 이거 솔쩨기 영 대영 술술 헤근에 영 헹 올라왕 또 망시리에 놓고 허는 거."[162]



〈사진 11〉 임중자 씨 소장 '홍사리'

(이것이 '홍사리'. '홍사리' 주머니라고도 하고. 이건 저 '메옹이(두드럭고둥)' 노란 거 있지. 장마 되민 그거 잡아. 그거 잡으려고 이거 이렇게 하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만 떨어져 버리고. 이걸론 하면 한두 번 해서 다 여기 거 해서 오는데 손으로 하려고 하며 몇 번 갔다 오지. 아래로 마구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살짝 이렇게 대서 살살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또 망사리에 놓고 하는 거.)

〈사진 11〉은 임중자 씨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홍사리'다. 임 씨는 이 '홍사리'를 여름철 바다에 모아지는 '메옹이(두드럭고둥)'를 잡기 위해 그물을 이용하여 직접 만들었다. 바닷가에 고둥 등 해산물을 따러 다닐 때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조락은 우리가 신발 신고 바당에 걸어갔다가 그 조락에 신발 벗고 집어 놧당 물에서 나올 땐 신엉 오는 거. 또 전복 캐여근에 놓고 거기다. 또 해삼 잡아근에 놓고. 그축예 조락에다 그런 거 사용헙니다. 조그만허게, 망시리는 크고 조락은 조그만 허게 헤근에 예.[163]

('조락'은 우리가 신발 신고 바다에 걸어갔다가 그 조락에 신발 벗고 집어 넣다가 물에

162) 대평리 임중자 씨 구술.
163) 대평리 오연수 씨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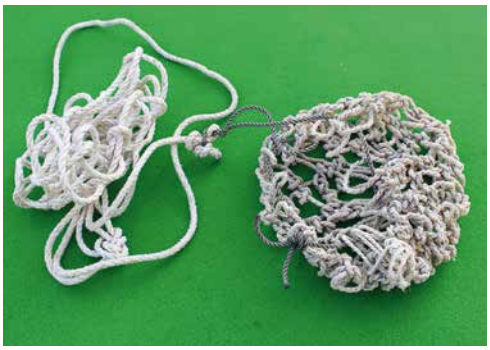
서 나올 때 신고 오는 거. 또 전복은 캐서 놓고 거기다. 또 해삼 잡아서 놓고. 그렇게 '조락'에다 그런 거 사용합니다. 조그마하게, 망사리는 크고 '조락'은 조그마하게 해서.)

(4) 닷돌과 닷줄, 닷 놓는 줄

'닷돌'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테왁'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물속에 넣어두는 돌을 말한다. '닷줄'은 '닷돌'을 넣은 주머니를 연결해 놓은 줄이다. '닷 노는 줄'을 '닷돌' 넣은 주머니와 테왁 '어음'을 연결해 놓는 줄을 말한다.

〈사진 12〉는 대평리 임중자 씨가 사용하는 '닷돌 넣는 주머니'와 '닷줄'이다.

"닷돌은 이거주게. 닷줄 헤근에 마직헌 돌 놩. 돌은 바다에 강 봉가 허는 거주게. 바당에 들어강 준비허영 들어갈 때에 안경 다끄멍 그 물가에서 봉강 어느 정도 마직헌 거. 들어강 이녁 기운에 맞게시리. 젊은 아이덜은 ᄒᆞ쏠 크게 놓고 우린 저 멀리 못 가는 따문 어느 정도 헹. 베또롱줄은 이디 영 이렇게 어음에 무끄고."[164]



〈사진 12〉 '닷돌 넣는 주머니'와 '닷줄'

(닻돌은 이거지, 닻줄 해서 알맞은 돌 넣어서.돌은 바다에 가서 주워서 하는 거지. 바다에 들어가서 준비해서 들어갈 때에 안경 닦으면서 그 물가에서 주워서 어느 정도 알맞은 거. 들어가서 이녁 기운에 맞게끔. 젊은 아이들은 조금 크게 놓고 우린 저 멀리 못 가는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서. '베또롱줄'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음에 묶고.)

〈사진 13〉은 사계리 강 아무개 씨(1954년생)가 물질할 때 사용했던 '닷돌'이다. '닷돌' 한 쪽에 닻줄을 맸던 구멍이 뚫려 있다.

"그 물질헐 때 물이 막 썰물 가고 들물 가고 헙니다게. 게민 닷돌을 테왁에 무껑 놓믄

164) 대평리 임중자 씨 구술.

물이 썰물이나 들물 때는 가만이 잇주게. 돌 사이에 강 탁허게 물밑으로 가근에 접형. 경 헨 그 부위에서 잡앙 또 옮겨가고 헷주, 다. 닷돌 이젠 다 깔꾸리식으로 만들어당 놓믄 걸리게끔 요만씩 헨예 경 헨 헷수다."[165]


〈사진 13〉 '닷돌'

(그 물질할 때 물이 막 썰물 가고 밀물 가고 합니다. 그러면 닷돌을 테왁에 묶어서 넣으면 물이 썰물이나 들물 때는 가만히 있지. 돌 사이에 가서 탁하게 물밑으로 가서 끼어서. 그렇게 해서 그 근처에서 잡아서 또 옮겨가고 했지, 다. 닷돌 이젠 다 갈퀴식으로 만들어다가 넣으면 걸리게끔 요만큼씩 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5.3. 채취 도구

(1) 촐구덕


〈사진 14〉 강월출 씨 소장 '촐구덕'

'촐구덕'은 허리에 찰 수 있게 만든 바구니다. '촐'+'구덕' 구성으로, '촐-'은 차다의 어간 '추-'에 관형형어미 'ㄹ'이 결합한 형태이고, '구덕'은 바구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즉 '촐구덕'은 허리에 차서 바다에서 해산물 등을 캘 때 사용하는 바구니다.

〈사진 14〉는 대평리 강월출 씨가 시어머니 강병화 씨(작고)에게서 30년 전에 물려받은 '촐구덕'이다. 이 '촐구덕'은 강씨의 시어머니가 바닷가에서 '우미(우뭇가사리)'와 '가시리(풀가사리)' 뜯으러 다닐 때 사용했던 바구니다. 강 씨의 시어머니가

165) 사계리 강 아무개 씨 구술.

오일장에서 손수 사온 바구니로,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지 30년 이상 되었으니 적어도 50년 이상 된 바구니다.

(2) 비창

'비창'은 잠녀들이 전복을 딸 때 사용하는 쇠로 된 기다란 도구이다. '비창'의 '비'는 전복을 뜻하는 고유어로, '비창'은 '전복을 따는 창'이라는 의미이다. '비창' 한쪽 끝에 고무줄 고리가 달려 있는데, 전복 등을 채취할 때는 '비창'을 손목에 끼워 사용한다.

〈사진 15〉는 대평리 강월출 씨가 사용했던 비창이다.



〈사진 15〉 강월출 씨 소장 '비창'



〈사진 16〉 강월출 씨 소장 호미

(3) 바릇골겡이와 호멩이, 호미

'바릇골겡이'는 바다에서 해산물을 딸 때 사용하는 호미다. 제보자에 따라서 '호멩이'라고도 하였다. 구좌 지역에서는 '골겡이'라는 명칭 대신에 '호멩이'를 더 많이 쓰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사진 16〉은 대평리 강월출 씨가 물질할 때 갖고 가서 사용했던 호미다. 자루 끝에 납작한 고무가 붙어 있어 사용할 때 손목에 끼워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호미 날은 납작하면서 일자형이다.

(4) 거낫, 갈쿠리

'거낫'은 대평리에서 문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호미 비슷한 도구다. '바릇골겡이' 날

이 납작하면서 일자형인데 비해 '거낫'은 날이 둥글면서도 끝이 오그라졌다. 호미 자루도 '바릇곱게이'에 비해 길다. 반면 손잡이는 '거낫'이 작다. 끝에 고무줄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잠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할 때 '거낫'을 손목에 걸고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좌읍 지역에서 문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호미를 '뭉게까꾸리' 또는 '뭉게호멩이'라고 하였다.

〈사진 17〉은 대평리 강월출 씨가 사용했던 '거낫'과 '바릇곱게이'로, 위는 '거낫', 아래는 '바릇곱게이'다.

"거낫은 깊은 디 거 뭐 뎅겨낼 때 허고 소라도 깊은 디 이시믄 떼내고 전복 같은 것도 속에 이실 때 쓰고. 고무줄은 웨냐면 우리가 바다에서 영 가져갓다가 뭐 영 영 손에 잡으면은, 뭐 많이 잡으면은 걸 탁허게 놓고 걸고 올라오주게. 그 잡으면은 손이 부족허니까. 그런 용도고 떨어지지 말라고."[166]



〈사진 17〉 강월출 씨 소장 '거낫'과 '바릇곱게이'

('거낫'은 깊은 데 거 뭐 당겨낼 때 하고 소라도 깊은 데 있으면 떼내고 전복 같은 것도 속에 있을 때 쓰고. 고무줄은 왜냐면 우리가 바다에서 이렇게 가져갔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손에 잡으면, 뭐 많이 잡으면 그걸 탁하게 놓고 걸고 올라오지. 그 잡으면 손이 부족하니까. 그런 용도로 떨어지지 말라고.)

〈사진 18〉은 대평리 임중자 씨가 물질할 때 갖고 다니는 '거낫'이다. '거낫'을 사계리에서는 '갈쿠리'라고 하였다. 사계리 정춘자 씨(1947년생)는 '거낫'은 배에서 쓰는 기다란 도구라고 하여 문어 잡는 '갈쿠리'와 구분하였다. 〈사진 19〉는 정 씨가 예전에 물질할 때 사용했던 '갈쿠리'로 전체 길이 49cm, 손잡이 12cm, 입 5.5cm 크기다.

"이거 문어 잡는 갈쿠리. 배에서 쓰는 거낫이 잇어. 질딱헌 거. 저 무슨 대막뎅이가 잇

166) 대평리 강월출 씨 구술.



〈사진 18〉 임중자 씨 소장 '거낫'



〈사진 19〉 정춘자 씨 소장 '갈쿠리'

어근에 허는 것이 싯주게. 게난 그것ᄀᆞ라 거낫이엔 허고. 이건 문어 잡는 거, 해녀덜 문어 잡는 거난 갈쿠리엔 허주게. 끝이 동글락헤야 걸령 올라오주게. 납작헌 건 옛날에 뭐 전복 새끼 닮은 거 잇어, 오분제기라고 그거 떼는 거. 납작헌 건 오분제기 떼는 거. 이건 나 바당에 뎅길 때도 가졍가고 곳디로 갈 때도. 게난 나 이제 바당에 안 가난에 이것도 묵어젼 이렇게."[167]

(이거 문어 잡는 '갈쿠리'. 배에서 쓰는 거낫이 있어. 기다란 거. 저 무슨 대막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있지. 그러니까 그것보고 거낫이라고 하고. 이것은 문어 잡는 거, 해녀들 문어 잡는 것이니까 '갈쿠리'라고 하지. 끝이 동그래야 걸려서 올라오지. 납작한 것은 옛날에 뭐 전복 새끼 같은 거 있어, 오분제기라고 그거 떼는 거. 납작한 것은 오분제기 떼는 거. 이것은 나 바다에 다닐 때도 가져가고 바닷가로 갈 때도. 그러니까 나 이제 바다에 안 가니까 이것도 묵어서 이렇게.)

위 구술 내용을 보면, 문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은 끝이 둥글면서도 약간 오그라지고, '오분제기'를 딸 때 사용하는 호미는 끝이 납작하게 만들어졌다.

(5) 소살

'소살'을 잠녀들이 물질하면서 고기를 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작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20〉은 대평리 임중자 씨가 물질할 때 갖고 가는 '소살'이다. 오

167) 사계리 정춘자 씨 구술.

일장 철물점에서 구입한 것이다. '소살'의 끝 부분인 '비늘'이 세 개로 이루어졌다. '소살'도 물질 기량에 따라 큰 것 또는 작은 것을 사용하는데 임 씨는 작은 것을 갖고 다닌다. '비늘'은 표준어 '미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20〉 임중자 씨 소장 '소살'


〈사진 21〉 '소살'의 끝 부분

"이거 소살 족은 거게. 난 큰 거 못헹 족은 거. 세 개짜리. 소살 웨 가달 싯고 두 개짜리. 잘 쏘우지도 못헤. 그냥 우럭 ᄀᆞ튼 거 고망에 시민 우럭 ᄀᆞ튼 거 객주리 ᄀᆞ튼 거 쏘아. 이 소살 오일장에 간 철물점에서 사완. 우리 멘들지 못허는 거. 여긴 보통 세 개짜리 허여. 우린 족은 거 헷주게. 더 큰 건 갓돔 같은 거 다금바리 쏘는 거."[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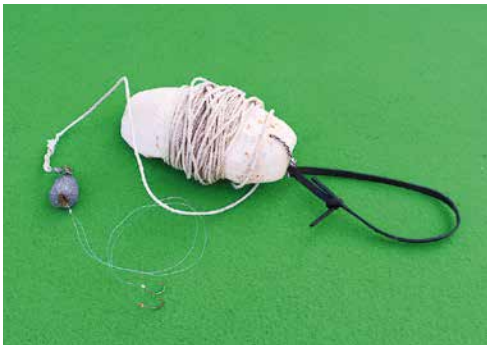
(이거 작살 작은 거. 난 큰 것 못해서 작은 거. 세 개짜리. 작살 외 가닥 있고 두 개짜리. 잘 쏘지도 못해. 그냥 우럭 같은 거 구멍에 있으면 우럭 같은 거 쥐치 같은 거 쏴. 이 작살 오일장에 가서 철물점에서 사왔어. 우리 만들지 못하는 거. 여긴 보통 세 개짜리 해. 우린 작은 거 했지. 더 큰 건 감성돔 같은 거 다금바리 쏘는 거.)

(6) 낙싯줄

'낙싯줄'은 낚시를 이용하여 고기를 낚을 때 사용하는 줄이다. 〈사진 22〉는 대평리 임중자 씨가 물질하러 갈 때 고기잡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낚싯줄이다.

"물속에 강 놓민 객주리도 물민 나끄고 우럭도 나끄고. 이거 영 헤여근에, 이 낚시 느껍 끼주게. 느껍 문어나 소라나 무신 보멀이나 잡앙 영 끼웡 풀엉 다 허여근에 물 알러

168) 대평리 임중자 씨 구술.


〈사진 22〉 임중자 씨 소장 낚시줄

레 영 놓민 이것이 돌멩이가 스스륵허게 내려가양. 물속에 강 영 이시민 이것이 흔들흔들허민 고기가 막 냄새 맡앙 모여와. 그 저 어렝이영 우럭 ᄀᆞ튼 거. 낙싯줄은 테왁에 무껑둥. 경 헤근에 문 거 닮으민 영 보당 고기가 영 니껍을 문 거 닮으민 확 뗑기민 올라와. 혼번[뻔]에 두 개도 올라올 수도 잇고. 가림이엔 허주게, 가림 두 개로 올라오는 거. 두 개 올라오민 가림헴저. 낙시줄은 노끗 시난 어음에 돌아 놧당 저 물질허다근에 문어나 소라나 무시거 못허민 이 고기라도 나깡 가주겐 니껍을 놓는 거라. 물질허당 저 물건 엇인 때."[169]

(물속에 가서 놓으면 쥐치도 물면 낚고 우럭도 낙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 낚시 미끼 끼우지. 미끼 문어나 소라나 무슨 고둥이나 잡아서 이렇게 끼워서 풀어서 다 해서 물 아래로 이렇게 놓으면 이것이 돌멩이가 스르르하게 내려가요. 물속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흔들흔들하면 고기가 마구 냄새 맡아서 모여와. 그 저 어렝놀레기랑 우럭 같은 거. 낚싯줄은 테왁에 묶어두고. 그렇게 해서 문 거 같으면 이렇게 보다가 고기가 이렇게 미끼를 문 거 같으면 확 당기면 올라와. 한번에 두 개도 올라올 수도 있고. '가림'이라고 하지. '가림' 두 개로 올라오는 거. 두개 올라오면 '가림했다'. 낚싯줄은 노끈 있으니까 어음에 매달아 놨다가 저 물질하다가 문어나 소라나 무슨 거 못하면 이 고기라도 낚아서 가자고 해서 미끼를 놓는 거야. 물질하다가 저 물건 없을 때.)

169) 대평리 임중자 씨 구술.

Ⅱ 조사 내용

6. 축산 관련

농촌 지역에서 소와 말은 농업 기반이었다.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밭을 갈고, 짐을 운반하였다. 그러나 생활 환경의 변화와 농기계 발달로 소나 말의 쓰임도 달라지면서 축산 관련 도구에 변화가 있었다.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의 축산 관련 도구는 구좌읍 지역과 달리 다양하게 조사되지 않았다. 제주시 구좌 지역이 소나 말의 먹이인 '촐(꼴)'을 벨 때 '낫'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안덕면 지역에서는 '호미'를 이용하였다. 구좌 지역에서 사용하는 '낫'은 꼴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긴 자루가 달린 도구로, 서서 꼴을 벨 수 있다. 그러나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에서는 '꼴'을 벨 때 '호미'를 사용하는데, 이 '호미'로 꼴을 벨 때는 앉아서 해야 한다. '호미'는 표준어 '낫'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구좌읍 지역과 안덕면 지역에서의 생활 문화 차이로 인하여 축산 관련 도구도 차이를 보인다.

6.1. 쉐막과 고삐류

(1) 쉐막

'쉐막'은 소를 키울 때 사용하는 시설로 '쉐마귀, 마귀, 오양간'이라고도 한다. '물막'은 말을 키울 때 사용하는 공간이다. '쉐막'은 표준어 외양간, '물막'은 표준어 '마굿간'에 해당한다.

〈사진 1〉은 동광리 박순희 씨(1944년생)가 '쉐막'으로 쓰던 공간이다. 지금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벽 한쪽에 소를 키울 때 사용했던 '줄대'와 '녹대' 등이 걸려 있다. 박 씨네는 소를 키울 때 스무 말이 이상을 키웠다고 한다. 소를 매는 '쉐막'도 세 개나 있었다.


〈사진 1〉 박순희 씨 집의 '쉐막'

"우리 쉐 스무 마리 넘게 질란. 이 쉐막 이빠이, 저 쉐막 이빠이. 경허고 요 앞이 것도 저거 송애기 사 가고 허난엔 갈라놓는 쉐막으로 헤난 거. 게난 스무 개 허면은 풀아먹을 거 열다섯 갠 나오잖아. 게난 팔십육년도에 쉐 파동 낫잖아이. 팔십육년도에 나난 부렝일 나시민 값 하영 받을 건디. 잘 뒈는 집인 부렝이 나난 저 혼 삼십만 원 받고. 우리 암송애기만 열 개 나난 이십만 원썩벳긔 안 주켄 허난 그걸 멘딱 키운 거라. 그걸 몽땅 키완에 새끼 나게 뒈난 왕창 올란. 그걸로 애기덜 대학교 시킨 거."[170]

(우리 소 스무 마리 넘게 길렀어. 이 외양간 가득, 저 외양간 가득. 그렇게 하고 요 앞에 것도 저거 송아지 사 가고 하니까 나눠 놓는 외양간으로 했던 거. 그러니까 스무 개 하면 팔아먹을 거 열다섯 개는 나오잖아. 그러니까 팔십육년도에 소 파동 났잖아. 팔십육년도에 나니까 수소 낳았으면 값 많이 받을 것인데. 잘 되는 집에는 수소 낳으니까 저 한 삼십만 원 받고. 우리 암송아지만 열 개 낳으니까 이십만 원씩밖에 안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몽땅 키운 거야. 그걸 몽땅 키워서 새끼 나게 되니까 왕창 올랐어. 그것으로 아기들 대학교 시킨 거.)

박 씨는 1986년에 소 파동을 겪기도 했지만 소를 계속 키우다 보니 돈도 벌 수 있었다. 아이들 대학도 소 키워서 시켰다고 한다. 소는 농촌 지역의 경제를 살려주는 가축이기도 하였다.

170)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2) 쉐석

'쉐석'은 '소의 머리를 걸려 잡아매서 끄는 줄로, 소를 끌고 다닐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표준어 '고삐'에 해당하는 말이다. 〈사진 2〉는 동광리 박순희 씨(1944년생) 집에서 소를 길들일 때 사용했던 녹대를 연결한 '쉐석'이다. 〈사진 3〉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 창고에 매달려 있는 '쉐석'과 '줄대'들이다. 예전에 '쉐막'으로 썼던 공간이다.


〈사진 2〉 박순희 씨 소장 '쉐석'


〈사진 3〉 박순희 씨 소장 '쉐석'과 '줄대'

(3) '물녹대'와 '물석'

'물녹대'는 말을 얽어매기 위하여 만든 굴레다. 표준어 '말굴레'에 대응하는 말이다. 말을 끌고 다닐 때는 '물녹대'에 '물석'이라고 불리는 고삐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사진 4〉는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말을 기를 때 사용했던 '물녹대'다. '물석'은 말을 이끌


〈사진 4〉 박순희 씨 소장 '물녹대'


〈사진 5〉 박순희 씨가 '물녹대'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장면

고 다닐 때 사용하는 고삐다. '석'은 중세어 '셕'에서 온 말로, '고삐'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물녹대'는 박 씨의 시아버지가 만든 것이다. 길들이지 않은 '새쉐'는 말처럼 '녹대'를 씌워서 '석'을 매기도 하였다. 〈사진 5〉는 박순희 씨가 '물녹대'를 '물석'에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쉐석 이건 뿔 엇인 쉐 헐 때는 야가기에 무껑 걸로 강 톡 강 줍으민 홀타지지 안 허여. 뿔 엇인 쉐. 줄대는 쉐 먹을 데 강 무꺼근에 멀리 강 먹게 허는 거. 돌아뎅기멍 먹으렌. 물녹댄 영게, 이건 야개기레 가고 이건 콧등어리 이건 주둥이. 요걸로 영 헹 허민 뒈지. 쉐도 녹대 허긴 허여. 뿔 엇은 쉐 허는디 어진 쉔 그냥 모가지 무꺼근에 탁 허고. 새쉐 ᄀᆞ르칠 때는 녹대 허고. 녹대에 부튼 건 석. 쉐석, 물석. 이 쉐석덜은 시아방 신 때 헌 거."[171]

(소고삐 이것은 뿔 없는 소 할 때는 모가지에 묶어서 그것으로 가서 톡 가서 집으면 조이지 않아. 뿔 없는 소. '줄'은 소 먹을 데 가서 묶어서 멀리 가서 먹게 하는 거. 돌아다니면서 먹으라고. 말굴레는 이렇게, 이것은 모가지로 하고 이것은 콧등어리 이것은 주둥이. 요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소도 굴레 하기는 해. 뿔 없는 소 하는데 어진 소는 그냥 모가지 묶어서 탁 하고. '길들이지 않은 소' 가르칠 때는 굴레 하고. 굴레에 붙은 것은 석. 소고삐, 말고삐. 이 소고삐들은 시아버지 있을 때 한 거.)

(4) 줄대, 쉐줄

'줄대'는 말이나 소를 들판에 가서 먹이를 먹게 할 때는 고삐에 연결하는 줄이다.



〈사진 6〉 박순희 씨 소장 '줄대'



〈사진 7〉 이영수 씨 소장 '쉐줄'

171) 동광리 박순희 씨 구술.

소를 매는 줄이라고 해서 '쇠줄'이라고도 하였다. '쉐석'을 '줄대'에 연결하여 '줄대' 끝에 '말뚝'을 박아두면 소나 말이 일정 공간 안에서만 풀을 뜯어 먹는다. 동광리 박순희 씨는 '줄대'라고 하였고, 사계리 이영수 씨(1933년생)은 '쉐줄'이라고 하였다. 〈사진 6〉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소를 키울 때 사용했던 '줄대'다. 〈사진 7〉은 사계리 이영수 씨가 소를 키울 때 사용했던 '쉐줄'이다. 〈사진 8〉은 화순리 양춘자 씨(1928년생)가 창고로 쓰고 있는 '쉐막'에 걸려 있는 '줄대'다. '줄대'를 제주시 구좌읍 지역에서는 '쉐줄레'라고 하였다.


〈사진 8〉 양춘자 씨 소장 '줄대'

(5) 말톡

'말톡'은 소나 말이 일정한 자리에서 풀을 뜯을 수 있게 줄 끝에 매달아 땅에 박아 고정시키는 도구이다. 표준어 '말뚝'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말툭'은 나무로 만들어 쓰다가 쇠로 만들었다.

〈사진 9〉는 사계리 이영수 씨가 소를 키울 때 사용했던 '쒜말톡'이다. '말톡' 크기가 다른 것으로 보면, 소의 힘에 따라 '말톡'의 굵기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 '말톡'들은 이 씨가 소를 키울 때 '불밋간(대장간)'에 가서 만들어 온 것이다. 이 씨는 '쒜(쇠)'로 만든 '말톡'이라고 해서 '쒜말톡'이라고 불렀다.


〈사진 9〉 이영수 씨 소장 '쒜말톡'

"쒜말톡은 막 오래서. 나 젊은 때부터 소를 키왔으니까. 들판이 가서 이렇게 줄을 헤가지고 쒜말톡 박아가지고 소를 메 두고 오거든. 경 헤서 혼 낮전 내불엇다가 가서 물 멕이고 또 따른 더

레 고쪄 메고. 그렇게 헤서 소를 키왓지. 소 큰 놈은 힘이 쎄거든. 힘이 쎄니까 둔둔히 힘이 쎈 놈으로 허고. 족은 송아지 같은 거는 작은 걸로 허고. 옛날에 불미칩이 만허여낫어. 혼두 밧디 뒈낫어. 각처에 불미 다 헷지. 호미 골겡이 다 불미에 가서 만들고. 쒜말톡도 불미칩의 가서 나가 만들어 온 거."[172]

(쇠말뚝은 매우 오랬어. 나 젊은 때부터 소를 키웠으니까. 들판에 가서 이렇게 줄을 해 가지고 쇠말뚝 박아가지고 소를 매어 두고 오거든. 그렇게 해서 한 낮동안 내버렸다가 가서 물 먹이고 또 다른 데로 고쳐 매고. 그렇게 해서 소를 키웠지. 소 큰 놈은 힘이 세거든. 힘이 세니까 단단히 힘이 센 놈으로 하고. 작은 송아지 같은 것은 작은 걸로 하고. 옛날에 대장간이 많았었어. 한두 군데 되었었어. 각처에 풀부 다 했지. 낫 호미 다 풀무에 가서 만들고. 쇠말뚝도 대장간에 가서 내가 만들어 온 거.)

6.2. 호미와 신돌

(1) 호미

'호미'는 곡식이나 꼴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낫'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10〉은 동광리 박순희 씨가 사용했던 '호미'다. 〈사진 11〉은 창천리 진희선(1931년생)가 사용했던 '호미'다.



〈사진 10〉 박순희 씨 소장 '호미'



〈사진 11〉 진희선 씨 소장 '호미'

172) 사계리 이영수 씨 구술.

(2) 신돌

'신돌'은 표준어 '숫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낫'이나 칼 등을 벼릴 때 사용하는 도구다. 〈사진 12〉는 덕수리 양기옥 씨(1938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신돌'이다. 철사 등을 이용하여 받침을 만들어 '신돌'을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사진 13〉은 창천리 진희선 씨 집에서 사용했던 '신돌'이다. 신돌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사진 14〉는 사계리 정춘자 씨 집에서 사용했던 '신돌'이다. 〈사진 15〉는 창천리 고원매 씨(1944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신돌'이다.


〈사진 12〉 양기옥 씨 소장 '신돌'


〈사진 13〉 진희선 씨 소장 '신돌'


〈사진 14〉 정춘자 씨 소장 '신돌'


〈사진 15〉 고원매 씨 소장 '신돌'

(3) 진독글겡이

'진독글겡이'는 소나 말에 붙어 있는 진드기를 긁어 낼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글겅이'에 대응하는 말이다. 주로 '진독(진드기)'을 긁어낼 때 사용하는 글겅이어서 '진

독글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진 16〉은 동광리 박순희 씨 집에서 소를 키울 때 사용했던 '글겡이'다.


〈사진 16〉 박순희 씨 소장 '진독글겡이'

"글겡이. 진독글겡이. 여름 내내 쉐 긁어주지. 긁어주민 쉐가 다 따라와. 어질엉 자기 긁어주렌. 진독도 잇주만은 저건 필수로 들렁 뎅기멍 쉐 긁어주는 거. 천구백구십칠년까진 쉐 질룰 때난 썬."[173]

(글겅이. 진드기글겅이. 여름 내내 소 긁어주지. 긁어주면 소가 다 따라와. 어질어서 자기 긁어주라고. 진드기도 있지만 저것은 필수로 들어서 다니면서 소 긁어주는 거. 천구백구십칠년까지는 소 키울 때니까 썼어.)

위 구술에서와 같이 '글겡이'는 진드기를 떼어낼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털 따위를 빗겨주면 소가 어질다고 한다. 소를 키울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였다.

173) 동광리 박애자 씨 구술.

Ⅱ 조사 내용

7. 신당

안덕면 지역을 포함해서 제주도 서부지역 신당들은 1899년 페네 신부가 제주도 서쪽에 천주교를 전래하면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펼치며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덕수리, 창천리, 대평리, 동광리의 경우, 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70대에서 80대의 여성들로, 젊은 세대의 여성들은 믿지 않고 있다. 화순리, 사계리 주민들의 경우는 2004·5년도에 마을회의에서 당에 안 다니기로 결의해 신당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도 있다. 덕수리의 경우는 마을포제 외에는 당을 믿는 사람이 없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7.1. 화순리

(1) 원당밧일뤠당

원당밧일뤠당은 화순리 본향당이다. 당신은 '원당밧 일뤠중저'로 예래본향당신의 셋째딸, 혹은 중문 불목당신의 둘째딸이라고 한다. 이 신은 마을의 생산·물고·호적·장적 등을 관리하는 본향신이다. 또한 당신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산육과 치병의 기능을 함께 담당한다.

원당밧일뤠당은 화순리 '웨팡돌' 지경 910번지의 과수원 안에 있다. 당은 돌담을



둘렀고, 제단은 자연석을 쌓은 뒤에 시멘트로 마무리하였다. 제단 위에는 궤가 있다. 나무 두 그루에 지전·물색·명실 등이 걸려 있다.

제일은 매달 7·17·27일이다. 본래는 정월, 5월, 10월의 17일을 주요 제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에 갈 때는 메 4그릇과 지전, 물색, 명실 등을 준비한다. 쇠고기는 제물로 쓰지 못한다. 그 까닭이 특이하다. 본풀이에 따르면 당신이 소에 채인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이 특이하다고 하는 이유는 대개 특정한 음식을 금기하는 경우 그것은 돼지고기 혹은 네발짐승의 고기이고, 그 까닭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사이기 때문이다.

7.2. 사계리

(1) 청밧할망당

청밧할망당은 사계초등학교에서 동쪽으로 100여 m 떨어진 도로변 밭 한쪽에 있다. 이 일대를 '청밧'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당을 청밧일뤠당, 그 신을 청밧할망, 청밧일뤠할망이라 한다. 흔히 할망당이라고 한다. 매달 7일, 17일, 27일에 다니는 당이기에 일뤠당이라 한다. 과거에는 매월 초 7일에 주로 다녔다. 요즘은 정월 17일에 많이 다니고, 이때 다니지 못한 이는 3월 17일에 다닌다. 옛날에는 매달 3일에 더러 다녔는데, 요즘은 정월 13일에 다니는 이가 간혹 있다. 이로 보아 본래는 일뤠당이 아니라 삼칠일당임을 알 수 있다.

예덕나무, 멀구슬나무 등이 몇 그루 있어 그늘을 이룬다. 그 앞에 시멘트로 나지막



한 제단을 만들고, 주위에 잡석을 에워 둘러 제장을 마련하였다. 나무에 지전과 물색, 명실 등을 걸어둔다.

당에 갈 때는 상단에 사발메 1그릇, 보시메 2그릇을 올리고, 요왕메와 손메를 사발메로 1그릇씩 따로 올린다. 상단에 바치는 사발메는 청밧할망 몫, 요왕메는 요왕신 몫, 손메는 마마신 또는 '객신'('올랫귀신', '[illegible]살이')의 몫이다. 돼지고기는 금기한다.

(2) 광정당

산방산 서북쪽 신맞이동산 지경에는 광정당이 있었는데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하마하지 않으면 말이 다리를 절어 구부러졌다고 한다. 이형상 목사가 순행(巡幸)을 하며 이곳에 이르자 수행하던 아전들이 말에서 내릴 것을 여쭈었다. 그러나 이 목사는 말에서 내리지 않았는데 과연 말이 다리를 절었다. 목사는 몸소 당에 이르러 무당을 시켜 말을 죽이고 제사를 지냈더니 뱀이 나타나 독을 뿜었다. 목사는 기졸에게 명해 뱀을 베고 당은 태워 헐어 버렸다.

영조 14년(1738)에 어사가 들어왔을 때 무당들이 연년으로 흉년이 들고 비바람이 고르지 못한 것은 영신(靈神)에 대한 제향을 폐지한 데 말미암은 것이라고 읍소하자 소장을 올려 재건했으나 뒤에 다시 철폐됐다.[174]

174)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2008), 『제주여성문화유적』, 도서출판 각, 522쪽 참조.

7.3. 덕수리

(1) 도욕남밧축일당

도욕남밧축일당은 마을 중심에서 북쪽으로 1.5km 지점, 도련동 '뱀동산' 지경에 있다. '뱀동산'은 감귤원 사이에 남아있는 자그마한 돌무더기 동산이다. 나무와 잡풀이 얽혀 있어 이 일대가 본래는 '자왈'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을 달리 '[illegible]르못당'이라고도 한다.

제단은 일부러 다듬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표면이 비교적 매끈한 바윗돌로 마련하였다. 제단 뒤쪽에 있는 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있다. 신목에는 지전·물색이 걸려 있다.

이곳에서 모시는 당신은 '축일한집'이다. 제일은 매 축일이다. 제물로는 메 5그릇을 올린다. 상메 1그릇, 중메 4그릇이다. 이 당에는 덕수리 서동 사람 일부와 동동 사람들이 다닌다고 한다.



이 당은 축일당이라는 점에서 안덕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축일당은 술일당과 함께 제주도 서부지역, 특히 한림읍, 한경면, 애월읍 등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축일당을 찾기 어렵다. 안덕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욕남밧축일당은 그 분포상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셈이다. 곽지축일당에서 가지 갈라 온 것이라고 하는 점도 주목되는 바이다. 가까운 곳인 한경면, 한림읍 지역에서 가지 갈라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 지역에서 가지 갈라왔다는 점 때문이다.

7.4. 동광리

(1) 볼레낭ᄃᆞ르할망당



동광리에는 볼레낭ᄃᆞ르할망당 한 곳이 있다. 볼레낭ᄃᆞ르할망당은 동광5거리 남쪽 300m 지점에 있다. 이 당은 동광리 본향당이면서 '일뤠중저'를 모시는 일뤠당이다. 당신은 호근이ᄆᆞ르 정좌수 따님아기로 산육·치병신이다. 매달 7, 17, 27일에 당에 가며, 제물로는 메 2그릇을 올린다.

당이 있는 곳은 마을 북동쪽 숲속에 있다. 숲 동쪽과 남쪽은 밭이고 북쪽은 나지막한 언덕이다. 서쪽으로는 바로 옆에 인가가 있다. 제단은 자연석을 쌓고 난 뒤에 시멘트를 발라 마무리하였다. 그 위에는 비문이 놓여 있다. '건곤동양씨 위하던 ○○○○○조상님 동광정씨 본향으로 청내합니다. 乙巳四月二十日 李壬生 근입' 이라 쓰여 있다. 몇 글자는 마모되어 판독하기 어렵다. "건곤동 양씨(가) 위하던 (마모) 조상님, 동광 정씨본향으로 청합니다."로 읽을 수 있다. 건곤동은 서광리의 한 동네 이름이다. 볼래낭ᄃᆞ르할망당은 서광리 건곤동의 양씨들이 위하던 곳인데 동광리 정씨 집안 사람들이 가지 갈라다 모시기 시작하였던 셈이다.

7.5. 창천리

(1) 닥밧일뤠당

닥밧일뤠당은 초등학교 남쪽 창곳내(창고천)에 있다. 감산리 도고새미일뤠당에서 가지 갈라 설립한 당이다. 이곳에 모신 당신은 '닥밧일뤠중저' 혹은 '그정또 닥밧 할망'이라고 한다. '닥밧'은 당이 있는 곳 일대의 지명이다. '그정또'는 낭떠러지를 의미하는 '그정'에 신을 의미하는 '도'가 덧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닥밧일뤠중저는 전형적인 산육·치병신이다. 또한 마을 본향당신의 기능을 겸하여 창천리 사람들의 생산·물고·호적·장적 등을 관리한다.



닥밧일뤠당은 냇가 낭떠러지 아래 바위를 의지하여 당을 마련하였다. 바위를 있는 그대로 제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따로 제단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당에는 보통 매 7일에 다닌다. 그러나 마을 단위로 제의를 행할 때는 정월 17일, 5월 17일, 8월 17일을 제일로 삼는다. 개별 제물로는 메 3그릇을 준비한다.

"창천리 신은 착해서 안 믿어도 된다."는 말이 뱀신을 모셨던 토산리와 연관돼 전한다. 이 말은 토산리의 경우 딸이 시집갈 때 뱀신을 딸려 보낸 것과 달리 이곳 여성은 다른 마을로 시집갈 때 본래 모시던 뱀신을 모시지 않더라도 신이 노하거나 해코지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한다.

7.6. 대평리

(1) 난드르일뤠당



대평리에는 난드르일뤠당 하나가 있다. 이처럼 마을에 일뤠당 하나뿐인 것은 대평리가 독립적인 마을로 성장한 지가 오래지 않은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난드르일뤠당은 안덕청소년수련원(옛 대평초등학교) 북쪽 500m 지점의 언덕에 있다. 이 신은 본향신, 생업수호신, 치병신의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당에는 '볼래낭'(보리수나무)이 우거져 있다. 주위에는 돌담을 장방형으로 둘렀다. 제단은 돌을 쌓은 뒤에 시멘트를 발라 마련하였다.

제단 위에는 궤가 있는데 돌로 덮여 있다. 제의를 시작할 때는 이 궤를 열었다가 끝나면 다시 덮어둔다고 한다. 제단 우측에는 큰 팽나무가 있다. 이 나무에 지전·물색·명실 등이 걸려 있다. 당 제일은 매달 7, 17, 27일이다. 당에 갈 때는 제물로 메 3그릇을 준비한다. 이로 보아 '일뤠중저' 외에 두 신위를 추가로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드르일뤠당은 대평리 본향당임은 물론 일뤠당이면서, 선왕당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 신당이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례이다. 이곳은 아직도 많은 단골이 찾고 있다. 그런데 난드르일뤠당은 본래 지금의 대평리인 서난드르 사람들만 모시는 당이 아니었다.

난드르일뤠당은 동난드르, 서난드르 사람들이 함께 모시던 당이다. 난드르는 동난드르, 서난드로로 나뉜다. 동난드르는 서귀포시 예래동에 소속된 마을을 말하고 서난드르는 대평리를 말한다. 마을이 동서로 나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나의 생업,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행정구역상 완전히 둘로 구획된 뒤에도 이러한 사정

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바다밭 싸움으로 인한 갈등으로 생업과 신앙을 완전히 달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난드르 사람들은 마을 동쪽 망동산에 따로 당집을 지어 당을 설립하였다.[175]

175) 안덕면(2006), 『안덕면지』, 태화인쇄사, 1000~1010쪽 참조.






Ⅲ

마무리



Ⅲ 마무리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4-안덕면 편』은 제주시 서부 지역인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했던 도구와 기물 등을 현지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안덕면 지역의 12개 법정 마을 가운데 동광리 덕수리 창천리 대평리 화순리 사계리 등 6개 마을에서 29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조사는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조사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토박이 제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는 Ⅰ장 조사 개요, Ⅱ장 조사 내용, Ⅲ장 마무리로 구성되었다. 부록으로 '덕수리 주민의 삶과 도구'와 '대평리 해녀의 물질 도구'를 구술 채록, 전사하여 소개하였다. 덕수리 구술은 양기옥 씨, 대평리 물질 도구 관련 구술은 대평리 임중자 씨와 오연수 씨가 해주었다.

Ⅰ장에서는 조사 개요와 조사단, 조사 범위, 제보자, 조사 방법과 정리 방법, 조사 지역인 안덕면과 조사 마을 소개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Ⅱ장 조사 내용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관련, 어업 관련, 축산 관련, 신당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Ⅲ장은 마무리 부분으로, 조사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Ⅱ장 조사 내용은 7개 분야로 나눠 소개하였다.

첫째, 의생활 분야에서는 바느질 도구, 손질 도구, 세탁 도구, 옷감과 의복, 수의의 상복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바느질 도구 가운데는 '바농상지'와 바느질 도구인 '바농', '자', '속돌', '절레' 등을 소개하였다. '바농상지'의 경우는 가는 대오리로 결은 작은 바구니과 작은 바구니에 헝겊 등을 바른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바구니를 안덕면 지역에서는 '□는대조레기'라고 하였다. 손질 도구로는 '안반'과 '서답마께', '물마께'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된 것 가운데는 아기가 태어나면 등 가렵지 말라고 입혔던 50여 년 된 '봇뎃창옷'과 60여 년 전 전통 혼례 때 입었던 '멩지저고리'와 '뉴똥치마'와 '내수저고리와 내수치마' 등이 있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입는 '여자 수의' 일체를 조사할 수 있었다. 무명을 날 때 사용했던 '순비기나무'로 만든 '미녕 메는 솔'을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둘째, 식생활 분야에서는 그릇과 조리 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사 관련 도구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그릇의 경우는 밥사발과 국사발, 종지와 접시류가 조사되었고, '놋우금'과 '놋숟가락', 죽젓광이인 '베술기'도 조사되었다. '베술기'의 경우는 나무로 길게 해서 만드는데, 이 도구는 이사를 가거나 물리지 않는다는 문화적인 특징도 함께 기술하였다.

'통개'와 '망데기', '추니', '조막단지', '독사발', '대베기'와 '허벅' 등 항아리 류와 '지세시리', '옹기 화로' 등도 조사되었는데, 이는 인근 대정읍 지역이 옹기 생산 지역이라는 특징을 반영한 결과이다.

식생활 도구 가운데는 특히 대나무 그릇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차롱'과 '구덕'이 대표적인데, '차롱'의 경우는 '밥차롱', '궤기차롱', '지물고량', '도슬기'가 조사되었다. '도슬기'는 대오리로 결은 도시락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밥차반지', '동고량' 등으로 불리는 대그릇이다. '구덕'은 '질구덕', '□대구덕', '□는대조레기', '□키구덕' 등 다양한 이름이 조사되었다. '□는대구덕'의 경우는 이웃에 잔치 등 먹을 일이 있을 때 가져가는 대바구니로, 제보자에 따라서는 당에 다닐 때만 사용하는 '구덕'을 따로 장만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제사 관련 도구로는 놋으로 만든 제기 일체와 제기를 보관하는 궤도 조사되었다. 나무로 만든 향합, 문자도 병풍, 서귀포시 예래동에서 만든 '왕골초석'도 제시하였다.

셋째, 주생활 분야에서는 가재도구, 난방도구, 연장류, 집줄 관련 도구, 불미 공예 관련, 기타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가재도구의 경우는 '궤'와 재봉틀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궤'도 굴무기와 멀구슬나무, 오동나무, 나왕 등 재료가 다양하였고, 재봉틀도 발재봉틀과 손재봉틀이 골고루 조사되었다. 가재도구 가운데는 특히 혼례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예장과 예단 등을 담아서 보는 '함'이 조사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연장 류의 경우는 도끼, 메, 자귀, 망치류, 끌, 대패, 톱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집줄 관련 도구로는 '줄호렝이'가 조사되었는데, 이 '줄호렝이'는 발이 달려 있었다. 2015년 구좌읍 지역에서 조사된 '호렝이'가 손에 들고 줄을 꼬는 것과는 달리 안덕면 지역에서 조사된 '줄호렝이'는 다리가 달려 있어서 땅에 대고 사용한다. 지역에 따라서 도구의 모양과 이름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생활 관련 분야에서는 '불미 공예' 관련 도구를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조사 지역의 하나인 안덕면 덕수리는 제주도무형문화재 제7호 '불미 공예'가 전수되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무쇠를 녹여서 솥과 보습과 벼 등을 만들었던 주산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불미'에서 보습을 만드는 과정과 그 속에서 파생된 '불미 관련' 어휘, '보섭뎅이', '알', '둑', '솟바슴', '비알', '오시'와 '오시똘레', '무도리', '마물찍' 등 관련 도구를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넷째, 농업 관련 도구는 파종 관련, 김매기와 수확 관련, 건조와 손질 관련, 운반 도구, 계량 도구, 저장 도구로 나눠 정리하였다.

파종 관련 도구로는 '잠대'와 '멍에', '보섭', '벳'과 '중경벳', '못괭이' 등, 김매기와 수확 관련 도구로는 '골겡이'와 '호미', '마농 끄치는 호미'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타작 도구로는 '도께'와 '보리클', '메탁기' 등도 소개하였다. 이 밖에도 '멍석'과 '체', '얼멩이', '푸는체', '[illegible]레'와 '풀[illegible]레' 등 다양한 손질 도구와 저장 도구로 사용하는 큰 항아리인 '통개'와 '도로무깡(드럼통)'도 조사되었다. 또 '걸렝이', '쉐앗베', '용돗베' 등 다양한 바 종류도 조사되었다.

다섯째, 어업 관련 도구는 잠녀들의 물질 도구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무명천에 검정 물감을 들여서 만든 물옷인 '속곳'과 '고무옷'과 물질도구인 '테왁'과 '망시리', '거냇', '비창', '소살' 등의 채취 도구도 조사되었다. '테왁'과 '망시리'의 부분 명칭과 작은

망사리인 '홍사리'도 새롭게 보고하였다.

여섯째, 축산 관련 도구는 고삐류를 다양하게 조사하였다. 말의 고삐인 '녹대'와 '쉐석', '물석', '줄대', '말톡'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일곱째, 6개 조사 마을 주민들의 생활과 물고, 치병 등을 관장했던 신당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한편 이 조사보고서에는 도구와 관련한 생생한 구술 자료와 532장의 사진 자료도 수록되었다. 이 구술 자료와 사진 자료는 도구를 사용했던 안덕면 지역의 사람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도구에 얽힌 생생한 이야기, 도구의 인생사, 그리고 사라져 가는 생활 도구와 관련한 제주어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 준다.

〈참고문헌〉

강정희·김순자(2008),『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Ⅰ-구덕과 차롱』,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고광민(2000),『한국의 바구니』, 제주대학교출판부.

고광민(2004),『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국립국어원(1999),『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표준국어사전』 웹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

김순자(2009),『해녀 어부 민속주-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글누림.

김순자(2014),『제주도방언의 어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남제주군(2006),『남제주군지』.

안덕면(2006),『안덕면지』, 태화인쇄사.

제주특별자치도·국립민속박물관(2007), 제주민속조사보고서 1『덕수리 민속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3),『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Ⅰ-애월읍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4),『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Ⅱ-조천읍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5),『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Ⅲ-구좌읍편』.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2008),『제주여성문화유적』, 도서출판 각.

현평효 외(2009),『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현평효·강영봉(2014),『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 도서출판 각.

부 록



✻ 덕수리 주민의 삶과 도구

조사 김순자
전사 김보향
구술 양기옥

김순자 삼춘 일름이 어떵 뒈마씨?
양기옥 양기옥.
김순자 아까 멧 년생마씨?
양기옥 삼사년생.
김순자 여기 주소가 어떵 뒈마씨?
양기옥 주소가 이천이백칠십구번집니다.
김순자 덕수리예?
양기옥 예.
김순자 예, 알앗수다. 게믄예 오늘 제가 물어볼 거는 뭐냐 허면 옛날 살아오면서 사용했던 도구라예. 게니까 우리 집에서 밥 헐 때 사용했던 도구들은 어떤 게 잇어신고예?
양기옥 밥 허는 도구덜은 옛날에 저 불미에서 녹여근에, 덕수서 녹여근에게 그 저 쉣물 녹여근에 저 만든 솟으로 밥 헤 먹엇수다게. 거 까만 솟.
김순자 예.
양기옥 까만 솟으로 밥 헹 먹엇수다.
김순자 게난 그 솟은 허면은 멧 개를 앚졍 밥을 허는 거우과?
양기옥 솟?
김순자 예.

양기옥 솟은 가정마다 틀려마씨.

김순자 게난 삼춘네 집안에서는?

양기옥 우리 집안에는 솟은 커야 뒈마씨.

김순자 예.

양기옥 이 저 두말떼기로부터 허영 두말떼기.

김순자 예.

양기옥 또 저 혼, 혼 말 드는 거. 두말 드는 건 두말, 두말떼기 혼 말 드는 거 그 저 혼 말떼기엔 허는디.

김순자 예.

양기옥 그거에 다음은 다테기.

김순자 예.

양기옥 다음은 저 서, 서, 서테기. 소테기. 소테긴가 서테긴가.

김순자 서도테기.

양기옥 서, 서, 서도테기.

김순자 예. 서도테기 다음엔?

양기옥 다음에 웅조리.

김순자 웅조리. 게믄 다섯 개를 앉지는 거다예?

양기옥 예, 다섯 개 앉져마씨.

김순자 두말떼기는 두 말 들어가는 거, 쏠이?

양기옥 예.

김순자 말치솟은?

양기옥 말치는 혼 말.

김순자 그 다음에 닷뒈?

양기옥 닷뒈 드는 건 저 다도테기.

김순자 다토테기. 거는 뭘로 닷뒈 드는 것과?

양기옥 건 그냥 이디 그 뒈박 쓸어근에 허는 걸로 그걸로 두 개, 두 개 들어가는 거.

김순자 서도테기는?

양기옥 서도테기는 쪼그만 헌 거우다게.

김순자 게난 그거는 뭘로 세 개 들어가는 것과?

양기옥 그거, 그거는 대승 하나 안 들주.

김순자 안 들어예?

양기옥 대승 하나 안 들어. 너무 적어노난.

김순자 너무 적은 거라예. 그 다음에 그 옹조리는 어느 정도?

양기옥 옹, 옹조리는 조그만, 조그만 헤마씨. 조고만.

김순자 예, 혼자 허는 거난예. 이거는 밥 헐 때 쓰는 솟이라예.

양기옥 예.

김순자 그 다음 밥을 거령근에 먹젠 허믄 뭐가 필요헤마씨?

양기옥 밥 거령 먹젠 허민 그 저 놋오금 옛날이야.

김순자 예, 놋오금.

양기옥 놋오금 거령 먹엇수다게. 그걸로 헹 낭푼이레 퍼 놩 먹어.

김순자 예.

양기옥 낭푼에 퍼 놔근에 혼 멧 사름 식구가 멧 사름 허민 세 사름도 먹고 네 사름도 먹고. 이만이 헌 낭푼에 퍼다근에 경헨 먹엇수다.

김순자 숟갈은 어떤 숟갈을 써신고예?

양기옥 숟갈은 옛날 숟갈, 이제 그 스덴이 아니고.

김순자 예.

양기옥 숟갈 어디 저 농장에 가져단 버려진 거 닮수다.

김순자 놋숟갈?

양기옥 놋숟갈이민 안 버리주. 놋숟갈이 아니고 그냥 숟갈. 그냥 저 쒜, 쒜. 쒠디 거 히여뜩, 히여뜩 허긴 헤마씨. 검진 안 허여.

김순자 음.

양기옥 게난 그 농장에 아져단 다 버려진 거 닮수다. 풀아 불지도 안 허영 그냥.

김순자 예.

양기옥 어디 놔 둬진 거 닮은게마씨.

김순자 그런 식으로 허고 그 낭으로 뒌 그릇덜은 안 써 봅디가 삼춘네는?

양기옥 무사 아니과게. 함박이엔 헌 거. 함박이엔 헌 거 그거. 옛날, 옛날은 남방에도

저 무시거, 남방에도 시콜방에엔 헌, 사름 헌 건 세 개, 세 사름이 지는 거.

김순자 예.

양기옥 거 알아지쿠과?

김순자 예, 시콜방에.

양기옥 세 사름, 네 사름은 ᄒᆞ꼼 복잡헤마씨. 세 사름이 좋아. 헤도 세 사름은 서툰 사름은 안 뒈마씨.

김순자 예.

양기옥 익숙어야. 게난에 그거 허여근에 남방에에 보리, 섯보리. 먹다 보면은 쏠이 떨어지면은 그 보리 퍼렁헌 보리 비여다근에 솖아근에양, 솖아근에 남방에 져근에 거 솟디 밥 헹 먹고 헷수다. 옛날에게.

김순자 게난 아까 그 남박은 낭푼이 닮은 거마씨?

양기옥 남박, 남박은 니귀방작헙니다 영 니귀방작헌 것에 옛날에 밥. 그것에 맛은 좁니다. 그것도. 막 두더우니까예.

김순자 예.

양기옥 두더, 두더와.

김순자 예.

양기옥 그거, 그것에 허고 나중에라 가난 그 ᄆᆞ멀사발이엔 헌 거.

김순자 예, 예. ᄆᆞ멀사발.

양기옥 그 ᄆᆞ멀사발이엔 헌 거 나중에 그거 나왓수다게. 그거 나완에 그거 쓰단에 그것이 아주 옛날 사발입주 그 ᄆᆞ멀사발이.

김순자 예.

양기옥 그 막 궂인 거 그 저 ᄑᆞ리똥 불라진 거추룩 헌 거.

김순자 예.

양기옥 그거.

김순자 예, 예. 게믄 ᄆᆞ멀사발로는 뭘, 뭐 뭐 쓴 거라마씨, 그거 ᄆᆞ멀사발은?

양기옥 그거에 국도 거리고 또시 저 무시거 또 죽도 쑤민 그것에 거령 먹고. 그것에 썻수다. 주로 그거.

김순자 주로 그거예.

양기옥 주로 그거 옛날은. 그것이 젤 ᄆᆞ녀 나왓수다.

김순자 겐 ᄆᆞ멀사발 다음에는 무신 거가 나온 것과?

양기옥 ᄆᆞ멀사발 다음은 통사발.

김순자 예.

양기옥 통사발, 통사발 건 중간입주. 거 보리밥 헤근에 보리밥 헹 이 저 무시거 옛날엔 무시거 제썰 받아근에, 보리썰 제썰 받아근에 그거에 저 풋이나 서껑, 풋이나 궤와근에 풋 막 서꺼놔근에, 서꺼놔근에 또 그거를 또 망텡이에 몬딱 담아마씨 문딱 서껑. 담아근에 또 가메에 밥 허는 거라마씨.

김순자 예.

양기옥 밥 허는 사름 빌어단.

김순자 음.

양기옥 빌어단, 밥 허는 사름 빌어단 밤이 밥 허여근에 따시 그 망텡이, 이만 헌 망텡이에 담아근에. 거 이제 거트민 먹읍니까? 그거 다 그거 저 터럭 부뜨고 저 그 나룩찍으로 졸은 망텡이 그것에 밥을 허민양 데작데작 그 옆이 부튼 거 그거 내쳥 먹엇수게. 내쳐근에 거 어떵사 헤져신디 몰르쿠다 경 내치멍 경허난.

김순자 예, 그런 식으로 사발헹 허고 그 다음에 그 사발 말아근에 그 장을 담젠 허거나 그 물을 허거나 허민 뭐가 필요헤마씨?

양기옥 장 담젠 허민?

김순자 으, 그릇이?

양기옥 그릇은 무슨 남방에에 뿟아낫수다. 그 저 무시거 그 가메, 가메가 잇어마씨.

김순자 예, 예.

양기옥 큰 가메. 서말, 서말썩. 콩 서말씩 놔근에 가메에 솖앙. 솖아근에 남방에에 뿟아낫수다.

김순자 예. 겐 장을 담젠 허믄?

양기옥 장을 담젠 허믄 그 저 메주를 만들앙 그거를 뿟아근에 메주를 만들아근에 틔와마씨, 틔와. 저 어디, 어디 놔근에 그 나룩찍 혼 칭 영 놓고 따시 우터레 또 그 누룩을, 저 그 장, 장게미, 장게미 영 놔근에 또시 혼 칭 놓고 헤근에 그걸 틔와근에 계속 몰려사마씨.

김순자 예.

양기옥 바싹 물려근에 또 그거를 또 물른 다음에 섣덜 나민 또 씻어. 막 저 곰펭이영 씻어더근에 소금물 허영 놔뒀다근에 어느날 저 영 봐근에 저 헤치도 봐근에 집이 이제 저, 둑날 ᄀᆞ튼 날이 좋읍니다게. 둑날은 베렝이 안 인덴 허여나신디.

김순자 아, 둑날은 베렝이 먹으니까?

양기옥 예, 베렝일 먹으난 둑날 ᄀᆞ튼 날 그거 저 장 담으라고 추워도, 추워도 그거 저 큰 통에다가 놔근에 소금물 골아 논 거 문딱 그레 비와.

김순자 예.

양기옥 그거 비와근에 그거 이빠이 채와근에 큰 통에라도 이빠이 채와사 옛날은. 그 주로 장을 먹엇수게 옛날은. 거 무시거 뭐 반찬이 잇엇수과게. 반찬 엇으난 저 장 먹고 그 옛날 반추양.

김순자 예.

양기옥 반추 알아지지양. 그거 헤여근에, 그거 헤여근에 장에 장에 놔근에 먹어낫수다. 짠짠헤영 지금은 먹지도 못 헤마씨 짜근에. 경허여근에 저 먹어낫수다. 또 몸.

김순자 예.

양기옥 몸 따시 영 영 요만씩 헹 몸도 끌영 몸도 놧다근에 건져근에 반찬으로 먹고. 경헤난 기억이 잇어마씨.

김순자 예, 게난 그 통개가 보면 종류덜이 막 ᄋᆞ라개 이시지 안 헙니까?

양기옥 예, 예.

김순자 그 이름덜이 어떻게?

양기옥 일름은 엿날 통개엔. 이제 이제야 거 이제야 신식 통개덜 낫주만은 엿날 통개에 그 큰 통개 저기 잇수다게.

김순자 예.

양기옥 저디 거 찍엇지예, 요번이 완?

김순자 예, 찍언 찍언.

양기옥 막 큰 거 말고 막 큰 거는 물.

김순자 아.

양기옥 물 열두 개썩 이렇게 부엌에 쭉허게 놔근에 옛날엔 물이 그렇게 어루난 이 비

ᄒᆞ쏠 오민 그 물통에 물 질어당 걸 쫙허에 다 ᄀᆞ득여야 헤마씨.

김순자 게난 삼춘네는 물 통개를 열두 개나 낳?

양기옥 예. 검은 항아리 물이 젤 좋덴 헙니다. 검은 항아리가 저 물이 씩씩허덴 헨 경 헤마씨. 경헨 검은 항아리 저 우이로 내려온 항아리 하나 놓고 다음엔 그 검은 통 쭉허게 놔근에 그거에 물 문딱 질어당 놔. 식게 멩질이 하노난양.

김순자 예, 예.

양기옥 식게 멩질이 하노난 그거 써근에 질어당 ᄀᆞ득이고 ᄀᆞ득이고 허면은 아래 아젱인 얼마나 할 것과예?

김순자 예.

양기옥 옛날에 그 더러운 물 질어다근에. 게난 엿날에 더러운 물입주게 옛날은. 그 둑똥 막 부뜬 디 그 발에 부뜬 거영 다 물에 다 ᄂᆞ려가근에 그것도 ᄒᆞ쏠 약 뒈여, 약 뒌 거 닮아마씨.

김순자 맞아, 하하, 그추룩.

양기옥 아이고양 더럽게 먹엇수다게 더럽게.

김순자 예.

양기옥 경헌디양 이 덕순양 나는 물이 엇어노난 물은 골루민 그 물이양 쉬가 퍼렁헤 쉬가. 쉬가 많으난. 쉬가 많으난 도저히 그 항더레 비우지 못허난 어떵헨 저 가제산디 무시거 허연에 항아리에 부리 영 싸근에 영 ᄒᆞ쏠 ᄂᆞ려가게 헤근에 그거 바와근에 그레 그 항아리 부리 싸근에 ᄒᆞ쏠 영 ᄂᆞ려가지 안 허민 물이 베꼇더레 새어불어마씨. 게난 그거 싼에 비와낫수다. 게난 쉬 문딱 걸르멍, 걸렁 비우멍 먹어낫수다게. 게난 잘도 추접허게 살앗수다게.

김순자 그추룩 허멍 이제 통개 허고 그 통개 말앙 족은 건 뭐렌 헤마씨. 그 장 담그는 것덜은?

양기옥 건, 엿날은 큰 통개에만 담앗수다.

김순자 으, 족은, 김치나 뭐 젓갈 같은 거 담젠 허민?

양기옥 김치, 젓갈은게 망데기 ᄀᆞ튼 거.

김순자 예.

양기옥 이 저, 무시거 저 망데기게, 망데기. 족은 망데기 또 이제 저 젓갈 담는 건 무시

거. 거 뭣고 젓갈 담는 거. 젓갈 담는 것도 저디 신디. 저 족은 것덜.

김순자 예.

양기옥 젓갈은 ᄒᆞ꼼씩 헌 거에 담주, 큰 거에 담지 안 허영.

김순자 겐 그런 거에 저 조막단지 그런 것덜?

양기옥 아, 조막단지 맞아, 조막단지. 저 무신 거 젓갈은 그런 거에 담고마씨.

김순자 음. 통개 더끄젠 허면 뭘로 더껏수과? 두껑덜은?

양기옥 그, 저 무시거 장테. 엿날은 장테. 장테 검은 장테 이만씩 헌 거. 이만씩 헌 거 헤다근에. 저 하나, 하나 저디 신가? 어디 실 거라.

김순자 나중에 한 번 봐 보쿠다. 게난 그 장테가 다 ᄐᆞ나잖아예?

양기옥 예, 예.

김순자 항에 맞췅.

양기옥 항아리에 맞추젠 허민. 게난 엿날이사 거 삶이과? 부엌도 이 흑 부엌에 그 아이고, 신 신은 발로 갓다 왓다 허고.

김순자 하하.

양기옥 에이구 옛날은 잘도 더럽게 살앗수다게.

김순자 그 물 질젠 허난 무신 거로 질은 거라마씨?

양기옥 콜락박세기, 콜락박세기.

김순자 예.

양기옥 옛날은 콜락을 막 나낫수다게.

김순자 예.

양기옥 콜락박세기로 강 물을 질젠 허민게 이 촌에 비 오랑 허민 콜락박세기로 짇주 뭐로 질읍니까?

김순자 예.

양기옥 건 콜락박세기.

김순자 겐 뭐에 질엉 가져오는 거?

양기옥 허벅.

김순자 예, 허벅예.

양기옥 허벅.

김순자 그 허벅은 어느 정도 들어마씨?

양기옥 허벅 열 뒈마씨. 열 뒈.

김순자 예.

양기옥 큰 허벅은 열두 뒈. 큰 거, 족은 거 십디다.

김순자 예.

양기옥 큰 허벅은 열두 뒈 또 저 어린 아이덜 ᄒᆞ꼼 어릴 때 짇는 건 대베기.

김순자 예. 그러면은 대베기에는 어느 정도 들어?

양기옥 대베기민 대베긴 ᄒᆞᆫ, ᄒᆞᆫ 다섯 뒈 아이 들주. ᄒᆞᆫ 넉 뒈나 들카.

김순자 음.

양기옥 두벵들이도 져낫수다 우리.

김순자 예, 두벵들이. 건 두 병 들어가난 두벵들이.

양기옥 두벵들이도 져낫수다 어린 때에.

김순자 게난 물을 이제 허게 뒈민 거는 뭐에 졍 온 거마씨?

양기옥 물구덕. 물구덕 저 영 소롬허민 거 대로 다 굽 ᄋᆞ까근에 굽 조근조근 다 ᄋᆞ까근에 또 저 영 지는 것도 만들엉마씨. 만들엉 이디 ᄒᆞ꼼 졸락허게 만들엉 졋수다게.

김순자 경헨 이제 물구덕 쓰젠 허면 젓지 안 헙니까? 등. 겐 거기 무신 거 덧대야 헐 거 아니?

양기옥 그건, 그건 저 무신 거 만들앙양. 요만이 질게 헤근에 그 저 저 이거 대베기민 이디 돌아메근에게 돌아메근에 젓지 안 허게 헷수다.

김순자 그 일름은 모르쿠과? 등에 돌아메는 거.

양기옥 일름은, 일름이 잊어불언에, 잊어불언 잘 몰람수다 건.

김순자 고에기?

양기옥 아니.

김순자 아니, 건 아니고예.

양기옥 거, 거 잊어불언 거.

김순자 튼내지 걸랑 골아줍서예. 정지에 사발이영 놓는 거예?

양기옥 살레.

김순자 살레. 살레에는 주로 뭐 뭐 들어가마씨, 그릇들은?

양기옥 살레? 살레 그디 밥도 놓고 반찬도 놓고. 그릇도 그릇은 무슨 그릇이 경 셧수과게 엿날이사게. 그 저 ᄆᆞ물사발 멧 개 놓고 그 낭푼이 ᄀᆞ튼 거. 낭푼이 주로 썻수다, 낭푼이.

김순자 낭푼이예.

양기옥 낭푼이 저 뭐 음식, 밥을 펑 먹는 거난에 낭푼이 식구덜 한 딘 낭푼이에 먹고. 또 아부지 계시민 아부진 또시, 또 아부지 그릇은 따로 잇어마씨. 따로 헤영 아부지 상은 따로 찰령 드리고.

김순자 예.

양기옥 또 식구덜 그 저 우리 동서 간덜은 낭푼이에 떵 먹고 경헷수다. 아부진 따로, 따로 드려마씨.

김순자 반찬 같은 거는 뭐에 거려?

양기옥 반찬은, 반찬이 벨로우다 옛날은. 반찬은게 그 저 주로 그자 그 무시거, 반추.

김순자 으.

양기옥 반추 주로 그자 반찬, 반추 먹어진 거 닮수다.

김순자 겐 반추는 뭐에 담앙 먹엇수과?

양기옥 반추? 뒌장에 담앙.

김순자 뒌장에. 그릇은?

양기옥 그릇은 그 젭시 ᄀᆞ튼 거. 옛날 그 궂인 젭시덜 ᄆᆞ멀, ᄆᆞ멀그릇 젭시덜 그거 나옵디다게. 그거 헤근에 찢어놔근에, 손으로 찢으나 칼로 써나. 경헤영 먹엇수다. 겨고양 저 나중에라가난 그 지슬, 감저 그거, 그거 주로 반찬 허고.

김순자 음.

양기옥 그거 반찬으로 경헨 그럭저럭 살앗수다게.

김순자 이런 식으로 그 그릇들은 잇고예. 그 다음에 이제 멩질, 식게 멩질 허젠 허면 그릇들은 ᄯᅮ로 놔 둬야 허지 안 헙니까?

양기옥 ᄯᅮ로 놔 둬야주.

김순자 예, 그거는 어떤, 어떤 그릇들이 이십니까?

양기옥 옛날마씨?

김순자 예.

양기옥 아이고 옛날은 저 또로 허고 하간 거 헐 나우가 엇엇수다 옛날은.

김순자 음.

양기옥 그 그릇이 안 나왓수다. 그 식게 멩질 허는 그릇이 안 나완. 안 나오난에 그 젱반 ᄀᆞ튼 거양, 젱반 ᄀᆞ튼 거 사다근에, 그건 ᄒᆞᆫ 스무 남은 개 사당 놧당 그거 주로 쓰단에 이젠 틀리우다만은 그 그 옛날이사 또로 허고 하간 거 헤졋수과?

김순자 게믄 밥 거리젠 허믄 뭘로 거려.

양기옥 밥 거리젠 허믄?

김순자 예.

양기옥 놋오금 주로 썻수다.

김순자 놋오금으로.

양기옥 예.

김순자 밥은 뭐에 거렷수과?

양기옥 밥?

김순자 으. 메, 메.

양기옥 메?

김순자 으.

양기옥 메 저 놋그릇에마씨.

김순자 거 놋그릇예. 국?

양기옥 국도 놋그릇에.

김순자 놋그릇에 거리고. 게민 거기에 탕쉬덜은?

양기옥 채소덜마씨?

김순자 예.

양기옥 채소덜은 거리는 거 엇입디다. 그냥 젭시에, 그 보시에 그런 거에 거려.

김순자 예, 보시예?

양기옥 예. 그런 것에 놋그릇은 엇입디다.

김순자 술잔은 뭘로?

양기옥 아, 술잔은 저 놋, 놋 술잔. 놋 술잔.

김순자 아, 놋 술잔이 잇엇고예. 그 다음에 그 앞에 놋 술잔 놓고. 그 다음 그 술들 올

리는 것ᄀ라는 뭐렌 골읍니까?

양기옥 탁상.

김순자 탁상. 그 다음에 그 향 피우젠 허면은?

양기옥 향 피우젠 허면 상돌.

김순자 상돌. 상돌 허고 상 놓는 건 또 뭐우과? 상 닿는 거?

양기옥 향. 향, 향을 깨여근에.

김순자 으.

양기옥 깨여근에 그 상 닿는 게 잇어마씨. 상돌에, 상돌에 딱 맞춰 나오는 것덜이. 것덜에 담아근에 그거 저 숫불 살롱양.

김순자 예, 숫불.

양기옥 숫불 어디 살롸근에 그것더레. 이제, 이젠 그것 아이 씁니다. 안 나와, 상이 안 나왐수게.

김순자 음.

양기옥 안 나오난 센꼬로 썹수게.

김순자 요즘은 센꼬로 쓰고예, 옛날엔 막.

양기옥 옛날엔 향이 막 좋아서마씨.

김순자 예.

양기옥 향이 좋아근에 그자 혼 사흘 전이 상 깨여근에 그 거에 담앗다근에 지둘고 허민게 향기도 좋곡 허는디 이젠 거 남왐수과게, 안 나왐주. 이젠 엇어져 불언.

김순자 엇어져 불언예. 그런 식으로 허고. 옛날 식게허젠 허민 그릇덜이 어떤 것덜이? 떡 허젠 헤도 필요허고.

양기옥 도고리. 도고리. 옛날엔 도고리베끼 도고리 거튼 거 썻수다게. 도고리.

김순자 음.

양기옥 도고리에 찌고. 뭐 어디 무신 다라가 잇수과?

김순자 예.

양기옥 다라가 엇어낫주게. 도고리, 주로 도고리 썻수다.

김순자 도고리 쓰고예. 겐 만들면은 뭐에 놔?

양기옥 만들민 차롱. 저번에 차롱 그거에 놧수다.

김순자 예, 차롱허고. 게난 옛날에 삼춘 대낭으로 만든예, 대나무로 만든 그릇덜이 어떤 거 잇일 거우과? 대 가졍 만드는 거?

양기옥 대로 가졍 만드는 거?

김순자 으.

양기옥 물구덕도 대로 가졍 만들고 ᄉᆞᆼ키구덕도 대로 가졍 만들고 아기구덕도 대로 가졍 만들고. 다 대로 다 대로만 만들엇수다. 게난 대왓 엇인 사름은 사야 뒈마씨. 저 돈은 많이 주고 대왓 신 사름은 대 잘랑 가근에, 가근에 저 인건비만 주민 헤 줘낫수다. 경허영 허고 그 대로만 문딱. 대로만 썻수다게. 이제 떡 놓는 것도 다 대로.

김순자 예. 게난 떡도 그 차롱도 허고 크기에 따랑 이름이 다 ᄐᆞ나덴 허멍예?

양기옥 저 무슨 차롱 허고 도슬기.

김순자 음.

양기옥 도슬기 이 저 농장에 갈 때 밥 거령 가는 거마씨.

김순자 예. 게난 그 도슬기는 멧 명 먹을 수 잇어마씨?

양기옥 그 도슬기 그것도 큰 거, 작은 거 잇어마씨.

김순자 아.

양기옥 게난 큰 거, 큰 거민 ᄒᆞᆫ 착에 ᄒᆞᆫ 세 사름썩, ᄒᆞᆫ 착에 세 사름썩. 보리밥은 세 사름 못 먹을 거우다.

김순자 음.

양기옥 보리밥은 세 사름 못 먹어 옛날. 게난양 차롱, 차롱은 양 착 딱 거리민 그건 세 사름 먹당도, 먹읍니다. ᄋᆞ섯 사름 게난. ᄒᆞᆫ 착에, ᄒᆞᆫ 착에 세 사름썩이민 ᄋᆞ섯 사름.

김순자 게난 도슬기 그 쪼그만 헌 거는 일인용도 잇고예?

양기옥 예, 예. 일인용은 엇고마씨.

김순자 아, 일인용은 엇고.

양기옥 경 족은 건 안 봐봣수다.

김순자 아.

양기옥 족은 거 아예 줄질 안 헤마씨.

김순자 도슬기 하고예. 그 다음에 차롱도 옛날에 적차롱 그런 건 더 크지 안 헙니까?

양기옥 적차롱 우리도 두 개나 잇수다.

김순자 음.

양기옥 저번에 문딱.

김순자 찍은 거.

양기옥 적차롱.

김순자 예, 적차롱 허고 떡 놓는 건 떡차롱 허고. 그 다음에 구덕도 오라 개 잇일 거 아니?

양기옥 무사 아니과게. 서답구덕에 또시 저 ᄉᆞᆼ키구덕에 오라 가지 싯수다게.

김순자 어디 먹을 일 잇이민 들고 다니는 거?

양기옥 그건 ᄀᆞ는대구덕.

김순자 예.

양기옥 ᄀᆞ는대구덕 건 아무나 줄지도 못 허는 거.

김순자 게난 ᄀᆞ는대구덕도 쪼그만 헌 거 잇지 안 허과?

양기옥 예.

김순자 그거는 뭐렌 헤 이름은?

양기옥 그건.

김순자 뭐 조레기?

양기옥 조레기가 맞주.

김순자 음, 조레기.

양기옥 잇수다 조레기.

김순자 조그만 헌 거 겐 바농상지로도 쓰고?

양기옥 바농상지론 안 써마씨.

김순자 아, 삼춘네는 안 써보고예.

양기옥 우린 걸로 안 써.

김순자 예. 그추룩 허영 이제 허고. 그 졍 다니는 건 질구덕? 질구덕 이런 말은 안 허고?

양기옥 질구덕 무사 아니과게, 질구덕 저 점심 졍 가는 건 질구덕.

김순자 점심 졍 가는 거 질구덕.

양기옥 이 물구덕추룩 ᄒᆞ꼼 영 소롬허게 헹 그거 점심 졍 갑니다.

김순자 음.

양기옥 점심 져근에 밧디 가근에 멧 사름 먹을 거 헤근에 점심 졍 갑니다.

김순자 예. 아까 떡 만들젠 허면은 도구는 어떤 거 잇어야 뒈마씨?

양기옥 떡 만들젠 허민?

김순자 어, 밀젠 헤도. 도구리에서 반죽허고 뭐에서 밀엇수과?

양기옥 저 무시거게 저, 저. 술병.

김순자 예.

양기옥 그 저 사홉들이양.

김순자 예.

양기옥 사홉들이 술병으로 밉니다. 옛날에 미레기대로 밀어신디. 옛날에 미레기대로 밀어예.

김순자 그 밑에 놓는 거는?

양기옥 노는 거, 안반.

김순자 안반?

양기옥 예, 안반.

김순자 게난 안반에서 미레기대로 민 거구나예?

양기옥 예, 예. 엿날엔 경 허단에 말젠 그 술벵 나오난에 술벵으로 밀엇수다.

김순자 음. 겐 그 저 솔벤 만들젠 허민 필요헌 기구가 잇일 거우다.

양기옥 술벵 만들젠 허민?

김순자 솔벤?

양기옥 아, 이기 신디. 저 번에 보지 안 헙디가?

김순자 예. 그거는 이름을 뭐렌 헤?

양기옥 솔벤본이 싯고 절벤본이 싯고.

김순자 으.

양기옥 약, 약궤는 그냥 자르는 거고.

김순자 예.

양기옥 또 무시거 저 무시거 중궤는 잘르, 칼로 잘르는 거고.

김순자 음.

양기옥 경허난 절벤본 허고 솔벤본만 잇이민 떡이 다 뒈마씨.

김순자 저 무시거 지름떡?

양기옥 지름떡?

김순자 우찍허는 거?

양기옥 아, 우찍. 우찍은 손으로 만드는 거 원래.

김순자 아, 우찍은 손으로 만드는 거.

양기옥 예, 저 후라이팬에 해근에 계란, 계란은 노린자 헤여근에 그거 영 손이로 멘드는 거.

김순자 아.

양기옥 손으로 영 영 허고 이거 이거 후라이팬이민 이디서 영 영 만드는 거. 경헹 멘들앙 나옵니다.

김순자 음. 우찍은 그냥 후라이판에서 헴구나예?

양기옥 예, 예.

김순자 이 동네선 계란헤서 이렇게 올리는구나.

양기옥 손으로.

김순자 손으로. 벨떡은 안 만들아 이딘?

양기옥 벨떡?

김순자 으, 지름떡.

양기옥 지름떡?

김순자 으.

양기옥 지름떡 무사 안 헙니까게?

김순자 게민 지름떡은 어디 놓고 그?

양기옥 지름떡은 옛날사 셧수과 이제사 지름떡 헴주.

김순자 아.

양기옥 옛날은 지름떡 아이고 지름떡 어느 저르에. 지름떡이 어디 싯과? 지름떡 상상도 못허주.

김순자 게난 삼춘네는 식게 헐 때 지름떡 놓고 또 우찍도 만들어마씨? 계란 저.

양기옥 그건 아니우다게.

김순자 아.

양기옥 준떡 헐 때만 우찍 잇엉 들어가는 거. 준떡 헐 때만 절벤, 솔벤 헐 때만 우찍 들어가는 거.

김순자 음.

양기옥 그 저 다른 거, 다른 거 올려근에 헐 때 그 아무 필요도 엇은 거우다 거. 그건 바로 저 우이 허는 거, 우이 허는 거난 우이 허는 것에서 우찍이 들어가주 아무 것에나 들어가지 안 헙니다. 준떡을 헤사 우찍이 들어가마씨.

김순자 게민 그 준떡이엔 헌 거는?

양기옥 준떡은 절벤, 솔벤.

김순자 절벤, 솔벤.

양기옥 예, 네 가지.

김순자 으.

양기옥 저 절벤본이 싯고 솔벤본이 잇고 두 개, 본이 두 개 신디 따시 저 니귀방장 헌 건 저 칼로 만드는 거, 칼로 잘르는 거고 솔랑헌 것도 칼로 잘르는 거 네 가지라마씸.

김순자 음.

양기옥 준떡 허민 네 가지.

김순자 네 가지. 거 네 가지 올리고 맨 밑에는?

양기옥 맨 밑엔 침떡.

김순자 침떡 올리고예.

양기옥 겐 침떡이라도 경 아무거나 허지 안 헙니다. 침떡도 쌀 침떡이라사 준떡도 허주.

김순자 으.

양기옥 예, 경허는 거라마씨.

김순자 겐 식게 때는 경허는 거라예?

양기옥 예. 이제도 우리 경헙니다게. 저 우리 제사 돌아왐수다게.

김순자 음.

양기옥 게난 이제 어제도 장에 갓단 오고. 이제 저 육일날 제사난에 준떡 헙니다.

김순자 이제도?

양기옥 예. 집이서 허는 게 아니고 공장에 맞춰 헤 왐수게.

김순자 지금도 그 우찍도 헴수과?

양기옥 준떡 허면은.

김순자 당연히.

양기옥 당연히 우찍을 올려야마씨.

김순자 아.

양기옥 준떡 허면은 우찍 허는 거예.

김순자 예.

양기옥 계란으로.

김순자 계란으로예. 거 사진 찍어시민 좋켜. 육일날, 삼춘 육일날 식게.

양기옥 에, 오지 맙서. 하하.

김순자 아니. 식게 지난 다음에 거 ᄒᆞ나씩만 놔 둡서 거 떡.

양기옥 경헙서게.

김순자 게민 칠일, 칠일날.

양기옥 무사 준떡 이제 안 헙니까, 이제 준떡 허는 집이 싯주.

김순자 우찍.

양기옥 아, 우찍. 우찍은 계락으로 집이서 만들고.

김순자 게난 삼춘네 약궤랑 그거 다 중궤, 약궤 다 허는 거?

양기옥 예, 중궤도 손으로, 칼로 잘랑 다 허는 거고 약궤도 칼로 졸르는 거.

김순자 그거 허영 올려.

양기옥 절벤, 솔벤만 두 가지만 잇이민 거 네 가지가 나오는 거라마씨.

김순자 예, 예.

양기옥 게민 그 절벤 우이 무시거.

김순자 솔벤 놓고.

양기옥 절벤 우이 저 무시거 저, 저.

김순자 중궤?

양기옥 아니. 저 계란으로 허영.

김순자 아, 우찍.

양기옥 계란으로 허영 우터레 논 게, 우터레 톡톡 놔.

김순자 겐 그런 식으로 허고예. 삼춘 식게 허젠 허믄 술 멘들엇잖아예? 술 멘들젠 허믄 무슨 기구들이 잇어낫수과?

양기옥 고소리.

김순자 예.

양기옥 엿날엔. 옛날엔 헤도 이제는 안 허주마씨.

김순자 예.

양기옥 옛날에 고소리. 고소리 앚져근에.

김순자 고소리 앚져근에 술 허젠 허민 뭐가 필요헌 거 다.

양기옥 무시거?

김순자 어떤 식으로?

양기옥 저 두벵들이, 두벵들이 헤근에 이거 이거 솟에 영 헤근에 저 무시거 앚지민 저 고소릴 앚지민 졸졸 졸졸 허게시리 영 받으민 빠지는 빠지는 디가 잇수다게. 빠지는 디가 잇어.

김순자 예.

양기옥 이제 옛날은 경허여낫수다. 경허영 주로 감주. 옛날은 이레 주스가 엇으난, 주스가 엇으난양 감주.

김순자 음.

양기옥 감주 주로 헷수다. 감주. 감주헤서마씨.

김순자 그런 식으로 헤서 이제 고소리로 술 허고.

양기옥 예.

김순자 옛날 잔치헐 때 고소리로 술 가져 가젠 허믄 뭐에 담앙 갓수과?

양기옥 술?

김순자 으.

양기옥 이수벵, 이수벵.

김순자 이수벵.

양기옥 옛날은 옛날은양 그 저 하꼬에 술이 안 나오난에.

김순자 예.

양기옥 이수벵, 이수벵에 술 하나 놓고 영 저 ᄒᆞ꼼 싯구나 헌 집인 쏠 두 말이나 놓고

경 안허민 혼 말. 주로 혼 말마씨.

김순자 으. 추니는 뭐과, 추니?

양기옥 추니? 추니는 술 담는 거마씨.

김순자 멧 대 듭니까?

양기옥 그것이 하영 들 거우다. 그거. 그것이 이만이 높읍주게, 이만이. 다 풀아먹언마씨게. 우리 어머니가 다 풀아먹어벳수다.

김순자 아.

양기옥 추니도 막 ᄋᆞ라개 셔낫수다만은. 추니 거튼 거 이 저 무신 거 이 놋그릇양 어떤 사름이 경 원체 풀아 먹엉 하나 안 줍디다게. 게난 항아리 하나 줍디다, 항아리 하나.

김순자 음.

양기옥 하나 저디 사진 찍어 갓수다. 막 큰 항아리.

김순자 예. 지세 항아리.

양기옥 엿날부터 저 부자칩이, 종손집이난 거 대대로 물령 왕 멧 해 물령 멧 번, 혼 멧, 멧 멧대 물려온 항아리 잇수다, 저디 잇수다. 게난 그거 내베둰 다 풀아 먹어불언마씨 어머니가. 그때 멧 푼 받지도 못 헷수다게.

김순자 예.

양기옥 게난 이 놔둘 거 아니과 그거는. 당연히 건 놔둬야 뒙주게.

김순자 예.

양기옥 옛날부터 ᄂᆞ려온 건디 그거 풀아먹게 뒛수과? 어무니가 잘 못 허는 겁주.

김순자 음. 떡 건질 땐 뭘로 건져마씨?

양기옥 떡 건지는 거?

김순자 으.

양기옥 족박, 족박.

김순자 아, 족박으로 건져마씨?

양기옥 족박이양 저 나무로 뒌 건디 솔랑헤마씨. 저 솔박, 솔박 알아지지예.

김순자 예, 예.

양기옥 솔박보단 쪼금 큰 것에서 고망 영 영 영 영 똘라져십디다.

김순자 예, 걸 족박이엔 헤예.

양기옥 그걸로 떡 건져마씨.

김순자 아. 게민 그거 손잡이가 따로 엇고?

양기옥 손잡이도 엇고 그냥.

김순자 아.

양기옥 그냥 그자 소랑허난에 욜로 심어근에 영 건지민 저 물만 빠지민 뒐 거난 경헨 건졋수다.

김순자 게민 국 같은 거 뜰 때는 무신 거로 떠마씨?

양기옥 남자.

김순자 남자.

양기옥 남자.

김순자 남자로 뜨고 뭐 죽 젓을 때는?

양기옥 죽 젓을 땐 베술기.

김순자 으, 베술기로 젓고 예.

양기옥 에이구 남자영 다 잇어나신디 다 버린 거라마씨. 다 버련.

김순자 다 버련. 이제 잇어시민 사진 찍어실 건디.

양기옥 다 버련, 다 버련.

김순자 밥 헤영 젓을 때는 뭐로?

양기옥 베술기마씨.

김순자 죽도?

양기옥 예, 예. 죽도 베술기로 젓고, 밥도양 저 이 제서 때도 ᄒᆞ꼼 젓어야 뒐 거 아니과? 젓어근에 우이 불 담아 놓고양. 쏠을 ᄒᆞᆫ 말 놓면은 그 익음이 힘들어마씸게. 게난에 이제 거트민게 전기솟덜 하영 나난에 익주만은양 이 저 베꼇디 앚져근에 헛간에 앚져근에 알로 불을 솜아근에 밥을 헙주마씨게. 그 저 쏠 ᄒᆞᆫ 말 놩 밥 허민 막 베찹니다게. 그 저 두말뜨기에 저 허민 말치에 밥을 허민 ᄒᆞᆫ 말 허민 베차민 우이 불 담아마씨 불.

김순자 예, 예.

양기옥 불 담아 놔야. ᄒᆞ꼼 영 저 들이쳐근에 ᄒᆞ꼼 영 그 베술기로 들이쳐근에 불 담아 놓민 익읍니다게.

김순자 음.

양기옥 익어근에 다 나대로 밥 헷수다게. 메도 나대로 헤마씨. 누게 메끼민게, 권당은 하도 누게 메끼민 잘 못 허카부덴 나대로 허단 보난 영 벵신 뒛수다게. 나대로 불 솜앙 밥 헷수다.

김순자 아까 베차다가 무슨 말이과?

양기옥 아, 쌀이 너미 만허니까 솟은 족고 허난 너무 넘치는 것이 베차덴 허는 거마씨. 넘쳐, 넘쳐근에게 허민 잘 익지도 안 허고마씨. 쏠이 너미 많으니까. 그거 안 허민 또 먹지도 못허고마씨. 양 요만씩, 요만씩 헤마씨. 그 저 쏠 혼 말 놩 허면 사발만 갓다 왓다 갓다 왓다. 옛날은 그렇게 곤밥이 귀허니까.

김순자 예. 떡 치젠 허민 무신 거가 잇어야 뒈마씨?

양기옥 시리.

김순자 시리도 크기가 투나지예.

양기옥 예. 큰 것도 잇고 족은 것도 잇고.

김순자 경허고 그 적덜 구젠 허면은?

양기옥 적?

김순자 으.

양기옥 구젠 허민?

김순자 으.

양기옥 구젠 허민 저 화리, 화리에 숫불 살롸근에 그것에 궛수게.

김순자 화리에 숫불 허영 영 걸치는 걸 뭐렌 헷수과?

양기옥 걸치는 건 저 적쒜.

김순자 다리가 두 개짜리과?

양기옥 다리, 다리 두 개짜리도 싯고 세 개짜리도 잇고마씨. 그거 영 화리에 걸쳐근에 것에 구민 맛셔, 맛셔. 옛날에사 다 맛좋아십주.

김순자 맞아예. 겐 그거 영 다 꼿이잖아예, 그건 무슨?

양기옥 예, 예. 꼿앙 적고지에. 적고지에 꼿아근에, 꼿아근에 불 살롸근에 거기서 궈마씨.

김순자 예.

양기옥 견디 옛날은양 주로 그 남저 어른이 다 문딱 뀌지 않헙니까. 이제는 그거 아니라마씨. 남저덜은 저디레 놀고 어디레 가불고 다 여자덜이 끼워마씨. 거 거 이상헤 양 엿날 허여난 식을 허지 안 허영 틀려. 견디 우리 아덜도 오민 그거 허젠을 안 헙니다게, 허젠을 안 허영 난 막 피곤헹 허는디 허지 안 허영 가 붑니다. 어드레 가불민 나가 다 끼워마씨.

김순자 삼춘 옛날 옷도 허젠 허민 다 집이서 허지 안 헤서예?

양기옥 아이고 집이서마씨.

김순자 그 옷 허젠 허민 뭐가 필요헌 거우과?

양기옥 윤디.

김순자 으, 윤디.

양기옥 불 화리, 화리, 화리 불에 불 살롸근에 그 저 잉겅이 잉겅이 막 하영 헹 놔 둬사마씨.

김순자 예.

양기옥 이 밥 허멍 잉겅이 허영 놔 두젠 허면 거기에 물을 주면은양 잘 안 부떠마씨. 경허민 그 잉겅을 내쳐근에 어디레 땅더레 놔근에 무시거 폭허게 더꺼마씨. 짐 못나게, 경허민 그게 불 꺼붑니다게. 불 꺼불엉 잉겅이 그거, 그거 저 화리레 놔근에 불 살롸근에 윤디 거, 드러 옷 헤근에 신랑 옷 헹 입지곡 정월, 정월 돌아와가민양 아이덜도 드러 옷 허멍 입졋수다. 그 옛날은양 그추룩 옷이나 헹 입지주 무시거 잇수과게, 무시거 뭐 입어볼 게 잇수과? 정월 돌아와가민 그거 그자 헤마다 허여마씨.

김순자 게민 거 뭘로 멘들아 옷은?

양기옥 옷은 바농으로 손으로, 손으로.

김순자 손으로, 예.

양기옥 그 저 멩진가 멩지도양 이제, 이젠 멩지 좋주. 그 옛날 흘탁헙디다게 멩지가 나 결혼헹 오란 보난. 흘탁허난에 잘도 궂어마씨, 잘도 궂어. 게난 그거 나 새로, 새로 헹 입졋수다. 신랑 새로 헹 입졋수다게. 너무 저 좋지 안 허난에. 좋지 안 허난 옷 허기가 경 궂고양, 또 저 두루막이엔 헌 건 광목, 광목마씨. 광목 오죽 곱니까. 아이고 이제 사름 입지도 안 헙니다.

김순자 음.

양기옥 광목으로양, 바농도 잘 안 들어마씨. 옛날 광목. 광목은 바농이 잘 안 듭디다게 안 들엉 두루막 헤근에 입지고 멩지로도 우 알 헤영 입지곡 경헷수다게. 경허멍 살단 보난에 가불엇수다만은.

김순자 게난 삼춘 그 바농덜 놓는 것ᄀᆞ라 뭐렌 골아?

양기옥 바농상지.

김순자 그 바농상지에는 뭐 뭐 놉니까?

양기옥 절레 ᄀᆞ튼 거, 절레 ᄀᆞ튼 거나 놓고 실 ᄀᆞ튼 거나 놓고. 뭐 놀 게 잇수과 뭐 험벅 조각이나 시민 놓고 엇이민 말고.

김순자 게민예 그 바농 절레, 절레에 바농 허는 거. 그 다음에 ᄀᆞ세는 거기 안 놔?

양기옥 무사마씨 ᄀᆞ세 당연히 놓주.

김순자 그 다음에 옷 재젠 허면은 필요헌 건?

양기옥 아 저 무시거. 자때. 자 저디 두 개 잇수게.

김순자 예. 자때.

양기옥 옷 재여근에 재여서 만들 거 아니과.

김순자 손에 뭐 끼워 보진 안 헙디가?

양기옥 아이고 난, 골웨, 거 많이 끼와 봣수다.

김순자 뭐마씨?

양기옥 골웨마씨, 골웨. 옛날 저 골웨 끼웡 어떵헨 영 허영 허는디 난 그추룩 안 헤 봣수다. 알긴 압니다만. 우리 어무니네가 헤나난, 친정어무니네.

김순자 가운데예. 가운데 손가락.

양기옥 예, 가운데 손가락에 끼와근에 그걸로 영헤근에 허는디 그건 안 헤 봣수다.

김순자 가운데 손가락에 끼웡 밀리는 거지예.

양기옥 예, 영 그 저 안 들어가니까양 엿날 그 광목 옷은 바농도 잘 안 듭디다게. 게난 영 밀립디다. 영 밀리멍 우리 친정어무니 헙디다게. 나도 나냥으로 옛날에 옷 허멍 입엇수다. 그 한복을 나냥으로 옷 허멍 입어마씨. 저 친정에서.

김순자 그런 식으로 허고. 게난 바농상지는 주로 뭘로 만들어마씨?

양기옥 바농상지 엿날 무시거게. 그 저 조락바구리 쩨그만 헌 거. 그거 그거 헙디다.

풀 볼랑, 풀 볼랑 게난 그거 풀 볼랑.

김순자 예.

양기옥 풀 볼랑 문딱 풀 볼라근에.

김순자 게난 조락 바구리를 풀 볼랑 쓴 거라예?

양기옥 예, 풀 볼라근에 그걸, 그걸 그것이 바농상지라마씨.

김순자 그거 써난 바농상지 잇수과?

양기옥 난 안 써 봣수다. 난 안 혀.

김순자 아, 삼춘은 그걸로 안 헨.

양기옥 우리 친정에서가.

김순자 삼춘은 뭘로 바농상지 헤서.

양기옥 이디 바농상지 싯수다. 나 이런 걸로 허주 그거 안 헙니다.

김순자 어떤 거로?

양기옥 아이고 난 그거 헹, 그런 거 안 헤 봣수다. 이런 거 썸수게.

김순자 아. 삼춘은. 영 줘 봅서.

양기옥 이거, 이추룩 헹 쓰주 그런 건 안 허메.

〈중략〉

김순자 삼춘 윤디 말앙 다리웨는 안 써 봔?

양기옥 다리웨 써 봣수다. 다리웨 써. 그 옷 허젠 허민게 다리웨 안 허민 그 조글조글 헌 거 페와집니까게. 안 페와지주. 것도양 다리웨도 둘리 아니민 잘 못 헤마씨.

김순자 아.

양기옥 영 저 영 둘리가 영 영 둥겨근에 짝짝 밀민 잘 밀어지고 아래 놩은 윤디만이 못 헙니다. 윤디가 좋아.

김순자 다리웨는 어떵 생긴 게 다리웨렌 헷수과?

양기옥 다리웨?

김순자 예.

양기옥 다리웨양 요만, 요만은 허고 지러긴 이만이. 게민 이거 심는디 게민 이거 불 담아 놔.

김순자 음.

양기옥 불 담아 놔근에, 그것이 다리웨 아니과?

김순자 그니까 우리 후라이판 모냥으로예?

양기옥 후라이팬보다 높아마씨.

김순자 아.

양기옥 게민 그거 잘 못 허단 불껑 털어지민 거 문제 아니과? 경허난 영 심은 사름이 내불민 거 불똥 털어지게 뒌 거 아니과게. 거 뭐 두께도 없는 거난예.

김순자 경허고 옛날 다듬이질 허젠 허면은. 다듬이질 헤 봣지예?

양기옥 다듬이질 헷수다. 그 다듬이질 헤사 옷을 헐 거난.

김순자 게믄 그건 어디에서 허는 거?

양기옥 그건 안반에서 저 마께로. 마께 저 다듬이마께. 마께로 막 두드려사마씨.

김순자 예.

양기옥 저 멩지면은 무시거 싸근에. 저 광목이나 무시거 싸근에양 싸근에 그거 두드렷수다.

김순자 두드리는 거 뭐렌 골아?

양기옥 두드리는 거 마께.

김순자 그 다음에 천 영 감는 거는?

양기옥 에, 그거 몰란에.

김순자 홍짓대?

양기옥 홍짓대 맞아, 홍짓대. 잘 알암수다게. 홍짓대.

김순자 홍짓대 헨에 이거 감앙 허고.

양기옥 예. 감아근에 마지막에. 두들다근에 마지막에 그것에 감아 두르 때려낫주. 홍짓대.

김순자 게민 옛날에 삼춘도 미녕 차난?

양기옥 아이고, 미녕 차젠 앚으민양 실도 문딱 끈어불고 어멍 미녕 차젠. 나 어린 때, 나 스무살에 결혼헷수다게.

김순자 예.

양기옥 스무살에 결혼허난 그 우리 어머니가 다 그 미녕 저 목화로 미녕 문 그 옷도 만

들고 저디서 문 놀고 문 허는디 미녕에 미녕 베클에, 베클입주 거.

김순자 예, 예.

양기옥 베클에 문 걸어논 거 어멍 엇은 때 그거 허젠 문딱 끈엉 내불민 욕을 조그만이 들을 말이과. 일 엇언에 그거 헤시녠 허멍 막 어멍아피 욕 들어낫수다.

김순자 못 허게.

양기옥 아니, 문딱 허꺼 불언마씨. 문딱 끈어 불어. 그거 차 보젠 허단 보민, 장난으로 차 보젠 허단 보민 문딱, 문 실 허껑 설러 불고 또시 저 미녕 좃당 놔두민양 거 못 좃는 겁디다. 미녕 좃당 내불민 그 저 그 가리개, 가리개로 영 영 밀엉근에 게 영 빠민게 그 저 것도 잊어 불엉 몰르켜. 정, 정대로 정대로 밀주, 정대로.

김순자 예, 정대로 미는 거예.

양기옥 정대엔 헷자 저 무시거주마씨. 대죽낭 저 대죽낭 요만이 헌 대죽낭 그걸로 밀어근에 허민 양 미녕 좃음이엔 헌 거 문딱 그거 허영 강 굴묵 짇어 벳수다 난. 막 하영 헤다근에 허여 보젠 허단 보민 못 헤영 굴묵 짇어 불엇수다.

김순자 음.

양기옥 굴묵 짇어 불민 어멍 몰를 거 아니과?

김순자 하하하.

양기옥 어멍 몰를 거. 굴묵 짇어 불민. 그때 옛날을 굴묵 짇는 거난.

김순자 예, 몰르게 강 굴묵 짇어불언. 게근에 그 실 허는 거예. 실 만들 때는 뭐가 필요헌 거? 옛날 멘네 헤 갓도 실 만들 때 거 뭐렌 헙니까?

양기옥 아이고 잘도 몰람저.

김순자 물르에?

양기옥 물레, 물레.

김순자 물레.

양기옥 예, 물레로.

김순자 실 헐 때예?

양기옥 예, 예. 실 문 빼여근에 문 모둥이 감고 꼬리 감고. 꼬리 감으렌 허멍 따시 허여 불민 놀레 가불고.

김순자 음.

양기옥 경헤낫수다.

김순자 꼬리 감는 건 뭐라마씨?

양기옥 꼬리 감는 건 영 영 영 감는디 틀려마씨. 모둥이는 쉽고.

김순자 음.

양기옥 꼬리 감는 건 막 궂입니다게.

김순자 게믄 실을 감는 게 모둥이 감는 게 잇고 꼬리 감는 게 잇구나예?

양기옥 예.

김순자 꼬리 감는 거는 이렇게 대 헤영 이런 식으로 허는 거예.

양기옥 그냥 소곱에 ᄒᆞ쏠만 놔근에 영 영 영 영 감앙, 돌아가멍 감으난에 그건 차는 거.

김순자 예, 차는 거 꼬리는 차는 거고 모둥이는?

양기옥 모둥, 모둥이는 ᄂᆞ는 거 저디서.

김순자 ᄂᆞ는 거.

양기옥 예, ᄂᆞ는 거.

김순자 게, ᄂᆞ는 거 허면 동글랑 허게 감는 거를.

양기옥 동그랑헌 거에 ᄂᆞ는 거.

김순자 거는 모둥이라예. 꼬리는 차젠 허면은 이런 대나무 닮은 거에 헤 갓고 실을 이렇게 허는 거예.

양기옥 예, 예.

김순자 아, 거를 꼬리엔 허는구나.

양기옥 예, 꼬리엔.

김순자 그 다음에 실 놀 때 삼춘 거기에 짓 불르지 안 헙니까?

양기옥 무사 안 헤마씨.

김순자 건 뭐로?

양기옥 가시리, 가시리.

김순자 가시리로.

양기옥 가시리 짓.

김순자 가시리 짓으로. 게민 가시리 짓 멕이젠 허민 무신 걸로 멕이는 거?

양기옥 솔로.

김순자 그 솔은 무신 솔이렌 헙니까?

양기옥 그 솔은, 그것도 ᄒᆞ쏠 궂일 거우다. 거 만들젠 허민 솔도 요만이 요만이 질게 헤근에 이디, 이디 영 멕이게 뒈십디다.

김순자 예, 예.

양기옥 그걸로 작 작 그거 볼랑 멕이곡 멕이곡 허민 그것이 직각 헤여근에 저 실이 질 겨져마씸. 질기곡 조루룩 헤영.

김순자 음.

양기옥 경헤영 그거 경 헨에 그거 문, 문 놀아근에 문 메여여근에 문. 메는 건 문 마당에서 놀고 마당에서 메곡 헙니다.

김순자 예, 예.

양기옥 겐 난 거는 사름 허고.

김순자 음, 삼춘 강 걸고.

양기옥 예, 난 걸고. 걸고 ᄂᆞ는 건 어멍만 놀고.

김순자 음.

양기옥 경헙디다게.

김순자 그런 식으로 허고 그 빗, 저 솔을 멘드는 거는 모르고?

양기옥 거 만드는 건 모르쿠다.

김순자 아, 거는 모르고예.

양기옥 것도 직각 무꺼내야. 거 잘 무꺼십디다. 둔둔허게. 나도 영 멕여봣수다 어멍 허는 거게.

김순자 예.

양기옥 멕여보긴 헷수다.

김순자 어딘 가난 숨부기 낭으로 헷덴예? 숨부기 뿔리.

양기옥 숨부기 뿔리로 헷덴마씨?

김순자 예.

양기옥 아닐 건디. 숨부기 뿔리가 경.

김순자 께는 께는 헤근에.

양기옥 헤지카?

김순자 삼춘네는 그거 몰르고.

양기옥 솔입 닮은 건디 솔입은 아니라. 솔입은 아니라.

김순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옷덜 허젠 허면 그런 과정덜이 다 잇는 거라예. 경헤근에 물들 들여근에 옷덜 헤 입지 안 헷수과?

양기옥 주로양 훼색 물, 검은 물 경, 경 들입디다 옛날에.

김순자 예.

양기옥 저 아부지 저 중의적삼 저 바지 저고리 허는 건 훼색 물 들영 허고 흰 채도 입고 또시 밧디 입는 건 검은 물 들이고 경 헙디다.

김순자 밧디 입는 건?

양기옥 예.

김순자 감물은?

양기옥 감물도 들이고. 밧디 입는 건 주로 감물.

김순자 감물 들이젠 허면 어떤 식으로 들인 거라마씨.

양기옥 감물은게 옷 허영.

김순자 음.

양기옥 옷 허여근에 감 뿟아근에, 나도 드러 감물은 헹 입엇수다게. 이 아기덜토 막 헤 주고. 아이덜이 헤 도렌 허난 더러 헤 줫수다게.

김순자 게난 그 감 뿟젠 허민 어디서 뿟아마씨?

양기옥 방에톡.

김순자 음.

양기옥 방에톡 저디 잇수다.

김순자 예.

양기옥 방에톡 거 남방에에 거 하나 뽑안에 남방에사 어디사 버려져신디 모르고 저디 방에톡은 잇수다. 게난 그 방에에서 뿟아근에 너른 다라에서. 요, 요 엊그지게까지도 헷수다게. 아덜덜이양 저 감옷만 입으켄 헤근에 그 판이 쳐진 거 장에 가근에 이만씩 넓은 거 사다근에, 빌로 사다근에 저 성제가 혼 뭇썩 저 남원리 강 헤단 이제, 이제 어디 실 거우다.

김순자 예, 삼춘 아까 판이 쳐졋덴 헌 말은 무슨 말?

양기옥 아, 그 샤에 판이가 잇어마씨, 판이. 무늬, 무늬가 쳐진 것에.

김순자 예, 예.

양기옥 또 베에도양 전빌로 이레 걸어근에 베에도 멧 불 헤여근에. 어떵 허난 그런 것만 허여도렌 헙디다게. 아이덜이 성제가.

김순자 예, 예.

양기옥 그런 거 밧디 입는 게 아니고양 저 놀 때 입을 걸로 그거 헤 도렌 헵디다 그추룩. 돈도 하영 듭디다. 어디 강 거 사다근에 감 들이젠. 이젠 허렌 헤도 못 허쿠다만은. 저 남원리 강 잘 만드는 디가 헤 와마씨. 족은 메누리 간 허여 왓수다.

김순자 그 다음에 삼춘 예전에 집 짓젠 허면, 집 짓젠 허면 뭐가 필요헤마씨? 옛날 초집덜 짓젠 허면?

양기옥 초집 짓젠 허민?

김순자 예.

양기옥 목쉬도 필요허고 흑도 필요허고 옛날 초집이사 무신 뭐 목쉬만 허민 저 담 허고 흑 허고 나무 허고.

김순자 담 헹 허젠 허면 그거 누게가 헹 오는 거라?

양기옥 담?

김순자 응. 집 지을 담.

양기옥 집 지을 담은 엿날 담은 아무라도 허는 거마씨. 이 우리집은 이 혼 덩이에 얼마 짜린디 엿날은 그 저 아무라도 이상케, 이상케 담이라도 옛날 초집은 짓엇수게. 옛날은. 옛날은 아멩이라도 헹 짓엇수다게.

김순자 게민 그 돌 깨젠 허민 뭐가 필요헤마씨?

양기옥 돌 깨젠 허민 저 무신거 저 그 돌 깨는 거 망치 ᄀᆞ튼 거, 망치 허고 또 무시거. 잘 곧지 못헴수다. 저 오래노난에. 돌 깨는 게 잇어.

김순자 징?

양기옥 징, 징도 잇고 메, 메로 주로. 메로 때려 실 거우다.

김순자 메로 돌은?

양기옥 예. 우리 저 과수원에 잇수다만은.

김순자 메로 헹 네모나게 잘 만들앙 올 거 아니라예?

양기옥 게난 그 저, 저런 담은 메로 큰 거나 두드리주 저런 건양 저 족은 망치로 다 곱게 이쁘게, 이쁘게 막 다듬아야.

김순자 예. 게난 옛날에는 망치덜을 잘 쓴 거라예.

양기옥 예게.

김순자 망치로 허고 집을 허젠 허민 먹으로 영 그려야 할 거 아니과. 그건 뭐렌 골아 이디서?

양기옥 먹술.

김순자 으.

양기옥 먹술 탁 테와근에. 영 헹 니귀 방장허게 먹술 탁 테와근에.

김순자 그 다음 먹술에 영 연결된 거는 뭐렌 헤?

양기옥 그거 뭐, 연결 된 건 실, 실.

김순자 먹줄?

양기옥 먹줄.

김순자 먹술?

양기옥 먹술인가? 먹술이 맞주, 먹술.

김순자 예. 먹술예.

양기옥 그 검엉헌 것이 담아져근에양 영 빼여가민 그것이 쭉 허게 볼라졍 나옵디다게.

김순자 예.

양기옥 그걸로 탁 테우민 검엉케. 니귀방장 허난.

김순자 예, 경헤근에 집 앚을 자리 만들고. 그 다음에 목수들 헤근에 돌 다우고. 돌 다울 때도 다 망치로 허멍 헐 거 아니라예. 낭들 헤오젠 허민 뭐로 헤?

양기옥 낭은게 엿날은 구루마베끼 더 잇수과?

김순자 예, 구루마에 가근에 낭 짜르레 가젠 허민 뭐 가졍 가?

양기옥 낭 짜르레 가젠 허민 저 톱, 톱 큰 톱도 잇고 작은 톱도 잇고. 뭐 나대여 무슨 거여. 나대.

김순자 나대. 그 다음에 영 까끄젠 허민?

양기옥 까끄젠 허민 대피.

김순자 대피.

양기옥 대피로. 이 집 짓젠 허민 대패로.

김순자 그 다음에 껍질 같은 거 이렇게 허젠 허면?

양기옥 껍질 허젠 허민 대패로도 허고 호미로도 허고.

김순자 자귀로도 허고?

양기옥 자귀론 무시거 찍어근에양 크게 찍는 거. *까끄*는 건 호미로, 호미 ᄂᆞ슬게 헤근에 그거로 까끕니다.

김순자 도치는 언제 쓰는 것과?

양기옥 도치는 나무 깨는 거.

김순자 아, 낭 깰 때 도치 허는 거?

양기옥 예, 잔치나 무슨 이네 저 초상이나 나면은 메 졸레 허여야 그 일을 준비헙니다.

김순자 메 졸레.

양기옥 메 졸레 그 여산헤여근에 소나무 밧디, 이녁네 자기네 소나무 밧디 가근에 그레 문 허여 놔마씨. 허여 놔. 경 안 헹 또 바쁘게 부모님이나 돌아가민 또 메 졸레 사야뒈고.

김순자 예. 게민 그 ᄒᆞᆫ 졸레민 어떤 게 ᄒᆞᆫ 졸레마씨?

양기옥 ᄒᆞᆫ 졸레는 영헹 발로 발아, 발안에 큰, 큰 사람 영 발로 발앙 ᄒᆞᆫ 졸레엔 헙디다. 경헤근에 그거 저 영 낭 놔근에 발로 차멍 둘이가 ᄃᆞᆼ겨근에 ᄒᆞᆫ 졸레 경 헙디다.

김순자 ᄒᆞᆫ 발 ᄒᆞᆫ 뽐.

양기옥 ᄒᆞᆫ 발 ᄒᆞᆫ 뽐마씨. 게메 경헌 거 닮아.

김순자 게난 ᄒᆞᆫ, ᄒᆞᆫ 졸레는 어쨌든 이게 ᄒᆞᆫ 발이고 ᄒᆞᆫ 뽐은 묶는 거. 게난 ᄒᆞᆫ 발인 거지. 예.

양기옥 큰 어른이 발아야 뒈마씨. 큰 어른.

김순자 예, 그런 식으로 헤근에 낭덜 헹 오고 그 다음에 초집 허젠 허민 새도 비영 와야 헐 거 아니과?

양기옥 예게.

김순자 샌 허젠 허민 뭘로 비영 와?

양기옥 낫으로.

김순자 예, 낫으로.

양기옥 호미, 호미.

김순자 호미로예.

양기옥 이젠 낫, 이제, 이제사 낫이엔 헷주만은 그땐 호미마씨 호미. 호미 신돌 허영 호미 골앙 ᄒᆞ쏠 ᄒᆞ쏠 허민 무껴 불어마씨.

김순자 예, 예.

양기옥 게난 자꾸 골멍양. 자꾸 골멍. 각단은 줄 놓고.

김순자 예.

양기옥 또시 샌 집 일고.

김순자 삼춘 각단 줄 놓젠 허민 뭐가 필요헤?

양기옥 줄호렝이.

김순자 예.

양기옥 줄호렝이.

김순자 삼춘 줄호렝이는 줄 영 비는 거잖아예?

양기옥 줄호렝인 줄 비는 거.

김순자 으.

양기옥 뒤에, 뒤에 앚앙 줄 치는 건 저.

김순자 뒤치기.

양기옥 뒤치기. 맞아 뒤치기.

김순자 으.

양기옥 게난 경허멍 살단, 살앗수다게.

김순자 게민 줄 어울리는 건 뭘로 헤?

양기옥 어울리는 건 그냥 손으로.

김순자 그냥 손으로.

양기옥 나도 헤 봣수다.

김순자 아, 삼춘도 허고.

양기옥 나도 헤 봣수다.

김순자 막 손 아프지 안 헙디가?

양기옥 아이고 아픕니다게. 잘도 아파. 그디양 자골 같은 거 들어간마씨.

김순자 자골.

양기옥 자골 같은 거 하나씩 들어가마씨. 게난.

김순자 예, 여기는 줄호렝이 하는구나예. 줄 논다고 헤서 줄호렝이.

양기옥 줄호렝이.

김순자 겐 줄호렝이 허고?

양기옥 뒤치는 거. 영 영 영 영 돌리는 거. 돌리민 절로 저레 두 사름 사근에 영 돌리고 ᄒᆞᆫ 사람은 ᄋᆞ라 사름 것도 들어야마씨.

김순자 너이?

양기옥 게민 ᄒᆞᆫ 사름만 손 아팡 헤집니까? ᄒᆞᆫ 사름 더 셔야.

김순자 겐 손 아프니까 막데기로 영 협주게.

양기옥 막데기로 허는 건 곱지 안 헤마씨.

김순자 아, 손으로 헤야 고와예.

양기옥 손으로 딱 잡아근에 그 저 궂인 건도 ᄒᆞ꼼 들어가민.

김순자 예, 그 다음 그때 흑 이겨근에, 새도 다 헹 오고 줄도 다 놔두고 영 허는데, 집 이기젠 허면 뭐가 필요허는 거?

양기옥 집, 집.

김순자 흑 불를 때.

양기옥 흑 불를 때마씨? 흑질허는 거, 흑질.

김순자 그 흑질은 뭘로 헷수과?

양기옥 ᄀᆞ스락, ᄀᆞ스락 허고 흑 받아 놔근에 마당에서 ᄀᆞ스락 놩 막 불려근에 그거 영 불롸수궤 손으로.

김순자 손으로, 옛날엔 다 손으로 불른 거라예.

양기옥 예, 게 손으로 다 불라.

김순자 요즘 뭐 고데로 허는 거.

양기옥 에이구 고대 저 무시거 고대 저 세멘이나 불르주.

김순자 으.

양기옥 손으로만 불른 거라마씨 손으로만. 나도 흑질 헷수다. 집 짓젠 허민 어떵 여자 남자 골려집니까. 아무 거라도 헤사주.

김순자 예. 예, 맞수다. 그런 식으로 헹 집 짓고. 집 짓젠 허면 또 필요헌 게 이런 문들 만들젠 허면?

양기옥 문은 목쉬가 만들어마씨. 목쉬가게 저 재료 사단 만들고.

김순자 예.

양기옥 아이고 문 홀리고 옛날이사 무슨 유리가 잇수과 뭐가 잇수과? 낭문 그자 넓적허게 헤근에 톡 더끄고 경만.

김순자 톡 더끌 때는 뭘로 더꺼?

양기옥 거 영 문을 이디, 이디 골리 박아근에. 이디 박고 이디 박고 이런 디 박아근에 이거 영 욜앗당 영 더껏당 헷수다.

김순자 겐 그 도절귀? 뭐렌 헙니까?

양기옥 도철귀.

김순자 아, 도철귀.

양기옥 도철귀 박아근에.

김순자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살젠 허단 보면 그 굴묵도 짇어야 뒈고. 굴묵 짇젠 허면 뭘로 어떵 짇어?

양기옥 어, 곧지 못 헨에.

김순자 그스락도 영 밀려야 뒐 거 아니과?

양기옥 무사 아니과게.

김순자 걸, 밀리는 걸 뭐엔 헤마씨?

양기옥 굴묵 짇젠 허민 건 잊어불언 곧지 못헴수다.

김순자 당그네?

양기옥 당근네, 당근네. 당근네가, 당근네가 두 개네.

김순자 날레, 날레.

양기옥 날레 허는 것도 당근네.

김순자 굴묵 허는 것도 당근네과?

양기옥 것도 똑 당근네 닮수다.

김순자 불치 밀리는 거마씨?

양기옥 불치 밀리는 것도 그걸로 밀리고. 그것도 그걸로 밀렷수다. 그걸로 불치도 둥기

고. 불치도 둥기고.

김순자 불그네?

양기옥 당그네. 굴묵도 하도 오래부난 잘 곧지 못헨에.

김순자 이땅 튼내지민 골아주민 뒐 거고예. 그 다음에 옛날 줄 허당 남은 걸로 방석도 멘들지 안 헙니까?

양기옥 무사 안 헙니까게.

김순자 건 무신거렌 헤?

양기옥 그거 줄 방석이렌 헤근에게 부엌에 꼴앙 앚앗수게.

김순자 예.

양기옥 부엌에서 밥 먹고. 멧 개, 멧 개 멘들앙.

김순자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삼춘 이제 그 농사 짓젠 허면 도구가 뭐 뭐 잇어야 농사를 질 수 잇엇수과?

양기옥 농산 뭐 저 잠대.

김순자 예.

양기옥 잠대게, 잠대 하나베낀 농사 질 건 무슨. 씨나 내 놓고 농사 짓젠 허민 저 잠대 베낀 더 잇수과. 잠대로 밧 갈아근에.

김순자 예.

양기옥 밧 갈아근에 콩씰 뿌령 가나 좁씰 뿌령 가나 다 저 그 저 소로만 헷수다게. 소 그 잠대 그저 남저 어른 그건 남저가 갈아사 헐 거난 여저는 못 허고양.

김순자 게난 밧 갈젠 허면 잠대가 필요허고 그 잠대 메우는 게 뭐 뭐 잇수과?

양기옥 잠대 무클도 잇고 무클은 제라헌 거 알로 영 보섭 끼우는 거.

김순자 예.

양기옥 또 이 우터렌 또. 건 문 알앙 골아졈서, 알지 못 허난.

김순자 손잡이는 뭐과?

양기옥 손잡인 저 양지머리, 양지머리.

김순자 그 다음에 쭉 나간 건 뭐과? 성에?

양기옥 성엔 영 씌우는 것이 성에마씨.

김순자 건 멍에.

양기옥 멍에. 건 멍에.

김순자 쭉 나간 건?

양기옥 건 성에가 아니고. 성에?

김순자 쉐에 짐 시끄젠 허민 뭐가 필요헤?

양기옥 질메.

김순자 질메. 삼춘 이 동네에도 몰들도 질릇잖아예.

양기옥 무사 몰, 우리도 질롯수다게.

김순자 게난 몰에도 질메 잇고 쉐에도 질메 잇고. 짐 지젠 허민 뭐가 필요헤?

양기옥 짐 지젠 허민 옛날은 짐 지젠 허민 저 무신 거로 꼬아근에.

김순자 짐페?

양기옥 짐페. 짐페, 짐페.

김순자 뭘로 꼬아 그거는?

양기옥 저 무신 찍으로. 나룩찍으로.

김순자 그 예전에 이디 구루마덜 헹 짐 질 때는 뭘로 헤?

양기옥 그거, 그건 만들앙마씨. 그건 ᄑᆞ는 것이 엇어 놓난에.

김순자 예.

양기옥 그건 저 무시 것고 저 저. 아이고 알아짐직 헤도 몰르켜.

김순자 쉐악베?

양기옥 아니 저 신사라.

김순자 신사라로.

양기옥 신사라 싱것다근에양 그걸로 꼬아근에양 그걸로 꼬아근에 또시 또 두불 꼬는 거라마씨. 겐 그걸로 짐 시껏수다.

김순자 삼춘 그 신사라로 베 만드는 과정을 ᄒᆞᆫ 번 골아줍서.

양기옥 신사라?

김순자 예.

양기옥 신사라를 비여근에 비여근에 또시 그걸 몰류와마씨 몰류와근에 ᄒᆞ꼼 두드려야. 복삭허게. 두드려근에 깨여근에 그걸로 꼽디다. 그걸로 꼬안에 만들언게 우리집은.

김순자 예. 그추룩 두들경 신사라 베로 헌 거라예?

양기옥 옛날은 푸는 것이 엇어 놓난게.

김순자 쉐 멕이젠 허민 필요헌 도구가 뭐가 잇수과?

양기옥 쉐 멕이젠?

김순자 쉐 질루젠 허민마씨?

양기옥 쉐 질루젠 허민 뭐 밧 갈 때나 그 저 무시거 엿날은 것이엔 헙디다 것.

김순자 예.

양기옥 것을 줘사 니네가 밧을 갈 건디 촐도 강 혼 줌 헤오고 또 무시거 말치로 하나 무시거 솖아근에 뭐 보리, 보리라도 거펴근에양. 솖아근에 거 멕여사마씨 아칙이. 아칙이 멕여사 밧 갈레 가마씨.

김순자 예, 경헤근에 쉐 강 저 드르팟디 강 놓젠 허면 줄 메는 건 뭐렌 헤 여기선?

양기옥 줄대.

김순자 예. 줄대를 땅에 박젠 허면 뭐가 필요허과?

양기옥 말툭.

김순자 예, 말툭이 필요헌 거고예. 그 다음에 물도 마찬가지고?

양기옥 예, 물도 마찬가지.

김순자 게민 그 쉐 메는 거는 뭐렌 헤?

양기옥 쉐줄대.

김순자 예.

양기옥 쉣베, 쉣베.

김순자 예, 쉣베.

양기옥 그 밧, 저 무시거 짐 시끄는 것도 쉣베로 헷수다. 짐 시끄는 거.

김순자 짐 시끄는 것도 쉣베. 쉣베고예. 게믄 그 쉐촐을 그냥 주기도 허고 썰어 주지 안 헷수과?

양기옥 무사 아니과게. 작두 헤영 막 썰엉.

김순자 작두 허영 썰잖아예.

양기옥 작두 허영 우리도 드러 썰엉 멕엿수다게. 겐 살소 만들앙 풀아마씨.

김순자 살소 만들앙 풀잖아예. 살소 만들앙 푸는데 것은 뭐에 줘?

양기옥 아, 그냥 촐 썰엉 그냥도 주고 따시 뭐 숢앙도 주고.

김순자 겐 거 뭐에 놩 줍니까?

양기옥 뭐에 무슨 뭐 옛날에 저 솟 검은 솟덜 이디서 많이 나오난에 불미헹 많이 나오난에 쓰던 것덜, 큰 것덜 쓰단 거 그런 거 놔근에 무시거 것 헹 줄 때에.

김순자 아, 그거를 먹이통으로 쓴 거라예?

양기옥 먹이통도 만들어낫수다.

김순자 먹이통은 뭐렌 헤, 여기서는?

양기옥 먹이통은 저 무시 걸로 만들언, 세멘으로 만들언에. 그냥 그냥 촐만 주는 거마씨. 썰언 주는 거.

김순자 아, 그냥 썰엉 주는 거.

양기옥 촐만 주는 거고 이 저 것 저 음식 사름 거치 거 멕이젠 헐 때 그 살수 만들젠 허민 저 그 쒜솟 그 큰 것덜, 큰 것덜 옛날에 쓰던 것덜 버릴 거 그것에 줘낫수다.

김순자 음.

양기옥 그거 옆이 놔뒀다근에 그거 둥그려당.

김순자 둥그려당. 그 다음에 삼춘 그 농사 짓젠 허면 조, 여기도 조 하영 간 거 아니? 조 갈젠 허면 어떤 식으로 뭐, 기구는 뭐가 필요헙니까?

양기옥 조 갈젠 허민.

김순자 씨를 삐젠 허민 이제 뭐가 필요헤?

양기옥 씨 삐젠 허민 멜망텡이. 멜망텡이 뚜려메여근에 그거 뻡니다게.

김순자 예.

양기옥 삐는 디, 박전은 이 무시거 마 전이 허고마씨.

김순자 예, 예.

양기옥 또 존 밧은 마 넘어근에 마 넘엉 거시림 조팟, 거시림 조팟 헤근에 그 저 놈의 물덜 많이 잇는 거, 거 빌어단 불렷수다. 건 잘 불려야 허는 따문마씨.

김순자 예, 건 마가 끝난 다음에예.

양기옥 예, 마 끝난 다음에.

김순자 게난 그게 마걷이 조?

양기옥 예, 마걷이. 마걷이로 헤근에 거시림 조팟.

김순자 거시림 조팟예. 겐 그거 이제 물덜 불리면, 물 엇인 사름덜은 어떵 불려?

양기옥 빌언, 빌어단 불렷수궤.

김순자 아, 물 빌어단.

양기옥 물 빌어단.

김순자 물 안 헹은 저 물발 닮은 거 낭으로 멘들지 안 헙니까 여기?

양기옥 아니 그건 안 허고 섬비.

김순자 그건 안 허고예. 섬비.

양기옥 예, 그건 저 낭으로 멘드는 건 안 끗어 보고 섬비 만들어근에 그 저 그 박전은 그거로 끗엇수다 박전은.

김순자 아, 박전은 섬비로.

양기옥 예, 박전은 그걸로 끗고.

김순자 예.

양기옥 또 존 밧은 마 넘어근에 저 무시거 거시름 조팟은 물 빌어다근에 직각 불리고.

김순자 물 빌엉 직각 불리고예. 경 안 허면 섬비로 하고. 그 밧 갈아근에 벙에덜 나오면 뭘로 그 벙에는 두들겨?

양기옥 그 벙에 두들리는 것이 싯수다게.

김순자 낭으로 멘들아진 거?

양기옥 낭으로 만들아근에.

김순자 곰베?

양기옥 곰베. 잘 알암수다양. 곰베. 저 벙에기 두드리는 거.

김순자 으. 곰베로 뭐 두드려마씨?

양기옥 저 벙에, 벙에 나민 곰베로 두드리는 거.

김순자 으, 벙에 나면. 경허여근에 이제 곰베 허고. 밧 헐 때 밧 갈젠 허면 앞에 끼우는 건 뭐우과?

양기옥 앞에 끼우는 거?

김순자 으, 무클에 끼우는 거.

양기옥 무클에 끼우는 건. 손에 영 잡는 거 말허는가?

김순자 아니 아니, 보섭.

양기옥 아, 보섭.

김순자 으. 그 다음에 옆에 영.

양기옥 따시 저 벳.

김순자 벳. 이런 거 잇는 거고예. 그 다음에 그 밧 농사허면 검질 메젠 허면 뭐가 필요헌 거?

양기옥 검질 메는 건 골겡이 하나. 골겡이 하난 들르민 뒈여.

김순자 골겡이 하나 들르민 다 끝나는 거라예 검질 메는 건. 그 다음에 검질 메근에 치우젠 허민 뭐에 치우는 거라?

양기옥 치우지 안 헷수다게.

김순자 옛날엔 안 치우는 거라예.

양기옥 저 치울, 치울 생각도 안 허고 치울 수도 엇고. 이 맨발엔, 이젠 저 양말이라도 신엉 검질 메지 안 헴수과?

김순자 음.

양기옥 경허는디 양 발이 뜨거와근에 검질 메영 발 영 놔근에 그거 디뎌근에 앚앗수게. 맨발에.

김순자 검질 메영예.

양기옥 맨발에.

김순자 뜨거왕마씨, 뜨거왕.

양기옥 경허난 혼 줌 놔근에 그레, 그레 발 디뎡 앚고 경헷수다게. 이젠 신발도 신고 검질 메염수과, 검질 메지도 안 허는 거.

김순자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헤근에 그 농사 다 허면 비여와야 헐 거 아니과?

양기옥 예.

김순자 그거 비여오젠 허면 어떤 식으로 헤?

양기옥 비여 오젠 허면 호미로게, 호미로.

김순자 그냥 호미로 다. 거 무끄는 거는?

양기옥 무끄는 건 저 새 비여당 께로 무끄던가 경 안 허민 그 지께로 무끄던가.

김순자 예.

양기옥 그걸로 무끄는 건 지께.

김순자 지께.

양기옥 예, 지께.

김순자 지께로 헤근에 무끄고. 경헨 다 걷어 들이면, 집에 가져 오젠 허면은?

양기옥 집이 가져 오젠 허민 쉐 질메 헤여근에 쉐에 그 구루마 엇인 때에 쉐에, 쉐에 다 시껑마씨. 쉐에, 쉐 두 개민 두 개 헤영 시꺼근에 집이 오랑 퍼 뒁 또 시끄레 가고 또 시끄레 가고. 또 아부지는 무꺼가고 나는 시꺼오고 경 헷수다게.

김순자 집에 오면은 한꺼번에 저기 탈곡 못 허면은 어떵 헹 놔 둬마씨?

양기옥 기냥 영 영 데명 놔두민 비 왐직 허민 눌어야마씨.

김순자 예, 비 왐직 허민 눌고예.

양기옥 눌어야.

김순자 눌면 그 우에 더끄젠 허면은 뭘로 더꺼?

양기옥 더끄젠 허민?

김순자 예.

양기옥 더끄젠 허민 ᄂᆞ라미. ᄂᆞ라미 만들앙 놔 둬사 허주. 멧 판이 ᄂᆞ라미. ᄂᆞ라미도 잘도 하영 듭니다게. 그것만 더끄는 것과게.

김순자 음.

양기옥 뭐 촐눌도 더끄고, 뭐 보리 허민 보리도 멧 눌 더끄고 이 저 무시거 소나무라도 허여 오민 지들커 허여 오민 그것도 더끄고 막 ᄂᆞ라미는 많이 헤얍니다.

김순자 게민 ᄂᆞ라미 하나를 ᄒᆞᆫ 판이렌 헙니까 이디?

양기옥 ᄂᆞ라미 ᄒᆞ나 ᄒᆞᆫ 판이. ᄒᆞᆫ 판이로 못 더꺼마씨. 눌이 크면은 못 더끄주마씨.

김순자 경허영 ᄂᆞ라미로 더끄고 우에는?

양기옥 우에 ᄎᆞ겡이.

김순자 ᄎᆞ겡이로?

양기옥 예, ᄎᆞ겡이 멘들앙.

김순자 예.

양기옥 ᄎᆞ겡이 아무나 만들지도 못 헙니다.

김순자 그걸 ᄎᆞ겡이 헙니까?

양기옥 예, 우이 더프는 것이 ᄎᆞ겡이.

김순자 아, 우리는 주젱인데.

양기옥 주젱이, 주젱이.

김순자 ᄎᆞ겡이는 삼춘 뭐 아니? 우비, 비 올 때 입는 거 아니?

양기옥 맞아, 맞아. 옛날 우비 대신.

김순자 삼춘 잘 못 골안.

양기옥 잘 못 골안. 바꽝 골아신게.

김순자 예, 바꽝예. 게난 그 ᄂᆞ레미 우에 허는 거는 주젱이.

양기옥 주젱이.

김순자 예. 그 다음에 그 비 올 때 입는 거는 새로 멘든 거는?

양기옥 건 ᄎᆞ겡이.

김순자 ᄎᆞ겡이. 예, 그런 식으로.

양기옥 감저, 감저 구데기에는 그 무시거 하나 더끄민 뒈여, 우이.

김순자 예, 주젱이.

양기옥 주젱이 하나 톡 더끄민.

김순자 예, 감저 구뎅이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테작허젠 허민?

양기옥 테작허젠 허민?

김순자 으.

양기옥 클.

김순자 예.

양기옥 쒜클, 쒜클 놔근에 보리, 보리는 쒜클로 홀트고 쒜클로 홀타근에 또. 그 옛날은 저 볼려수다게 볼려서. 쒜클로 훌터 놩 저 무시거 소 메와근에 소 메왕 볼리민게 둘리가 조름에 사 둠서 솔박, 솔박헤근에 똥 싸젠 허민 똥 받고 오줌 싸젠 허민 오줌 받고 경 안 허민게 그 보리레 문 가불고 어떵 헙니까?

김순자 예.

양기옥 경헤근에 그거 문 경헤근에 불려마씨. 불려.

김순자 예. 경헤근에 볼린 다음에 불리고.

양기옥 예, 불려.

김순자 그 다음에 거는 도께로는 안 헤마씨?

양기옥 도께로도 헤마씨.

김순자 으.

양기옥 도께로 두불 허곡게.

김순자 아, 도께로 두불 허고예.

양기옥 예, 두불 허고.

김순자 그추룩 헹 다 헌 다음에 그거 널어살 거 아니과?

양기옥 무사마씨. 막 물려사주.

김순자 뭐에서 물렷수과?

양기옥 예?

김순자 뭐에 물련?

양기옥 멍석에, 멍석에.

김순자 예, 멍석에예.

양기옥 멍석베끼 엇엇수다 그때.

김순자 삼춘 멍석도 큰 것도 잇고 족은 것도 영 허여?

양기옥 독석, 독석.

김순자 독석.

양기옥 저 그레 ᄀᆞ는 건 독석.

김순자 ᄀᆞ레 ᄀᆞ는 건예?

양기옥 예, 독석.

김순자 그 독석은 ᄆᆞ냥이 어떵 만들아?

양기옥 동글랑헙니다.

김순자 아.

양기옥 ᄀᆞ레식으로.

김순자 ᄀᆞ레식으로예.

양기옥 ᄀᆞ레식으로 동글락허게.

김순자 ᄀᆞ레, ᄀᆞ레 영 놔근에예.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보리 다 단장헤야 뒐 거 아니과? 단장허젠 허민 이 치는 거?

양기옥 치는 거 얼멩이.

김순자 얼멩이로 치고.

양기옥 얼멩이로 쳐근에 우이 거는 따시 저 뭐 도께로 두드리나. 도께로 두드려서.

김순자 도께로 두드리나. 이렇게 저기.

양기옥 저 마께로 두드리나.

김순자 마께로 두드리나 이제.

양기옥 ᄒᆞ꼼만 헤사 마께로 두드리주 이제 한 거는 도께로나베끼 헐 수가 엇어마씨.

김순자 그런 식으로 다 물리면은 그거는 저장은 어디에 헤마씨.

양기옥 저장은 도레물깡 거튼 디 옛날은. 도레물깡 거튼 거, 이 항아리 거튼 거. 또 가멩이 그런 거베끼 엇엇수다 옛날은.

김순자 삼춘네는 마루에 두지 이런 거는 엇엇수과?

양기옥 아, 두지 잇수다. 두지, 두지도 잇어마씨.

김순자 두지에는 뭘 놧수과?

양기옥 보리 거튼 거. 보리.

김순자 예, 옛날에 그 보리들은 주로 어디에 가냥헤마씨?

양기옥 통개 거튼 거, 두지 거튼 거. 도레미깡, 어떵헹 도레미깡도 나옵디다 옛날은.

김순자 예.

양기옥 하나썩.

김순자 겐 그런 거는 어디에 놔?

양기옥 그런 거 마리, 마리에나 우펭이, 이거 마리민 이 우펭이 놔근에.

김순자 으.

양기옥 안방.

김순자 안방에.

양기옥 안방에도 놓고.

김순자 예, 안방에 놔근에 보관 헷던 거라. 씨 ᄀᆞ튼 거는 뭐에 보관헷수과?

양기옥 씨 ᄀᆞ튼 건 무시거 그 저 허벅 ᄀᆞ튼 디. 쓰던 허벅 저 부리, 부리 까진 거 거튼 디도 놓고 망뎅이도 놓고 경헙디다. 씨 ᄀᆞ튼 거는.

김순자 씨 ᄀᆞ튼 건예.

양기옥 또 보리는 하영 놔 두민 따문 통개에 놓고. 보리씬 하영 놔둬사.

김순자 예, 예. 경헨 허고. 푸는체나 체 같은 건 어떤 때 쓰는 거라?

양기옥 푸는체?

김순자 예.

양기옥 푸는체는 푸고, 우리 다 잇수게, 저디 다 잇어.

김순자 예, 예.

양기옥 게난 이제 다 써집니다.

김순자 주로 푸는 거는 뭘 풉니까, 푸는체?

양기옥 푸는첸 뭐 문 다 헤마씨 푸는체로. 뭐 꿰나 뭐 풋이나 콩이나게 ᄒᆞ꼼 헌 건 다 헴수다.

김순자 그런식으로 허고 체는?

양기옥 체도 종류에 따라 쓰는 게 다 다른 거 아니예?

김순자 예, 예.

양기옥 저 무시거 대체로부터 대체, 또 대거름체, 또 거름체, 총체 경 헴수다.

김순자 대체는 용도가 뭐우과?

양기옥 대체?

김순자 예.

양기옥 대체는 저 무시거 걸르는 거게. 이 꿰 거튼 거 걸르민 좁니다.

김순자 예, 걸르는 거. 대거름체는?

양기옥 대거름체는 또 ᄒᆞ꼼 좀진 거 아래, 그 아래.

김순자 거름체는?

양기옥 거름체는 또 ᄒᆞ쏠 총체보담 ᄒᆞ쏠 훍은 거.

김순자 예.

양기옥 총체는 엿날 미숫ᄀᆞ루 쳥 먹는 거.

김순자 예.

양기옥 집이서, 집이서양 집이서 미숫ᄀᆞ루 만들앗수게. 미숫ᄀᆞ루 쳥 먹는 거 총체는. 질 좀진 거마씨.

김순자 예, 질 좀진 거. 이런 식으로 허고. 뭐 운반허거나 허젠 허면 옛날 돗걸름덜 헷잖아예, 보리 헐 때. 그때는 뭐로 운반헷수과?

양기옥 아, 그것이 밀망텡이도 아니고 밀망텡이보단 큰 건디.

김순자 창멕, 거름착?

양기옥 걸름착, 걸름착.

김순자 으, 걸름착. 창멕은 막 큰 것과?

양기옥 예.

김순자 으. 그 멕에도 옛날덜 막 저장헷어예?

양기옥 예게.

김순자 그 다음에 삼춘 이 덩드렁마께 헤근에 조 같은 거 허젠 허면 덩드렁마께도 헤?

양기옥 덩드렁마께도 헤근에, 덩드렁 엇인 거 엇이 다 잇엇수다게. 덩드렁도 셔야 뒈고 덩드렁마께도 셔야 뒈고 이 저 베 꼬젠 허민양 덩드렁에 두드려야 꼴 거 아니과. 이 저 무시거.

김순자 예.

양기옥 저 찍도, 찍이엔 헙니다 나룩찍 덩드렁 두드려근에 그걸로 저 베 꼬아근에 그 짐도 졍 다니고 경헷수다.

김순자 골체는 주로 뭘로.

양기옥 골체 저 주로 뭐로 대로.

김순자 대로?

양기옥 대나무로.

김순자 예.

양기옥 그 엿날은 대나무로베끼 그 끅으로 헐 충도 모르고양. 옛날은 대나무로 헷수다.

김순자 겐 나중에 허단 보난 끅으로도 허고.

양기옥 예, 끅으로 허고 정동으로 허고 또 쒜로도 허고. 드러 푸는 것도 잇곡 허난.

김순자 예, 예.

양기옥 엿날은 대로만 헤낫수다.

김순자 옛날은 밧디 그 자갈덜 줍젠 허면 뭘로 헤근에 줏읍니까?

양기옥 자갈 줍젠 허면 자갈도 엿날은 그냥 버슬엉 아이 줏엇수다.

김순자 으.

양기옥 중간에사 자갈 줏엇주. 그 골체 거튼 것이 주로 썻어마씨.

김순자 주로 쓰고예. 돌 일르젠 허면?

양기옥 돌 일를 때 철궤.

김순자 철궤로. 철궤로 헤서 돌 일르고.

양기옥 저디 철궤 잇수게.

김순자 예, 우리 지난 번에 찍은 거.

양기옥 아, 저거 찍엇수과?

김순자 예, 예.

양기옥 저디 저 세와진 거.

김순자 예. 철궤도 이제 허고. 그 다음에 그 철궤 말앙 목궹이?

양기옥 목궹이?

김순자 으, 목궹이로도 허고?

양기옥 예, 목궹이로도 허고. 엿날 철궤가 좋주양. 철궤, 철궤 돌 하나 이레 바탕 일러 집니다게.

김순자 아.

양기옥 돌 하나 바톼근에.

김순자 바톼근에예.

양기옥 목궹이는 ᄒᆞ꼼 힘들고.

김순자 아, 건 힘들고. 그 다음에 궹이로 허는 건 뭐?

양기옥 궹이로 허는 건 이 딱딱헌 땅을 일리는 거마씨.

김순자 일리는 거?

양기옥 예, 쪼그만 헌 디 일리는 거. 많이, 많이는 못 일려도 엿날은 대개로 일렷수다.

김순자 갈레죽 이런 걸로는 안 허고마씨?

양기옥 갈레죽도 허고 쉐스랑으로도 허고. 쉐스랑으로도 일르고. 저 이런 우영 ᄒᆞ꼼씩 헌 거 그런 거나 일리주 그냥 주로 밧 갈앗수다.

김순자 삼춘네 이디서도 옛날에 새왓 일굴 때 그 뭐 따비 잇엇수과?

양기옥 아이고, 그거 우리 써숫다. 우리, 우리, 우리가 하영 썻수다.

김순자 아.

양기옥 예. 그저 옛날은게 무시거 잇수과게. 무시거 아무 것도 엇어 놓난 따비로 우리

이겻수다게. 밧 이견에 저 무시거 과수원 헷수다게.

김순자 아. 과수원 헐 때.

양기옥 집단을 허젠 허난양, 집단은게 전체가 다 헤야 집단 아니과게. 경헤 놓난 궂인 밧 잇고 좋은 밧 잇고 헤노난에 그 촐밧도 하나 가운데 끼지 안 헙니까게.

김순자 예.

양기옥 그걸, 그걸 따비로 이경.

김순자 음.

양기옥 게난 아저씨도 이기고 나는 저 무시걸로 진짜 일 너무 헷수다게. 그 저 무시걸로 돌멩이 줏어단에 기냥, 기냥 놔근에 두터레 잘락 허게 비완마씨.

김순자 음.

양기옥 경헨에 나 헤가난 그만 허렌마씨 날ᄀᆞ라 너미 헴젠.

김순자 아저씨가? 하하하.

양기옥 따비로 저 밧 이기멍. 밧 이겻수다.

김순자 삼춘 따비는 이렇게 뒌 게 멧 개 잇수과 놀이?

양기옥 이거 영 허민 이거 이거 발 디디는 디, 발 디디는 디. 발 디뎌근에 영 저 흑을 이렇게.

김순자 하나과 두 개과? 놀이 하나짜리 두 개짜리?

양기옥 놀 하나, 하나. 하나 영 허영.

김순자 웨따비네. 벤줄레 이런 말은 안 들어봣수과?

양기옥 벤줄레가 뭐과?

김순자 따비 같은 거 하나짜린데. 으. 삼춘네는 그냥 따비?

양기옥 따비, 따비.

김순자 따비로.

양기옥 그자 웨로 하나 영 헹.

김순자 예. 옛날 도새기 질루젠 허면 것은 뭐에?

양기옥 것?

김순자 예.

양기옥 저 무시거게. 돌멩이 파근에게.

김순자 돗도고리.

양기옥 돗도고리. 돌멩이 파근에. 돗도고리 헴직헌 거 저 헤근에 그거 막 파근에양.

김순자 예.

양기옥 저 무시걸로 그 저 돌 파는 걸로 문 파근에. 경헨 만들앙 줘낫수다. 견디 도새기가 크민양 그거 문 둥그려 부는 수가 셔마씨.

김순자 예, 맞수다.

양기옥 경허민 큰 걸로 또 앚지고.

김순자 큰 걸로 앚지고 크기에 따라 허는 거라예?

양기옥 예.

김순자 게믄 삼춘 그 돌로 멘든 그릇덜은 어떤 그릇덜이 잇수과?

양기옥 돌로 만든 그릇은 무슨 돗도고리 거튼 거나 만들주 뭘 만듭니까?

김순자 화리는 엇어낫수과?

양기옥 돌화리?

김순자 예.

양기옥 돌화리는양 엿날에 막 엿날에 그 우리 저 낳자마자 그 저 부엌에나 놓주. 돌화리 부엌에나 놓주 그런 거 안 놉니다.

김순자 으. 게믄 삼춘네 뭐 적 헐 때 화리에 굴 때는 돌화리에 안 헤난?

양기옥 건 정동화리에.

김순자 정동화리에?

양기옥 예, 정동화리에. 돌화리에 안 허고.

김순자 삼춘넨 돌화리 안 허고예.

양기옥 돌화리 저 우리는 돌화린 안 써 봣수다. 저 친정에서도 돌화리 써 보지 안 헷수다. 예, 게난 말만 들엇수다. 이 부엌에 돌화리 놔근에 불도 초고 그디 불 살롸근에 저 옷도 몰리고 헌덴.

김순자 예.

양기옥 말만 들엇주 우린 써 보진 안 헷수다. 정동화리 헤근에 그 적도 굽곡 헷수다.

김순자 예. 알앗수다. 삼춘 물질도 헤 봔마씨? 아니.

양기옥 여기서 무슨 물질을 헙니까?

김순자 덕수에는 물질 안 헙니까?

양기옥 덕수에서 물질허는 사람 하나 엇수다.

김순자 덕수 바당 엇수과?

양기옥 덕수 바당 엇어마씨.

김순자 아, 물질은 안 헤 보고예.

양기옥 덕수엔 아주 원 물질헐 셍각을 안 허주마씨.

김순자 삼춘 놀 때 어떤 식으로 놀아?

양기옥 아, 옛날마씨?

김순자 예.

양기옥 옛날은게 저 무시거 새각시 조롬에 가근에 옛날은 새각시엔 허지 안 헷수과?

김순자 예.

양기옥 이젠 신부엔 허주만은. 새각시 조롬에 가근에 그자 노래 불르멍 놀앗수다게. 방돌림을 허던가. 방돌림, 주로 방돌림 허멍 놀앗수다.

김순자 방돌림은 뭐과?

양기옥 방돌림은 돌아가멍 이 사람 혼 번 허민 이 사람 혼 번 허나 경허멍근에 것ᄀᆞ라 방돌림.

김순자 뭐 노래 부르는 거나 거는 거를?

양기옥 예.

김순자 뭐 북 치고 장고 치고 이런 식으로 안 헤?

양기옥 아, 것도 헤마씨 것도 헤마씨.

김순자 겐 뭐 뭐 치멍 놀아.

양기옥 북이 좋아마씨, 북이.

김순자 아.

양기옥 북 치는 게 좁니다.

김순자 북 치고?

양기옥 북 치고 노래 불르고 춤 추고.

김순자 방돌림 헐 때는 수건 돌리거는 그런 건 안 헙니까?

양기옥 아 경은 안 헙니다.

김순자 순서대로.

양기옥 앉앙 영 돌아가멍 그자 느 허라 나 허라.

김순자 삼춘 이 동네는 불미를 하영 헷잖아예?

양기옥 하영 헷수다.

김순자 불미 허젠 허면 거기 필요헌 도구덜도 잇어마씨?

양기옥 필요헌 도구는 뭐 이제 그 오널 허는 쒯물 녹여근에 허는 거 저 솔입양 소낭. 우리 시아바님도 헷수다.

김순자 경허난.

양기옥 불미 허난에 그 소낭밧디 낭을 막 헤당 눌어근에, 그 솔입을 헤당 눌엇다근에 그걸 ᄒᆞ룻밤 그걸 굽디다게. 그걸 궈근에 저 이제 쒯물 녹여근에 그거, 그거 질어근에 솟도 만들도 보섭도 만들고 벳도 만들고 다테기, 서테기 그거 만들멍 풀앙 삽디다 엿날은. 경헤근에 저 헷수다. 주로 그자 그 쒜.

김순자 예.

양기옥 어디 강 쒜 사다근에양.

김순자 쒜 녹이젠 허믄 ᄒᆞ룻밤을 녹여야 뒈는 거예?

양기옥 아니. 저 그 저 만들아 논 저 그 그 저 만들아 논 거, 만들아 논 거 궈야 뒈여마씨. ᄒᆞ룻밤을 궈야 뒈여.

김순자 아, 뒌 거를.

양기옥 예, 영 만들앙 보섭식으로 만든 것도 궈야 뒈고 솟으로 만드는 것도 궈야 뒈고 막 궈 놔근에 뒷날은 또시 문 궈지민 그 저 그 둑 앚져근에 그 쒯물을 받으멍 쒯물 누리는 거 받으멍 그레 주민 잘 뒈는 솟도 싯고 못 뒈는 솟도 싯고 경헤영 이디 보섭 장시 솟 장시 막 이 덕수 사름덜 허멍 살앗수다게.

김순자 음.

양기옥 그것 떼여당양 저 불미 허민 저 보섭 멧 개 떼고 벳, 벳도 떼여당 풀고 솟도 떼여당 풀고 경헷수다. 경허난 우리 그런 거 장선 안 헤 보고 우리 시아버님이 저 불미 헷수다. 불미 허연마씨. 허여근에 당신 뭐 돈 날 것도 엇고 허난 경허멍 삽디다게.

김순자 으, 겐 그 무슨 대장이랏수과?

양기옥 둑 대장.

김순자 둑대장이라난. 겐 거기도 대장덜이 ᄋᆞ라 개 잇잖아예?

양기옥 ᄋᆞ라 개 이십디다.

김순자 둑대장도 잇고?

양기옥 둑대장도 잇고 뭐 그 저 무신 거 불미 대장도 잇고 불미 대장은 저 우이서, 우이서 물 ᄂᆞ려가는 걸 조정허여근에 그 저 쒜 들이치는 사름 불미 대장.

김순자 불미 대장.

양기옥 게난 둑대장은 이 저 물 주는 거. 그 쒯물 주는 거.

김순자 쒯물 주는 게 둑대장.

양기옥 예, 둑대장. 경허영 그디 저 ᄎᆞ례 ᄎᆞ례 다 자기 헐 일 다 허여 갑니다.

김순자 음. 게난 이 덕수는 옛날부터 솟허고 보섭이 유명헌 디 아니우과?

양기옥 예게, 막 나와, 그런 거 ᄆᆞᆫ딱 여기서 허영 장서 막 허영 ᄉᆞ못 경 뎅기멍 드러 풀고 경 헷수게게. 우리 그런 거 안 헤 봣수다.

김순자 예, 워냑 농사도 하영 허고 허난.

양기옥 농사도 하영 허고 이 저 부제칩이엔 헨 와도 아덜이 ᄋᆞ라 성제라부난 저 무시거 밧 하나씩베끼 안 물려수다게. 게난 나도 부자칩이엔 헨 왓수다만은. 부자칩이서 부자칩이 왓수다.

김순자 하하하. 도구덜이 다 나온 거 닮수다. 고맙수다.

✻ 안덕면 대평리 해녀의 물질 도구

조사 김순자
전사 김보향
구술 오연수, 임중자

김순자 먼저 삼춘 일름부터 골아줍서.
임중자 나.
김순자 예.
임중자 임중자.
오연수 저는 오연수우다. 오연수.
김순자 오연수 삼춘은 이 대평리 어촌 계장입니다. 어촌 계장님 먼저 물어보쿠다양. 이디 좀수덜 몇 명쯤이나 잇수과?
오연수 으, 난드르 이것이 대평리도 기고 난드르도 기고예. 우리 어촌계 해녀덜이어, 2014년도까지는 혼 50명이 뒈 나신디예, 지금 2016년도가 뒈니까 37명. 37명, 아파근에 못 허는 해녀덜도 잇고양. 나이가 드셔서 못 허는 해녀도 잇고예, 경헨 현재는 37명이 물질헴수다.
김순자 자, 서른 일곱 명이 물질헴덴 헴신디 우리 어촌 계장님 젊은 거 닮지양?
수강생들 예.
김순자 몇 살이나 뒈신고양?
오연수 지금예, 제가 육십넷이우다.
수강생들 와~
김순자 물질허민 젊어집니다예. 자 우리, 우리 예순네 살이엔 헤신디 물질은 멧 살 때부터 헌 줄 알암수과?

오연수 물질은 열일곱 살 때부터 헷수다.

수강생들 와.

오연수 옛날에는 어무니덜이 학교도, 공부도 안 시키고 애기덜 낳면은 동생덜만 보렌 허고예 열 살 나민 바당에 데령강 해녀 물질허는 거 시켜마씨. 경 시켜근에 육지 물질도 가고예, 출가 해녀로 가고 우리, 우리 지금 오삼년 정도는예, 공부를 많이 못 헷수다.

수강생들 고향도 여기우과?

오연수 고향은 여기마씨, 안덕면 대평리. 원래 친정 동네우다 여기가. 저가 나고 여기서 크고.

김순자 우리 임중자 할머니안테. 여기는 베테랑, 지금도 오늘도 물질 다녀완예. 삼춘 물질 멧 설 때부터 시작헨마씨?

임중자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학교 가 오민 바당에 그 때는 뭐 헐 것이 엇이난 그자 바당에 강 수영도 허고 연습 허멍 그자 베우난, 결혼허자마자 그자 바로 물질허난.

김순자 혼 열 설때부터?

임중자 혼 열 멧 설. 육지도 가 오고 허난에.

수강생들 연세는 어떵 됨수과?

임중자 75세.

김순자 예, 이른다섯. 자 우리 바당 물질허젠 허민예, 쭉 골아줍서. 바당 물질허젠 허민 준비헤야 뒐 도구들이 이실 거 아니우과? 뭘 준비헤야 뒈코예?

임중자 아이고 여라가지, 막 복잡헙니다.

김순자 걸 다 골아줍서.

임중자 테왁, 우선 테왁예. 망시리, 망시리허젠 허민 낭 영 동글락헌 거 잇어야. 거 어음이라고 헤서 그거. 문 이런 지는 연철, 쒜. 것도 혼 지는 사람, 노인덜은 힘이 엇이민 혼 칠 키로썩 지고, 육 키로도 지고, 오 키로도 지고. 비창, 거낫, 호멩이 뭐 여라가지. 젊은 사름은 또 작살, 소살도 만들앙 갓고 다니고. 도구가 만헙니다.

김순자 아까 그 테왁허고, 테왁허고 망시리를 젤 먼저 준비헤야 뒐 거 아니과?

임중자 예.

김순자 게믄 옛날에 테왁은 무신 걸로?

임중자 옛날은 저 콜락게 콜락. 저 무신거 이제 호박 닮은 거 사춘.

수강생들 박.

임중자 박. 골락헤여근에 영 집이 놓민 그것이 호박거치 열매 열민 그걸 막 말려가지고 씨 꺼내 뒁.

김순자 예.

임중자 바싹 물령 그것에 노꼿으로 막 얽어근에 그것이 망시리.

김순자 게민 망시리 어음 허젠 허믄 뭘로 헤서마씨?

임중자 망시리 어음, 그때는 그물도 이렇게 잘 나지 안 허난 찍으로 영 꼬아근에 막 좀지렁허게.

김순자 찍허민 옛날 여기는 무슨 나룩찍인가마씨?

임중자 나룩찍 허영. 그땐 나룩 많이 헐 때난게. 집집마다 나룩이. 못 허는 딘 강 얻어오고 집이 쓸라고.

김순자 게민 그 나룩찍 헤영 망시리 헤영 물질헌 거 언제까지?

임중자 멧 년 뒈수다게. 너무 한창 오래 놓난 혼 삼십 멧 년 거의 사십 년이나 뒛주.

김순자 게민 그 콜락 테왁 헷다가, 콜락 박세기로 헷다가 그 다음 요즘은 무신 거로 허멘마씨?

임중자 요즘은 스폰지게, 하얀 스폰지. 하얀 거. 거 물에 잘 뜨고 허난. 거 뭣이 어촌계에서, 수협에서 거 해녀덜 바다에 들면 선허게 빨강헌 험벅 다 테웁니다. 이 수협에서 그 배 다 지나갈 때에 그 표시로예, 몰라가지고 넘어갈 때에 그 테왁이 벌겅게 틔우민 아 저거 해녀덜이 영업헴구나 헹 좀 비껴서 가게시리 그런 거 허민, 그거 테와 주민 그자 그걸로 헹 두렁박 싸근에.

김순자 테왁 어음 허지 안 헙니까? 어음은 무신 걸로 멘들아마씨?

임중자 어음은 나무, 삼동낭, 삼동낭. 까망헌 열매 여는 거. 민짝허게 줄 걷엉 동글랑 허게 만들고. 요즘은 그것이 첨 어려와양. 나가민 허는디 너무 산에 가민 그것도 너무 무신 거 허니까 이거 무신 것과 빠이쁘.

김순자 음.

임중자 수도 빠이쁘 까만 거 그런 거 허는 디도 잇고 삼동낭 허는 디도 잇고.

김순자 게믄 그게 테왁허고 망시리가 이실 거고.

임중자 예.

김순자 그 망시리 허는디 족은 망시리도 있지 안 헙니까?

임중자 예.

김순자 그거 뭐렌 골읍니까?

임중자 조락.

김순자 조락은 용도가 뭐과, 우리 어촌계장님?

오연수 조락은 우리가 신발 신고 바당에 걸어 갔다가 그 조락에 신발 벗고 집어넣고 집어 놧당 물에서 나올 땐.

〈전화벨 소리〉

김순자 우리 계장님이 정말 바빠양. 게민 삼춘이 골아 줘 붑서, 조락. 조락 용도?

오연수 조락헤근에 우리 물질 갈 때 신발 신엉 갑니다게. 그 밧디 첨, 옷 벗어근에 신발 신엉 안 걸어가민 그 자갈밧디 발 찔러 불엉 아파. 게민 신발 신엉 강 그 조락에다가 집어넣고 또는 전복 캐여근에 놓고 거기다. 또 해삼 잡아근에 놓고. 그축예 조락에다 그런 거 사용헙니다. 조그만허게, 망시리는 크고 조락은 조그만허게 헤근에예.

김순자 저는 그 전복 캔 것도 뭐렌 헙니까, 일본말만 생각남수다. 기스 나지 않게.

오연수 아, 예, 예.

김순자 상처 나지 않게.

오연수 구제기영 ᄀᆞ치 담당 보민 구제기로 찔러 불엉 전복이 죽어불카부덴 따로 보관헤예. 해삼도, 해삼도 잡아근에 소라 잡아 논 디, 구제기 잡앙 논 디 ᄀᆞ치 놓민 두렁박 엎어근에 이런 디 보민 소라 엇이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휘여다닙니다게. 휘여다녀 가민 해숨이 소라, 구제기에 막 이렇게 이렇게 헤 불민예 하양헤 불엉 잘 먹지 못 해마씨. 겐 상품도 안 뒈고. 겐 조락에 따로 집어놉니다.

김순자 전복이 귀헌 거니까. 그추룩 헤여근에 허는디 그 궤기 잘 쏘는 사람들 아까 무신 거 들렁 갑니까?

오연수 소살, 소살.

김순자 소살. 작살이라고도 허는 소살예. 지난 번 와근에 조사헐 때 보난 여기는 작살이, 그 소살이 두 개 뒌 겁디다. 두 소살이렌 헙니까, 여기 뭐렌 골아?

오연수 두 가닥마씨.

김순자 두 가닥으로 뒌 거.

오연수 예, 예.

김순자 게난 옛날에 혼 가닥으로 뒌 거 안 헤 봔마씨?

오연수 이제 지금도 혼 가닥 허는 사름도 잇고 세 가닥 허는 사름도 싯고 네 가닥 허는 사름도 십니다게.

김순자 네 가닥까지?

오연수 예, 예. 고기가 네 가닥으로 찔르민 잘 안 빼지게 허고.

김순자 예, 예.

오연수 또로 잘 못 찔르는 사람은 혼 가닥도 허고 두 가닥도 허고.

김순자 음. 게믄 그 혼 가닥 뒌 거 불르는 일름 또로 잇고.

오연수 건 혼 가닥짜리. 두 개는 두 가닥짜리.

김순자 뭐 혼 소살, 두 소살 안 허는구나.

오연수 예, 혼 소살, 두 소살 안 헤마씨.

김순자 여기는 가닥으로예.

오연수 예.

김순자 경헤근에 삼춘은 소살로 헤근에 어떤 궤기 쏘아 봅디가.

오연수 나는예 처음부터 소살을 안 베와 부난 못 헤마씨.

김순자 아.

오연수 그 소살도 허는 사름은 자꾸 허는디 우리는 처음부떠 그게 소살허민예 이물질헐 때 막 지장이 있습니다게. 머리에 다칠 수도 잇고 이추룩 휘여 뎅기당 보민 사름 몸에 찔를 수도 잇고. 경헤 부난 우린 처음부터 그걸 안 베완예. 우리 대평리에 그 소살허는 사름이.

김순자 우리 임중자 삼춘.

오연수 예, 삼춘 헙니다. 한 열 사름 미만이우다게. 소살 들르는 사람이.

김순자 아, 게민 그 소살 얘기를 헤 줍서. 어떤 궤끼 쏘아난 거.

임중자 우린 멀리 못 가난, 나이 드난 멀리 젊은 사름 거치 활동을 못 허니까 가에서 객주리 거튼 거, 우럭 그자 간단헌 고망에서. 너미 큰 거.

김순자 못 허고?

임중자 신 디 가질 못 헤.

김순자 젊었을 때는 어떵 헷수과?

임중자 그 때는 물건을 권찮허게 잡으난 그거 소살허민 너무 무신 거 허니까 그냥 소살 안 헌디, 이젠 소살 어쩔 수 엇이.

김순자 아, 요새가 소살 하영. 음.

임중자 간단헌 거 그자. 젊은 사람 막 좋은 거 헙니다게. 다금바리여 갓돔이여 멋진 고기덜 막 헙니다.

김순자 삼춘 여긴 문어는 뭐렌 골읍니까? 이 동네?

임중자 물꾸럭.

김순자 자, 오늘 물꾸럭 우리 어촌 계장님이 잡은 겁니다. 맛있었죠?

수강생들 예, 맛좋게 먹엇수다.

김순자 예, 맛좋게 먹엇수다예. 그 물꾸럭을 잡젠 허면 그 사용허는 도구가 잇어예? 이 동네 말 다른 디 허고 또·납니다. 뭐우과?

오연수 거낫마씨.

김순자 거낫.

오연수 물꾸럭 잡는 거낫.

수강생들 거낫?

김순자 거낫. 거낫이 어떵 생긴 건 지 삼춘이 골아 줘 붑서.

임중자 호멩이보단 크고 그것게 ᄌᆞ룩헹 이디 싹 오그라졍 걸리만 허민 영 걸려졍.

김순자 거낫. 걸리는 낫?

임중자 거낫. 호멩이엔도 허고 거낫이엔도 허고. 건 호멩이보단 깁니다. 길어야. 문언 막 깊은 소곱에 들어가니까.

김순자 게믄예, 삼춘 여기 호멩이 옛날은 호멩이엔 안 골아실 건디.

오연수 골겡이, 골겡이.

김순자 예, 옛날은 바릇 골겡이 아니과예?

오연수 예, 골겡이.

김순자 게난 그 골겡이 가져근에 바당에 강 잡는 거는 뭐 잡앗수과?

오연수 골겡이로양 돌 아래 가근에 깊은 돌 아래 강 구제기도 잡아오고.

김순자 으.

오연수 귀도 파 오고.

김순자 으.

오연수 또 옛날에는 그 골겡이로 오분제기 그 바르.

김순자 바르도 트고.

오연수 오분제기가 아니고 바르, 바릇 캐고. 전복은 비창으로 캐고.

김순자 으.

오연수 예, 다 도구가 틀려마씨.

김순자 기잖아예.

오연수 예.

김순자 옛날도 귀를 하영 잡아신가마씨?

오연수 예, 옛날은 귀 헤십주게. 겐디 막 그자 풀진 안 허고 먹음만. 게민 귀 트는 골겡이 허고.

수강생들 귀가 뭐예요?

김순자 귀, 성겝니다. 성게, 성게. 예전에 저쪽은 구살 허는데 여기는 귀. 성귀, 귀. 여기는 대평리 말은 귑니다. 자, 귀 트는 골겡이 허고 바릇 트는 거 허고는 그 모냥이 ᄀᆞ타마씨?

오연수 예, ᄀᆞ타마씨.

김순자 예, 건 ᄀᆞ트고. 그니까 문어 허는 거는 거낫?

오연수 예, 거낫.

김순자 거낫은 좀 크고 그 골겡이는 족고.

오연수 족고.

김순자 그추룩 헤근에 물질허고 삼춘네 옷. 요즘이야 고무옷들 입엄주만은.

오연수 속곳.

김순자 예, 속곳. 그 속곳에 대행 ᄒᆞ꼼 골아줍서. 옛날에 막 얼고 헤신디 삼춘. 속곳은 어떵 생겨낫수과, 옛날?

오연수 광목으로 멘들앙.

임중자 광목으로 멘들앙, 것도 여라가지로. 처음엔 영 광목으로 본 떠 가지고 집에서, 각자가 다 집에서 뎅 만들어신디예. 말쩬 너무 추워가니까 적삼, 하얀 광목으로 적삼 또 그레 끼워 입어서 허고 또 그냥 이추룩 그 적삼이 속곳이 한 가달로만 허민 너미 추우니까 이 어깨까지.

오연수 두 가달로.

김순자 예.

임중자 그렇게 해서 영 헤영 입곡. 그추룩 헷당 이젠 옷덜이 원체 고무 옷덜이 좋게 ᄠᅳ스게 잘 나오니까양.

김순자 삼춘 그 속곳, 속곳을 여기서는 뭐렌 불러마씨?

임중자 속곳이엔 헙니다.

김순자 속곳, 소중의?

오연수 예, 소중의.

김순자 소중의예. 겐 소중의 허면은 어깨가 ᄒᆞᆫ 짝만 잇지 안 헙니까? 어느 짝이 어깨 이신 거우과?

오연수 어깨 이짝에 잇어낫수다. 오른 짝.

김순자 이 오른 짝 어깨를 뭐렌 골읍니까? 뭐 미친, 매친?

오연수 아니, 미친은 골롬, 골롬이고 이거 무끄는 거.

김순자 골롬이고 그냥 여긴 어깨렌?

오연수 예, 어깨, 어깨다리 헙니다.

김순자 어깨다리 예.

임중자 ᄒᆞᆫ 짝, ᄒᆞᆫ 끈만 허다가 이디가 허헤서 추우니까 소데나시로 이렇게 양쪽에.

김순자 예, 민소매로 헤근에. 그추룩 헤근에 입어난 게 언제까지 경 입언마씨.

임중자 아이고 한창 뒛수다게.

김순자 음.

오연수 고무옷 나온 지가 혼 삼십오 년 뒘신가?

김순자 으, 칠십년대 정도 나왓덴 허난예.

오연수 예, 삼십 년, 삼십오 년 뒘수다.

김순자 게민 머리에는 뭘 써신고예? 머리도 써야 뒈잖아.

오연수 물수건.

김순자 물수건 말앙 다른 건 안 씁디가?

오연수 예, 물수건 말앙 다른 거 하나도 안 써 봣수다.

김순자 아, 여긴 모자 안 썬? 육지 물질 가시민 모자도 써실 건디.

오연수 아니, 육지 물질 갈 때도양 이런 물수건 썻수다. 어린 때는.

김순자 겐 까부리엔 헹 모자는 안 썻구나.

오연수 아니, 그 물수건 써난 다음에 까바리. 예, 물수건 써난 다음에 까바리 만들어십주게.

김순자 예, 까바리. 까바린 어떤 식으로 생겨서마씨?

오연수 까바린 모자 식으로 통으로 다 만들앙 이런 디 끈으로 무꺼마씨. 겐 수경만 딱 쓰면은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게끔. 딱 수경만 쓰면은.

김순자 예, 경헨 이제 허고. 아까 이제 수경이렌 골아신디 옛날에는 두 개로 뒌 거 아니예?

오연수 으, 안경, 안경.

김순자 그걸 뭐렌 헙니까 이디서는?

오연수 안경, 안경. 물안경.

김순자 눈이엔은 안 헙니까?

오연수 예, 눈도 기우다. 눈이엔도 허고 안경이엔도 허고.

김순자 겐 그 족은눈은 어디서 강 산 썬마씨 여기는?

오연수 족은눈 헐 때는 대개 보면 철물점에 강 사 와실테주. 철물점에.

김순자 어디 동네에 잘 만드는 하르방덜 엇이고?

임중자 엇어. 나가야. 것도 여라가지. 눈도 작은 거 잇어 안경 거치 두 개도 쓰고 게 안 허민 이 코 우이로, 코 우이로 영 헤서 입에 호수 물엉 이렇게 허는 안경도 잇고.

김순자 음.

임중자 또로 통채로 다 허는 안경이 세 개, 세 가지라.

김순자 세 가지예. 게믄 눈 영 두 개 헌 안경, 족은 눈 그거는 언제까지 썬?

임중자 이거 큰 안경 나오니까 그거는 안 허고.

김순자 예, 그건 안 허고예. 삼춘네 물질헤근에 눈 써근에 물질허젠 허면 딱 바당에 가면 눈부터 시쳐야 헐 거 아니과?

임중자 예.

김순자 게민 거 무신 걸로 시쳐?

오연수 속, 속.

김순자 속으로?

오연수 예.

김순자 속으로 거 시친덴 헙니까, 뭐 헌덴 헙니까? 뭐 다깜저 허지예?

임중자 안경 다깜저, 눈 다깜저.

김순자 눈 다깜저. 거기 핀 기름은 뭐렌 골아?

임중자 기름?

김순자 예, 눈에.

오연수 아, 저 지름 폄젠, 지름 폄젠.

김순자 게민 그거 속으로.

오연수 안경에 지름 피민 치약도 헹 다끄고. 또로 치약 짜 놓고 속 허고 헹 밀어.

김순자 음.

오연수 경헨 안경 쓰민 속 내도 나고 치약 내도 나고.

김순자 음.

오연수 게근에 저 안개도 안 끼고. 지름도 안 펴마씨.

김순자 지름도 안 펴예.

오연수 초 핀덴 헴서, 초 핀덴 것이.

김순자 아.

오연수 안경 소곱에서 그 지름 피는 게 초 핀덴 헹예양.

김순자 예, 예.

오연수 초 핀덴 헹 치약 놓고 속 놓고 헹 이렇게 닦아근에.

김순자 그걸 초 핀다고.

오연수 예.

김순자 그거 초 피는 거는 안경 다끄는 거는 속으로만.

오연수 예, 예, 속으로만.

김순자 그 다음에 귀도 막아야 뒐 거 아니양?

오연수 예, 우리 동네 해녀덜도 귀 막는 해녀가 반은 뒈마씨.

김순자 예. 역시 젊으시네. 겐 귀 막는 거는 뭘로 막아낫수과 옛날에?

임중자 아니 이제도 우린, 저는 안헴수다만 이제도 딱 귀 막는디 껌덜, 그 저 문구사에 가민 파는 것이 잇는 거.

김순자 으.

오연수 애기덜 만드는 찰흙 닮은 게 잇는 거.

임중자 껌 거치 뚜꺼운 그 무신 거. 그거 허민 손으로 막, 막 그 개인이 다져근에 양쪽으로 그냥 딱.

오연수 일산, 일본 가근에 올 때 그 저 천냥마트에 들어가민 그 애들 만드는 거 요만씩 사각형짜리가 이십디다예.

김순자 예, 예.

오연수 그거 하나에 백 엔, 백 엔 허는 거. 백 엔 허는 거 그거 헤당 허민예 할랑할랑 막 오래도 뒈고.

김순자 음.

오연수 우리 이 제주도에 문방구에서 파는 거는 쪼그만 쓰면은 빡빡 굳어 불엉 못 써마씨.

김순자 게민 그거는 요즘 나오는 거고 예전에 혹시 밀로 헤갓고 귀마개 헤낫덴 소리는 안 들어 봔마씨?

오연수 껍 씹당 막 헷덴 헙디다.

김순자 껍 씹당.

오연수 예, 막는 사름덜 보난.

김순자 밀로는 안 헤 봔? 청, 청 주시로 헤갓고.

오연수 아, 그런 건 안 헤 보난 몰라.

김순자 아, 그건 안 들어 봅디가?

오연수 예. 옛날 사름덜은 보난 이 안경을 영 썬에 코 우이로 쓰는 거엔 허영 영 호 불멍 내려간덴 헙디다만은. 귀 안 막안에.

김순자 귀 안 막아근에.

오연수 그런 사름도 이십디다게, 우리 어린 때에 영 보민.

김순자 그추룩 헤근에 그거는 물질을 허는 거라예. 물질허지 말앙 바당에 가면은 그 옛날에는 다 메역덜 ᄌᆞ물앗잖아예. 그 망시리도 메역 망시리 뭐 헛물에 허는 망시리가 다 ᄐᆞ나마씨?

오연수 예, 예.

김순자 건 어떤 식으로 ᄐᆞ납니까?

오연수 거 언니 골읍서.

임중자 메역 망시리는양 메역이 막 물을 짜지기 때문에, 물이 짜지는 따문에 그 코를 망시리 굵게 헙니다, 굵게. 그 물을 ᄒᆞ꼼 빨리 짜지라고. 거 저 굵은 거 메역 망시리는 벨도로 허고 그 작은 거, 우리 소라 잡는 망시리로 허민예 찬물이영 그 미역이영 놓민 빵빵헤서양 나오젠 허민 너미 물이 안에 싸져가지고. 그렇게 메젠 허민 힘듭니다게. 게민 막 그 미역을 꺼내 가지고 그 빌레에다가 지쳥 그 물 빠지게 헹 져 오고 경해낫수다게.

김순자 음.

임중자 게난 그 미역 망시리 ᄯᅮ로 헛물 망시리 틀려마씨.

김순자 으, 게난 그 메역 망시리 허고 그 크기도 막 ᄐᆞ난덴 허멍예?

임중자 예, 예.

김순자 그게 더 커?

오연수 미역 망시리가 막 커마씨.

김순자 아, 미역 망시리가 더 커. 요즘 메역은 안 ᄌᆞ물암지양.

오연수 헴수다, 요새도.

김순자 아, 요즘도 이 바당에는 메역 남구나예?

오연수 예.

김순자 게난 예전 같으면, 요즘이야 구젱기 그런 거 많이 하지만 예전에야 다 메역

헷잖아예? 게민 예전에 메역 허체 허는 거는 언제 헤마씨?

오연수 삼월에 헙니다, 삼월에. 음력 삼월에.

김순자 음력 삼월에.

오연수 예.

김순자 옛날 메역 허체헐 때 그 풍경을 골아줘 봅서. 이 바당에 풍경.

오연수 우리 옛날에는양 이 구젱기 전북은, 구제기 전복은 잡아다근에 먹곡양. 미역은 헤근에 애기들 공부시키고예. 또 생활비, 이 살림 사는 데 보태고. 이 미역이 주로 헤신디 이 미역 허젠 허민 호미.

김순자 으.

오연수 호미 지금은 낫이렌 허주만은 호미. 호미 가졍 들어가는디 미역 망시리가 이 남자 어른덜 등짐으로 지게 뒈면은 혼 네 짐, 다섯 짐 질 정도로 망시리 크게 만들아. 경헤서 그 망시리 이빠이, 망시리 이빠이 헙니다. 이빠이 헤근에 밖에까지 휘여 오면은 남편덜이 가근에 그걸 다 저 쪼금씩 쪼금씩 꺼내멍 져 와예. 져 와근에 그거를 널고. 미역 헹 널엇다근에 혼 칭, 두 칭 허멍 팝니다게. 그거 팔 때는 뭐 그 때는 멧 백 원씩. 혼 근에 뭐 이, 삼백 원씩. 경헤근에 팔고 이 구젱기 같은 거, 전복 같은 거는 헤다근에 먹기만 헷수다양. 겐디 지금은 소라나 전복이나 이런 성게나 그런 거는 다 헤서 팔고 이 생활비 허고 애들 공부 시키고 다 그렇게 허는디 미역은 요 근래에만 쪼금, 쪼금 헤여근에 말령 키로에, 키로에 이제 일키로에 이만 원, 오백 그람에는 만 원. 그런 식으로 헤근에 저 말려근에 육지서 많이 사 갑니다. 이 제주도 난드르 와근에예. 게난 그런 식으로도 팔고. 이제는 미역은 많이 안 헙니다. 옛날 미역만 헹 막 살고 헤신디.

김순자 게난 삼춘 여기 메역은 다른 디보단 맛 좋덴 허멍양?

오연수 예, 맛 좋아마씨. 돌미역이라부난.

김순자 돌미역이니까. 그 메역을 주물젠 허민 아까 호미를 가졍 가지 안 헙니까?

오연수 예.

김순자 그 호미허고 밧디 호미허곤 투나잖아?

오연수 예, 투납니다.

김순자 어떤 식으로 ᄐᆞ난지 ᄒᆞ꼼 골아줘 봅서.

오연수 미역 호미는 조그만 헙니다.

김순자 예.

오연수 조그만 헹 중기호미, 저 중기호미엔 헹양, 호미ᄀᆞ라 일름ᄀᆞ라도 미역호미는 조그만 허난 그 중기호미, 중기호미 허고양.

김순자 으.

오연수 그 큰 호미는 촐 빌 때, 새 빌 때.

김순자 음.

오연수 또 감저줄 같은 거, 이런 거 빌 때. 게난 큰 호미는 밧디 뎅기 때 밧 호미.

김순자 건 밧 호미렌 허고?

오연수 예, 밧 호미, 밧 호미.

김순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게호미우과, 중호미우과?

수강생들 중지호미, 중지호미.

오연수 중기호미렌 안 헙니까?

임중자 몰라. 중게호미.

김순자 으, 중게호미.

임중자 여기 그 호미가 너미 크민 우리가 내려가젠 허민 버쳐마씨. 게난 자그만 헌 거, 간단헌 거.

김순자 으.

임중자 그렇게 헤서 그 미역 따는 호미는 벨도로 작은 거.

김순자 예, 그 중게호미 하면 이 밖으로, 옛날 밧디 허는 거는 이 안으로 밖앙 있고.

오연수 예.

김순자 이 물 속에서 허는 거는 밖으로 영 둘루진 안 헙니까? 쒜로 헤갓고 딱 허게.

오연수 아니, 호미는, 호미는양.

김순자 예.

오연수 밖에고 안내고 밧디 다니는 거나 바당에 뎅기는 거나 다 거의 비슷헤마씨.

김순자 아.

오연수 적기만, 크고 적은 것만 차이나.

김순자 크고 작고. 음 그걸 중게호미엔 허는 거고예. 그 다음에 이제 물질허레 뎅기멍 배 탕도 뎅기지 안 헷수과?

오연수 예, 예.

김순자 어떤 배들 탕 뎅겨신고양?

오연수 배 타는 거는양, 우리는 바다가 가까이에 잇어부난 가까이에 이시난 배 물질을 잘 안 헤 봐신디.

김순자 으.

오연수 옛날 그 우리 할무니덜이나 어무니덜 허는 걸 보믄예.

김순자 예.

오연수 이 가파도나 저 홀에미섬이렌 잇수다. 홀에미섬에 갈 때는 여기서 발동기, 배 ᄀᆞ라 발동기엔 헤예.

김순자 으, 으.

오연수 발동기 헤근에 빌엉 탕 가근에 구제기영 전복이영 막 잡아 와나신디 이제는 그 법이 이제는 절대 남의 구역을 이제는 얼르질 못 허게 헤양. 이제는 자기 마을 앞이 어장만.

김순자 으.

오연수 자기네 어장만 허기 때문에, 우리는 뱃물질 별로 안 헤양, 안 허는디 한전하고 우리 저 화순하고 대평리 경기가 잇수다게, 경계 바당 갈 때는 이제 덤장 허는 배가 잇수다.

김순자 예, 예.

오연수 이제 일종 어장만 다니는 배. 그 배는 우리 해녀덜 시끄곡 덤장 배만 허고 일종 어장 안에만.

김순자 예.

오연수 십오메타 안에만 다니는 배. 그 배 헤근에 저 우리 한전 바당에 가근에 잡앙 예, 올 때도 그 배로 시꺼오고 경 헤낫수다게. 요 근래는 계속 경헷수다. 한, 한 오년 전부떠는.

김순자 게난 삼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육지 물질 가젠 허면 옛날에 배 내 젓엉 가고 허진 안 헤마씨?

임중자 내 젓엉, 내 젓어 보지 안 헷수다. 내 젓긴 허여도, 내 젓는 딘 구역이 틀려. 내 젓는 디도 잇고 안 젓엉.

김순자 게민 삼춘네 그 출가 물질 갈 때는 다 발동기 탕 갓구나예?

오연수 예게, 도라지호.

수강생들 하하.

오연수 도라지호, 아리랑호.

임중자 여기서도 포구에 우리 대평 포구에서 전주덜이 바당 산 전주덜이, 인솔자.

김순자 으.

임중자 해녀덜 모집허영 배 허민 그자 쌀, 아이고 옛날에 쌀 혼 섬, 혼 섬.

김순자 음.

임중자 먹는 거, 것 가민 그자 한 방에 서이, 너이 자민 자기 각자 만썩 자기썰 간 거 차곡차곡 놔 가지고 거기서 밥 졍 먹으멍 영 허멍 허다가 들어오고 추석 때 가까워 오민 고향 온다고.

김순자 게난 그 전주가 해녀덜 모집헹 가지 안 헙니까게?

임중자 예.

김순자 게민 그 전주가 멧 명씩, 혼 배에 멧 명씩?

오연수 열 사름썩.

김순자 음. 열 사름썩?

오연수 혼 배에 열 사름썩.

수강생들 할머니덜도 거기에 가셨는지 한 번.

오연수 예, 우린 강원도 신남. 해녀벌이 열여덥설에 가신디양 강원도. 한 배에 열 사름썩 배가 네 척이난 사십 명.

김순자 음.

오연수 대포, 중문리 해녀덜허고 우리 부락 해녀덜 허고 배 네 척에 열 사름썩 사십 명 가는디 그디도 순 미역.

김순자 음.

오연수 미역 허는디 그 때 고무옷 엇엇수다. 속곳 입고양, 적삼 입고 아래 스타킹 신고.

김순자 음.

오연수 그축 헹 가근에 그 강원도 물살에 간에 어린 때 물질을 헤나부난 뼈에 겨울에 눈 온 때고 뭐 헌 때고 막 찬물에 들어갓당 나와 불 쪼고 찬물에 들어갓당 나와 불 쬐고 허멍 그 배 바당 산 사름덜이.

김순자 음.

오연수 제주도 해녀덜이 가면은 그 바당에 물건을 꺼내야만 자기네가 돈 벌이가 뒈난 우리를 하루면은 멧 번씩 집어놓주게 물에.

김순자 으.

오연수 불 쬐영 디물리고 불 쬐영 디물리고 허면은 그 고무옷 안 입고 헌 때 그런 물에 강 살아나부난 뼈가, 뼈가 지금에 가만이 저가 살고 보난 이상케 아프고 쑤시고 허는 게 그 어릴 때, 어릴 때 찬물에 강 자꾸 그거 헤난 것이 생각이 딱 나마씨.

수강생들 아.

오연수 그 때 고무옷 엇어근에 고무옷만 잇어시면은 덜 헐 건디. 고무옷 엇어놓난 강원도 물살 엄청 추웁디다.

수강생들 몇 년간 그걸 하셨어요? 몇 년간?

오연수 지금 열여덜 살에 갔다오난 뭐 사오십 년 뒛지 아마.

수강생들 아니, 몇 년 동안 그걸?

오연수 아, 이 년 갓다왓수다, 이 년. 강원도 신남에 이 년 가오고 또 여기 한산면 통영군 비진이렌 헌 디 일 년 가오고. 겐 삼 년을 우리도 출가 해녀 가 왓수다. 처녀 때, 아가씨 때.

수강생들 한 번 가면?

오연수 으덥덜씩 살아마씨, 으덥덜.

수강생들 보수는 얼마나?

오연수 보수는 그 당시 한 번 강 미역 헤근에 미역 말려근에 그 **덜 지네가 가져가고 우리가 주곡 허는 게 잇어예. 경허믄 그거 말려근에 한 번 보내는 게 오만 원 보내낫수다, 오만 원. 그 옛날 이 사십 년 이상 뒌 때 오만 원. 이 집더레 보내여예, 보내고 미역 끝나면은 뚜로 전복 거튼 거 터근에 성게 허고 전복 허여근에 팔월멩질에 올 때 혼 이만 원 돈 벌면은 그때 이만 원이 이제 이백

만 원, 이천만 원 돈이라예. 그거 헹 오면 제주도 올 때, 부산서 오멍 동생덜 나시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그땐 사과 같은 것도 막.

김순자 귀헨.

오연수 귀헷수다. 게난 사과 혼 상자 그 나무박스로 만든 거.

수강생들 예, 예.

오연수 그거 혼 상자 사곡 헹양 도라지호 타근에 멩질 아시날 또 아시날 쯤 옵니다. 우리가. 겐 와근에, 혼 여덥덜 살앙와예 육지 강. 겐 오곡 헤신디 어린 때 고무옷 안 입엉 물질 헤난 게 엄청 지장 이신 거 닮으우다.

김순자 게난 그 팔월 멩질 앞둬근에 오는 거 아니라예?

오연수 예, 옵니다.

김순자 그추룩 헹 이거는 물질허는 거고, 옛날에 바릇찹으러 가젠 허면 집에서 뭐 들렁 가마씨? 그 바릇찹앙 놀 거는 무신 거?

오연수 저, 조레기.

임중자 조레기. 구덕 헤영 배 헤영 졍.

김순자 예.

임중자 테왁 헤영 졍 가민게 뭐 다 문어나 뭐 물건 헤 놓민 그 구덕에 대바구니 놩 배로 졍 또 오고.

김순자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

임중자 예.

김순자 이 난드르 바당에도 혹시 그 원들도 잇엇수과?

오연수 예?

김순자 멜 드는 원통?

오연수 예게, 잇엇수다.

김순자 여기는 뭐렌 골읍니까?

오연수 멜 드는 통ᄀᆞ라?

김순자 예.

오연수 기자, 기자 통이렌 허는디 우린.

김순자 여기는 멜통예.

오연수 으, 기자 통. 통 안에 멜 들엇저, 통 안에 멜 들엇저.

김순자 예, 그 통 안에 멜 들믄 어떤 식으로 강 잡는 거라마씨?

오연수 그, 옛날에는 고기 나끄젠 허면은 새우체가 잇엇수다, 채.

김순자 예.

오연수 그 ᄌᆞ록헤근에 망아리 만들아근에 길게 만들아근에 구멍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앙 그거 가졍 강 그걸로 이렇게 떠마씨.

김순자 음.

오연수 뜨기도 허고 또 없는 사름은 바가지 가져 강 막 이 우터레 막 지쳐마씨. 지치면은 멜 이런 저 돌 우이 올라오민 줏어 오고 경 헷수다.

김순자 게민 그거를 새우체렌 골안?

오연수 예, 새우체.

김순자 여기서는 뭐 다른 말로는 안 곧고 새우체?

오연수 예, 새우 거리는 거난 새우체.

김순자 게민 자리도 여기 거려낫수과?

오연수 예, 예.

김순자 자리 거리는 거는 무신 거렌 골아?

오연수 자릿그물.

김순자 건 자릿그물?

오연수 예, 자릿그물.

김순자 게믄 여기 그 테 배, 테.

오연수 예, 테.

김순자 테 허는 거는 무신 거라마씨?

오연수 그 테 헤근에 몸도 비여오고 예.

김순자 예.

오연수 테로 헤근에 감태도 비여오고. 몸 헤다근에 옛날 몸 꼴아근에 밧디 농서 허젠 허민 그 테로 가근에 몸 비여다근에 말려근에 밧디 강 꼴민 감저 싱그고 보리 갈고, 조 갈고 산디 갈고 만딱 그걸로, 걸름으로.

김순자 테로 자리 거리레는 안 뎅겨봔마씨?

오연수 걸로 안 뎅겨, 배로.

임중자 안 뒙니다.

김순자 아.

오연수 배로.

임중자 배로 허여근에.

김순자 아, 여기는.

임중자 배로 헹 크게 배에 돗대 세우고 그물을 막 크게 허영 막 퍼지게 헤사 자리를 뜨주. 그냥 아무 거로는 못 헙니다게.

김순자 아, 테로 안 헹예. 게믄 그 자릿배 헤갓고 그 자리배 가면은 무신 걸로 거리는 거? 그거는? 자릿그물은 무신 그물이엔 헙니까? 사둘이엔 안 골아.

오연수 예, 자릿사줄.

김순자 음.

오연수 자릿사둘. 막 요만큼 ᄒᆞ꼼 막 줌진 거. 그거에 헹 거리민게 아까 새우체 잇수게양.

김순자 예.

오연수 그런 걸로 떠당 배로 영 비웁니께. 영영 거리멍.

김순자 거리멍. 경헨 그 자리사둘은 동글랑헌 거 아니?

오연수 예, 예. 영 둥그렁허게 이 대나무.

김순자 예.

오연수 대나무 깨여근에 얄룹게 깨여근에 둥그렇게 어음 만들앙. 겐 만들아근에 그 걸 우에 돗대헤근에 끄네기 길게 만들아 놧다근에 그 자리 시민양, 툭허게 놔근에 자리 들민 들러내고.

김순자 음.

오연수 자리 뜨젠 허면은, 나무로 헤근에 이만큼 길게 헤근에 이 밑에는 유리 박앙.

김순자 으.

오연수 우에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유리로 보면은 바닷속에 그 유리로 뭐 잇는 거 없는 거 봥.

김순자 예.

오연수 경헤근에 자리 사둘 들이쳥 건지고 경 헷수다. 옛날에는.

김순자 옛날에는. 게믄 그 자리 저 유리 박은 그 이름은 뭐렌 골아?

오연수 그거 언니 뭐엔 헙니까? 그거는?

임중자 나도 건 모르큰게.

김순자 뭐 물안경처럼 자리 안경?

오연수 예, 물안경추룩 헹 만든 거.

김순자 그거 이름 튼내지 못 허쿠과?

오연수 으, 그거는 튼 못 내큰게.

김순자 그건 식으로 헹 바당에 강 자리 거려오는 거 아니예?

오연수 예.

김순자 여기는 그 멜 거리는 거는 다 통에서 거리고?

오연수 예. 아니, 멜도.

김순자 으.

오연수 멜배는 우리가 엇어양.

김순자 으.

오연수 멜배는 모슬포에가 많아양.

김순자 예.

오연수 모슬포 축항에서 멜배를 우리 마을에 뜨러 옵니다.

김순자 아.

오연수 경허믄 멜배를 다녀근에 뜨레 오멍 다니믄 멜배는 불 싸근에 막 다울려부는 따문에 그 멜이 잘못 걸리믄 통 안에 들어오는 거라.

김순자 아.

오연수 통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는 또 통 안에 멜 들엇젠 허멍 가근에양 막 구덕으로 뜨는 사름 이 저 아까 골은 듯이.

김순자 자리체.

오연수 자리체로 뜨는 사름. 무슨 막 새우체로 뜨는 사름, 막 경 헙니다게.

김순자 음. 게난 이 동네는 따로 뭐 후리허거나 이런 거는 안 헷구나.

오연수 예, 멜배는 엇어마씨.

김순자 멜배는 엇고예.

오연수 멜배는 우리 부락도 엇고, 화순 부락도 엇고, 이 동카름 부락도 엇수다.

김순자 으.

오연수 큰 항구에만.

김순자 항구에만.

오연수 모슬포 항구에는 잇엇수다.

김순자 겐 이쪽에는 모살 바당 이런 것도 없나보다양.

오연수 모살바당 이십주게.

김순자 잇어도 후리는 안 하고.

오연수 예, 예. 그런 건 하나도 안 헤마씨. 옛날부떠 그런 건 안 헙니다. 우리 동넨 어떠난.

김순자 궤기 잡는 사름덜도 하신가마씨?

오연수 솔라니 배는 이십주게.

김순자 솔라니 배?

오연수 예. 솔라니 배, 주낫 허는 배. 그거는 헤도 그거 허고 자리 뜨고 히라스 나끄고 허는 건 잇어도 멜은 안 헤마씨.

김순자 게민 그 솔라니 배, 그거 골아줍서. 어떤 식으로 강 헤 오는 건지?

오연수 솔라니 배는 그 이런 사각형으로 나무로 이런 주낫 상자.

김순자 예.

오연수 주낫 상자 만들앙, 이 노끗으로 그레 이렇게 이렇게, 이축 이축 허멍예 주낫 한 발, 아니 이만, 한 발, 일 메타 정도에 낚시 하나 무끄고 아래 무끄고 또 일 메타 정도에 무끄고 헹 백 오십 가락.

김순자 으.

오연수 한 상자에 백 오십 가락 만들앙 이 오징어.

김순자 으.

오연수 강원도 오징어, 강원도 오징어 사다근에 썰엉 요만큼씩 썰엉 그걸 백오십 가닥에 전부다 뀁니다.

김순자 니껍.

오연수 예, 니껍으로 꿰여근어 그거를 아침이 새벽 혼 다섯 시만 뒈 가민 바다에 가, 가근에 그거를 여기 다 처음 올 때 그 그물을, 음 솔라니 잡는 상자가 한 오십 개썩 헹 가마씨.

김순자 아.

오연수 오십 개썩, 육십 개썩 헹 갑니다. 겡 가근에 그거를 하나로 무끄면서 무끄면서 일자로 다 놉니께. 여기서 가파도든 마라도든 뭐 엄청 길게 놔 가. 경 놔근에 다 놓면은 막 바로 그 처음에 놔난 딜로.

김순자 예.

오연수 그거 걷으는 거라예. 손으로 옛날에는 손으로만 걷어신디 지금은 로라로, 로라도 걷어. 경헨 그거 걷어오면 또, 우리도 주낫 하영 셔낫수다게. 그 솔라니 잡는 주낫은.

김순자 아, 예.

오연수 거난 알암십주. 경헤신디 요 근래는 솔라니 주낫 헌 사름이 아파부난 요즘 못 감주.

김순자 게민 이 동네는 솔라니 주낫 허는 사름이 혼 사람뿐.

오연수 예, 막 으라 개랏수다. 배 으라 척이랏당 힘, 너미 힘 드난 안 허여.

김순자 건 멀리 가야 뒈는 거 아니라 바다양?

오연수 예, 멀리 가야. 혼 두 시간 배질헹 가야 뒈.

김순자 아. 이 동네 보니까 덤장 배들도 하영 헷덴 허멍양?

오연수 덤장 밴 하나.

김순자 덤장 밴 하나. 그 덤장이 뭔지 좀 골아줘 붑서.

오연수 덤장은 옛날에는 각 어촌계마다 덤장이 잇어낫수다.

김순자 으.

오연수 게난 도 수산과에서가 이거는 잔잔한 고기도 다 씨를 말린덴 헨에 그거를 못 허게 많이 허십주게. 많이 헨에 거의 철거허다시피 헤신디 제주도에 아마 열다섯 군데베끼 엇일 거로 봐예. 나가 보기로는. 견디 그 덤장 헌 것이 처음에 헐 때는 고기를 많이 잡혓수다. 견디 지금은 한 군데만 덤장을 허니까 그 자리가, 덤장 놓는 자리가 막 썩언예.

김순자　예.

오연수　썩어가난 고기가 이젠예, 화순 축항이 저렇게 막 그 삼발이로 길게 막 헤 나가는 따문에 물 아가리가 이렇게 막아져 가난 이렇게 고기가 안 들어예. 안 들언에 덤장에도 별로 돈을 못 벌엄수다게.

김순자　음.

오연수　이 덤장에는 이 육지에도 한 번씩 테레비에 보면은 덤장헤근에 걷어 올리는 거 보면 잡동 고기덜 다 들지 안 헷수과. 그 식이라마씨. 덤장헤근에 벨 뭐, 뭐 허다 못해 거북이도 들고 상어도 들고 벨 거 다 들어예. 벨 거 다 들어근에 허는 디 이 깊은 디는 못 가마씨. 것도 한 십오 메타, 이십 메타 덤장은. 그런 식으로 허는 디 육지나 마찬가지라 덤장은 똑ᄀᆞ타마씨. 육지에 가서 그 덤장을 뽄 따당 만들아근에 그런 식으로 놓기 때문에 덤장 똑같애마씨. 경헌 디 덤장이 많이 엇입주 제주도는. 육지에는 많이 싯수다, 육지에는예. 우리도 육지 교육을 가 보민 바닷가 쪽으로만 쭉 가면은 어디 어느 어촌계 덤장 없는 어촌계 어십디다. 어느 어촌계나 다 덤장 이십디다.

김순자　음, 알앗수다. 혹시 삼춘 물질 허멍 그 잊어불지 못 허는 그런 거 이시카마씨?

임중자　예게. 전복 트다가 숨 다 먹엉 아이고 이거, 이거 떼지 못허영 올라갓당 또 내려왕 떼야, 그런 생각만.

김순자　음, 삼춘도 그런 경험 잇어마씨?

임중자　문어도 경 단판에, 문어가 너무 엄청 쎄여가지고 막 문어 사는 디가 고망이 막 너무 긴 디 들어가마씨. 어떤 때 작살 이실 때 작살로 그걸 그냥 막 그걸 건드려 가고.

김순자　음.

임중자　것이 힘이 못 견뎌가민 힘 엇이민 호멩이로 강 걸려오는 수도 잇고. 옛날엔 속곳 입엉 헐 때 ᄉᆞ못 추웡 불 추멍 나무 아졍 강, 질구덕에 나무 졍 가근에 불 때영 ᄉᆞ못 추우민 불 추고.

김순자　그 불 추는 디를 뭐렌 헙니까, 여기서는?

오연수　불턱.

김순자　불턱예.

오연수 불턱.

김순자 불턱헤 갓고 이제 허고 그 지들커 안 가져가고 허민 막 욕 듣고 헷덴 허멍.

오연수 예, 맞수다.

임중자 그 물도 무슨 그 찬물에 헤우는 축 마는 축 헹 확 갈아입엉 춥곡 허민 허영 앚아근에 모여앚앙 불 초앙 허민.

김순자 예, 그런 식으로 허고예, 예, 알앗수다.

임중자 나무 덜 가졍 왓당, 많이 가졍 왓다 우리끼리덜 허멍 그렇게 앚앙.

김순자 너무 춥게 허니까 그것도 한 거 같아예.

임중자 나무덜 골로로 잘 아졍가면 우리가 몸을 풀리게 잘 출 건디 적으민 몸을 싹 허게 거기서 못 풀려 놓민 신경이 나 가지고덜 너는 많이 가져왓다 너는 덜 가져왓다 헤근에. 엿날 뭐 허민 보릿대, 보릿대 그것도 멧 개썩 가졍 강 거 나무 뗄 때는 그것도 우선 살려가지고,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를 짇어 가지고 허여근에 모여 앚앙.

김순자 예, 알앗수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수강생들 물에 들어가면, 한 번 물에 들어가면 그 작업을 몇 시간 동안이나 헴수과?

오연수 옛날에는 고무옷 안 입어근에 속곳만 입을 때는예 삼십 분도 못 살아마씨. 옛날에는 추워서. 삼십 분도 못 살고 지금은 이 우리, 제주도 어촌계가 백 개 우다예. 백 개 어촌곈데, 우리 대평 난드르 어촌계는 이제 십육 년, 십칠 년이 뒈신디예 소라 잡을 때 한 번 들어가면 시간 제한이 잇어예. 시간 제한이 잇엉 아침에 아홉 시에 들어가면 두 시고 세 시고 네 시고 막 무장 살앗수다. 무장 살다보면 해녀 병도 많이 나고 잠수 병도 많이 나고 바다에서 죽는 해녀도 잇고 막 그렇게 또 자원도 막 파괴가 되고 그렇게 헤신디 한 십육 년, 십칠 년 전부터는 우리는 단체로 어촌계 해녀들 단체로 회의를 헤가지고 딱 세 시간 반에서 네 시간.

수강생들 한 번 들어가서?

오연수 한 번 들어가서. 딱 깃발을 들릅니다 깃발. 깃발을 만들어서 들어서 안 나오면은 자기덜끼리 그 해녀덜이 막 뭐렌 헙니다. 왜 안 나왓냐고. 딱 세 시간 반에서 길면 네 시간 일하고 나옵니다.

수강생들 수입은 공동으로 나눈다는 말이 있던데?

오연수 공동 안 헙니다. 각자 자기만썩. 겐디 공동으로 허는 바다도 잇수다. 할망바당이라고, 에 우리가 할망 바당이라고 만들아서 도에 가서 지원을 받아 오면은 돌은 투석을 헤주십사 허고. 돌 이만큼씩 저만큼씩 큰 돌을 헤서 종묘 씨 집어 놓면은 밖으로 못 나가게끔 헹 일년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거기로 공동바다로 헹 다 같이 들어가예. 들어가근에 캐 내면은 그 간 사람들 한에서 쪼금 쪼금 팔아서 똑같이 돈도 나누고 안 그러면은 공금으로, 우리 어촌계 공금으로 씁니다.

이 자료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2016년 11월 6일에 실시한 '현장에서 배우는 제주어-2016제주어 학교' 교육으로 진행한 대평리 해녀의 구술 채록 내용을 전사한 것이다.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Ⅳ |안덕면 편|

발행일 2016년 12월 27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http://museum.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TEL. (064)710-7693 FAX. (064)710-7709
인쇄처 디자인오투 TEL. (064)743-9252

ISBN 979-11-87075-03-5 93090

[非買品]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비매품

93090

9 791187 075035

ISBN 979-11-87075-03-5